



승인 (협의) 번호  
제 142017 호

#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6 Survey of High Potential Enterprise

2017. 1



중소기업청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 이용자를 위하여

1. 2016년 중견기업실태조사는 중견기업 실태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5년 최초로 국가승인을 받고, 2014년말 기준 중견기업 2,979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경영 등 실적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를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es)한 것으로, 기존 실태조사 값과 비교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음. 즉, 각 항목의 구성비 분석에는 유용하나 절대 규모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약을 갖고 있음
2. 통계표의 모든 통계수치는 반올림상의 차이로 인해 세부항목의 합과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통계표 중 복수응답 설문은 기업체 구성비 합계가 100.0을 초과함
4. 중견기업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042-481-6816) 또는 중견기업연합회(02-3275-2108)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및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http://www.hpe.or.kr))에서도 볼 수 있음





## 요 약



### 1.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 ☐ 조사 대상

- 2014년말 기준 중견기업
- 조사기준시점 : 2015년 12월말 기준

#### ☐ 조사 내용

- 조사는 기업 일반현황,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기술혁신, 인재확보, 국제화 촉진,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금융 및 자금조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8개 부문, 62개 문항으로 구성

#### ☐ 중견기업 특성

- 전체 중견기업은 2,979개 기업으로 일반중견기업 2,379개(79.9%), 관계기업 600개(20.1%)
- 업종별로는 제조업(1,331개)이 44.7%, 비제조업(1,648개)이 55.3%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상세업종별로는 1차금속·금속가공 173개(13.0%), 전자부품 통신장비 170개(12.8%), 자동차·트레일러 165개(12.4%) 순으로 분포
  - 비제조업 상세업종별로는 도·소매업 381개(23.1%), 출판·통신·정보 서비스업 263개(16.0%), 건설업 209개(12.7%), 부동산·임대업 170개(10.3%) 순으로 분포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55.2%로 가장 많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응답기업 비중이 낮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인 기업이 48.3%로 가장 많고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응답기업의 비중이 낮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인 기업이 41.3%로 가장 많고, 0~7년 미만인 기업이 12.2%로 20년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3%정도 차지함

- 기업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4~5년차 기업이 3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견기업의 21.6%는 비상장기업이며 78.4%는 상장기업

[표 1] 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2,979)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9.9
	관계기업	(600)	20.1
업종	제조업	(1,331)	44.7
	비제조업	(1,648)	55.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4.3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28.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12.9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18.8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11.2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7.9
	5천억원~1조원미만	(151)	5.1
	1조원이상	(57)	1.9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22.8
	50~100명미만	(758)	25.4
	100~200명미만	(454)	15.2
	200~300명미만	(289)	9.7
	300~500명미만	(351)	11.8
	500~1,000명미만	(301)	10.1
	1,000명이상	(146)	4.9
업력	0~7년미만	(364)	12.2
	7~20년미만	(1,229)	41.3
	20~30년미만	(576)	19.3
	30~40년미만	(351)	11.8
	40~50년미만	(270)	9.1
	50년이상	(189)	6.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29.9
	진입4~5년차	(1,042)	35.0
	진입6~9년차	(656)	22.0
	진입10년차이상	(391)	13.1
상장	상장	(644)	21.6
	비상장	(2,335)	78.4

\* 매출규모, 종사자수 등은 2014년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실적을 대입하여, 2015년 조사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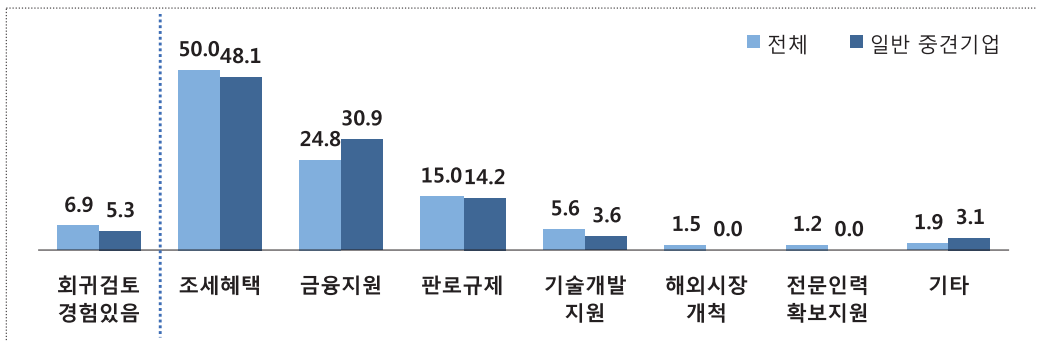
## 2.1.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및 검토 요인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6.9%, 일반 중견기업은 5.3%로 나타남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50.0%가 조세혜택을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금융지원(24.8%), 판로 규제(15.0%) 순임

[그림 1] 회귀검토 여부 및 회귀검토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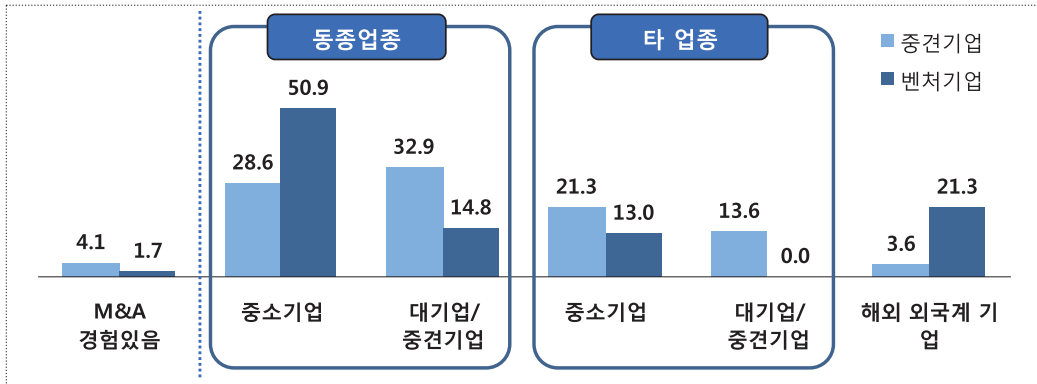


### □ 인수합병(M&A)

- 2015년 중견기업의 4.1%는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험한 인수합병의 형태에 대해서, 중견기업은 동종업종의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32.9%)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동종업종의 중소기업과 인수합병(28.6%), 타 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21.3%)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은 동종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5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 외국계 기업과의 인수합병(21.3%), 동종업종의 대기업/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14.8%), 타 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13.0%)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인수합병(M&A) 경험 유무 및 인수합병(M&A)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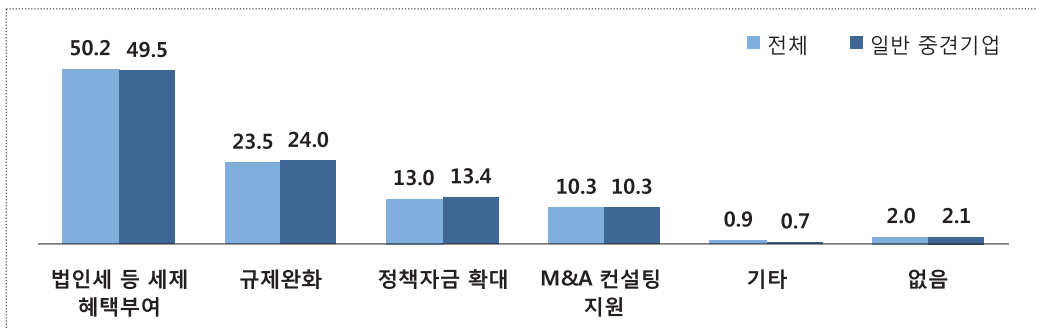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50.2%)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규제 완화(23.5%), 정책자금 확대(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49.5%), 규제완화(24.0%), 정책자금 확대(13.4%) 순임

[그림 3]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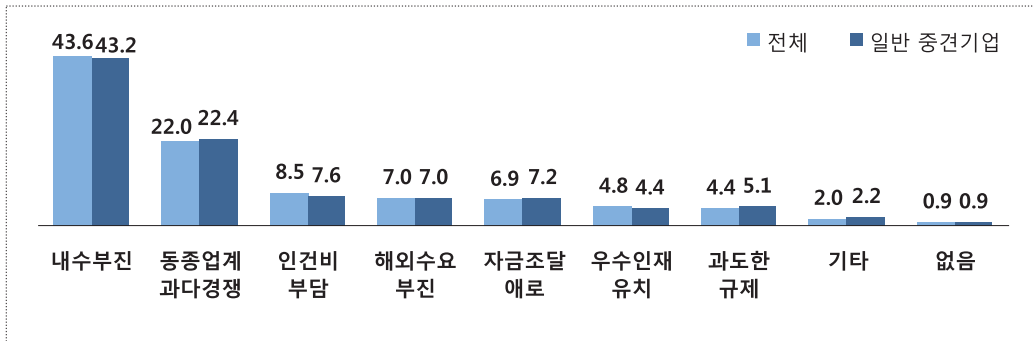


#### □ 경영 애로사항

- 중견기업은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43.6%)을 꼽았으며, 이어서 동종업계 과당경쟁(22.0%), 인건비 부담(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내수부진(43.2%), 동종업계 과다경쟁(22.4%), 인건비 부담(7.6%) 등의 순임

[그림 4] 경영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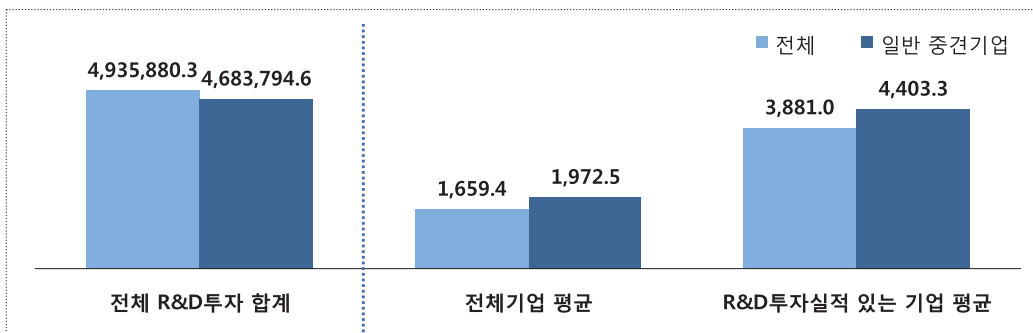
## 2.2. 기술 혁신

### □ R&D 및 설비 투자

- 중견기업은 R&D에 총 4조 9,35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16.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38.8억을 투자함
  - 일반 중견기업은 4조 6,838억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19.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44.0억을 투자함

[그림 5] 2015년 R&D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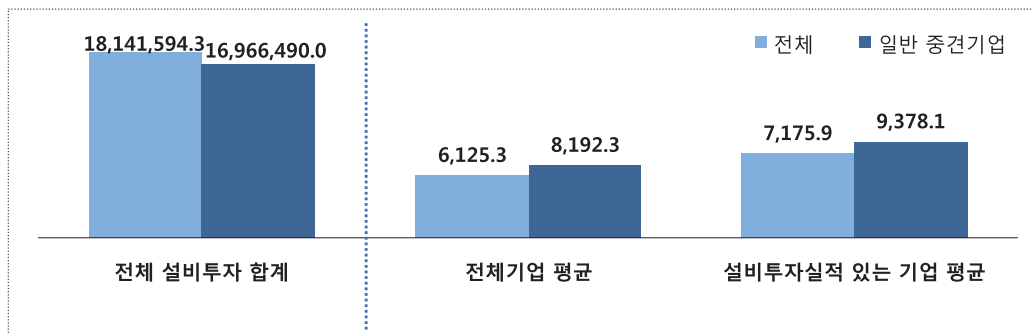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중견기업은 설비에 총 18조 1,41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61.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71.8억을 투자함
  - 일반 중견기업은 16조 9,665억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81.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93.8억을 투자함

[그림 6] 2015년 설비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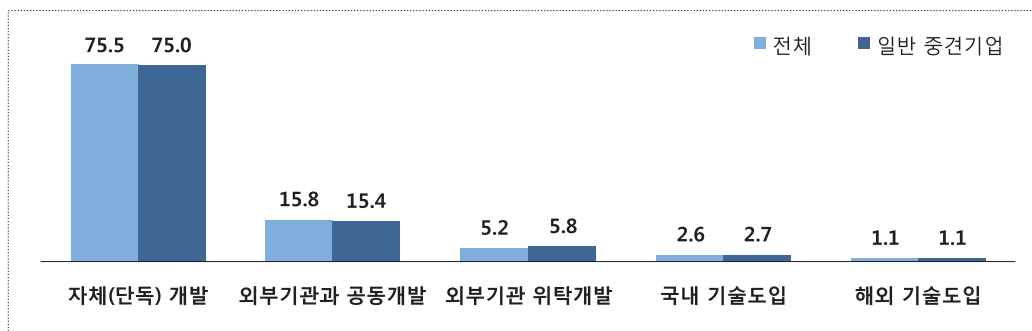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중견기업은 기술개발 시 자체개발하는 비중이 75.5%로 가장 높고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5.8%), 외부기관 위탁개발(5.2%), 국내 기술도입(2.6%), 해외기술 도입(1.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자체개발(75.0%),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5.4%), 외부기관 위탁개발(5.8%), 국내 기술도입(2.7%), 해외 기술도입(1.1%) 순임

[그림 7] 기술개발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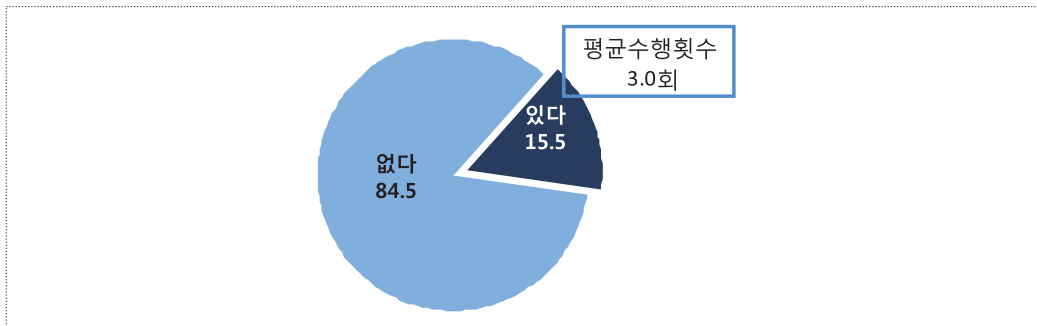


## □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 중견기업의 15.5%는 2015년에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행한 기업들의 평균 수행횟수는 3.0회로 나타남

[그림 8] 정부지원 R&D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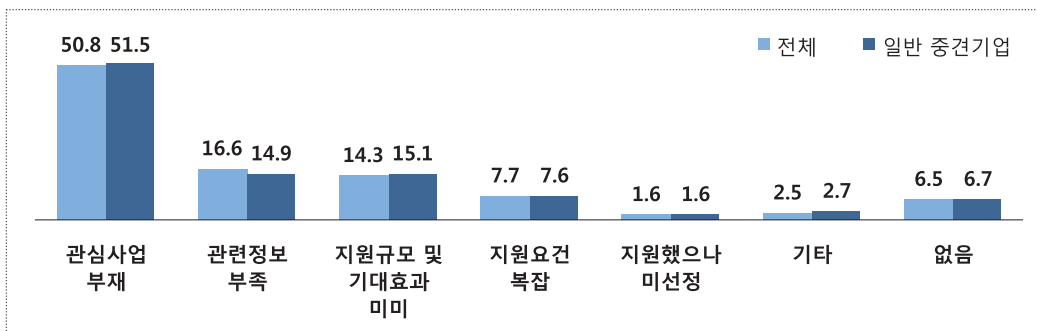
(단위: %)



-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이 없는 기업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관심사업의 부재(50.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관련정보 부족(16.6%),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4.3%), 지원요건 복잡(7.7%)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관심사업의 부재(51.5%),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5.1%), 관련정보 부족(14.9%), 지원요건 복잡(7.6%), 지원했으나 미선정(1.6%), 기타(2.7%), 없음(6.7%) 순임

[그림 9]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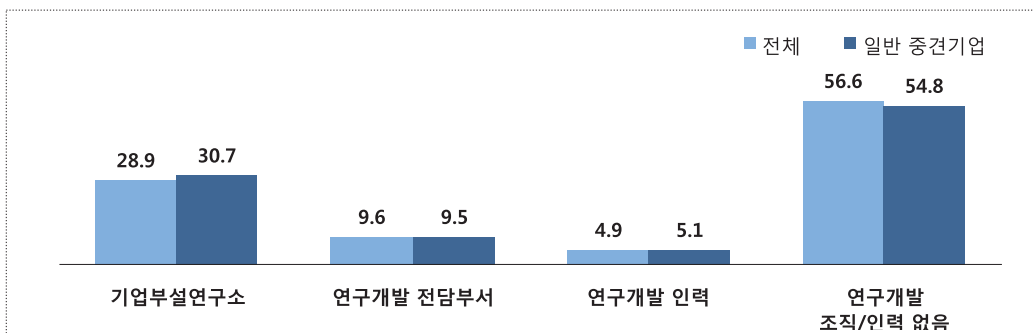


## □ 연구개발 조직 형태

- 중견기업의 28.9%는 기업부설연구소를, 9.6%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4.9%는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평균 33.6명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30.7%), 연구개발 전담부서(9.5%), 연구개발인력(5.1%) 순임

[그림 10] 연구개발 조직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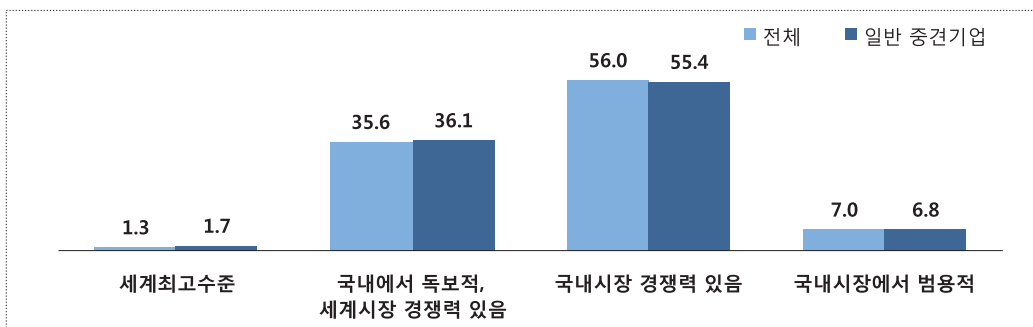


## □ 주력기술 수준

-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이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이 1.3%, 일반 중견기업이 1.7%로 나타남
  - 주력기술 수준에 있어서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비중이 중견기업 35.6%, 일반 중견기업 36.1%로 각각 높게 나타남

[그림 11] 주력기술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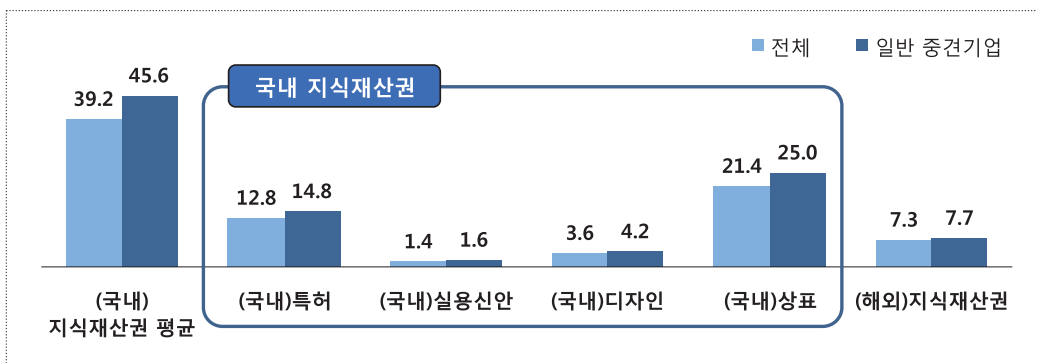


## □ 지식재산권

- 중견기업당 평균 39.2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21.4건, 특허 12.8건, 디자인권 3.6건, 실용신안권 1.4건 순으로 보유함
  - 일반 중견기업당 평균 45.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25.0건, 특허 14.8건, 디자인권 4.2건, 실용신안권 1.6건 순으로 보유함

[그림 12]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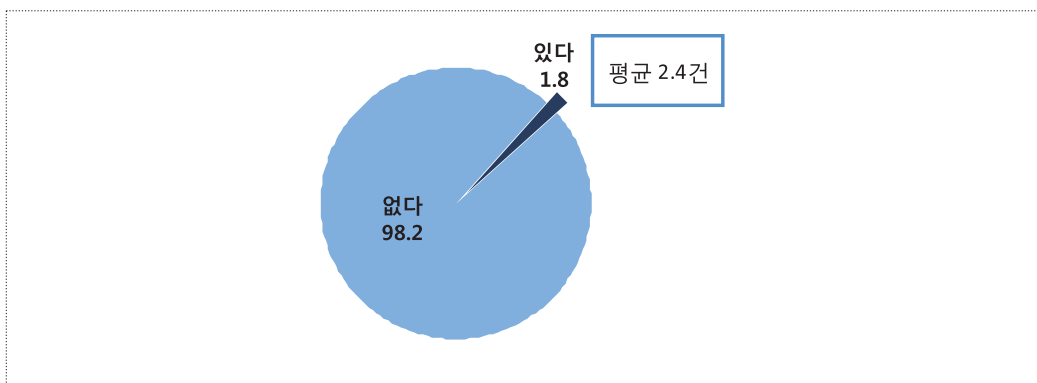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1.8%는 2015년에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으며, 침해당한 기업들이 평균 건수는 2.4건으로 나타남

[그림 13]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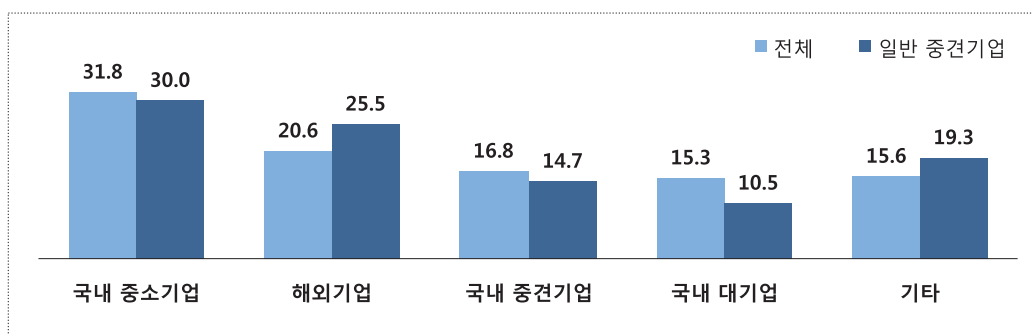
(단위: %)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주체에 대해,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31.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기업(20.6%), 국내 중견기업(16.8%), 국내 대기업(15.3%)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30.0%), 해외기업(25.5%), 기타(19.3%), 국내 중견기업(14.7%), 국내 대기업(10.5%) 순임

[그림 14]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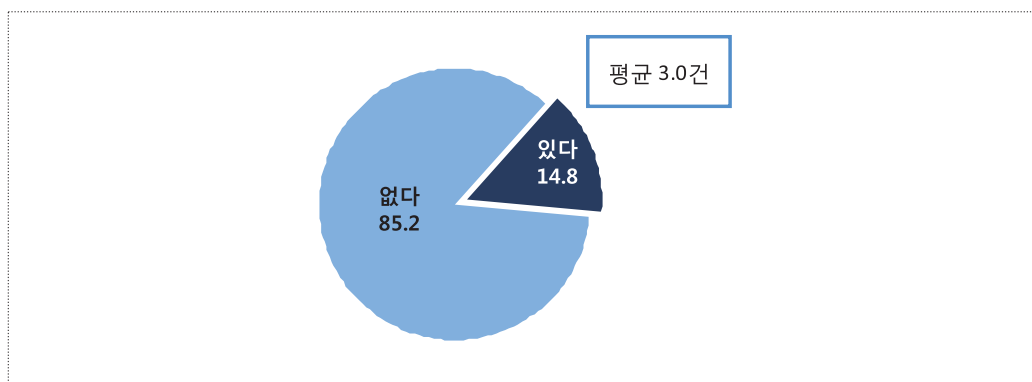


## □ 산학협력 활동

- 중견기업의 14.8%는 2015년에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활동한 기업들의 평균 건수는 3.0건으로 나타남

[그림 15] 산학협력 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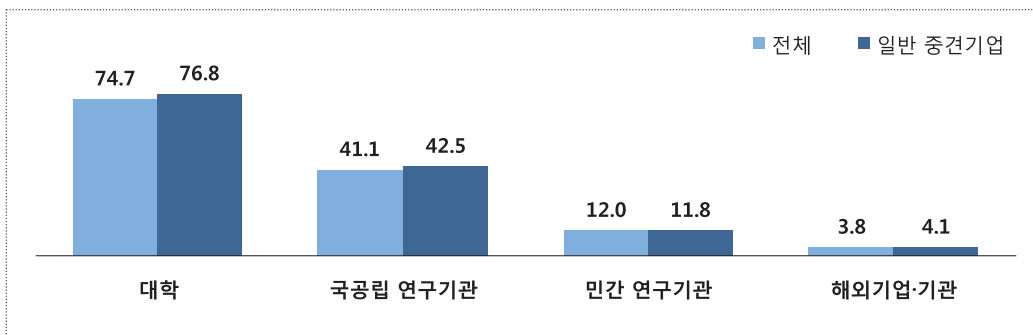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산학협력기관으로는 대학(74.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공립 연구기관(41.1%), 민간 연구기관(12.0%), 해외기업·기관(3.8%)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76.8%), 국공립 연구기관(42.5%), 민간 연구기관(11.8%), 해외기업·기관(4.1%) 순임

[그림 16] 산학협력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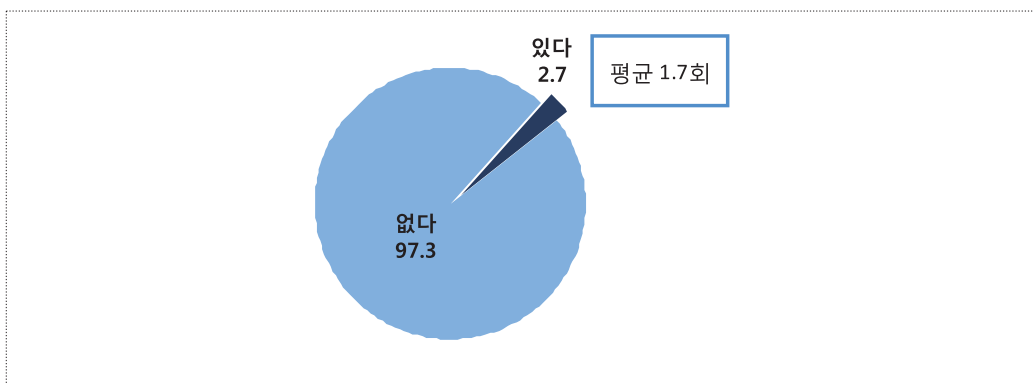


## □ 기술이전

- 중견기업의 2.7%는 2015년에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균 횟수는 1.7회로 나타남

[그림 17] 기술이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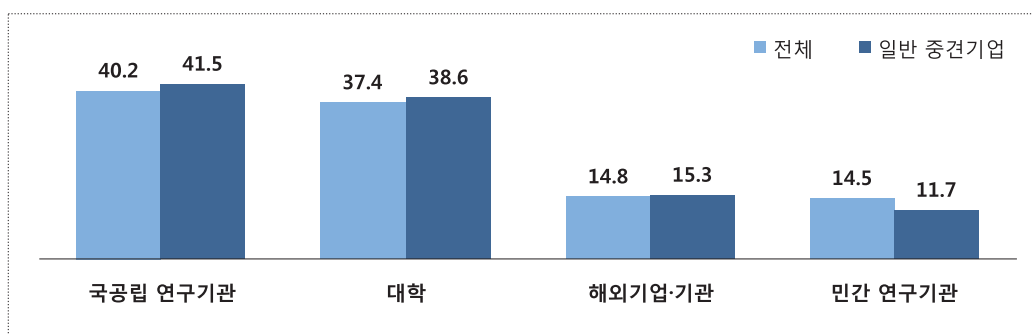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처로는 국공립 연구기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학(37.4%), 해외기업·기관(14.8%), 민간 연구기관(14.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국공립 연구기관(41.5%), 대학(38.6%), 해외기업·기관(15.3%), 민간 연구기관(11.7%) 순임

[그림 18] 기술이전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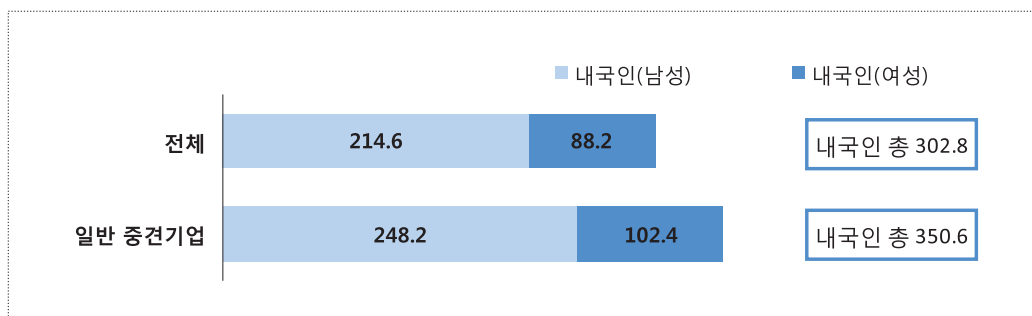
## 2.3. 인재확보

### □ 인력 현황

-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302.8명, 남성 214.6명, 여성 88.2명임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350.6명, 남성 248.2명, 여성 102.4명임

[그림 19] 중견기업 인력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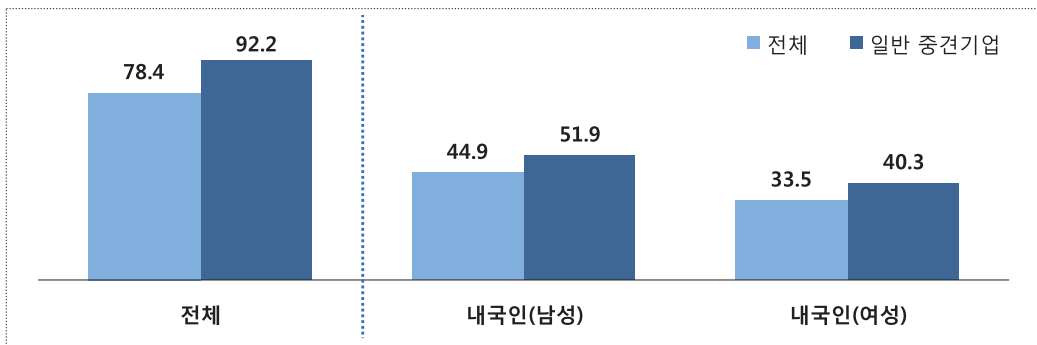


## □ 신규 채용

- 중견기업은 2015년 총 231,838명을 채용하였으며, 평균 78.4명(남성 44.9명, 여성 33.5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총 217,799명을 채용하였으며, 평균 92.2명(남성 51.9명, 여성 40.3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0] 2015년 채용실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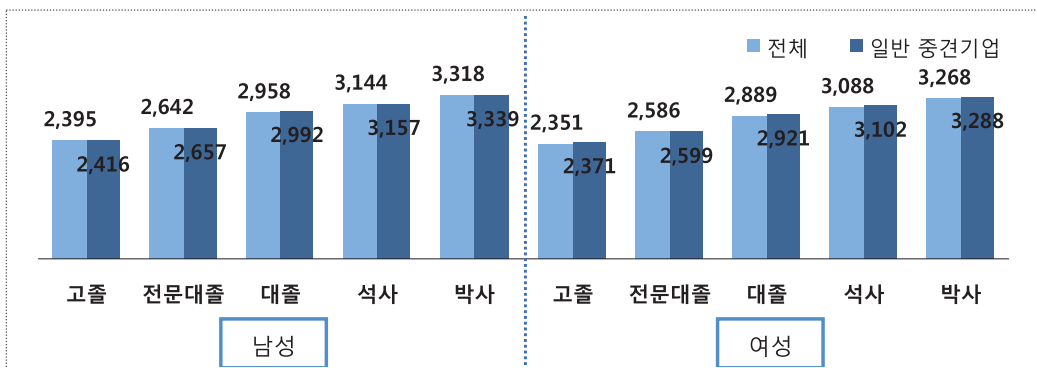


## □ 신입사원 초임

- 신입사원 초임 수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그림 21] 신입사원 초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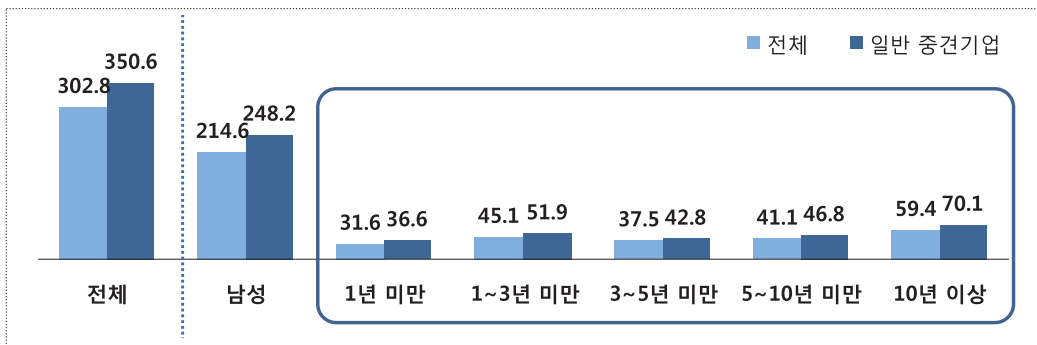


## □ 재직연수

-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59.4명, 1~3년 미만 45.1명, 5~10년 미만 41.1명, 3~5년 미만 37.5명, 1년 미만 31.6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70.1명, 1~3년 미만 51.9명, 5~10년 미만 46.8명, 3~5년 미만 42.8명, 1년 미만 36.6명 순임

[그림 22] 재직연수별 현황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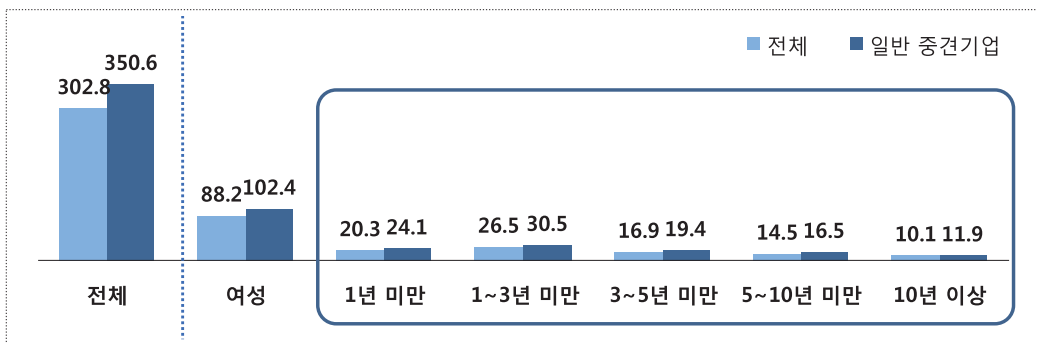
(단위: 명)



-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26.5명, 1년 미만 20.3명, 3~5년 미만 16.9명, 5~10년 미만 14.5명, 10년 이상 10.1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30.5명, 1년 미만 24.1명, 3~5년 미만 19.4명, 5~10년 미만 16.5명, 10년 이상 11.9명 순임

[그림 23] 재직연수별 현황 - 여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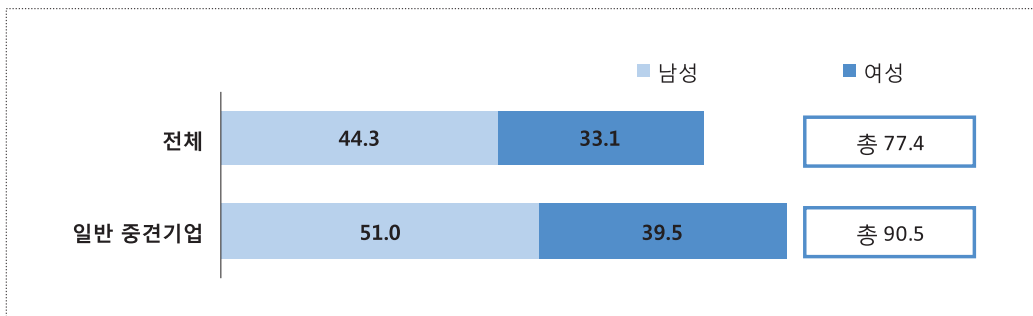


## □ 이직

-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77.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44.3명, 여성 33.1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5.3%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90.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51.0명, 여성 39.5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5.6%로 나타남

[그림 24] 이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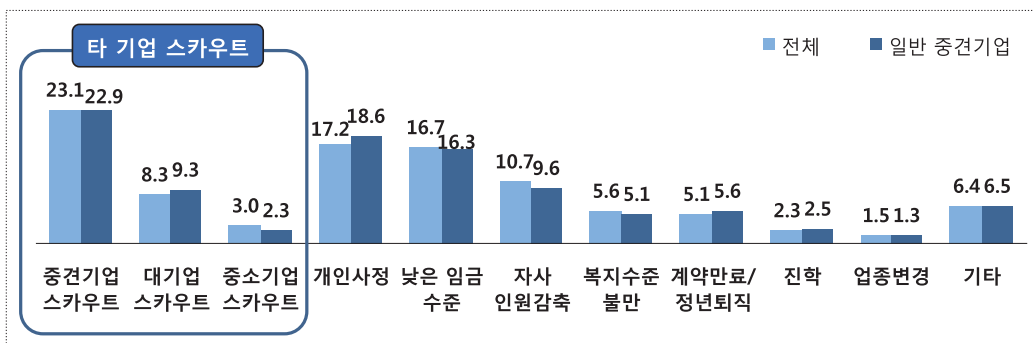
(단위: 명)



- 중견기업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타 기업 스카우트 34.4%(중견기업 스카우트(23.1%), 대기업 스카우트(8.3%), 중소기업 스카우트(3.0%)), 개인사정(17.2%), 낮은 임금수준(16.7%), 자사 인원감축(10.7%)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타 기업 스카우트 34.5%(중견기업 스카우트(22.9%), 대기업 스카우트(9.3%), 중소기업 스카우트(2.3%)), 개인사정(18.6%), 낮은 임금수준(16.3%), 자사 인원감축(10.7%) 순임

[그림 25] 주요 이직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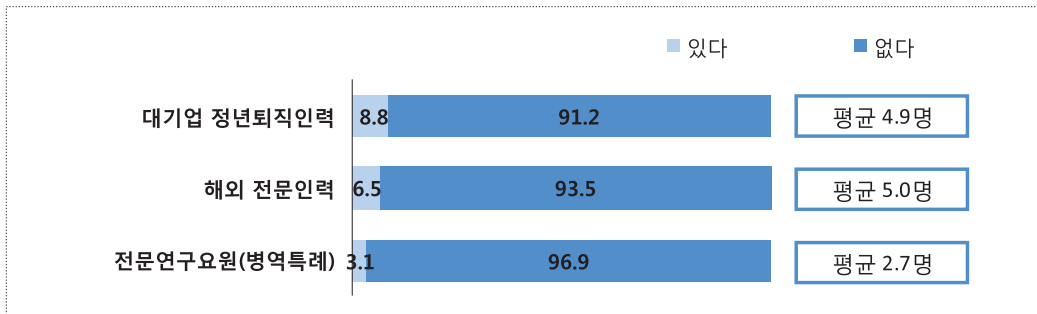


## □ 유형별 보유인력

- 중견기업의 8.8%는 대기업 정년퇴직인력을, 6.5%는 해외 전문인력을, 3.1%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년퇴직인력 평균 4.9명, 해외 전문인력 평균 5.0명,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평균 2.7명을 보유함

[그림 26] 유형별 보유인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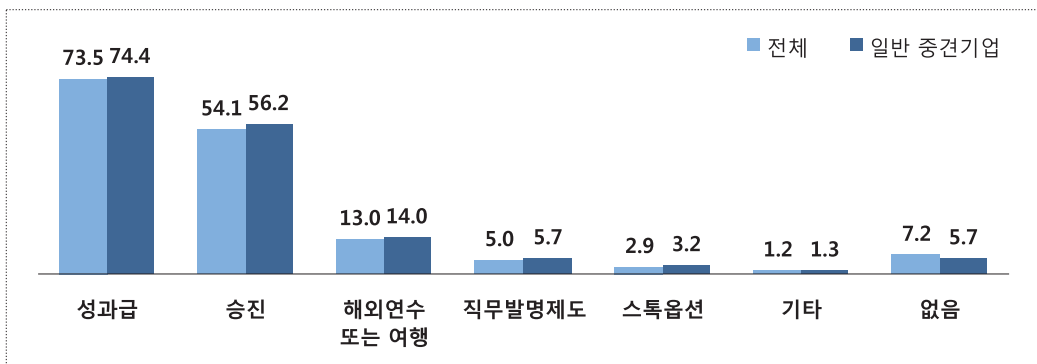


## □ 성과보상 제도

- 중견기업의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7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승진(54.1%), 해외연수 또는 여행(13.0%), 직무 발명제도(5.0%)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성과급(74.4%), 승진(56.2%), 해외연수 또는 여행(14.0%), 직무 발명제도(5.7%) 순임

[그림 27] 성과보상 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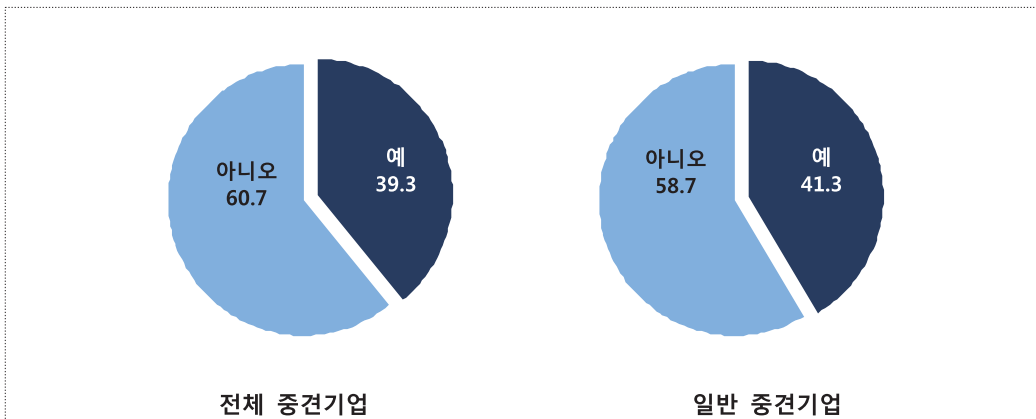
## 2.4. 국제화 촉진

### □ 수출

- 중견기업 전체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9.3%이며, 일반 중견기업은 41.3%가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 해외 수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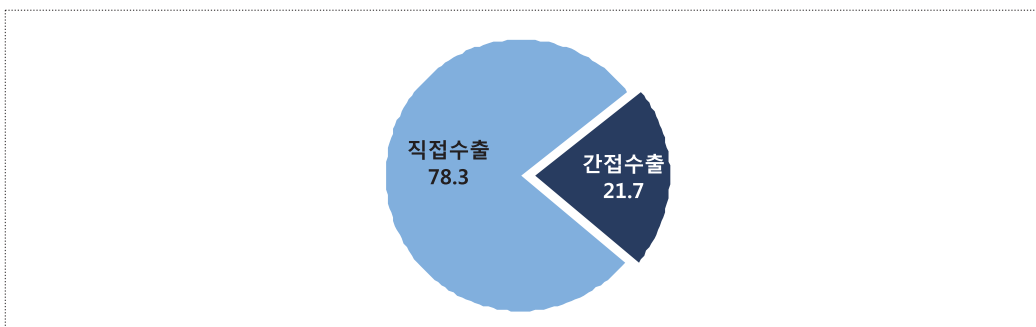


### □ 직/간접수출 비중

- 전체 수출 중견기업 중 직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78.3%,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21.7%로 직접수출 비중이 간접수출 비중의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직/간접수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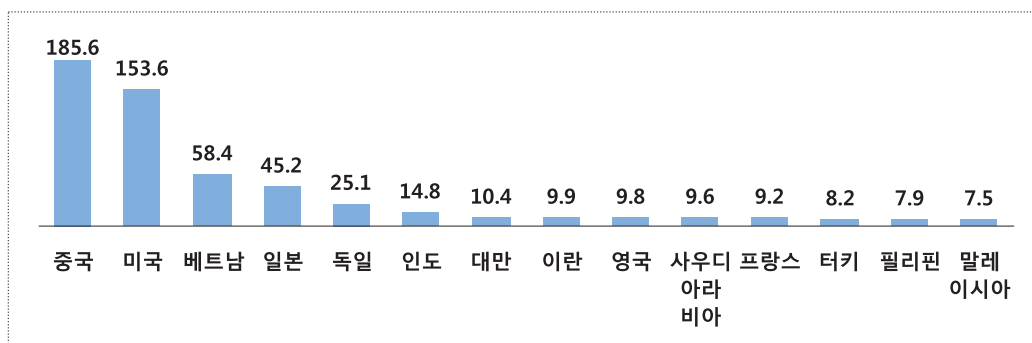


## □ 주요 수출지역 및 금액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전체 수출금액은 686.5억불이며, 수출한 국가는 중국(185.6억불), 미국(153.6억불), 베트남(58.4억불), 일본(45.2억불) 순으로 나타남

[그림 30] 주요수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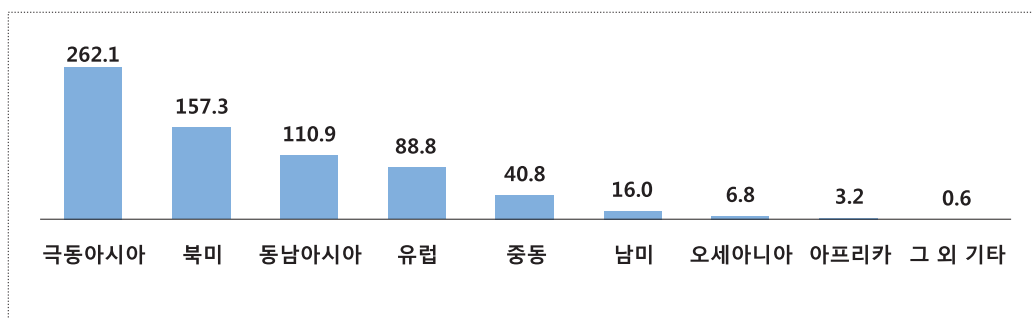
(단위: 억불)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전체 수출금액은 686.5억불이며, 수출 대륙은 극동아시아(262.1억불), 북미(157.3억불), 동남아시아(110.9억불), 유럽(88.8억불)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주요수출 대륙별 수출금액

(단위: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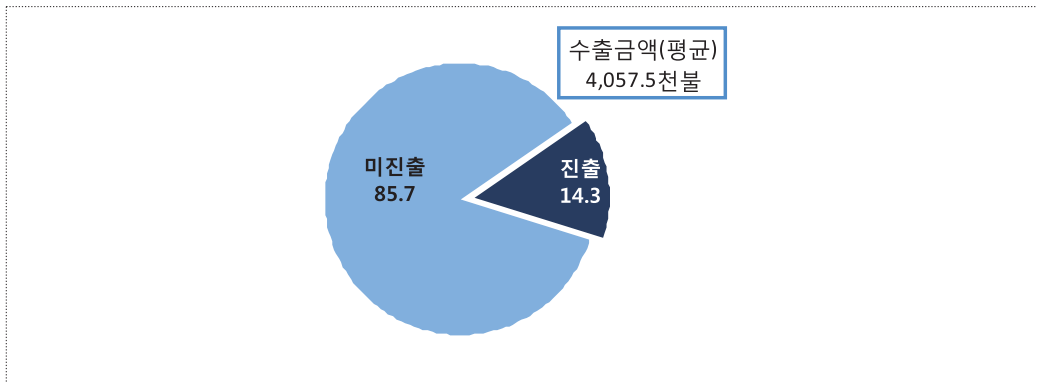


## □ 해외 신규 진출

- 2015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14.3%이며, 이들의 수출평균 금액은 4,057.5천불로 나타남

[그림 32] 신규 진출 국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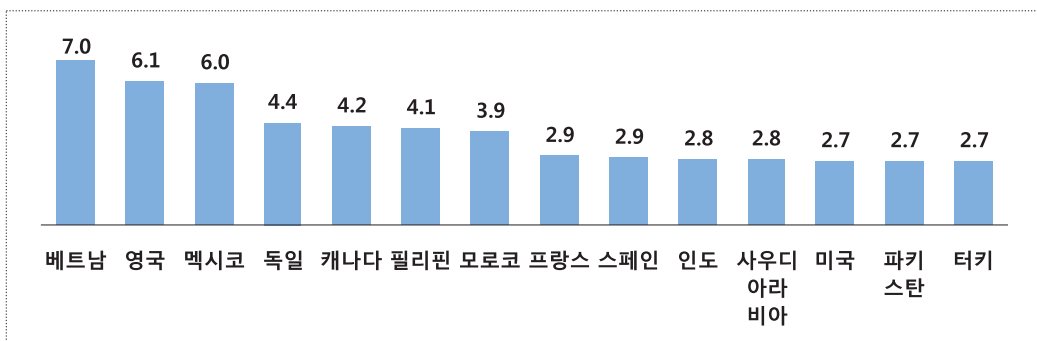


## □ 신규 진출 지역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지역으로는 베트남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국(6.1%), 멕시코(6.0%), 독일(4.4%), 캐나다(4.2%), 필리핀(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 신규 진출 국가(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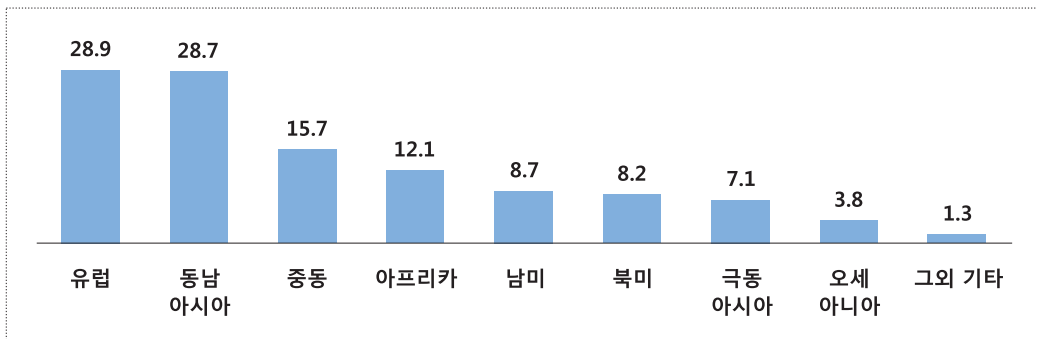
(단위: %)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 대륙으로는 유럽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28.7%), 중동(15.7%), 아프리카(12.1%), 남미(8.7%), 북미(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 신규 진출 대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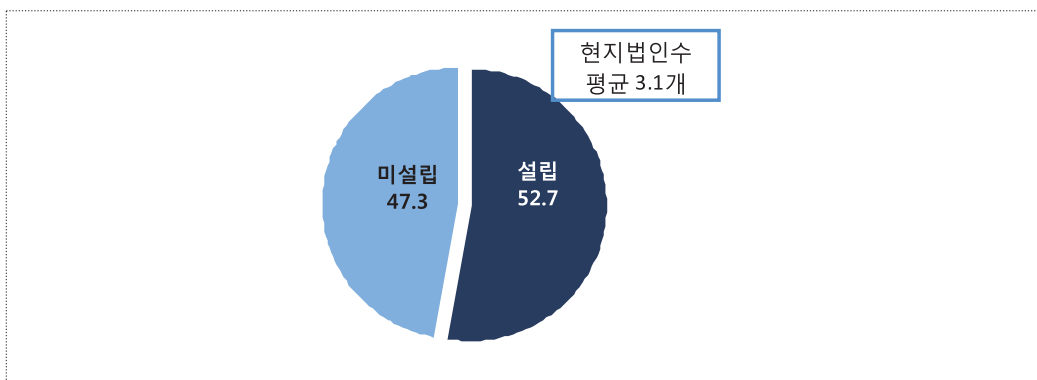


## □ 현지법인 설립

- 수출기업 중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52.7%이며, 기업당 평균 3.1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현지법인 설립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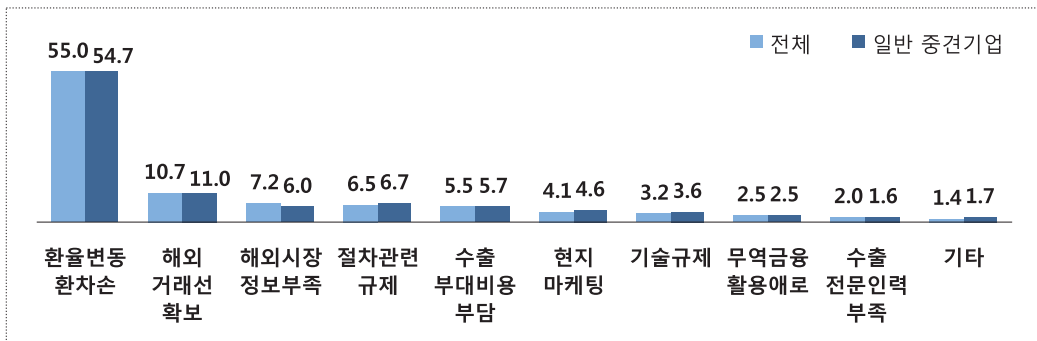


## □ 수출시 애로사항

- 수출 중견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으로는 환율변동 환차손(5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 거래선 확보(10.7%), 해외시장 정보부족(7.2%), 절차관련 규제(6.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환율변동 환차손(54.7%), 해외 거래선 확보(11.0%), 절차관련 규제(6.7%), 해외시장 정보부족(6.0%) 순임

[그림 36] 수출시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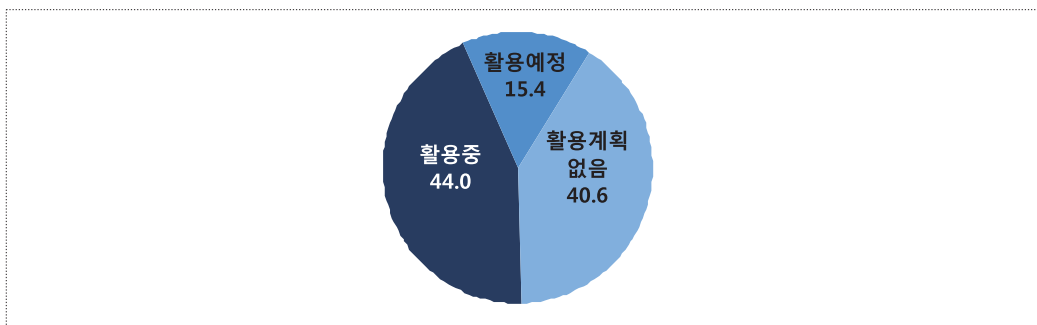


## □ FTA 활용 여부

- 수출 중견기업 중 FTA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4.0%, 활용예정 기업은 15.4%, 활용예정인 없는 기업은 40.6%로 나타남

[그림 37] FTA 활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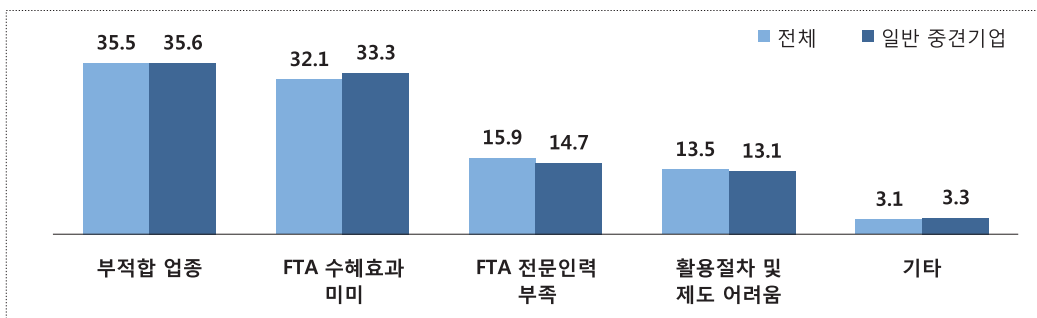


## □ FTA 미활용 사유

- 수출 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사유는 부적합 업종(35.5%)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FTA 수혜효과 미미(32.1%), FTA 전문인력 부족(15.9%)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부적합 업종(35.6%), FTA 수혜효과 미미(33.3%), FTA 전문인력 부족(14.7%) 순임

[그림38] FTA 미활용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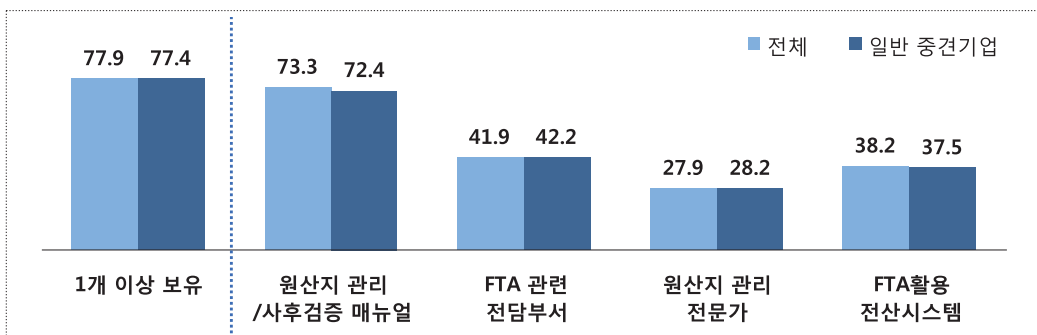


## □ FTA 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 FTA를 활용하는 중견기업의 77.9%는 1개 이상의 FTA 관련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73.3%), FTA관련 전산부서(41.9%)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 FTA를 활용하는 일반 중견기업의 77.4%가 1개 이상의 FTA 내부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72.4%), FTA관련 전담부서(42.2%)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9]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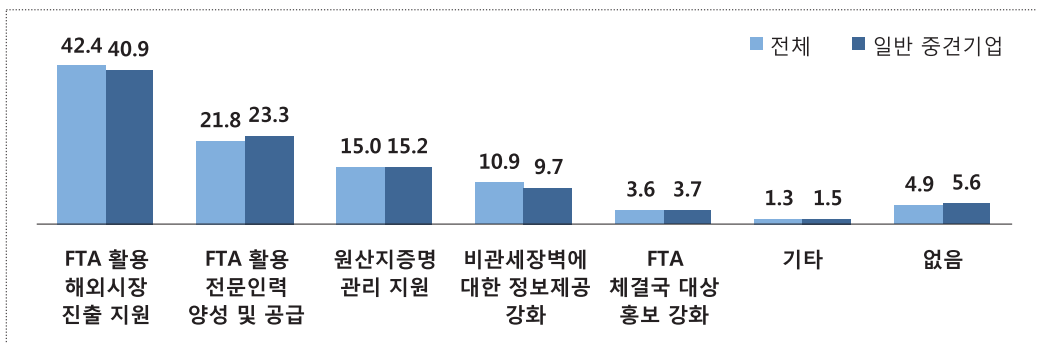


##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42.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21.8%),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5.0%),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0.9%)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지원(40.9%),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23.3%),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5.2%) 순으로 응답함

[그림 40]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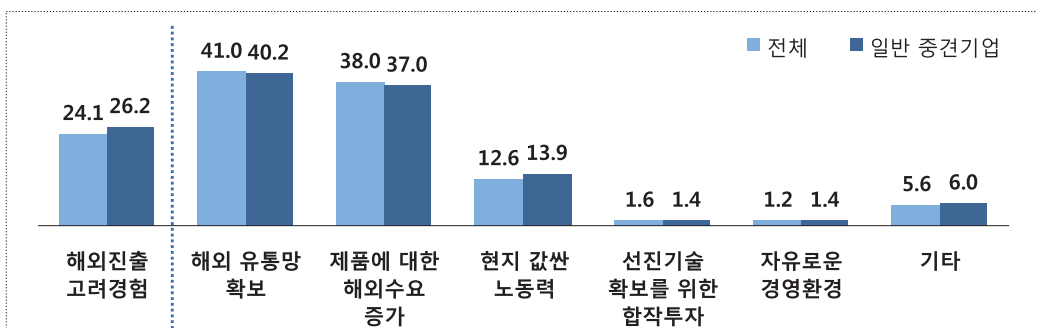


## □ 해외진출 고려 여부

-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유통망 확보(41.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8.0%), 현지 값싼 노동력(12.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26.2%가 향후 해외진출 고려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고려 기업의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유통망 확보(40.2%),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7.0%), 현지 값싼 노동력(13.9%) 순임

[그림 41] 해외진출 고려 여부 및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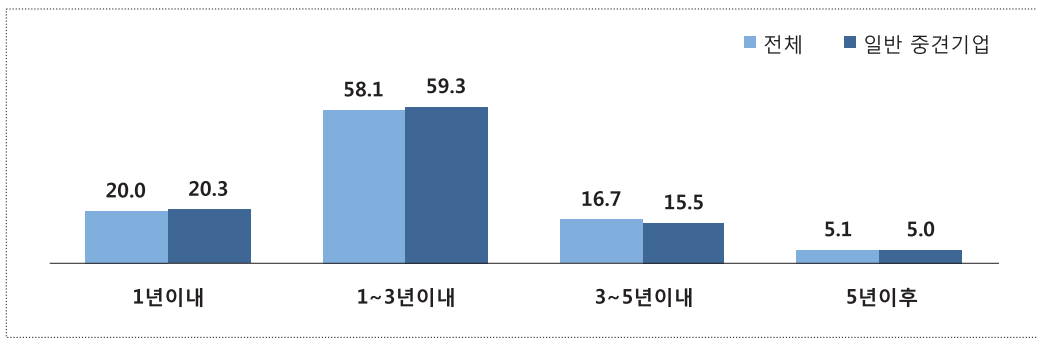


## □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신규 해외 진출 계획 시점은 1~3년 이내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 이내(20.0%), 3~5년 이내(16.7%), 5년 이후(5.1%)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1~3년 이내(59.3%), 1년 이내(20.3%), 3~5년 이내(15.5%), 5년 이후(5.0%)의 순임

[그림 42]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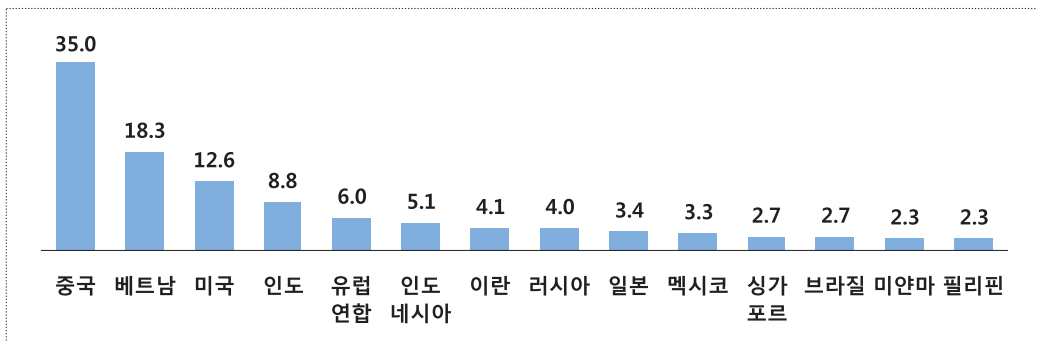


## □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 향후 신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18.3%), 미국(12.6%), 인도(8.8%), 유럽연합(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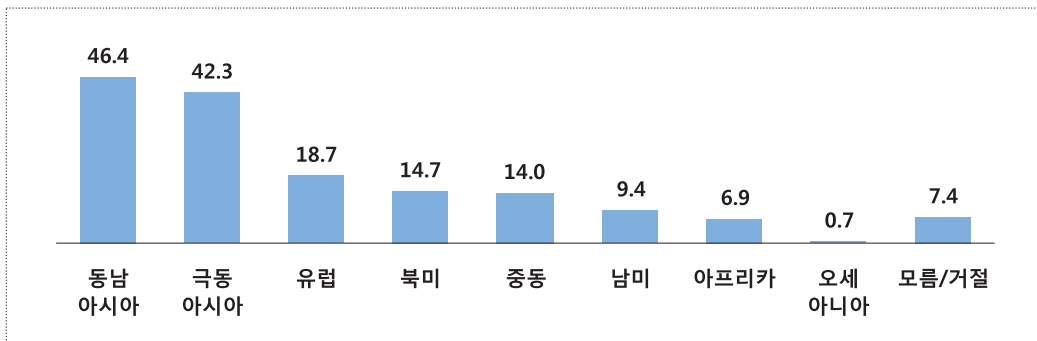
(단위: %)



- 향후 신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대륙으로는 동남아시아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극동아시아(42.3%), 유럽(18.7%), 북미(14.7%), 중동(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4]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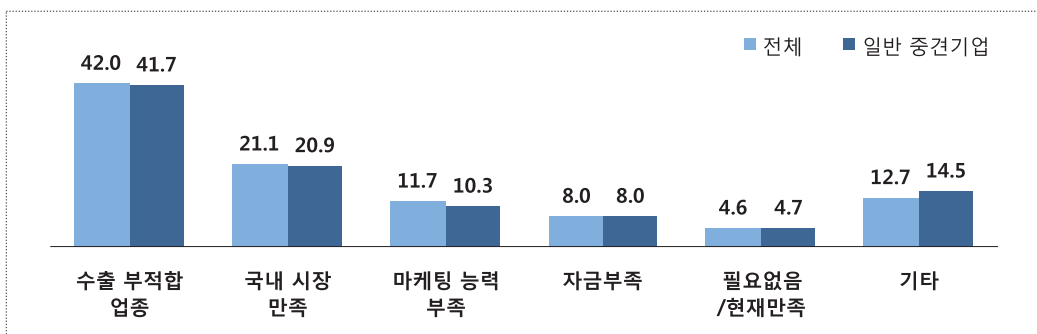


## □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중견기업은 주요 사유로 수출 부적합 업종(42.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 시장 만족(21.1%), 마케팅 능력 부족(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수출 부적합 업종(41.7%)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시장 만족(20.9%), 마케팅 능력 부족(10.3%) 등의 순임

[그림 45]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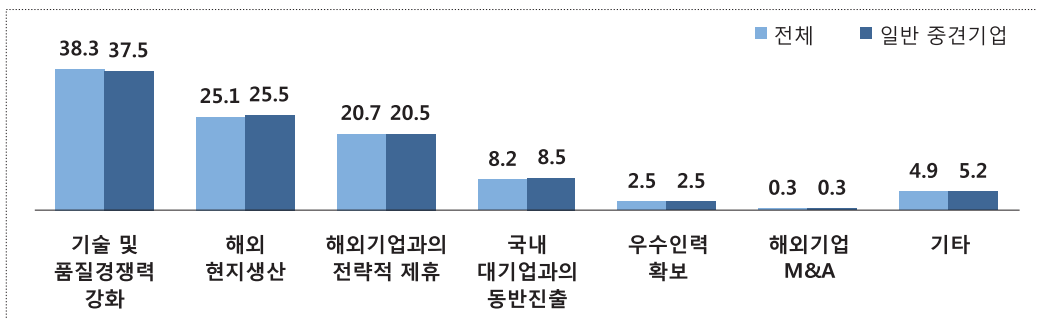
(단위: %)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은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으로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8.3%)를 가장 우선하며, 그 다음으로는 해외 현지생산(25.1%),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0.7%)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은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7.5%), 해외 현지생산(25.5%),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0.5%),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8.5%) 순임

[그림 46]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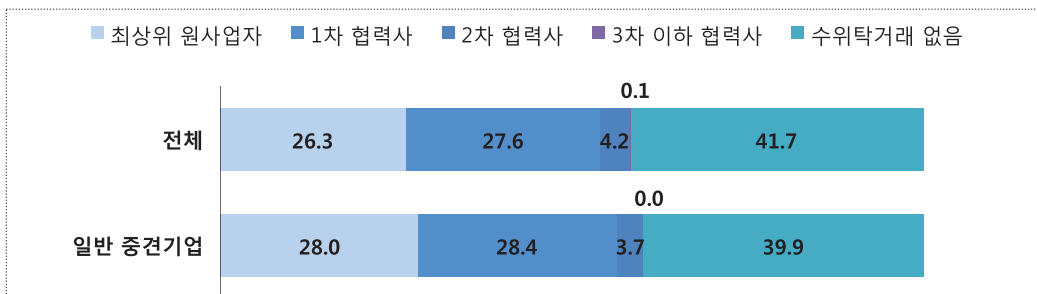
## 2.5.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 □ 수·위탁 거래 단계

- 중견기업의 58.3%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반 중견기업 역시 60.1%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계별로는 1차 협력사인 경우가 27.6%로 가장 많았고 최상위 원사업자인 경우가 26.3%, 2차 협력사인 경우가 4.2%, 3차 이하 협력사인 경우가 0.1%순임

[그림 47] 수·위탁거래 수행기업의 단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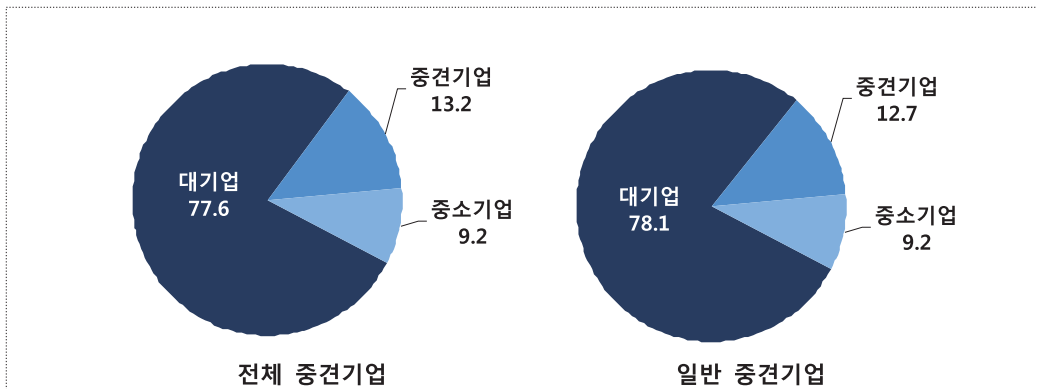


## □ 위탁거래 현황

- 위탁거래가 있는 중견기업의 거래대상별 매출 비중을 보면 77.6%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3.2%은 중견기업, 9.2%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전체 1,467억 43백만원 중 78.1%(평균:1,146억 43백만원)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2.7%(평균: 186억 56백만원)는 중견기업, 9.2%(평균: 134억 43백만원)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8] 위탁기업 거래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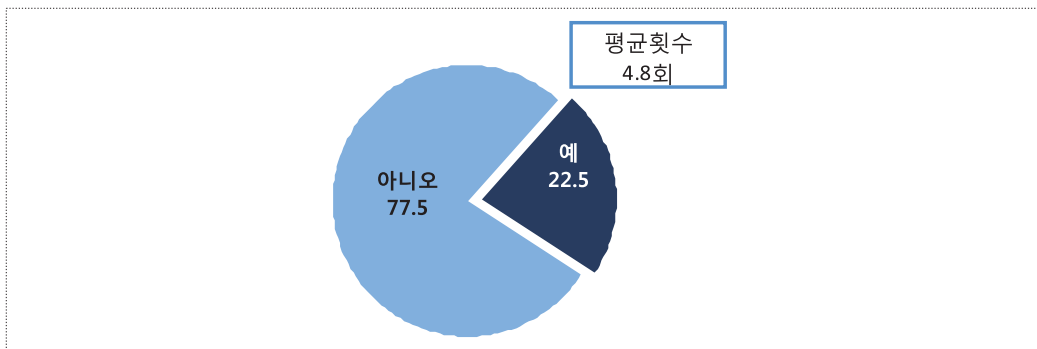


## □ 납품단가 인하

- 중견기업의 22.5%는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 4.8회로 나타남

[그림 49]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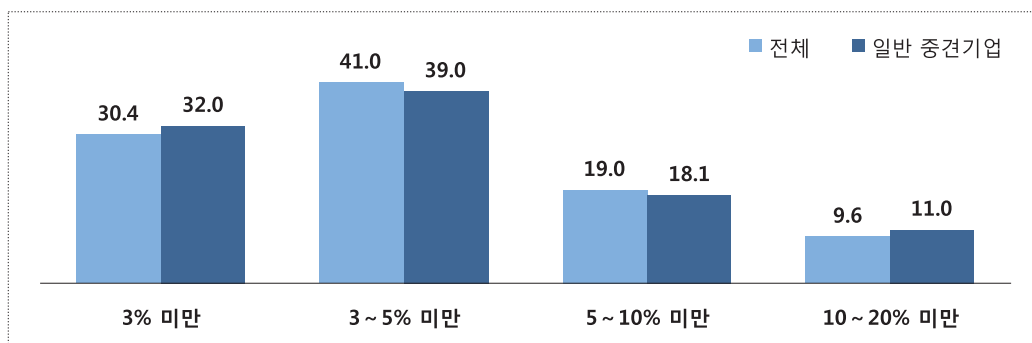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평균 단가인하율은 3~5% 미만(41.0%)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3% 미만(30.4%), 5~10% 미만(19.0%)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단가인하율은 3~5% 미만(39.0%), 3% 미만(30.4%), 5~10% 미만(18.1%) 순임

[그림 50] 평균 단가인하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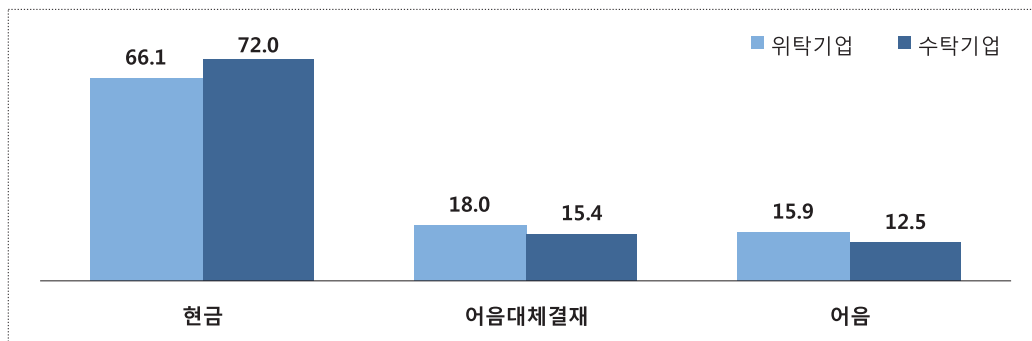


## □ 수·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의 위탁기업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6.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어음(18.0%), 어음대체결제(15.9%) 순으로 나타남
  - 수탁기업의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72.0%), 어음대체결제(15.4%), 어음(12.5%) 순임

[그림 51] 수·위탁거래 결제수단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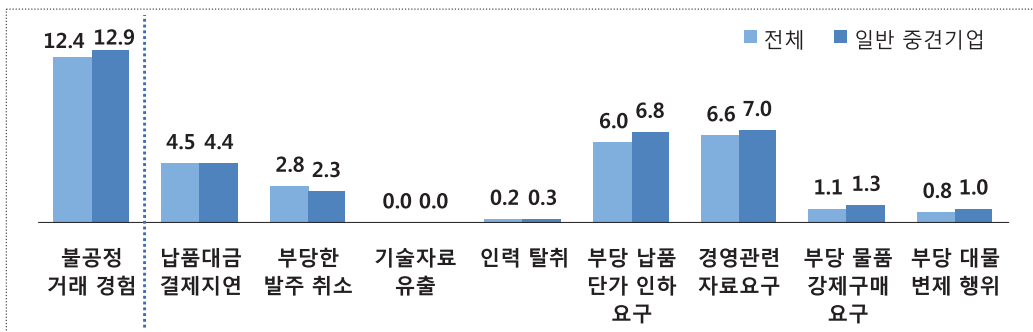


## □ 불공정 거래

- 수탁 중견기업 중 12.4%는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경영관련 자료요구(6.6%),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6.0%), 납품대금 결제지연(4.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12.9%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경영관련 자료요구(7.0%), 부당 납품단가 인하 요구(6.8%), 납품대금 결제지연(4.4%)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 불공정거래 경험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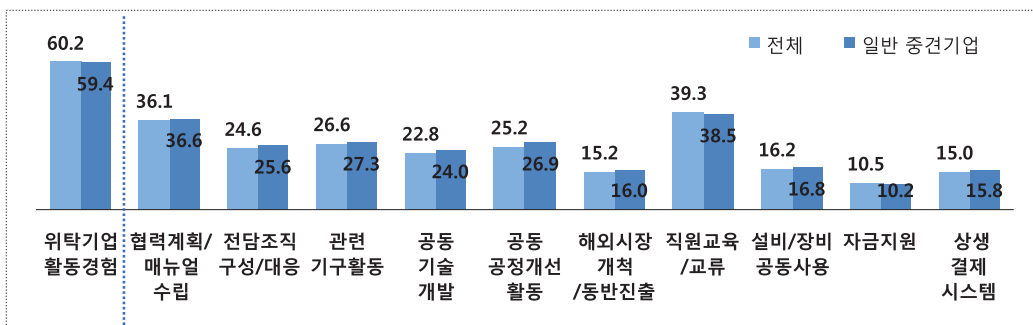


## □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수탁 중견기업의 60.2%는 위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9.3%),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6.1%), 관련 기구활동(26.6%)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59.4%는 위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교육/교류(38.5%),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36.6%), 관련기구활동(27.3%)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53]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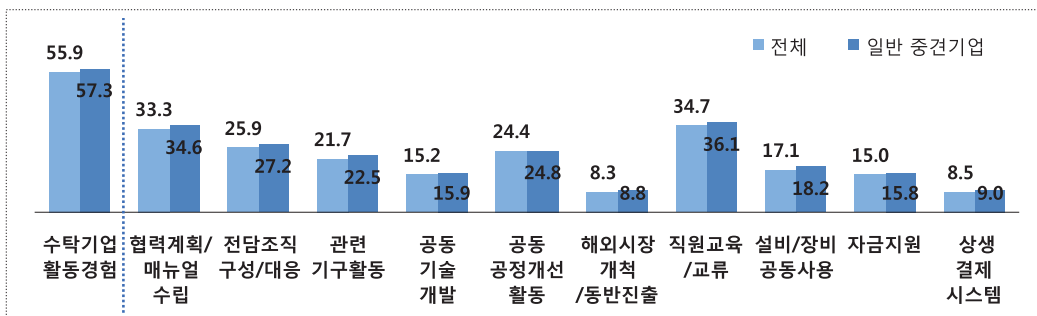


## □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위탁 중견기업의 55.9%는 수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4.7%),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3.3%), 전담조직 구성/대응(25.9%)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57.3%는 수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교육/교류(36.1%),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34.6%), 전담조직 구성/대응(27.2%)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54]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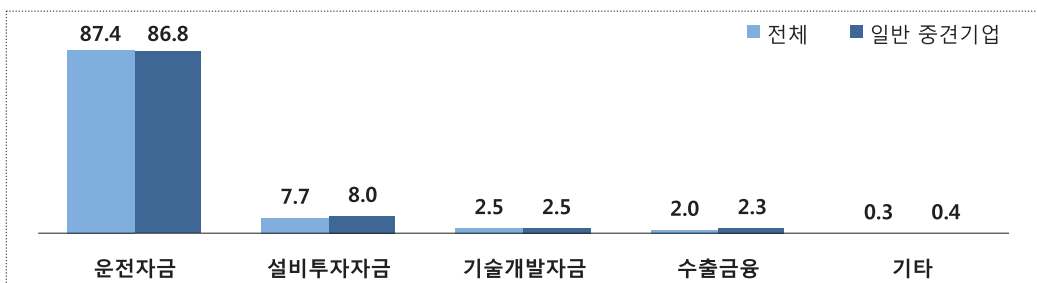
## 2.6. 금융 및 자금조달

### □ 자금조달 용도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7.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설비투자자금(7.7%), 기술개발자금(2.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6.8%), 설비투자자금(8.0%), 기술개발자금(2.5%) 순임

[그림 55] 자금조달 용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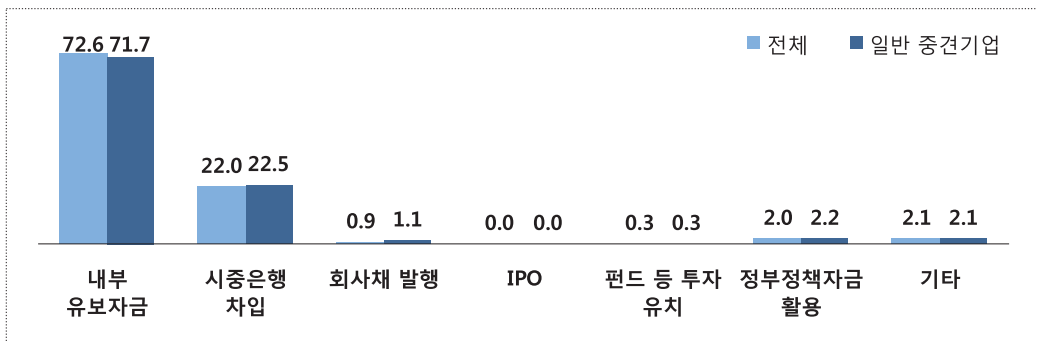


## □ 자금조달원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72.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시중은행 차입(22.0%), 정부정책자금 활용(2.0%)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71.7%), 시중은행 차입(22.5%), 정부정책자금 활용(2.2%) 순임

[그림 56] 자금조달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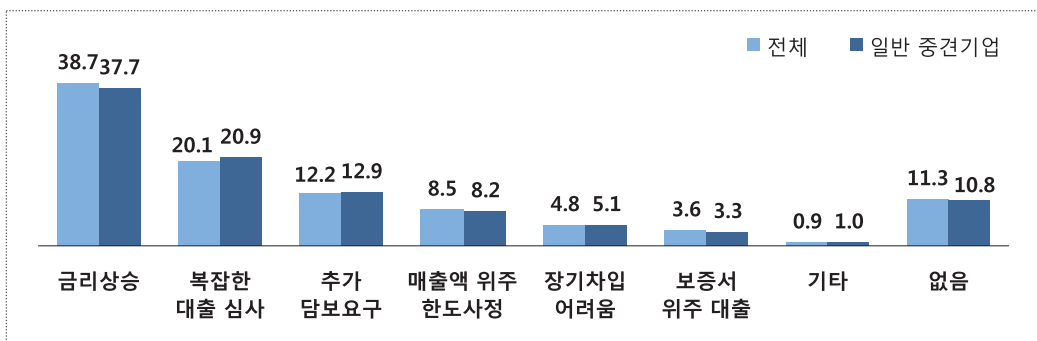


## □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으로는 금리상승(38.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복잡한 대출심사(20.1%), 추가 담보요구(12.2%)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은 금리상승(37.7%), 복잡한 대출심사(20.9%), 추가 담보요구(12.9%) 순임

[그림 57]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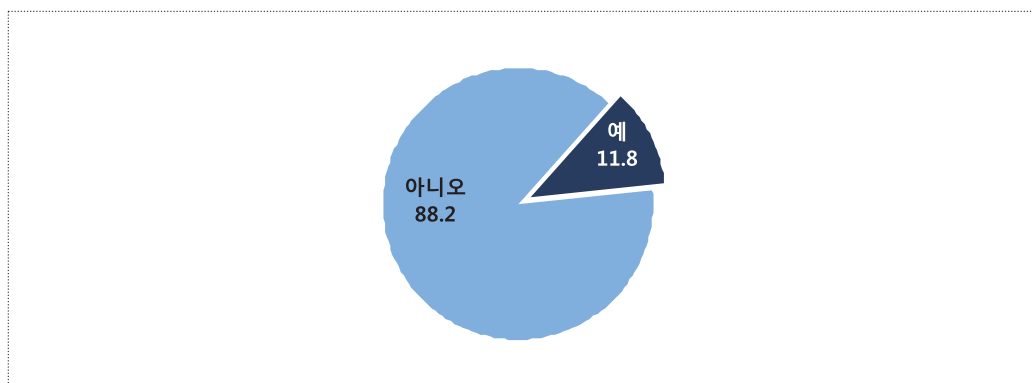


## □ 정책자금 활용 여부

- 중견기업의 11.8%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8] 정책자금 활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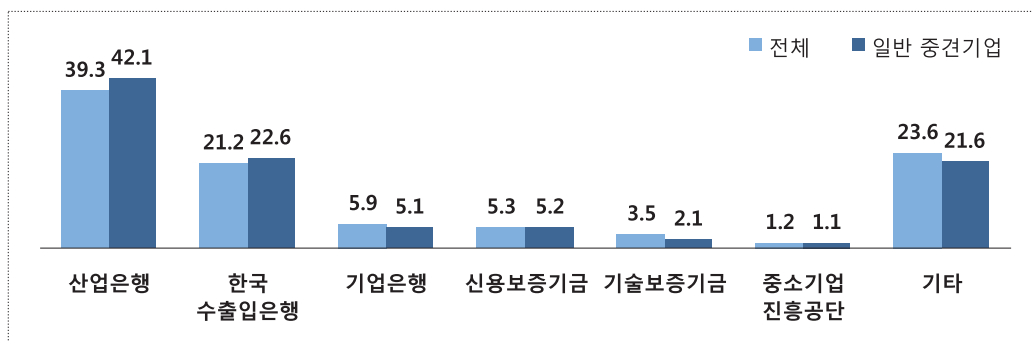


## □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 중견기업의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은 산업은행(3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한국수출입은행(21.2%), 기업은행(5.9%)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정책자금 기관별 출처는 산업은행(42.1%), 한국수출입은행(22.6%), 신용보증기금(5.2%) 순임

[그림 59]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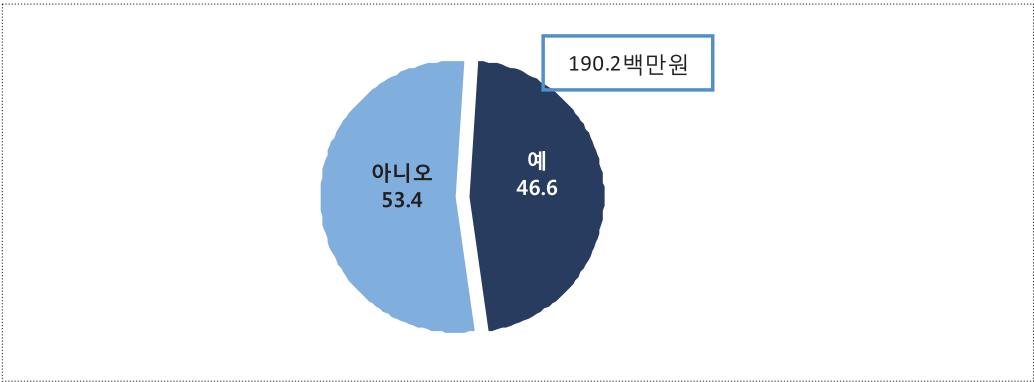
## 2.7. 기업의 사회적 책임

### □ 사회공헌활동

○ 중견기업의 46.6%는 사회공헌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0]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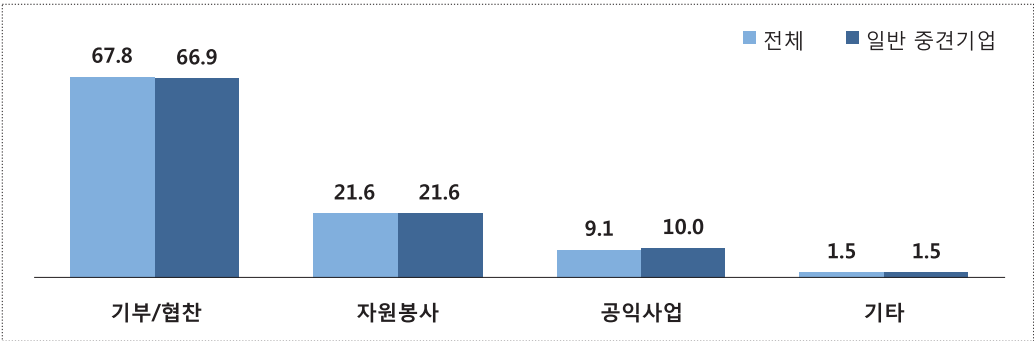


○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으로는 기부/협찬(67.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원봉사(21.6%), 공익사업(9.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은 기부/협찬(66.9%), 자원봉사(21.6%), 공익사업(10.0%) 순임

[그림 61]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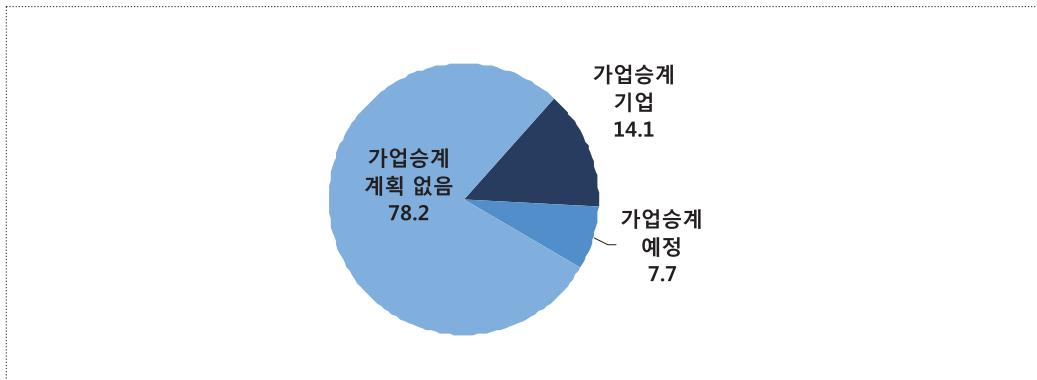


## □ 가업승계

- 중견기업의 78.2%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1%는 가업승계 기업, 7.7%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62] 가업승계 도입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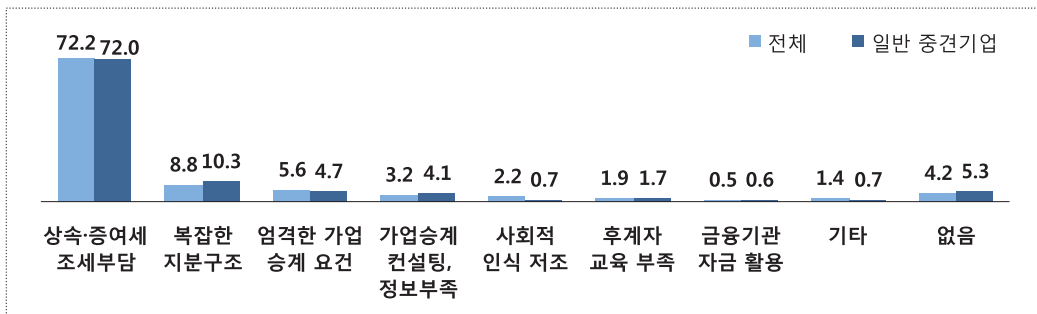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2.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복잡한 지분구조(8.8%),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5.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2.0%), 복잡한 지분구조(10.3%), 엄격한 기업 승계 요건(4.7%)순임

[그림 63] 가업승계 애로사항

(단위: %)



# ● ● ● 목 차 ● ● ●

<b>제 1 장 조사개요</b>	<b>1</b>
1절 조사목적	1
2절 중견기업의 정의	2
1. 중견기업 정의 및 범위	2
2. 중견기업 기준	3
3절 조사설계	5
1. 조사개요	5
2. 조사내용	6
3. 표본설계	7
<b>제 2 장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b>	<b>10</b>
1절 중견기업 특성	10
1. 중견기업 기초 정보	10
2. 일반중견기업 기초 정보	12
3. 관계기업 기초 정보	13
2절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14
1.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14
2. 인수합병 (M&A)	21
3. 중견기업 경영 애로	28
3절 기술혁신	33
1. 중견기업의 기술/설비 투자	33
2.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47
3. 연구개발	51
4. 지식재산권	55
4절 인재 확보	74
1. 인력현황	74

2. 직원 복지 .....	96
<b>5절 국제화 촉진 .....</b>	<b>98</b>
1. 수출 .....	98
2. 현지법인 .....	113
3. FTA 활용 .....	121
<b>6절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b>	<b>150</b>
1. 수·위탁 거래 현황 .....	150
2.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160
<b>7절 금융 및 자금조달 .....</b>	<b>169</b>
1. 자금조달 .....	169
2. 정책자금의 활용 .....	178
<b>8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b>	<b>182</b>

<b>부 록. 설 문 지 .....</b>	<b>193</b>
-------------------------	------------

# ● ● ● 표 목 차 ● ● ●

[표 1-1] 중견기업의 범위.....	2
[표 1-2] 기업 규모에 따른 관련 법령.....	2
[표 1-3] 업종별 중견기업 규모기준.....	3
[표 1-4] 조사개요.....	5
[표 1-5] 조사내용.....	6
[표 2-1] 중견기업 일반 현황.....	11
[표 2-2] 일반 중견기업 일반 현황.....	12
[표 2-3] 관계기업 일반 현황.....	13
[표 2-4]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15
[표 2-5]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17
[표 2-6]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계속).....	18
[표 2-7]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	19
[표 2-8]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계속).....	20
[표 2-9] 인수합병(M&A) 경험.....	22
[표 2-10]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24
[표 2-11] M&A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26
[표 2-12] M&A활성화 필요정책 : 1+2순위.....	27
[표 2-13] 경영 애로사항 : 1순위.....	29
[표 2-14] 경영 애로사항 : 1순위(계속).....	30
[표 2-15]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	31
[표 2-16]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32
[표 2-17] 2015년 R&D 투자실적.....	35
[표 2-18] 2016년 R&D 투자 계획.....	38
[표 2-19] 2015년 설비투자실적.....	41
[표 2-20] 2016년 설비투자 계획.....	44
[표 2-21] 기술개발 방식.....	46
[표 2-22]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48
[표 2-23]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50
[표 2-24]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52
[표 2-25] 기술수준 정의.....	53
[표 2-26] 주력기술 수준.....	54
[표 2-27]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56
[표 2-28]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58
[표 2-29]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계속).....	59
[표 2-30]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	60
[표 2-31]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계속).....	61

[표 2-32]	지식재산권 침해경험.....	63
[표 2-33]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65
[표 2-34]	산학협력 활동 경험.....	67
[표 2-35]	협력기관.....	69
[표 2-36]	기술이전 받은 경험.....	71
[표 2-37]	기술이전처.....	73
[표 2-38]	중견기업 인력 현황.....	75
[표 2-39]	2015년 채용실적.....	77
[표 2-40]	2016년 채용계획.....	79
[표 2-41]	남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81
[표 2-42]	여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82
[표 2-43]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84
[표 2-44]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86
[표 2-45]	이직자 현황.....	88
[표 2-46]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90
[표 2-47]	주요 이직원인 : 1순위(계속).....	91
[표 2-48]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	92
[표 2-49]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계속).....	93
[표 2-50]	유형별 보유인력.....	95
[표 2-51]	성과보상 제도.....	97
[표 2-52]	해외 수출 여부.....	99
[표 2-53]	직/간접수출 비중.....	101
[표 2-54]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103
[표 2-55]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계속).....	104
[표 2-56]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106
[표 2-57]	주요수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107
[표 2-58]	주요수출 대륙별 수출금액.....	108
[표 2-59]	신규 진출 여부.....	110
[표 2-60]	신규 진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111
[표 2-61]	신규 진출 대륙별 수출금액.....	112
[표 2-62]	현지법인 설립.....	114
[표 2-63]	진출 국가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상위 14개).....	115
[표 2-64]	진출 대륙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115
[표 2-65]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	117
[표 2-66]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118
[표 2-67]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	119
[표 2-68]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120
[표 2-69]	FTA 활용 여부.....	122
[표 2-70]	FTA 미활용 사유.....	124
[표 2-71]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126
[표 2-72]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128



[표 2-73]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계속).....	129
[표 2-74]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	130
[표 2-75]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계속).....	131
[표 2-76] 해외진출 고려 여부.....	133
[표 2-77]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순위.....	135
[표 2-78]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2순위.....	136
[표 2-79]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138
[표 2-80]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140
[표 2-81]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계속).....	141
[표 2-82]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142
[표 2-83]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144
[표 2-84]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146
[표 2-85]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계속).....	147
[표 2-86]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148
[표 2-87]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149
[표 2-88] 수·위탁거래 단계.....	151
[표 2-89] 위탁거래 현황.....	153
[표 2-90]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및 평균단가인하율.....	155
[표 2-91] 위탁거래 기업과의 결제기간/수단.....	157
[표 2-92] 수탁거래 기업과의 결제기간/수단.....	159
[표 2-93] 불공정거래 경험율.....	161
[표 2-94] 불공정거래 경험율(계속).....	162
[표 2-95]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64
[표 2-96]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165
[표 2-97]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67
[표 2-98]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168
[표 2-99] 주요 자금조달 용도.....	170
[표 2-100]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172
[표 2-101]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	174
[표 2-102]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계속).....	175
[표 2-103]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	176
[표 2-104]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177
[표 2-105] 정책자금 활용 여부.....	179
[표 2-106]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181
[표 2-107]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183
[표 2-108]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185
[표 2-109] 가업승계 도입 여부.....	187
[표 2-110]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	189
[표 2-111]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190
[표 2-112]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	191
[표 2-113]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192

## ●●● 그 림 목 차 ●●●

[그림 2-1]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14
[그림 2-2]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16
[그림 2-3] 인수합병(M&A) 경험.....	21
[그림 2-4]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23
[그림 2-5] M&A 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25
[그림 2-6] 경영 애로사항.....	28
[그림 2-7] 2015년 R&D 투자 유무.....	33
[그림 2-8] 2015년 R&D 투자금액.....	33
[그림 2-9] 2016년 R&D 투자 계획 유무.....	36
[그림 2-10] 2016년 R&D 투자금액.....	36
[그림 2-11] 2015년 설비투자 유무.....	39
[그림 2-12] 2015년 설비투자금액.....	39
[그림 2-13] 2016년 설비투자 계획 유무.....	42
[그림 2-14] 2016년 설비투자금액.....	42
[그림 2-15] 기술개발 방식.....	45
[그림 2-16]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	47
[그림 2-17]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49
[그림 2-18]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51
[그림 2-19] 주력기술 수준.....	53
[그림 2-20]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55
[그림 2-21]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57
[그림 2-22]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62
[그림 2-23]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64
[그림 2-24] 산학협력 활동 경험.....	66
[그림 2-25] 산학협력기관.....	68
[그림 2-26] 기술이전 받은 경험.....	70
[그림 2-27] 기술이전처.....	72
[그림 2-28] 중견기업 인력 현황 : 평균.....	74
[그림 2-29] 2015년 채용실적 : 평균.....	76
[그림 2-30] 2016년 채용계획 : 평균.....	78
[그림 2-31] 신입사원 초임 : 평균.....	80
[그림 2-32]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83
[그림 2-33]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85
[그림 2-34] 이직자 현황 : 평균.....	87
[그림 2-35]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89
[그림 2-36] 유형별 보유인력.....	94

[그림 2-37]	성과보상 제도	96
[그림 2-38]	해외 수출	98
[그림 2-39]	직/간접수출 비중	100
[그림 2-40]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102
[그림 2-41]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105
[그림 2-42]	주요수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107
[그림 2-43]	주요수출 대륙별 수출금액	108
[그림 2-44]	신규 진출 여부	109
[그림 2-45]	신규 진출 국가(상위 14개)	111
[그림 2-46]	신규 진출 대륙	112
[그림 2-47]	현지법인 설립	113
[그림 2-48]	수출시 애로사항	116
[그림 2-49]	FTA 활용 여부	121
[그림 2-50]	FTA 미활용 사유	123
[그림 2-51]	FTA 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125
[그림 2-52]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127
[그림 2-53]	해외진출 고려 여부	132
[그림 2-54]	해외진출 고려 이유	134
[그림 2-55]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137
[그림 2-56]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139
[그림 2-57]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139
[그림 2-58]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143
[그림 2-59]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145
[그림 2-60]	수·위탁거래 단계	150
[그림 2-61]	위탁거래기업과의 거래 비중	152
[그림 2-62]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154
[그림 2-63]	위탁결제 수단 비중	156
[그림 2-64]	수탁거래 결제수단 비중	158
[그림 2-65]	불공정거래 경험율	160
[그림 2-66]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163
[그림 2-67]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66
[그림 2-68]	주요 자금조달 용도	169
[그림 2-69]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171
[그림 2-70]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173
[그림 2-71]	정책자금 활용 여부	178
[그림 2-72]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180
[그림 2-73]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182
[그림 2-74]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184
[그림 2-75]	가업승계 도입 여부	186
[그림 2-76]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188



# 제 1 장 조사개요

## 1절 조사목적

### □ 조사목적

- 현재까지의 정부의 산업 관련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특히 대기업의 공정거래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실하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지속 성장이 어려움
-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 7월 22일 시행하고, 동법 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1항에 의거하여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인 중견기업 시책수립 및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2015년 11월 국가승인 통계로서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으며('16년 5월) 올해 두 번째 실태조사를 발표하게 되었음
- 주요조사 항목은 중견기업의 인력, 자금, 경영, 성장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 보완하여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허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2절 중견기업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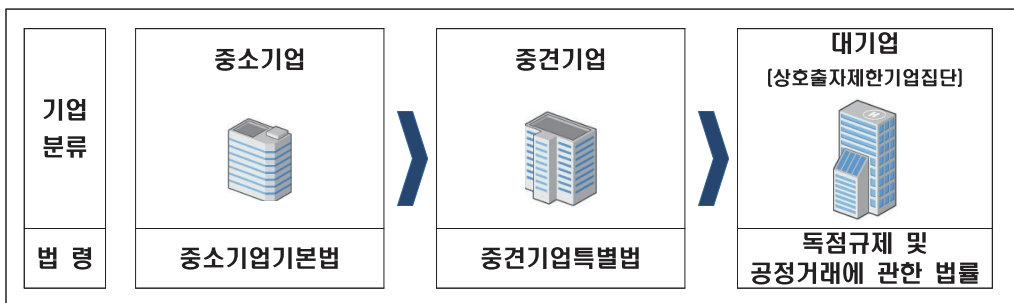
### 1. 중견기업 정의 및 범위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
  - 중소기업 : 3년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로 400억원(숙박 및 음식업)~1,500억원(1차 금속 제조업 등)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가 금지된 기업집단 11(’16년, 27개 집단, 1,128개 기업)

[표 1-1] 중견기업의 범위

<b>『중견기업법』 제2조</b>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b>『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b>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표 1-2] 기업 규모에 따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16.9.29)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되었으나 본 조사는 '14년 말 중견기업을 모집단으로 적용하였으므로 모집단 산출 시 이전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을 적용함('15년, 61개 집단, 1,696개 기업)

## 2.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상한, 독립성 3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견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주된 업종<sup>2)</sup>에 따른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유예기간<sup>3)</sup>을 경과한 기업

[표 1-3] 업종별 중견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견기업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

3)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규모기준을 충족한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견기업 규모 기준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초과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초과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초과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 (상한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원 이상인 기업
- (독립성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으로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관계가 아래의 2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해당기업의 최다출자자(최대주주)인 경우
  -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관계기업<sup>4)</sup>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벗어나는 기업

4) 관계기업 :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3절 조사설계

#### 1. 조사개요

- 2014년 재무 기준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2,979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 조사방법은 개별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문기간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답자의 편리에 따라 전화, fax,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모집단 구성비에 맞도록 유효표본에 가중치(weight)를 부여 후 통계분석을 실시함

[표 1-4] 조사개요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재무 기준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2,979개 → 일반 중견기업 2,379개, 관계기업 600개</li> </ul>
조사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li> </ul>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06월 ~ 2016년 09월</li> </ul>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유형×업종×매출규모로 표본 역등할당</li> <li>■ 표본추출 시 기업유형×업종×매출규모 셀 내에 기업체를 지역별로 정렬 후 계통추출 함</li> </ul>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도 95%, 표본오차 ±1.77%</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조사, 전화, fax, E-mail 조사를 병행</li> </ul>
자료수집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li> </ul>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틀 : 2014년말 기준 중견기업 2,979개</li> <li>■ 표본 크기 결정식 <math display="block">n = \frac{\left( \sum_{h=1}^L N_h S_h \right)^2}{N^2 \left( \frac{B}{1.96} \right)^2 + \sum_{h=1}^L N_h S_h^2}</math> <p>여기에서 B : 허용오차 = <math>1.96 * \sqrt{\widehat{Var}(\overline{y}_{st})}</math>,</p> <p><math>\overline{y}_{st}</math> : 표본평균, 상대표준오차 : <math>\frac{\sqrt{\widehat{Var}(\overline{y}_{st})}}{\overline{y}_{st}}</math></p> <p><math>N</math> : 모집단 크기, <math>N_h</math> : 부모집단 크기, <math>S_h^2</math> : 부모집단의 분산</p> </li> <li>■ 표본 할당식 <math display="block">n_h = n * \frac{(N_h S_h)^p}{\sum_{h=1}^L (N_h S_h)^p}, \quad 0 &lt; p \leq 1</math> </li> </ul>

## 2. 조사내용

[표 1-5] 조사내용

구분	내 용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기업 기본정보</li> <li>- 대표자 정보</li> <li>- 주요 고객유형</li> </ul>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회귀 검토 경험 여부</li> <li>- 회귀 검토 주요 요인</li> <li>- M&amp;A 경험 여부 및 형태</li> <li>- M&amp;A 활성화를 위한 필요정책</li> <li>- 경영애로요인</li> </ul>
기술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투자 및 설비투자 실적</li> <li>- 기술개발방식</li> <li>- 정부지원 R&amp;D사업 수행 경험</li> <li>- 정부지원 R&amp;D사업 소극적 이유</li> <li>- 연구개발 조직/인력 현황</li> <li>- 주력 기술 수준</li> <li>-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및 침해 경험 여부</li> <li>- 산학협력 활동 및 기관</li> <li>- 기술이전 경험 및 기술이전처</li> </ul>
인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현황 및 채용 실적</li> <li>- 신입사원 초임</li> <li>- 재직연수</li> <li>- 이직 현황 및 이직 이유</li> <li>- 보유인력 유형</li> <li>- 성과 보상 제도</li> </ul>
국제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수출 여부 및 실적(국가)</li> <li>- 현지법인 현황 및 국가</li> <li>- 수출시 애로사항</li> <li>- FTA활용, 시스템 구축현황 및 필요 정부지원</li> <li>- 해외 진출 고려 여부 및 요인, 진출 시점, 진출 국가</li> <li>- 해외 진출시 고려하는 전략</li> </ul>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위탁거래 단계 및 거래 현황</li> <li>-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및 단가인하율</li> <li>- 수·위탁거래 결제기간 및 수단</li> <li>-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경험</li> <li>- 수·위탁기업과의 결제기간 및 수단</li> <li>- 수·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li> </ul>
금융 및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조달 용도 및 자금조달원</li> <li>- 자금조달 애로사항</li> <li>- 정책자금 활용 경험 및 기관별 활용 비중</li> </ul>
기업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공헌활동 수행 경험 및 유형</li> <li>- 가업승계 여부 및 애로사항</li> </ul>

### 3. 표본설계

#### □ 모집단

- 2014년 재무 기준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2,979개

#### □ 층화

- 2개 업종별 × 2개 기업유형 × 8개 매출규모로 층화를 실시
  - 업종(2개) : 제조업, 비제조업
  - 기업유형(2개) : 일반중견기업, 관계중견기업
  - 매출규모(8개) : 1백억원미만, 1백억원~5백억원미만, 5백억원~1천억원미만, 1천억원~2천억원미만, 2천억원~3천억원미만, 3천억원~5천억원미만, 5천억원~1조원미만, 1조원이상

#### □ 표본의 크기 결정

- 전체 표본수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1,036개로 설정함
- 표본 크기 결정식

$$n = \frac{\left( \sum_{h=1}^L N_h S_h \right)^2}{N^2 \left( \frac{B}{1.96} \right)^2 + \sum_{h=1}^L N_h S_h^2}$$

여기에서 B : 허용오차 =  $1.96 * \sqrt{\widehat{Var}(\bar{y}_{st})}$ ,  $\bar{y}_{st}$  : 표본평균,

$$\text{상대표준오차} : \frac{\sqrt{\widehat{Var}(\bar{y}_{st})}}{\bar{y}_{st}}$$

$N$  : 모집단 크기

$N_h$  : 부모집단 크기

$S_h^2$  : 부모집단의 분산

- 표본할당식

$$n_h = n^* \frac{(N_h S_h)^p}{\sum_{h=1}^L (N_h S_h)^p}, \quad 0 < p \leq 1$$

## □ 표본사업체 추출

- 조사모집단을 제조업\_일반중견기업, 비제조\_일반중견기업, 제조\_관계중견기업, 비제조\_관계중견기업으로 층화 후 층내에서 사업체를 매출액 크기로 층화함
- 각 구분별 매출액 층내에 속한 사업체를 매출액 순으로 정렬한후, 계통추출함

## □ 추정식

- 업종별 평균 추정치 :  $\bar{y}_h = \bar{Y}_{h1} + \sum_{i=2}^4 w_{hi} \bar{y}_{hi}$

여기에서  $\bar{y}_{hi} = \frac{1}{n_{hi}} \sum_{j=1}^{n_{hi}} y_{hij}$

$h$  : 제조, 비제조

$\bar{Y}_{h1}$  : 전수층의 평균

$\bar{y}_{hi}$  : 각 층의 표본평균

$n_{hi}$  : 각층에 할당된 표본의 크기

$i$  : 업종내 매출액 층

$y_{hij}$  : 업종내 매출액 층에 속한 사업체  $j$ 의 특성 값

$$w_{hi} = \frac{N_{hi}}{n_{hi}}$$

- 업종별 표본평균에 대한 분산 추정 :  $\hat{Var}(\bar{y}_h) = \sum_{i=2}^4 w_{hi}^2 \hat{Var}(\bar{y}_{hi})$

여기에서  $\hat{Var}(\bar{y}_{hi}) = \frac{1}{n_{hi}-1} \sum_{j=1}^{n_{hi}} (y_{hij} - \bar{y}_{hi})^2$

- 업종별 총계 추정치 :  $\hat{\tau}_{st} = \sum_{h=1}^4 \hat{\tau}_h = \tau_1 + \sum_{h=2}^4 N_h \bar{y}_h$ ,  $h=1$  은 전수층

- 업종별 총계의 분산 추정치 :  $\hat{Var}(\hat{\tau}_h) = \sum_{h=2}^4 N_h^2 \left( \frac{N_h - n_h}{N_h} \right) \frac{s_h^2}{n_h}$
- 업종별 표본평균의 허용오차 :  $\pm 1.96 * \sqrt{\hat{Var}(\bar{y}_h)}$ 
  - 표본평균의 상대표준오차 :  $\frac{\sqrt{\hat{Var}(\bar{y}_h)}}{\bar{y}_h} * 100(\%)$

## 제 2 장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 1절 중견기업 특성

#### 1. 중견기업 기초 정보

- 중견기업은 2,979개 기업으로 일반중견기업이 2,379개(79.9%), 관계기업이 600개(20.1%)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331개(44.7%), 비제조업이 1,648개(55.3%)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55.2%로 가장 많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응답기업 비중이 낮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인 기업이 44.7%로 가장 많고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응답기업의 비중이 낮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인 기업이 41.3%로 가장 많고, 0~7년 미만인 기업이 12.2%로 20년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3%정도 차지함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4~5년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0%로 가장 많았고, 진입 1~3년차는 29.9%, 진입 6~9년차는 경우는 22.0%

[표 2-1] 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2,979)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9.9
	관계기업	(600)	20.1
업종	제조업	(1,331)	44.7
	비제조업	(1,648)	55.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4.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34)	28.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84)	12.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60)	18.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33)	11.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35)	7.9
	5천억원 ~ 1조원미만	(151)	5.1
	1조원이상	(57)	1.9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28.9
	50 ~ 100명미만	(470)	15.8
	100 ~ 200명미만	(543)	18.2
	200 ~ 300명미만	(317)	10.7
	300 ~ 500명미만	(322)	10.8
	500 ~ 1,000명미만	(305)	10.2
	1,000명이상	(160)	5.4
업력	0 ~ 7년미만	(364)	12.2
	7 ~ 20년미만	(1,229)	41.3
	20 ~ 30년미만	(576)	19.3
	30 ~ 40년미만	(351)	11.8
	40 ~ 50년미만	(270)	9.1
	50년이상	(189)	6.3
성장단계	진입 1 ~ 3년차	(890)	29.9
	진입 4 ~ 5년차	(1,042)	35.0
	진입 6 ~ 9년차	(656)	22.0
	진입 10년차이상	(391)	13.1
상장	상장	(644)	21.6
	비상장	(2,335)	78.4

## 2. 일반중견기업 기초 정보

- 전체 중견기업 중, 일반중견기업은 총 2,379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79.9%를 차지
- 일반중견기업 중 제조업이 43.6%, 비제조업이 56.3%로 비제조업의 비중이 약간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45.8%로 가장 많고, 매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37.6%로 가장 많으며, 20~30년미만인 기업이 19.9%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4~5년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6%로 가장 많았고, 진입 1~3년차는 29.2%, 진입 6~9년차 이상인 경우는 19.1%

[표 2-2] 일반 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379)	79.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9.9
	관계기업	-	-
업종	제조업	(1,038)	43.6
	비제조업	(1,341)	56.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63)	11.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74)	24.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52)	10.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19)	21.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29)	13.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34)	9.8
	5천억원 ~ 1조원미만	(151)	6.3
	1조원이상	(57)	2.4
종사자수	50명미만	(617)	25.9
	50 ~ 100명미만	(355)	14.9
	100 ~ 200명미만	(400)	16.8
	200 ~ 300명미만	(266)	11.2
	300 ~ 500명미만	(292)	12.3
	500 ~ 1,000명미만	(293)	12.3
업력	1,000명이상	(156)	6.6
	0 ~ 7년미만	(313)	13.2
	7 ~ 20년미만	(895)	37.6
	20 ~ 30년미만	(473)	19.9
	30 ~ 40년미만	(295)	12.4
	40 ~ 50년미만	(235)	9.9
성장단계	50년이상	(168)	7.1
	진입 1 ~ 3년차	(694)	29.2
	진입 4 ~ 5년차	(847)	35.6
	진입 6 ~ 9년차	(455)	19.1
상장	진입 10년차이상	(383)	16.1
	상장	(576)	24.2
비상장		(1,803)	75.8



### 3. 관계기업 기초 정보

- 전체 중견기업 중, 관계기업은 총 600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20.1%를 차지
- 관계기업 중 제조업이 48.8%, 비제조업이 51.2%로 비제조업의 비중이 약간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00억원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70.3%으로 가장 많고, 2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없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55.7%로 가장 많으며, 20~30년미만인 기업이 17.2%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6~9년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3.5로 가장 많았고, 진입 1~3년차는 32.7%, 진입 4~5년차인 경우는 32.5%

[표 2-3] 관계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00)	20.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	-
	관계기업	(600)	20.1
업종	제조업	(293)	48.8
	비제조업	(307)	51.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62)	27.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260)	43.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32)	22.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1)	6.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	0.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	0.2
	5천억원 ~ 1조원미만	-	-
	1조원이상	-	-
종사자수	50명미만	(245)	40.8
	50 ~ 100명미만	(115)	19.2
	100 ~ 200명미만	(143)	23.8
	200 ~ 300명미만	(51)	8.5
	300 ~ 500명미만	(30)	5.0
	500 ~ 1,000명미만	(12)	2.0
업력	1,000명이상	(4)	0.7
	0 ~ 7년미만	(51)	8.5
	7 ~ 20년미만	(334)	55.7
	20 ~ 30년미만	(103)	17.2
	30 ~ 40년미만	(56)	9.3
	40 ~ 50년미만	(35)	5.8
	50년이상	(21)	3.5
성장단계	진입 1~3년차	(196)	32.7
	진입 4~5년차	(195)	32.5
	진입 6~9년차	(201)	33.5
	진입 10년차이상	(8)	1.3
상장	상장	(68)	11.3
	비상장	(532)	88.7

## 2절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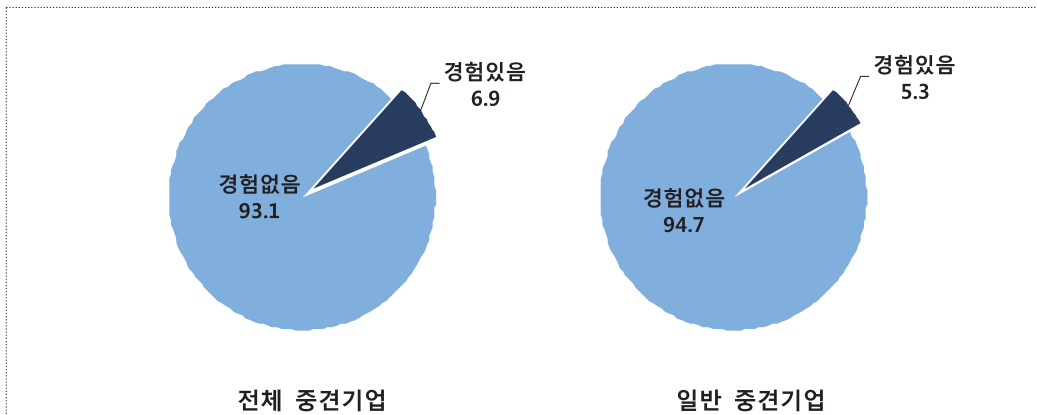
### 1.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여부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6.9%, 일반 중견기업은 5.3%로 나타남

[그림 2-1]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단위: %)



#### 특성별 분석

- 매출규모 5백억원~1천억원 미만 기업의 8.9%가 회귀 검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천억원~2천억원 미만 기업의 8.3%가 회귀를 검토한 적이 있음
  - 1조원 이상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경험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음
- 종사자 수별로는 200~300명 미만 기업의 12.3%가 회귀 검토 경험이 있으며, 100~200명 미만 기업의 11.7%가 회귀 검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액(5백억원~1천억원 미만), 종사자 수(200~300명 미만), 성장단계(진입 4~5년차) 등에서 중간 규모인 기업들이 회귀검토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표 2-4]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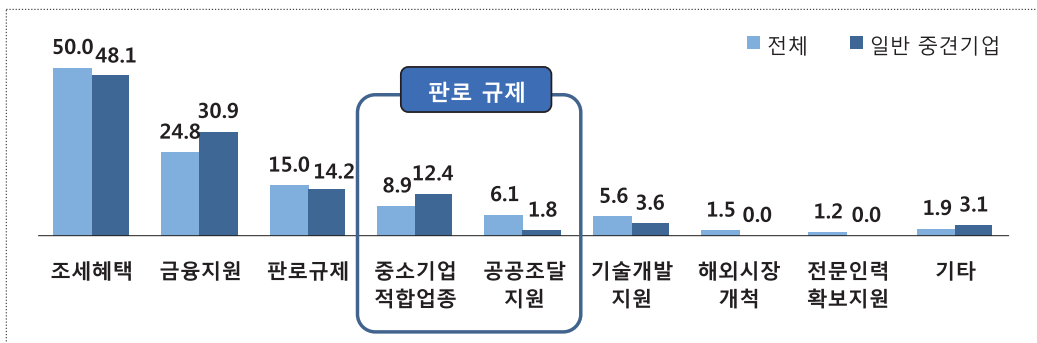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검토경험 있음	검토경험 없음
전체		(2,979)	6.9	93.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5.3	94.7
	관계기업	(600)	13.3	86.7
업종	제조업	(1,331)	8.3	91.7
	비제조업	(1,648)	5.8	94.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7.9	92.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6.7	93.3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8.9	91.1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8.3	91.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6.2	93.8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4.6	95.4
	5천억원~1조원미만	(151)	3.5	96.5
	1조원이상	(57)	0.0	10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8.7	91.3
	수출없음	(1,808)	5.8	94.2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5.3	94.7
	50~100명미만	(470)	5.3	94.7
	100~200명미만	(543)	11.7	88.3
	200~300명미만	(317)	12.3	87.7
	300~500명미만	(322)	3.0	97.0
	500~1,000명미만	(305)	6.1	93.9
	1,000명이상	(160)	3.5	96.5
업력	0~7년미만	(364)	7.4	92.6
	7~20년미만	(1,229)	6.7	93.3
	20~30년미만	(576)	8.0	92.0
	30~40년미만	(351)	9.0	91.0
	40~50년미만	(270)	6.2	93.8
	50년이상	(189)	2.2	97.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7.5	92.5
	진입4~5년차	(1,042)	9.4	90.6
	진입6~9년차	(656)	4.3	95.7
	진입10년차이상	(391)	4.2	95.8
매출유형	B2B	(2,373)	7.3	92.7
	B2C	(490)	4.9	95.1
	B2G	(116)	8.2	91.8
상장	상장	(644)	4.6	95.4
	비상장	(2,335)	7.7	92.3

##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50.0%가 조세혜택을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금융지원(24.8%), 판로 규제(15.0%) 순임
  - 판로 규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8.9%), 공공조달 지원(6.1%)으로 나타남

[그림 2-2]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단위: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 특성별 분석

- 일반중견기업과 관계기업 모두 조세혜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함
  - 금융지원을 두 번째 회귀검토 요인으로 뽑은 것은 동일하나 일반 중견기업 30.9%, 관계기업 15.0%로 일반중견기업의 응답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및 관계기업 모두 판로 규제를 세 번째 회귀 검토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나 일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8.9%)을, 관계기업은 공공조달 지원(12.9%)을 선택한 비중이 높아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함
- 매출액별로 1백억원 미만의 기업은 금융지원(41.6%), 5천억원~1조원미만의 기업은 판로 규제(83.8%)를 회귀 검토한 요인이라고 응답함
  - 5천억원~1조원 미만의 기업은 판로 규제 중 모두 동일하게 중소기업 적합업종(41.9%)만을 응답함
- 종사자 규모별로는 200~300명 미만 기업은 금융지원(47.4%), 300~500명 미만 기업은 판로규제(62.7%), 1,000명 이상 기업은 판로 규제(100.0%)를 검토요인으로 응답한 경우가 타 규모의 기업에 비해 많음

[표 2-5]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206개사)

구분		조세혜택	금융지원	관로 규제		
				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공조달 지원
전체		50.0	24.8	15.0	8.9	6.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8.1	30.9	14.2	12.4	1.8
	관계기업	53.0	15.0	16.2	3.3	12.9
업종	제조업	55.0	24.9	6.7	0.0	6.7
	비제조업	44.3	24.7	24.4	19.1	5.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7.0	41.6	8.4	8.4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41.3	20.1	29.6	19.0	10.6
	5백억원~1천억원미만	76.0	8.0	8.0	0.0	8.0
	1천억원~2천억원미만	53.5	35.7	7.7	4.6	3.1
	2천억원~3천억원미만	44.3	21.9	11.4	11.4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79.5	20.5	0.0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58.1	0.0	41.9	0.0	41.9
	1조원이상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50.6	24.3	11.0	4.4	6.6
	수출없음	49.3	25.3	18.9	13.3	5.6
종사자수	50명미만	40.3	34.5	12.4	12.4	0.0
	50~100명미만	58.3	16.2	14.5	0.0	14.5
	100~200명미만	60.7	16.9	8.5	4.2	4.3
	200~300명미만	46.2	47.4	6.4	0.0	6.4
	300~500명미만	22.0	0.0	62.7	47.1	15.6
	500~1,000명미만	63.7	12.3	12.0	0.0	12.0
	1,000명이상	0.0	0.0	100.0	100.0	0.0
업력	0~7년미만	17.4	20.8	17.4	17.4	0.0
	7~20년미만	46.3	28.5	18.3	16.5	1.8
	20~30년미만	44.7	37.7	12.4	4.9	7.5
	30~40년미만	59.2	13.1	20.3	0.0	20.3
	40~50년미만	72.3	10.2	0.0	0.0	0.0
	50년이상	100.0	0.0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2.3	26.0	4.8	4.8	0.0
	진입4~5년차	50.0	18.2	22.4	15.3	7.1
	진입6~9년차	52.6	22.1	17.6	0.0	17.6
	진입10년차이상	39.3	60.7	0.0	0.0	0.0
매출유형	B2B	50.1	23.2	15.8	10.6	5.2
	B2C	44.6	46.0	0.0	0.0	0.0
	B2G	62.3	0.0	37.7	0.0	37.7
상장	상장	60.9	12.9	14.9	0.0	14.9
	비상장	47.9	27.1	15.0	10.6	4.4

[표 2-6]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계속)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206개사)

구분		기술개발 지원	해외시장 개척	전문인력 확보지원	기타
전체		5.6	1.5	1.2	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6	0.0	0.0	3.1
	관계기업	8.7	4.0	3.1	0.0
업종	제조업	8.3	2.8	2.3	0.0
	비제조업	2.4	0.0	0.0	4.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10.1	0.0	12.9
	1백억원~5백억원미만	9.1	0.0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0.0	0.0	8.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3.1	0.0	0.0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22.4	0.0	0.0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0.0	0.0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0.0	0.0	0.0	0.0
	1조원이상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8.6	3.1	2.4	0.0
	수출없음	2.6	0.0	0.0	3.8
종사자수	50명미만	5.9	6.9	0.0	0.0
	50~100명미만	11.0	0.0	0.0	0.0
	100~200명미만	3.7	0.0	3.9	6.3
	200~300명미만	0.0	0.0	0.0	0.0
	300~500명미만	15.3	0.0	0.0	0.0
	500~1,000명미만	12.1	0.0	0.0	0.0
	1,000명이상	0.0	0.0	0.0	0.0
업력	0~7년미만	17.9	0.0	0.0	26.5
	7~20년미만	2.9	3.9	0.0	0.0
	20~30년미만	0.0	0.0	5.2	0.0
	30~40년미만	7.4	0.0	0.0	0.0
	40~50년미만	17.5	0.0	0.0	0.0
	50년이상	0.0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0	0.0	4.6	7.4
	진입4~5년차	6.3	3.0	0.0	0.0
	진입6~9년차	7.7	0.0	0.0	0.0
	진입10년차이상	0.0	0.0	0.0	0.0
매출유형	B2B	5.3	1.8	1.4	2.3
	B2C	9.4	0.0	0.0	0.0
	B2G	0.0	0.0	0.0	0.0
상장	상장	11.2	0.0	0.0	0.0
	비상장	4.5	1.8	1.4	2.3

[표 2-7]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206개사)

구분		조세혜택	금융지원	관로 규제		
				계	공공조달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체		77.2	52.2	25.5	12.9	12.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9.0	55.7	26.3	10.3	16.0
	관계기업	74.3	46.7	24.2	16.9	7.3
업종	제조업	77.4	58.6	22.5	15.5	7.0
	비제조업	76.9	44.8	29.0	9.9	19.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9	41.6	28.6	10.1	18.5
	1백억원~5백억원미만	75.4	45.8	29.6	10.6	19.0
	5백억원~1천억원미만	92.0	54.2	21.8	21.8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95.6	71.3	7.7	3.1	4.6
	2천억원~3천억원미만	77.6	43.8	33.8	22.4	11.4
	3천억원~5천억원미만	79.5	40.9	38.7	18.2	20.5
	5천억원~1조원미만	58.1	58.1	83.8	41.9	41.9
	1조원이상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83.0	53.7	25.5	18.0	7.5
	수출없음	71.5	50.7	25.5	7.8	17.7
종사자수	50명미만	55.2	59.8	23.8	11.4	12.4
	50~100명미만	74.5	38.2	36.6	14.5	22.1
	100~200명미만	85.6	51.7	15.4	11.2	4.2
	200~300명미만	88.9	73.3	12.4	12.4	0.0
	300~500명미만	75.5	0.0	62.7	15.6	47.1
	500~1,000명미만	75.7	52.3	35.4	23.4	12.0
	1,000명이상	100.0	0.0	100.0	0.0	100.0
업력	0~7년미만	17.4	38.7	17.4	0.0	17.4
	7~20년미만	79.2	52.3	30.5	11.1	19.4
	20~30년미만	77.6	61.7	21.2	16.3	4.9
	30~40년미만	80.8	43.6	32.8	26.7	6.1
	40~50년미만	100.0	44.6	14.7	0.0	14.7
	50년이상	100.0	100.0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6.9	57.9	9.1	4.3	4.8
	진입4~5년차	74.1	46.6	41.1	18.4	22.7
	진입6~9년차	92.2	37.5	17.6	17.6	0.0
	진입10년차이상	100.0	88.2	0.0	0.0	0.0
매출유형	B2B	76.2	50.4	27.0	11.9	15.1
	B2C	90.6	70.9	0.0	0.0	0.0
	B2G	62.3	37.7	62.3	62.3	0.0
상장	상장	86.9	47.3	34.8	28.1	6.7
	비상장	75.4	53.1	23.7	9.9	13.8

[표 2-8]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계속)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206개사)

구분		기술개발 지원	해외시장 개척	전문인력 확보지원	기타
전체		11.2	9.1	1.5	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7	6.1	0.0	3.1
	관계기업	15.4	13.8	4.0	0.0
업종	제조업	16.5	9.5	2.8	0.0
	비제조업	5.2	8.6	0.0	4.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4.2	18.5	10.1	12.9
	1백억원~5백억원미만	13.7	14.0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0.0	8.0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3.1	4.4	0.0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22.4	0.0	0.0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40.9	0.0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0.0	0.0	0.0	0.0
	1조원이상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13.1	2.4	3.1	0.0
	수출없음	9.4	15.5	0.0	3.8
종사자수	50명미만	15.7	12.8	6.9	0.0
	50~100명미만	11.0	10.7	0.0	0.0
	100~200명미만	8.0	7.3	0.0	6.3
	200~300명미만	0.0	14.4	0.0	0.0
	300~500명미만	15.3	0.0	0.0	0.0
	500~1,000명미만	36.7	0.0	0.0	0.0
	1,000명이상	0.0	0.0	0.0	0.0
업력	0~7년미만	17.9	38.2	0.0	26.5
	7~20년미만	7.9	3.3	3.9	0.0
	20~30년미만	0.0	17.0	0.0	0.0
	30~40년미만	14.8	5.8	0.0	0.0
	40~50년미만	40.6	0.0	0.0	0.0
	50년이상	0.0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3	14.4	0.0	7.4
	진입4~5년차	6.3	5.1	3.0	0.0
	진입6~9년차	33.6	19.1	0.0	0.0
	진입10년차이상	11.8	0.0	0.0	0.0
매출유형	B2B	12.1	9.3	1.8	2.3
	B2C	9.4	10.9	0.0	0.0
	B2G	0.0	0.0	0.0	0.0
상장	상장	18.2	6.4	0.0	0.0
	비상장	9.9	9.6	1.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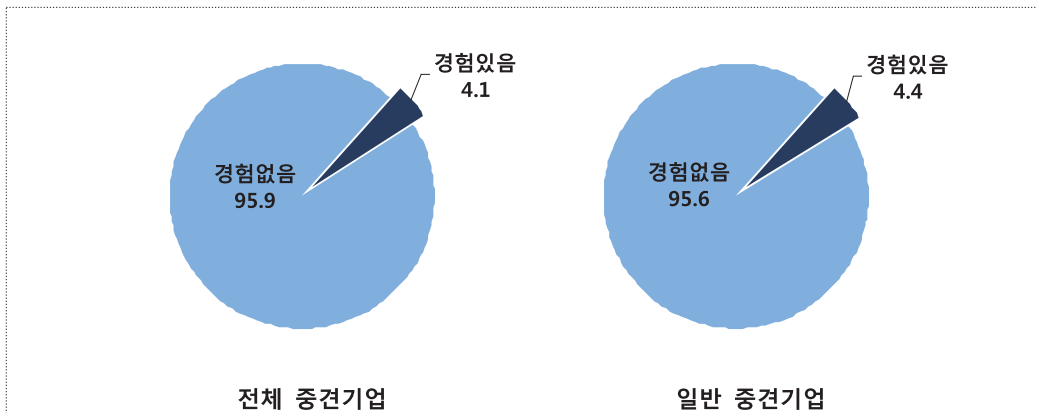
## 2. 인수합병 (M&A)

### □ 인수합병(M&A) 경험

- 중견기업의 4.1%는 2015년에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A를 경험한 기업의 평균 인수 규모는 431.3억원임
  - 일반 중견기업의 M&A 경험은 4.4%(평균인수규모: 491.3억원), 관계기업은 3.3%(평균 인수 규모:128.0억원)으로 나타남

[그림 2-3] 인수합병(M&A) 경험

(단위: %)



### 특성별 분석

- 매출규모별로는 고매출액의 기업일수록 인수합병 경험의 기회가 많았으며, 저매출액의 기업일수록 인수합병 경험이 적었음을 알 수 있음
- 종사자수별로는 50명 미만의 기업의 경우 1.7%만이 경험을 하였으며, 1,000명 이상의 기업은 12.6%로 나타남
  - 저 매출액에서 고 매출액일수록 인수합병 경험이 많으며 종사자수 또한 많은 기업일수록 인수합병 경험이 많아 매출액 및 종사자수는 동일한 양상을 보임
- 상장기업의 7.8%, 비상장기업의 3.0%가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기업의 평균 인수규모는 741.1억원, 비상장기업은 149.8억원으로 상장기업의 평균 인수규모가 비상장기업에 비해 약 5배 이상 큼

[표 2-9] 인수합병(M&A) 경험

(단위 :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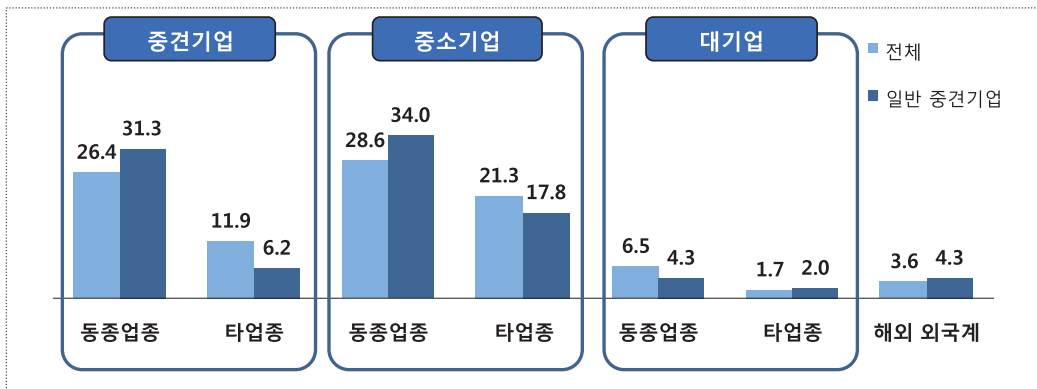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인수합병 경험 있음		인수합병 경험 없음
				평균 인수 규모	
전체		(2,979)	4.1	431.3	95.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4	491.3	95.6
	관계기업	(600)	3.3	128.0	96.7
업종	제조업	(1,331)	5.2	594.7	94.8
	비제조업	(1,648)	3.3	204.6	96.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9	254.3	98.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2.3	20.3	97.7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3.3	198.8	96.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5.8	257.8	94.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5.6	109.5	94.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3.7	892.3	96.3
	5천억원~1조원미만	(151)	11.4	1,362.5	88.6
	1조원이상	(57)	10.4	918.1	89.6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6.4	584.3	93.6
	수출없음	(1,808)	2.7	193.2	97.3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1.7	144.4	98.3
	50~100명미만	(470)	3.3	52.3	96.7
	100~200명미만	(543)	4.4	294.4	95.6
	200~300명미만	(317)	5.4	205.4	94.6
	300~500명미만	(322)	4.0	300.8	96.0
	500~1,000명미만	(305)	6.2	1,485.4	93.8
	1,000명이상	(160)	12.6	357.9	87.4
업력	0~7년미만	(364)	5.9	120.0	94.1
	7~20년미만	(1229)	3.9	268.6	96.1
	20~30년미만	(576)	3.7	1,070.9	96.3
	30~40년미만	(351)	4.4	249.5	95.6
	40~50년미만	(270)	3.9	265.5	96.1
	50년이상	(189)	5.1	635.0	94.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3.5	864.8	96.5
	진입4~5년차	(1042)	4.1	271.1	95.9
	진입6~9년차	(656)	3.8	200.9	96.2
	진입10년차이상	(391)	5.8	512.1	94.2
매출유형	B2B	(2,373)	4.4	440.9	95.6
	B2C	(490)	3.6	411.5	96.4
	B2G	(116)	1.9	160.0	98.1
상장	상장	(644)	7.8	741.1	92.2
	비상장	(2,335)	3.0	149.8	97.0

## □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 M&A를 경험한 기업의 인수합병 형태로는 동종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28.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종업종의 중견기업(26.4%), 타업종의 중소기업(21.3%)등의 순임

[그림 2-4]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단위: %, 인수합병 경험 기업)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동종업종의 인수합병이 69.6%, 타업종은 26.0%로 나타났으며 관계기업은 동종업종은 18.3%, 타업종은 81.7%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동종업종 기업들과의 인수합병 비중이 높은 반면, 관계기업은 타업종과의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매출액별로는 1백억원 미만의 기업은 타업종의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76.2%)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조원 이상의 기업은 동종업종의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64.3%)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종사자수별로는 50명미만의 기업은 타업종의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38.3%), 1,000명 이상의 기업은 동종업종의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28.0%)이 높음
  - 매출액이 낮은 기업 및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은 타업종의 중견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매출 기업 및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은 동종업종 중견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0]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단위 : %, 인수합병 경험 기업 12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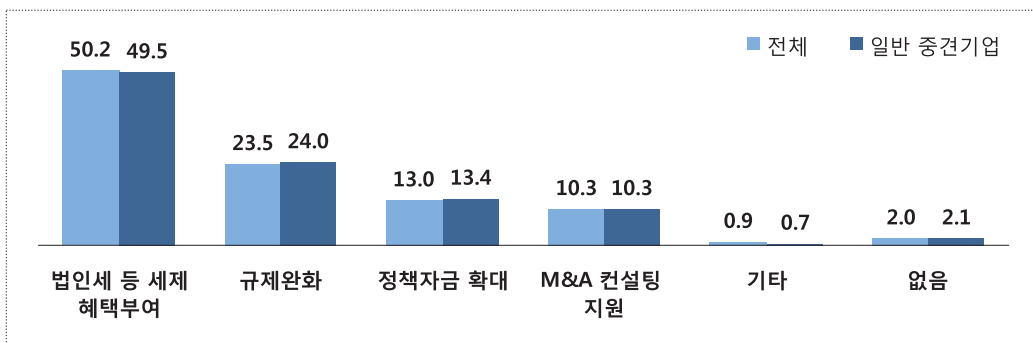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해외 외국계
		동종업종	타업종	동종업종	타업종	동종업종	타업종	
전체		26.4	11.9	28.6	21.3	6.5	1.7	3.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1.3	6.2	34.0	17.8	4.3	2.0	4.3
	관계기업	0.0	42.0	0.0	39.7	18.3	0.0	0.0
업종	제조업	34.2	14.3	19.0	19.7	6.5	3.1	3.3
	비제조업	16.3	8.8	40.8	23.4	6.6	0.0	4.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3.8	76.2	0.0	0.0	0.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23.9	0.0	27.6	30.9	17.6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20.1	39.8	20.1	20.1	0.0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19.4	12.8	25.3	29.8	0.0	6.3	6.5
	2천억원~3천억원미만	24.6	0.0	63.1	0.0	0.0	0.0	12.3
	3천억원~5천억원미만	50.0	0.0	25.0	25.0	0.0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25.7	0.0	17.8	30.7	25.7	0.0	0.0
	1조원이상	64.3	0.0	35.7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22.7	16.2	27.1	22.3	3.0	2.8	5.9
	수출없음	31.9	5.4	31.0	19.8	11.9	0.0	0.0
종사자수	50명미만	0.0	38.3	0.0	37.8	23.8	0.0	0.0
	50~100명미만	31.8	13.8	36.8	17.7	0.0	0.0	0.0
	100~200명미만	54.8	9.0	18.1	9.2	0.0	8.9	0.0
	200~300명미만	12.6	27.1	26.7	20.9	0.0	0.0	12.6
	300~500명미만	17.7	0.0	66.1	16.2	0.0	0.0	0.0
	500~1,000명미만	24.0	0.0	35.7	28.5	11.8	0.0	0.0
	1,000명이상	28.0	0.0	27.1	22.7	11.1	0.0	11.2
업력	0~7년미만	59.5	0.0	0.0	22.5	0.0	0.0	18.1
	7~20년미만	18.0	26.5	35.5	20.1	0.0	0.0	0.0
	20~30년미만	30.4	9.7	8.6	34.9	16.4	0.0	0.0
	30~40년미만	13.0	0.0	25.6	23.9	24.9	0.0	12.6
	40~50년미만	33.1	0.0	66.9	0.0	0.0	0.0	0.0
	50년이상	31.7	0.0	28.9	19.7	0.0	19.7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44.2	17.0	30.5	8.3	0.0	0.0	0.0
	진입4~5년차	24.9	17.6	29.1	18.9	0.0	4.7	4.9
	진입6~9년차	17.2	9.4	8.9	51.1	13.5	0.0	0.0
	진입10년차이상	21.0	0.0	45.8	7.9	16.8	0.0	8.5
매출유형	B2B	23.8	14.2	25.9	21.9	7.8	2.0	4.3
	B2C	32.0	0.0	47.8	20.1	0.0	0.0	0.0
	B2G	100.0	0.0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17.8	16.0	25.7	21.1	7.9	3.7	7.8
	비상장	33.6	8.4	31.1	21.5	5.4	0.0	0.0

## □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중견기업의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50.2%)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규제 완화(23.5%), 정책자금 확대(13.0%) 등의 순임. 또한,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2.0%로 나타남

[그림 2-5] M&A 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49.5%가 M&A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4.0%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일반 중견기업의 종합순위(1+2순위)도 동일하게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69.3%), 규제 완화(48.9%), 정책자금 확대(34.7%) 순으로 나타남
- 종합순위(1+2순위)는 업력별로 0~7년 미만의 기업에서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규제 완화, 정책자금 확대 순으로 나타난 반면, 50년 이상의 기업군에서는 규제 완화가 54.0%로 가장 높았으며, 세제 혜택부여가 51.6%, 정책자금 확대 35.7% 순으로 나타나 기업의 업력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은 종합순위(1+2순위)로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69.2%, 규제완화를 48.8% 응답하였으며, 주 거래처가 소비자인 B2C기업의 67.9%,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인 B2G 기업의 66.8%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부여가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표 2-11] M&A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 수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부여	규제 완화	정책자금 확대	M&A 컨설팅 지원	기타	없음
전체		(2,979)	50.2	23.5	13.0	10.3	0.9	2.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9.5	24.0	13.4	10.3	0.7	2.1
	관계기업	(600)	53.3	21.6	11.4	10.3	1.5	1.9
업종	제조업	(1,331)	52.8	21.7	13.9	10.0	0.2	1.5
	비제조업	(1,648)	48.2	25.0	12.3	10.6	1.4	2.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37.9	30.5	13.2	11.8	1.3	5.2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49.1	24.9	14.0	9.5	1.0	1.5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54.1	20.1	11.5	10.3	1.3	2.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54.5	18.9	13.8	10.9	0.7	1.1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56.1	17.4	13.9	10.4	0.7	1.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49.9	30.2	9.9	7.4	0.0	2.6
	5천억원~1조원미만	(151)	50.1	20.7	11.9	17.2	0.0	0.0
	1조원이상	(57)	54.8	37.8	7.4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52.7	20.2	13.8	11.8	0.2	1.3
	수출없음	(1,808)	48.6	25.7	12.5	9.3	1.3	2.5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47.2	24.8	15.1	9.1	0.8	2.9
	50~100명미만	(470)	48.1	23.4	10.8	13.2	2.9	1.7
	100~200명미만	(543)	51.4	26.6	12.0	7.9	0.5	1.8
	200~300명미만	(317)	54.0	18.3	13.3	13.1	0.0	1.4
	300~500명미만	(322)	53.4	20.7	13.4	10.5	0.0	2.0
	500~1,000명미만	(305)	56.0	21.2	11.8	9.4	0.8	0.8
	1,000명이상	(160)	44.2	27.7	12.7	12.8	0.0	2.6
업력	0~7년미만	(364)	46.9	21.4	17.3	8.9	3.6	1.9
	7~20년미만	(1229)	50.3	24.4	12.5	10.1	1.1	1.5
	20~30년미만	(576)	52.1	21.8	13.0	8.9	0.4	3.9
	30~40년미만	(351)	51.8	23.8	11.0	11.2	0.6	1.6
	40~50년미만	(270)	53.4	22.8	10.4	11.2	0.0	2.2
	50년이상	(189)	39.5	26.5	20.2	13.8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52.0	23.1	10.6	11.0	0.7	2.6
	진입4~5년차	(1042)	52.2	22.5	12.2	10.3	0.9	2.0
	진입6~9년차	(656)	45.8	27.6	14.5	8.6	1.5	2.1
	진입10년차이상	(391)	49.6	20.8	16.6	12.1	0.0	0.9
매출유형	B2B	(2,373)	51.3	23.4	12.7	9.7	0.8	2.0
	B2C	(490)	48.5	24.1	12.6	11.9	1.5	1.4
	B2G	(116)	36.3	23.3	20.8	15.7	0.0	3.9
상장	상장	(644)	52.5	23.1	10.9	12.4	0.0	1.2
	비상장	(2,335)	49.5	23.7	13.7	9.7	1.1	2.3

[표 2-12] M&A활성화 필요정책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 수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부여	규제 완화	정책자금 확대	M&A 컨설팅 지원	기타	없음
전체		(2,979)	68.9	49.1	34.2	20.7	1.0	2.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69.3	48.9	34.7	20.5	0.8	2.1
	관계기업	(600)	67.3	49.8	32.4	21.4	1.5	1.9
업종	제조업	(1,331)	70.1	50.1	36.7	21.8	0.2	1.5
	비제조업	(1,648)	67.9	48.3	32.2	19.8	1.6	2.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61.5	53.8	27.1	18.2	1.3	5.2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67.2	49.5	34.1	20.7	1.0	1.5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67.6	46.2	33.2	17.9	1.3	2.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72.4	46.0	38.9	23.1	0.7	1.1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74.9	45.9	36.7	21.5	0.7	1.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69.3	51.7	36.6	21.0	0.0	2.6
	5천억원~1조원미만	(151)	72.3	50.1	33.0	27.1	2.0	0.0
	1조원이상	(57)	72.6	68.1	20.7	7.4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69.2	47.4	37.3	24.2	0.2	1.3
	수출없음	(1,808)	68.7	50.2	32.2	18.4	1.5	2.5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65.6	48.6	34.1	19.1	0.8	2.9
	50~100명미만	(470)	71.6	51.2	29.3	19.7	2.9	1.7
	100~200명미만	(543)	67.7	51.4	38.4	18.9	0.5	1.8
	200~300명미만	(317)	71.0	46.4	36.8	26.5	0.0	1.4
	300~500명미만	(322)	72.0	49.9	35.8	21.6	0.0	2.0
	500~1,000명미만	(305)	70.3	46.9	30.9	23.5	0.8	0.8
	1,000명이상	(160)	69.5	46.4	33.3	20.1	1.9	2.6
업력	0~7년미만	(364)	63.3	44.7	33.3	21.9	3.6	1.9
	7~20년미만	(1229)	71.3	45.4	34.1	20.1	1.1	1.5
	20~30년미만	(576)	69.2	51.5	33.0	17.5	0.4	3.9
	30~40년미만	(351)	71.8	50.8	33.1	21.6	1.3	1.6
	40~50년미만	(270)	70.3	55.9	37.7	19.7	0.0	2.2
	50년이상	(189)	51.6	54.0	35.7	32.5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69.2	46.1	33.7	19.9	0.7	2.6
	진입4~5년차	(1042)	70.9	49.1	34.3	20.1	0.9	2.0
	진입6~9년차	(656)	66.8	51.2	31.9	20.9	1.5	2.1
	진입10년차이상	(391)	66.9	51.0	38.3	23.2	0.7	0.9
매출유형	B2B	(2,373)	69.2	48.8	33.2	21.0	0.9	2.0
	B2C	(490)	67.9	50.2	36.0	19.8	1.5	1.4
	B2G	(116)	66.8	50.6	46.5	18.4	0.0	3.9
상장	상장	(644)	70.8	50.4	36.4	24.0	0.0	1.2
	비상장	(2,335)	68.3	48.7	33.5	19.7	1.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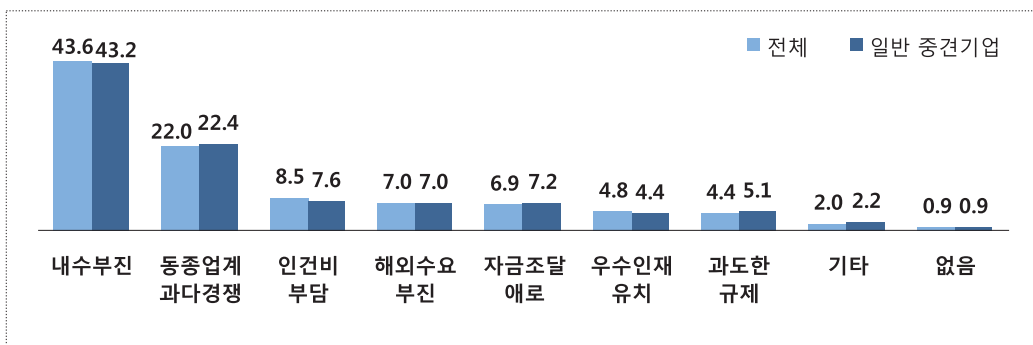
### 3. 중견기업 경영 애로

#### □ 경영 애로사항

- 중견기업은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43.6%)을 꼽았으며, 이어서 동종업계 과다경쟁(22.0%), 인건비 부담(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내수부진(43.2%), 동종업계 과다경쟁(22.4%), 인건비 부담(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 경영 애로사항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기업 특성별로 비율 차이는 있으나 모든 기업군에서 내수부진, 동종업계 과다경쟁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그 다음으로 해외수요 부진(11.1%), 인건비 부담(7.7%)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는 인건비 부담(9.1%), 자금조달 애로(6.8%) 순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은 해외수요 부진(14.1%), 자금조달 애로(7.2%) 순이지만, 비수출기업은 인건비 부담(9.8%), 자금조달 애로(6.6%) 순으로 조사됨
  - 제조업과 수출기업은 인건비 부담보다 해외수요 부진에 대한 애로점이 높지만, 그에 비해 비제조업 및 비수출기업은 해외수요 부진보다 인건비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작년과 동일하게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보다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내수부진에 대한 애로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0~7년 미만 제외)



[표 2-13] 경영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 수	내수부진	동종업계 과다경쟁	인건비 부담	해외수요 부진
전체		(2,979)	43.6	22.0	8.5	7.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3.2	22.4	7.6	7.0
	관계기업	(600)	45.3	20.2	11.9	7.1
업종	제조업	(1,331)	46.3	18.1	7.7	11.1
	비제조업	(1,648)	41.4	25.1	9.1	3.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44.3	14.4	10.4	4.8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40.4	26.6	11.4	4.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48.5	19.1	10.4	8.0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45.2	19.5	6.2	6.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38.9	20.9	7.0	13.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43.1	24.3	3.3	12.1
	5천억원~1조원미만	(151)	45.4	30.6	2.9	10.2
	1조원이상	(57)	68.1	17.8	6.7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41.1	21.1	6.4	14.1
	수출없음	(1,808)	45.2	22.5	9.8	2.5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44.8	20.4	7.0	3.6
	50~100명미만	(470)	47.4	18.7	7.4	7.2
	100~200명미만	(543)	45.3	22.9	10.0	6.0
	200~300명미만	(317)	33.1	30.8	8.8	9.5
	300~500명미만	(322)	44.4	22.7	7.0	9.1
	500~1,000명미만	(305)	40.5	19.4	7.9	13.7
	1,000명이상	(160)	45.6	23.0	17.5	6.9
업력	0~7년미만	(364)	38.8	27.6	2.4	3.4
	7~20년미만	(1,229)	38.1	18.9	10.9	7.7
	20~30년미만	(576)	44.3	24.4	8.4	6.9
	30~40년미만	(351)	51.7	17.5	8.8	5.0
	40~50년미만	(270)	49.4	28.0	5.9	11.1
	50년이상	(189)	53.2	26.1	4.5	4.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32.9	24.5	13.5	4.5
	진입4~5년차	(1,042)	45.3	21.7	5.3	7.4
	진입6~9년차	(656)	50.4	18.6	9.4	8.6
	진입10년차이상	(391)	46.2	23.7	6.8	7.8
매출유형	B2B	(2,373)	42.5	21.6	8.3	8.1
	B2C	(490)	47.3	22.1	9.6	2.7
	B2G	(116)	49.9	28.2	7.3	3.8
상장	상장	(644)	46.4	21.4	5.2	12.4
	비상장	(2,335)	42.7	22.1	9.5	5.3

[표 2-14] 경영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 수	자금조달 애로	우수인재 유치	과도한 규제	기타	없음
전체		(2,979)	6.9	4.8	4.4	2.0	0.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2	4.4	5.1	2.2	0.9
	관계기업	(600)	5.5	6.2	1.6	1.3	0.9
업종	제조업	(1,331)	7.0	3.6	3.2	2.7	0.3
	비제조업	(1,648)	6.8	5.7	5.4	1.4	1.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8.7	8.6	2.8	2.1	3.8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4.8	5.9	4.4	2.4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4.7	2.8	4.0	2.0	0.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9.8	3.7	5.4	2.6	0.8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6.9	5.6	3.5	2.7	1.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7.7	1.8	7.7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151)	5.9	1.5	3.5	0.0	0.0
	1조원이상	(57)	7.4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7.2	3.9	2.6	2.7	0.9
	수출없음	(1,808)	6.6	5.3	5.6	1.5	0.9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8.2	6.3	4.8	2.8	2.0
	50~100명미만	(470)	7.1	5.5	4.3	2.5	0.0
	100~200명미만	(543)	7.5	4.5	3.0	0.4	0.4
	200~300명미만	(317)	6.8	2.1	4.6	2.7	1.5
	300~500명미만	(322)	7.6	1.5	6.4	1.4	0.0
	500~1,000명미만	(305)	4.3	6.9	4.3	2.9	0.0
	1,000명이상	(160)	0.0	2.7	2.9	0.0	1.4
업력	0~7년미만	(364)	5.0	16.8	5.3	0.0	0.9
	7~20년미만	(1,229)	10.2	5.1	5.0	2.7	1.3
	20~30년미만	(576)	4.4	4.5	5.2	1.6	0.4
	30~40년미만	(351)	7.0	2.8	4.7	1.6	1.0
	40~50년미만	(270)	2.3	1.4	0.0	2.0	0.0
	50년이상	(189)	3.4	1.1	4.2	2.1	1.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8.7	7.2	5.0	2.3	1.5
	진입4~5년차	(1,042)	8.1	4.6	4.9	2.0	0.8
	진입6~9년차	(656)	4.9	3.3	2.9	1.0	1.0
	진입10년차이상	(391)	3.9	3.7	4.6	3.3	0.0
매출유형	B2B	(2,373)	7.0	5.1	4.1	2.4	0.9
	B2C	(490)	7.6	4.4	5.9	0.0	0.5
	B2G	(116)	0.0	0.0	5.3	3.4	2.0
상장	상장	(644)	3.9	3.7	4.5	2.1	0.3
	비상장	(2,335)	7.8	5.1	4.4	2.0	1.1

[표 2-15]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 수	내수부진	동종업계 과다경쟁	인건비 부담	해외수요 부진
전체		(2,979)	56.0	46.5	18.8	14.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56.4	47.5	17.3	15.1
	관계기업	(600)	54.1	42.6	24.9	13.5
업종	제조업	(1,331)	58.6	44.9	18.8	24.4
	비제조업	(1,648)	53.8	47.7	18.8	7.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55.5	34.2	23.2	8.6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53.4	51.8	23.9	7.8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56.3	43.4	17.3	13.5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56.6	45.2	17.9	21.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55.4	44.5	13.2	24.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56.8	56.3	6.9	21.1
	5천억원~1조원미만	(151)	64.1	47.5	15.8	16.7
	1조원이상	(57)	68.1	45.9	20.0	2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55.0	44.6	14.5	30.5
	수출없음	(1,808)	56.6	47.7	21.5	4.6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57.0	42.2	16.6	6.4
	50~100명미만	(470)	56.0	51.7	17.4	17.1
	100~200명미만	(543)	56.9	51.7	19.6	15.1
	200~300명미만	(317)	52.3	47.6	21.3	19.5
	300~500명미만	(322)	53.9	50.1	18.4	20.2
	500~1,000명미만	(305)	57.3	39.3	16.3	25.0
	1,000명이상	(160)	55.9	40.2	32.7	12.5
업력	0~7년미만	(364)	60.8	45.0	8.3	7.7
	7~20년미만	(1,229)	50.2	42.8	21.9	13.1
	20~30년미만	(576)	56.1	50.2	20.7	15.1
	30~40년미만	(351)	59.9	43.0	17.7	14.2
	40~50년미만	(270)	61.9	53.7	16.6	26.4
	50년이상	(189)	67.0	53.4	11.5	12.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46.2	40.9	27.0	8.8
	진입4~5년차	(1,042)	56.9	46.4	14.3	17.9
	진입6~9년차	(656)	61.8	50.7	18.8	15.5
	진입10년차이상	(391)	60.3	49.2	16.7	15.6
매출유형	B2B	(2,373)	54.2	45.5	18.3	16.9
	B2C	(490)	62.0	49.8	21.7	7.3
	B2G	(116)	66.1	53.5	15.9	3.8
상장	상장	(644)	59.3	47.7	14.9	26.3
	비상장	(2,335)	54.9	46.1	20.1	11.1

[표 2-16]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 수	자금조달 애로	과도한 규제	우수인재 유치	기타	없음
전체		(2,979)	14.0	10.1	9.2	3.5	0.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4.2	10.7	9.0	3.7	0.9
	관계기업	(600)	13.1	7.5	10.1	3.1	0.9
업종	제조업	(1,331)	13.5	7.9	7.9	4.7	0.3
	비제조업	(1,648)	14.4	11.8	10.3	2.6	1.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3.0	8.7	13.9	3.3	3.8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9.6	10.3	10.1	4.8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13.3	8.8	9.4	3.3	0.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18.6	9.4	7.7	3.3	0.8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16.0	11.9	9.7	3.4	1.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20.2	11.2	6.2	2.5	0.0
	5천억원~1조원미만	(151)	10.8	14.0	4.4	1.5	0.0
	1조원이상	(57)	14.8	3.7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15.1	6.9	9.3	3.9	0.9
	수출없음	(1,808)	13.2	12.1	9.2	3.3	0.9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16.1	13.2	10.1	4.6	2.0
	50~100명미만	(470)	10.8	8.8	11.6	3.6	0.0
	100~200명미만	(543)	15.1	5.2	8.7	2.6	0.4
	200~300명미만	(317)	15.2	11.5	6.4	4.1	1.5
	300~500명미만	(322)	15.4	11.3	6.2	2.7	0.0
	500~1,000명미만	(305)	11.7	8.7	12.0	3.7	0.0
	1,000명이상	(160)	6.7	10.5	5.5	1.3	1.4
업력	0~7년미만	(364)	8.9	15.3	20.8	0.0	0.9
	7~20년미만	(1,229)	17.3	9.7	9.6	4.6	1.3
	20~30년미만	(576)	11.8	11.3	7.7	1.9	0.4
	30~40년미만	(351)	14.3	12.2	10.8	4.3	1.0
	40~50년미만	(270)	9.9	5.4	2.7	4.0	0.0
	50년이상	(189)	12.0	6.7	7.6	3.3	1.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14.7	9.0	12.1	4.0	1.5
	진입4~5년차	(1,042)	15.6	11.5	9.0	3.9	0.8
	진입6~9년차	(656)	12.0	7.4	7.7	2.0	1.0
	진입10년차이상	(391)	11.7	12.1	7.5	4.2	0.0
매출유형	B2B	(2,373)	13.9	10.4	10.0	4.0	0.9
	B2C	(490)	14.9	9.5	5.8	1.4	0.5
	B2G	(116)	11.6	5.3	7.5	3.4	2.0
상장	상장	(644)	9.9	9.4	9.3	3.7	0.3
	비상장	(2,335)	15.3	10.3	9.2	3.5	1.1

### 3절 기술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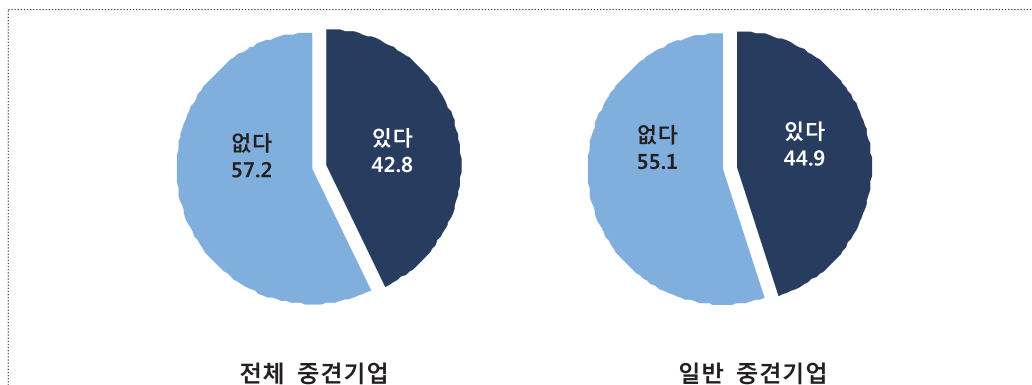
#### 1. 중견기업의 기술/설비 투자

##### □ 2015년 R&D 투자 실적

- 중견기업의 42.8%는 2015년 R&D 투자실적이 있으며, 총 4조 9,359억원을 투자함. 기업당 평균 16.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균 38.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44.9%는 투자실적이 있으며 총 4조 6,838억원, 기업당 평균 19.7억원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 평균 44.0억원)을 투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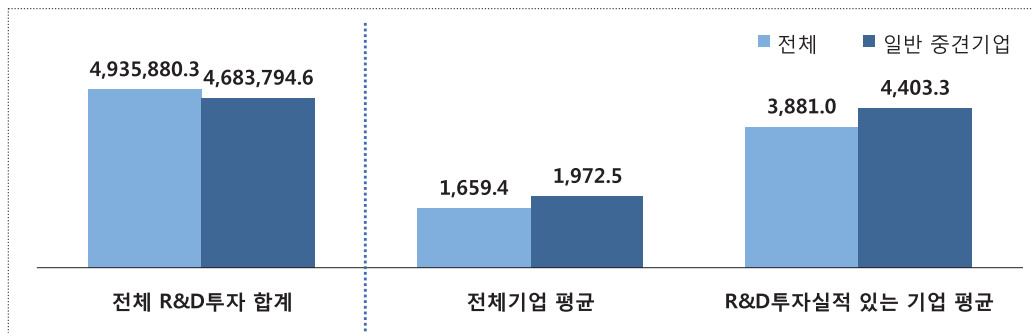
[그림 2-7] 2015년 R&D 투자 유무

(단위: %)



[그림 2-8] 2015년 R&D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2015년에 R&D 투자를 한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이 72.1%, 비제조업이 19.2%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R&D 투자가 많음
  - R&D 투자금액은 제조업이 전체 4조 869억원을 투자, 비제조업이 8,489억원을 투자
  - 제조업 평균 42.7억원, 비제조업 평균 26.9억원을 R&D에 투자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2015년에 R&D 투자를 한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1천억원~2천억원미만 제외)
- 수출기업의 79.5%가 2015년에 R&D 투자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19.1%만이 R&D 투자 실적이 있음
- 중견기업의 진입 연차별로도 진입 연차가 클수록 R&D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진입 6~9년차 제외)
  - 매출액이 클수록 성장단계 진입연차가 클수록 R&D투자를 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비용 또한 크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 여부별로는 비상장 기업의 30.6%, 상장기업은 80.9%가 R&D 투자 실적이 있음
  - 상장기업 및 수출기업이 R&D 투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7] 2015년 R&D 투자실적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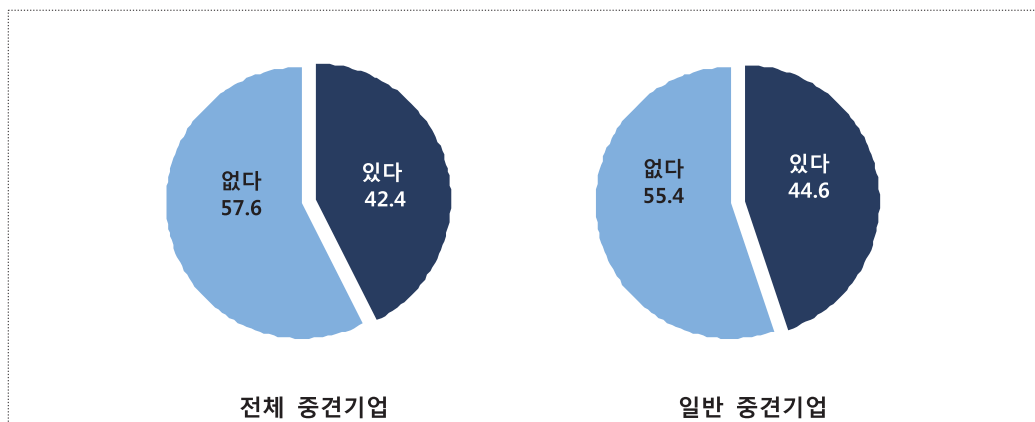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R&D 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2,979)	42.8	57.2	4,935,880.3	1,659.4	3,881.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4.9	55.1	4,683,794.6	1,972.5	4,403.3
	관계기업	(600)	34.7	65.3	252,085.7	420.1	1,211.4
업종	제조업	(1,331)	72.1	27.9	4,086,901.0	3,075.7	4,271.2
	비제조업	(1,648)	19.2	80.8	848,979.3	515.8	2,695.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5.3	84.7	32,066.8	81.6	531.9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23.6	76.4	376,830.3	427.2	1,807.9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43.9	56.1	220,546.5	635.6	1,448.8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62.7	37.3	1,017,661.6	1,770.4	2,829.6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59.8	40.2	783,167.9	2,373.2	3,965.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61.6	38.4	740,790.2	3,011.3	4,891.4
	5천억원~1조원미만	(151)	66.1	33.9	1,152,819.7	7,646.6	11,663.5
	1조원이상	(57)	85.2	14.8	611,997.4	11,999.9	14,086.9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79.5	20.5	4,052,422.0	3,474.7	4,374.3
	수출없음	(1,808)	19.1	80.9	883,458.3	488.6	2,557.8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11.5	88.5	39,671.1	46.0	400.6
	50~100명미만	(470)	29	71.0	110,371.5	235.0	809.2
	100~200명미만	(543)	49.8	50.2	516,944.7	956.5	1,927.8
	200~300명미만	(317)	70.4	29.6	513,852.1	1,618.3	2,297.6
	300~500명미만	(322)	68.5	31.5	782,209.0	2,428.2	3,542.2
	500~1,000명미만	(305)	80.2	19.8	1,515,953.8	5,005.5	6,253.5
	1,000명이상	(160)	50.8	49.2	1,456,878.1	9,105.4	17,907.9
업력	0~7년미만	(364)	31.1	68.9	253,216.8	1,233.8	3,965.3
	7~20년미만	(1,229)	32.2	67.8	1,010,098.6	833.7	2,597.1
	20~30년미만	(576)	44.8	55.2	1,411,660.9	2,363.6	5,300.3
	30~40년미만	(351)	51	49.0	652,376.4	1,607.4	3,150.9
	40~50년미만	(270)	61.2	38.8	776,956.0	2,244.5	3,665.6
	50년이상	(189)	64.1	35.9	831,571.7	3,988.5	6,220.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31.4	68.6	790,811.1	1,093.0	3,477.1
	진입4~5년차	(1,042)	44.4	55.6	1,142,434.5	1,037.4	2,338.5
	진입6~9년차	(656)	40.1	59.9	1,210,003.7	1,752.8	4,388.4
	진입10년차이상	(391)	61.1	38.9	1,792,631.1	3,901.2	6,399.6
매출유형	B2B	(2,373)	45.4	54.6	4,274,073.9	1,804.8	3,984.2
	B2C	(490)	27.7	72.3	528,852.6	1,078.6	3,889.0
	B2G	(116)	54.3	45.7	132,953.8	1,145.4	2,108.5
상장	상장	(644)	80.9	19.1	3,787,093.8	5,230.7	6,462.6
	비상장	(2,335)	30.6	69.4	1,148,786.5	510.4	1,675.1

## □ 2016년 R&D 투자 계획

- 중견기업의 42.4%는 2016년 R&D 투자계획이 있으며, 총 4조 8,089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기업당 평균 16.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39.7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44.6%가 2016년 R&D 투자계획이 있으며, 그 금액은 총 4조 5,940억원으로 조사됨. 기업당 평균 19.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45.4억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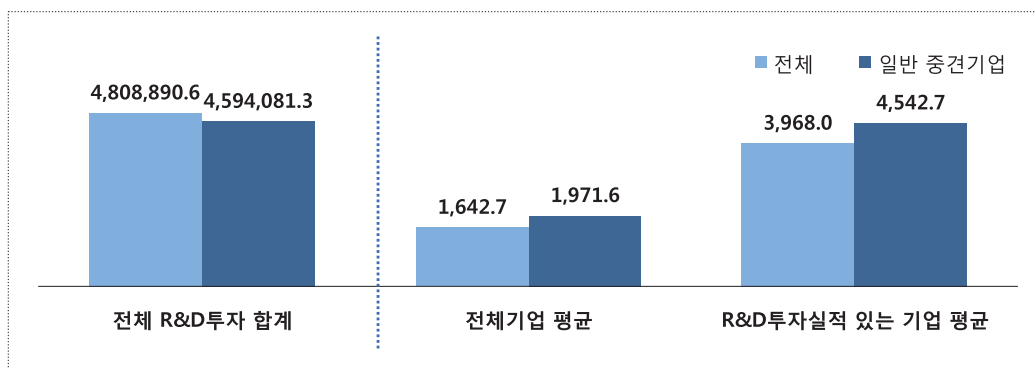
[그림 2-9] 2016년 R&D 투자 계획 유무

(단위: %)



[그림 2-10] 2016년 R&D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2016년에 R&D 투자를 할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 71.2%, 비제조업 19.2%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R&D 투자가 많을 것으로 조사됨
  - 2016 R&D투자계획금액은 제조업이 전체 3조 9,633억원, 비제조업이 8,456억원임
  - 제조업은 평균 43.5억원, 비제조업 평균 28.1억원을 2016년 R&D에 투자할 예정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2016년에 R&D 투자를 할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1천억원~2천억원미만 제외)
- 수출기업의 79.4%가 2016년에 R&D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18.4%만이 R&D 투자 계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업력별로도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R&D 투자계획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이 클수록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R&D투자 예정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 여부별로는 비상장 기업의 30.0%가 2016년에 R&D 투자 계획이 있으며 상장기업은 81.0%가 R&D 투자 계획에 있음
  - 상장기업 및 수출기업이 2016년 R&D 투자계획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투자금액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8] 2016년 R&D 투자 계획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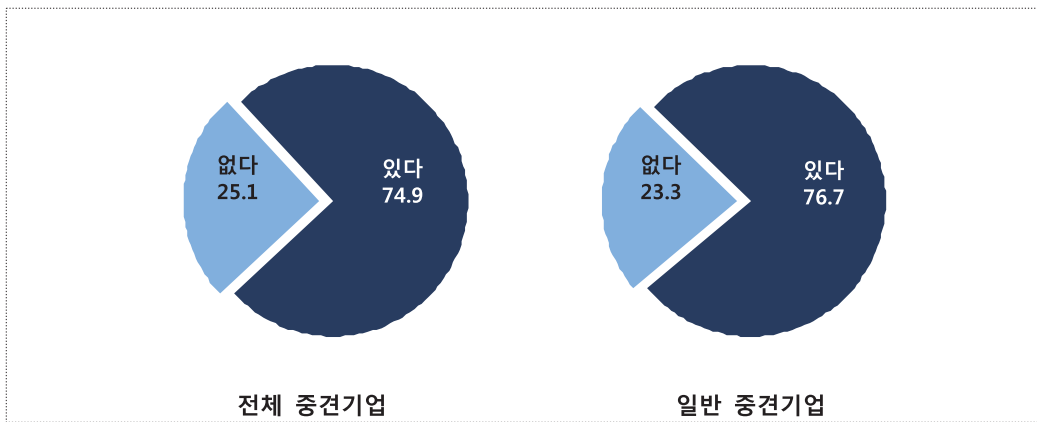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R&D 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2,979)	42.4	57.6	4,808,890.6	1,642.7	3,968.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4.6	55.4	4,594,081.3	1,971.6	4,542.7
	관계기업	(600)	33.9	66.1	214,809.2	359.6	1,070.7
업종	제조업	(1,331)	71.2	28.8	3,963,310.7	3,060.5	4,348.0
	비제조업	(1,648)	19.2	80.8	845,579.8	518.0	2,81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5.0	85.0	35,685.6	90.8	605.4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22.5	77.5	344,099.9	391.3	1,754.8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43.2	56.8	229,631.6	665.9	1,555.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62.7	37.3	973,606.0	1,745.9	2,843.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59.8	40.2	1,135,433.2	3,539.5	6,030.9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61.6	38.4	754,318.5	3,216.9	5,390.6
	5천억원~1조원미만	(151)	66.6	33.4	759,421.7	5,191.4	7,974.6
	1조원이상	(57)	85.2	14.8	576,694.0	11,307.7	13,274.3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79.4	20.6	4,370,919.7	3,828.7	4,851.5
	수출없음	(1,808)	18.4	81.6	437,970.9	245.3	1,408.3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11.2	88.8	41,029.4	47.6	423.8
	50~100명미만	(470)	27.6	72.4	82,249.2	175.1	634.0
	100~200명미만	(543)	48.6	51.4	519,440.1	977.8	2,059.8
	200~300명미만	(317)	70.4	29.6	503,939.3	1,657.7	2,398.4
	300~500명미만	(322)	69.2	30.8	723,972.5	2,343.5	3,453.2
	500~1,000명미만	(305)	80.2	19.8	1,939,900.8	6,602.0	8,311.7
	1,000명이상	(160)	51.4	48.6	998,359.3	6,328.2	12,473.1
업력	0~7년미만	(364)	31.1	68.9	223,963.2	1,091.3	3,507.2
	7~20년미만	(1,229)	31.2	68.8	1,021,899.9	849.6	2,781.1
	20~30년미만	(576)	45.1	54.9	857,889.9	1,479.9	3,420.3
	30~40년미만	(351)	50.4	49.6	668,572.7	1,686.2	3,427.4
	40~50년미만	(270)	60.5	39.5	1,104,703.1	3,255.3	5,451.0
	50년이상	(189)	65.6	34.4	931,861.7	4,572.7	7,055.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30.9	69.1	773,015.1	1,075.0	3,533.4
	진입4~5년차	(1,042)	43.9	56.1	1,140,731.1	1,053.1	2,448.5
	진입6~9년차	(656)	39.1	60.9	665,848.5	987.1	2,631.6
	진입10년차이상	(391)	61.8	38.2	2,229,295.9	4,948.1	8,128.8
매출유형	B2B	(2,373)	45.0	55.0	4,091,392.1	1,759.4	4,013.6
	B2C	(490)	27.3	72.7	578,214.4	1,190.0	4,464.9
	B2G	(116)	54.3	45.7	139,284.0	1,199.9	2,208.9
상장	상장	(644)	81.0	19.0	3,381,682.2	4,802.5	5,969.9
	비상장	(2,335)	30.0	70.0	1,427,208.4	642.0	2,211.1

## □ 2015년 설비투자 실적

- 중견기업의 74.9%는 2015년 설비투자실적이 있으며, 총 18조 1,416억원을 투자함. 기업당 평균 61.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균 71.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76.7%가 2015년 설비투자실적이 있으며, 그 금액은 총 16조 9,665억 원으로 조사됨. 기업당 평균 81.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93.8억원을 투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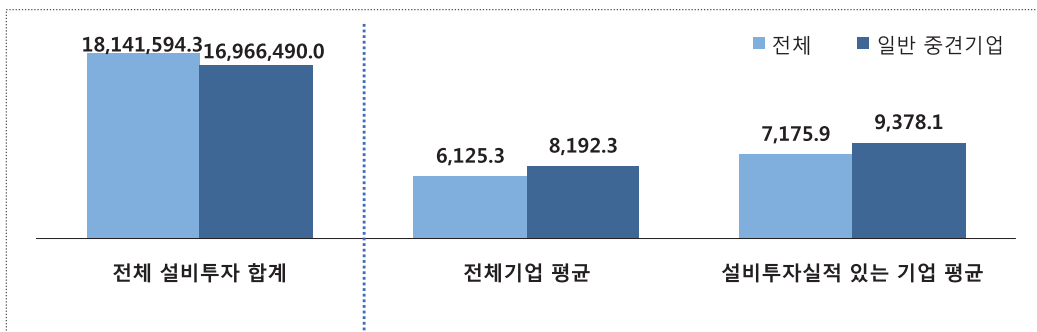
[그림 2-11] 2015년 설비투자 유무

(단위: %)



[그림 2-12] 2015년 설비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2015년에 설비투자를 한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 86.4%, 비제조업 65.6%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설비 투자가 많음
  - 설비 투자금액은 제조업이 10조 8,504억원, 비제조업이 7조 2,912억원임
  - 제조업 평균 94.9억원, 비제조업 평균 68.1억원을 설비에 투자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2015년에 설비투자를 한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5천억원~1조원미만 제외)
- 수출기업의 88.6%가 2015년에 설비투자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66.1%만이 설비투자 실적이 있음
- 업력별로도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50년 이상 제외)
  - R&D 투자비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매출액이 클수록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설비 투자를 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비용 또한 크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 여부별로는 비상장 기업의 69.9%, 상장기업의 90.5%가 2015년에 설비투자 실적이 있음
  - 상장기업 및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

[표 2-19] 2015년 설비투자실적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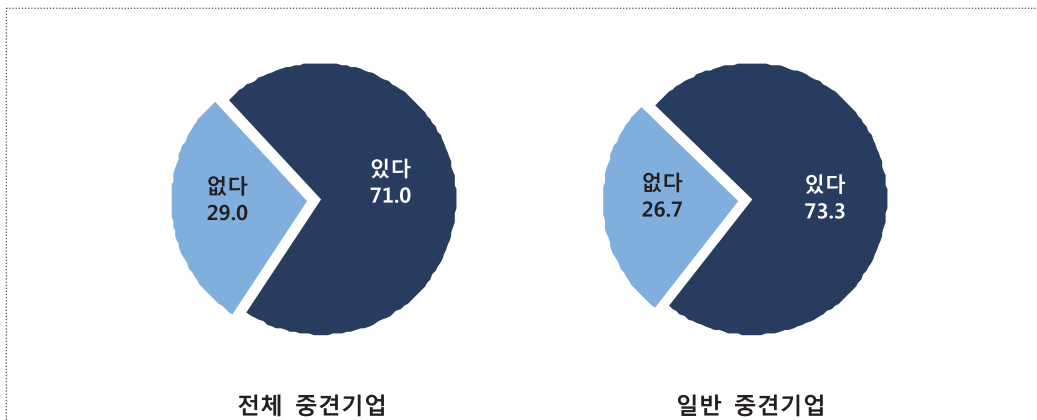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설비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2,979)	74.9	25.1	18,141,594.3	6,125.3	8,192.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6.7	23.3	16,966,490.0	7,175.9	9,378.1
	관계기업	(600)	68.0	32.0	1,175,104.3	1,967.1	2,899.2
업종	제조업	(1,331)	86.4	13.6	10,850,374.7	8,196.2	9,491.9
	비제조업	(1,648)	65.6	34.4	7,291,219.6	4,451.5	6,805.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47.1	52.9	337,429.1	864.4	1,847.7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67.2	32.8	962,305.9	1,097.1	1,636.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77.2	22.8	1,290,798.7	3,719.9	4,821.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83.9	16.1	3,391,737.8	5,923.0	7,071.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86.0	14.0	3,164,096.5	9,588.2	11,147.9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93.2	6.8	2,639,894.5	10,832.7	11,624.9
	5천억원~1조원미만	(151)	89.9	10.1	4,744,053.3	31,649.2	35,306.3
	1조원이상	(57)	100.0	0.0	1,611,278.5	31,593.7	31,593.7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88.6	11.4	10,971,881.1	9,425.9	10,648.0
	수출없음	(1,808)	66.1	33.9	7,169,713.2	3,988.2	6,055.2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50.2	49.8	958,736.4	1,118.6	2,238.9
	50~100명미만	(470)	74.4	25.6	1,351,105.8	2,891.3	3,894.7
	100~200명미만	(543)	85.1	14.9	2,456,125.5	4,574.0	5,383.9
	200~300명미만	(317)	93.9	6.1	2,667,476.7	8,400.8	8,948.6
	300~500명미만	(322)	85.0	15.0	3,036,811.4	9,427.0	11,087.5
	500~1,000명미만	(305)	92.4	7.6	3,601,412.7	11,891.4	12,871.3
	1,000명이상	(160)	83.5	16.5	4,069,925.8	25,788.2	30,983.0
업력	0~7년미만	(364)	55.6	44.4	660,109.2	3,216.4	5,785.5
	7~20년미만	(1229)	70.2	29.8	4,398,552.1	3,638.5	5,189.8
	20~30년미만	(576)	73.0	27.0	3,119,613.7	5,250.6	7,218.1
	30~40년미만	(351)	87.0	13.0	2,600,044.1	6,484.0	7,469.9
	40~50년미만	(270)	87.1	12.9	4,165,799.0	12,034.1	13,823.6
	50년이상	(189)	83.2	16.8	3,197,476.0	15,498.3	18,674.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63.1	36.9	1,774,655.2	2,452.8	3,889.8
	진입4~5년차	(1042)	81.5	18.5	4,540,731.8	4,141.9	5,085.4
	진입6~9년차	(656)	72.0	28.0	4,082,967.9	5,895.5	8,188.5
	진입10년차이상	(391)	82.1	17.9	7,743,239.4	17,231.8	21,115.5
매출유형	B2B	(2,373)	75.3	24.7	14,260,132.3	6,048.8	8,052.5
	B2C	(490)	75.3	24.7	3,752,260.7	7,652.7	10,164.8
	B2G	(116)	66.0	34.0	129,201.2	1,134.4	1,736.0
상장	상장	(644)	90.5	9.5	9,784,210.9	13,554.6	14,981.7
	비상장	(2,335)	69.9	30.1	8,357,383.3	3,731.2	5,352.5

## □ 2016년 설비투자 계획

- 중견기업의 71.0%는 2016년 설비투자 계획이 있으며, 총 14조 9,64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기업당 평균 51.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72.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73.3%가 2016년 설비투자 계획이 있으며, 그 금액은 총 14조 1,515억원임. 기업당 평균 60.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83.6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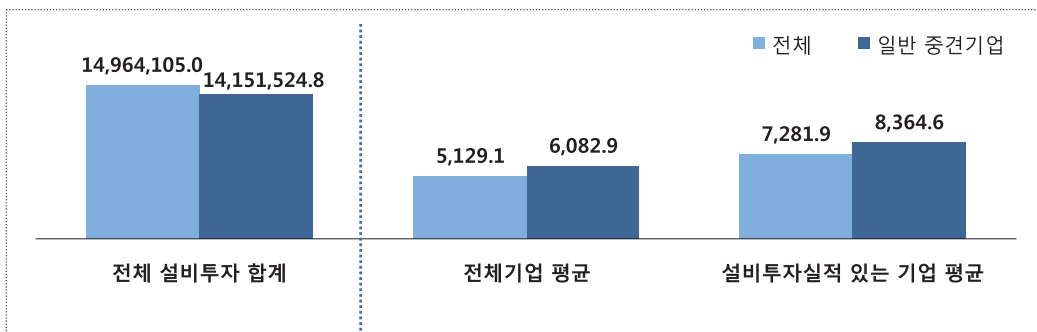
[그림 2-13] 2016년 설비투자 계획 유무

(단위: %)



[그림 2-14] 2016년 설비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2016년에 설비투자를 할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 84.3%, 비제조업 60.4%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설비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설비투자 계획 금액은 제조업 9조 2,875억원, 비제조업 5조 6,766억원임
  - 제조업은 평균 83.6억원, 비제조업은 평균 58.4억원을 2016년 설비에 투자할 예정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2016년에 설비 투자를 할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5천억원~1조원미만 제외)
- 수출기업의 88.3%가 2016년에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59.9%만이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업력별로도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계획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50년 이상 제외)
  - 매출액이 클수록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계획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장 여부별로는 비상장 기업의 65.7%, 상장기업의 87.8%가 2016년 설비투자 계획이 있음
  - R&D투자계획과 같이 상장기업 및 수출기업이 2016년 설비투자 계획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2-20] 2016년 설비투자 계획

(단위 : %, 백만원)

구분		사례 수	설비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2,979)	71.0	29.0	14,964,105.0	5,129.1	7,28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3.3	26.7	14,151,524.8	6,082.9	8,364.6
	관계기업	(600)	62.0	38.0	812,580.2	1,374.7	2,237.7
업종	제조업	(1,331)	84.3	15.7	9,287,473.4	7,182.4	8,569.9
	비제조업	(1,648)	60.4	39.6	5,676,631.6	3,494.5	5,84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43.7	56.3	152,452.6	390.5	902.4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62.3	37.7	565,762.6	649.7	1,050.6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71.0	29.0	1,277,250.6	3,680.8	5,181.5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80.3	19.7	2,631,107.0	4,664.6	5,844.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84.6	15.4	2,077,662.8	6,569.2	7,828.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90.7	9.3	1,902,708.0	8,105.4	8,985.8
	5천억원~1조원미만	(151)	87.8	12.2	4,296,864.1	28,930.5	33,080.2
	1조원이상	(57)	96.3	3.7	2,060,297.2	45,072.1	47,014.9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88.3	11.7	10,138,397.7	8,907.7	10,125.3
	수출없음	(1,808)	59.9	40.1	4,825,707.3	2,712.1	4,579.9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44.2	55.8	807,547.5	942.2	2,149.1
	50~100명미만	(470)	71.4	28.6	1,046,649.5	2,252.8	3,168.0
	100~200명미만	(543)	80.0	20.0	1,728,444.1	3,240.5	4,069.2
	200~300명미만	(317)	91.4	8.6	2,091,392.9	6,779.7	7,439.4
	300~500명미만	(322)	82.3	17.7	2,812,725.0	9,080.0	11,121.5
	500~1,000명미만	(305)	90.9	9.1	3,841,878.2	13,072.8	14,432.9
	1,000명이상	(160)	83.5	16.5	2,635,467.8	17,535.4	21,282.5
업력	0~7년미만	(364)	49.5	50.5	450,402.6	2,194.6	4,431.3
	7~20년미만	(1229)	65.9	34.1	3,784,297.1	3,151.0	4,805.0
	20~30년미만	(576)	69.9	30.1	2,151,451.3	3,716.0	5,397.9
	30~40년미만	(351)	81.9	18.1	2,365,094.3	5,997.5	7,371.4
	40~50년미만	(270)	85.8	14.2	4,028,537.0	11,976.7	14,030.9
	50년이상	(189)	79.7	20.3	2,184,322.7	10,834.5	13,720.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57.4	42.6	1,625,115.2	2,260.2	3,954.3
	진입4~5년차	(1042)	76.7	23.3	3,383,201.5	3,144.2	4,130.7
	진입6~9년차	(656)	70.0	30.0	3,008,279.2	4,425.7	6,377.3
	진입10년차이상	(391)	80.6	19.4	6,947,509.1	15,691.5	19,668.2
매출유형	B2B	(2,373)	71.8	28.2	12,662,549.0	5,461.3	7,676.8
	B2C	(490)	69.4	30.6	2,191,896.5	4,519.1	6,544.1
	B2G	(116)	62.7	37.3	109,659.4	962.8	1,554.1
상장	상장	(644)	87.8	12.2	8,837,246.6	12,645.3	14,471.0
	비상장	(2,335)	65.7	34.3	6,126,858.4	2,761.5	4,2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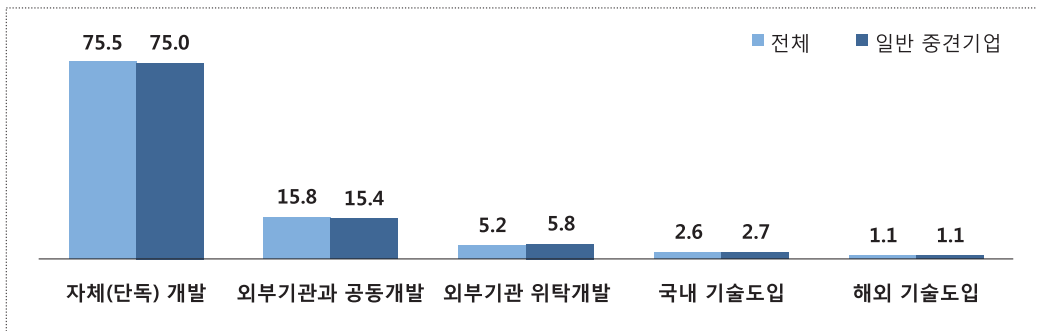


## □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방식

- 중견기업은 기술개발 시 자체개발하는 비중이 75.5%로 가장 높고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5.8%), 외부기관 위탁개발(5.2%), 국내 기술도입(2.6%), 해외기술 도입(1.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자체개발(75.0%),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5.4%), 외부기관 위탁개발(5.8%), 국내 기술도입(2.7%), 해외 기술도입(1.1%) 순임

[그림 2-15] 기술개발 방식

(단위: %, 기술개발이 있는 기업)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제조업은 자체 기술 개발(74.9%), 외부기관과 공동 개발(16.3%),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개발(5.3%)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경우도 자체(77.2%), 외부기관과 공동(13.9%), 외부기관 위탁개발(4.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자체개발 비중이 높았으며, 내수기업은 수출기업에 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주 거래처별로는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기업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외부기관과 공동개발(21.3%)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군에 비해 해외 기술도입(3.7%)이 높게 나타남

[표 2-21] 기술개발 방식

(단위 : %, 기술개발이 있는 기업 1,314개사)

구분		자체(단독) 개발	외부기관과 공동개발	외부기관 위탁개발	국내 기술도입	해외 기술도입
전체		75.5	15.8	5.2	2.6	1.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5.0	15.4	5.8	2.7	1.1
	관계기업	78.0	17.6	1.8	1.8	0.7
업종	제조업	74.9	16.3	5.3	2.6	0.9
	비제조업	77.2	13.9	4.7	2.5	1.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81.2	10.4	5.3	2.4	0.8
	1백억원~5백억원미만	73.8	11.9	7.1	4.7	2.5
	5백억원~1천억원미만	74.7	19.6	2.2	3.1	0.4
	1천억원~2천억원미만	74.4	18.2	5.3	1.4	0.8
	2천억원~3천억원미만	81.0	13.2	5.3	0.5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73.2	17.2	5.7	3.1	0.9
	5천억원~1조원미만	73.2	14.5	5.6	4.8	2.0
	1조원이상	75.1	18.7	1.3	3.4	1.6
수출여부	수출있음	76.8	15.8	3.8	2.8	0.8
	수출없음	71.9	15.6	8.8	1.9	1.8
종사자수	50명미만	75.1	13.6	7.6	1.4	2.3
	50~100명미만	71.6	12.9	5.1	6.3	4.0
	100~200명미만	77.5	17.0	2.8	2.4	0.3
	200~300명미만	70.9	21.8	4.0	3.2	0.0
	300~500명미만	79.6	13.9	5.7	0.5	0.4
	500~1,000명미만	76.1	13.2	7.6	2.2	0.8
	1,000명이상	75.2	16.1	4.1	2.8	1.8
업력	0~7년미만	68.5	17.0	6.8	4.6	3.1
	7~20년미만	75.7	15.7	3.6	3.2	1.9
	20~30년미만	74.1	15.0	8.0	2.8	0.0
	30~40년미만	78.7	14.9	4.8	0.9	0.7
	40~50년미만	75.1	17.7	3.8	2.7	0.6
	50년이상	76.1	15.3	5.8	1.6	1.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0.5	12.1	3.8	3.1	0.5
	진입4~5년차	75.0	17.0	4.9	2.2	0.9
	진입6~9년차	75.0	16.3	3.9	2.8	2.0
	진입10년차이상	72.8	15.8	8.0	2.6	0.8
매출유형	B2B	75.8	16.0	4.7	2.8	0.8
	B2C	75.8	11.6	6.9	1.9	3.7
	B2G	68.5	21.3	9.9	0.4	0.0
상장	상장	77.4	17.1	3.4	1.4	0.7
	비상장	73.9	14.6	6.6	3.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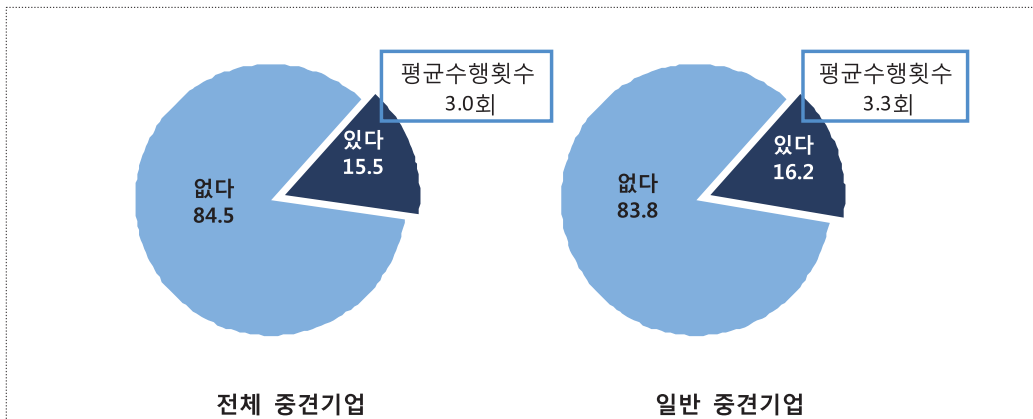
## 2.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 □ 2015년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여부

- 중견기업의 15.5%는 2015년에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행한 기업들의 평균 수행횟수는 3.0회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16.2%는 2015년에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행한 기업들의 평균 수행횟수는 3.3회로 조사됨

[그림 2-16]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

(단위: %)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8.8%, 비제조업의 4.7%가 정부지원 R&D사업 참여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 R&D사업이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매출규모별로는 매출액이 클수록 수행 경험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1조원이상 제외)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성장단계가 오래될수록 정부지원 R&D 사업을 수행한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장기업의 35.4%, 비상장기업의 9.1%가 2015년 정부지원 R&D 사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R&D사업 활용 건수는 상장기업 3.6건, 비상장기업 2.3건임

[표 2-22]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단위 :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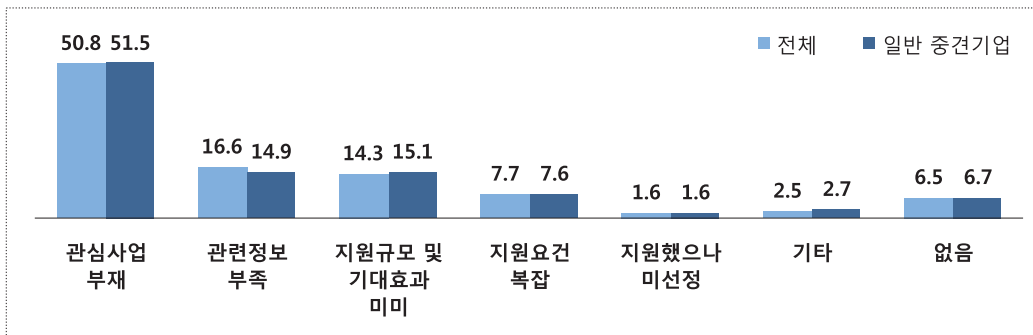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수행경험 있음		수행경험 없음
				평균수행횟수	
전체		(2,979)	15.5	3.0	84.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6.2	3.3	83.8
	관계기업	(600)	12.7	2.0	87.3
업종	제조업	(1,331)	28.8	3.2	71.2
	비제조업	(1,648)	4.7	2.1	95.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6.1	1.4	93.9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8.5	1.4	91.5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12.4	2.9	87.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19.3	3.3	80.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24.0	3.1	76.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28.0	3.8	72.0
	5천억원~1조원미만	(151)	29.8	4.4	70.2
	1조원이상	(57)	27.4	4.8	72.6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33.1	3.2	66.9
	수출없음	(1,808)	4.0	2.0	96.0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3.6	1.3	96.4
	50~100명미만	(470)	8.1	1.4	91.9
	100~200명미만	(543)	15.4	2.7	84.6
	200~300명미만	(317)	24.3	2.4	75.7
	300~500명미만	(322)	26.8	3.4	73.2
	500~1,000명미만	(305)	37.9	3.8	62.1
	1,000명이상	(160)	17.8	5.9	82.2
업력	0~7년미만	(364)	17.6	4.3	82.4
	7~20년미만	(1,229)	10.1	2.5	89.9
	20~30년미만	(576)	16.8	2.5	83.2
	30~40년미만	(351)	17.8	3.4	82.2
	40~50년미만	(270)	21.7	3.0	78.3
	50년이상	(189)	26.0	4.2	74.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11.6	2.5	88.4
	진입4~5년차	(1,042)	15.0	2.7	85.0
	진입6~9년차	(656)	13.9	2.6	86.1
	진입10년차이상	(391)	25.0	4.4	75.0
매출유형	B2B	(2,373)	17.5	2.9	82.5
	B2C	(490)	6.3	3.1	93.7
	B2G	(116)	12.2	6.8	87.8
상장	상장	(644)	35.4	3.6	64.6
	비상장	(2,335)	9.1	2.3	90.9

## □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

-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이 없는 기업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관심사업의 부재(50.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관련정보 부족(16.6%),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4.3%), 지원요건 복잡(7.7%)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관심사업의 부재(51.5%),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5.1%), 관련정보 부족(14.9%), 지원요건 복잡(7.6%) 순임

[그림 2-17]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R&D사업 미참여 기업)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미참여 이유로 관심사업 부재(51.5%),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5.1%)가 높은 반면, 관계기업은 관심사업 부재(47.9%), 관련정보 부족(23.3%)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36.0%, 비제조업의 59.7%가 관심사업의 부재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응답함
  - 관심사업의 부재를 원인으로 응답한 비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지원 R&D사업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상장기업은 관심사업 부재(38.4%),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비상장기업은 관심사업 부재(53.6%), 관련정보 부족(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3]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 R&D사업 미참여 기업 2,518개사)

구분		관심사업 부재	관련정보 부족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	지원요건 복잡	지원했으나 미선정	기타	없음
전체		50.8	16.6	14.3	7.7	1.6	2.5	6.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1.5	14.9	15.1	7.6	1.6	2.7	6.7
	관계기업	47.9	23.3	11.5	8.4	1.7	1.5	5.7
업종	제조업	36.0	19.5	20.5	14.3	2.8	4.6	2.3
	비제조업	59.7	14.9	10.6	3.7	0.9	1.2	9.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0.3	14.6	8.8	4.5	2.2	2.1	7.7
	1백억원~5백억원미만	56.0	15.4	9.6	6.6	0.8	3.2	8.6
	5백억원~1천억원미만	50.0	18.7	17.7	3.8	1.5	4.5	3.7
	1천억원~2천억원미만	44.3	20.4	18.5	9.3	1.4	1.4	4.7
	2천억원~3천억원미만	42.5	12.8	20.0	17.3	1.8	1.8	3.8
	3천억원~5천억원미만	41.0	19.9	19.5	9.8	2.6	2.5	4.8
	5천억원~1조원미만	45.3	14.9	17.0	7.1	2.1	0.0	13.7
	1조원이상	48.0	14.3	23.5	5.1	9.2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36.2	20.9	20.6	13.1	3.5	3.8	2.0
	수출없음	57.3	14.7	11.5	5.3	0.7	1.9	8.5
종사자수	50명미만	55.9	15.1	9.3	5.5	1.3	2.7	10.3
	50~100명미만	60.0	13.5	9.7	9.3	0.0	1.7	5.8
	100~200명미만	41.7	19.5	19.5	9.6	2.0	2.1	5.6
	200~300명미만	36.6	23.5	21.7	5.6	1.5	5.8	5.4
	300~500명미만	45.1	20.8	17.1	9.5	2.8	3.7	1.0
	500~1,000명미만	47.7	16.8	19.7	10.5	3.6	0.0	1.6
	1,000명이상	60.2	6.8	17.7	6.9	2.6	0.0	5.8
업력	0~7년미만	60.4	18.7	1.4	6.5	0.0	6.8	6.2
	7~20년미만	54.2	16.8	13.7	5.7	2.6	1.5	5.5
	20~30년미만	47.6	17.7	14.2	8.1	0.4	3.6	8.4
	30~40년미만	42.9	17.8	17.3	9.7	1.5	3.4	7.4
	40~50년미만	48.9	12.3	18.8	10.6	0.8	1.8	6.7
	50년이상	46.1	14.8	19.5	13.3	1.4	0.0	4.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6.5	16.7	8.6	7.2	0.7	3.7	6.6
	진입4~5년차	51.3	17.9	13.0	7.2	1.9	2.4	6.3
	진입6~9년차	45.3	16.2	21.6	7.1	2.3	1.3	6.3
	진입10년차이상	48.2	13.9	16.2	11.2	1.3	2.4	6.8
매출유형	B2B	49.0	16.3	14.4	8.7	1.5	3.1	7.0
	B2C	59.4	16.6	14.4	3.8	1.5	0.4	4.0
	B2G	45.0	23.8	13.1	6.8	3.9	0.0	7.4
상장	상장	38.4	16.1	22.3	13.0	3.1	3.2	3.8
	비상장	53.6	16.8	12.5	6.5	1.2	2.3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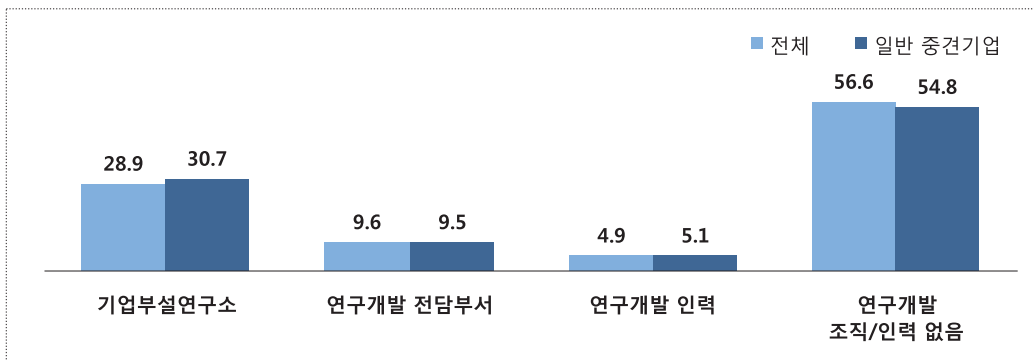
### 3. 연구개발

#### □ 연구개발 조직형태

- 중견기업의 28.9%는 기업부설연구소를, 9.6%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4.9%는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평균 33.6명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30.7%), 연구개발 전담부서(9.5%), 연구개발인력(5.1%) 순이며, 연구개발 인력 수는 평균 37.3명으로 나타남

[그림 2-18]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단위: %)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53.1%가 기업부설연구소를, 13.6%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9.4%가 기업부설연구소를, 6.4%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전체의 73.1%가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19.4%만이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비제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대체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보유비율도 높으며, 연구개발 인력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의 80.2%, 비수출기업의 19.6%가 연구개발 인력이 있음
  -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타 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 조직이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2-24]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단위 : %, 명)

구분		사례 수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조직/인력 없음	연구개발 인력 수
전체		(2,979)	28.9	9.6	4.9	56.6	33.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0.7	9.5	5.1	54.8	37.3
	관계기업	(600)	21.8	10.3	4.0	63.9	15.3
업종	제조업	(1,331)	53.1	13.6	6.4	26.9	36.6
	비제조업	(1,648)	9.4	6.4	3.7	80.6	24.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8.5	3.7	5.5	82.3	8.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10.8	7.9	5.3	76.1	14.7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29.2	10.8	3.2	56.8	17.3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45.8	13.9	4.5	35.8	28.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44.5	9.7	6.3	39.5	37.6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43.7	12.3	4.7	39.4	47.7
	5천억원~1조원미만	(151)	50.3	9.3	5.0	35.4	72.0
	1조원이상	(57)	68.1	17.0	0.0	14.8	112.1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60.6	13.4	6.2	19.8	40.6
	수출없음	(1,808)	8.4	7.2	4.0	80.4	15.2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4.6	4.1	4.1	87.2	6.3
	50~100명미만	(470)	13.7	10.1	6.4	69.8	9.1
	100~200명미만	(543)	33.7	11.4	5.0	49.9	17.0
	200~300명미만	(317)	44.8	18.1	6.8	30.2	23.2
	300~500명미만	(322)	51.3	11.0	5.6	32.2	36.8
	500~1,000명미만	(305)	67.0	9.5	3.7	19.8	61.3
	1,000명이상	(160)	38.7	12.0	1.4	47.9	104.1
업력	0~7년미만	(364)	22.3	6.6	4.0	67.1	33.0
	7~20년미만	(1,229)	21.2	7.6	4.3	67.0	25.7
	20~30년미만	(576)	30.8	6.8	6.7	55.7	34.3
	30~40년미만	(351)	38.6	9.7	5.0	46.7	34.0
	40~50년미만	(270)	36.1	20.8	2.6	40.5	36.9
	50년이상	(189)	43.6	13.8	7.6	34.9	50.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20.9	6.3	3.9	68.8	25.9
	진입4~5년차	(1,042)	28.8	9.7	6.7	54.9	23.7
	진입6~9년차	(656)	28.2	9.5	3.8	58.5	33.5
	진입10년차이상	(391)	42.6	14.9	3.6	38.9	57.5
매출유형	B2B	(2,373)	32.1	9.2	4.9	53.8	33.7
	B2C	(490)	14.1	9.3	4.7	71.9	34.9
	B2G	(116)	24.7	19.3	5.5	50.5	29.8
상장	상장	(644)	61.5	15.0	5.0	18.5	49.8
	비상장	(2,335)	18.4	7.9	4.8	68.9	20.1



## □ 주력기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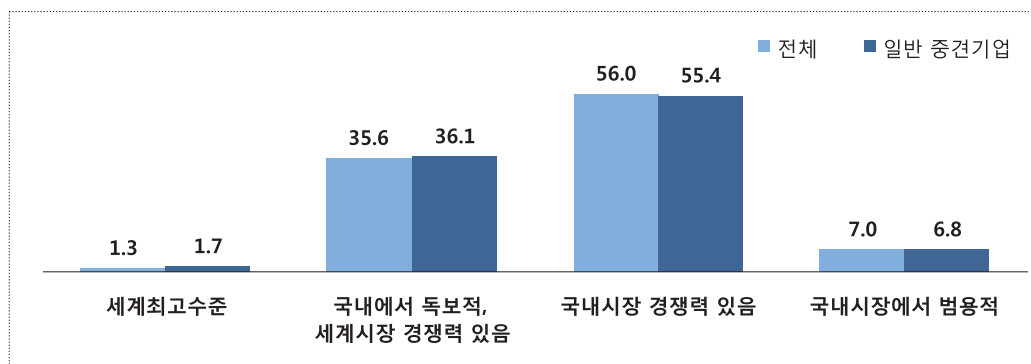
-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이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이 1.3%, 일반 중견기업이 1.7%로 나타남
- 주력기술 수준에 있어서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비중이 중견기업 35.6%, 일반 중견기업 36.1%로 각각 높게 나타남

[표 2-25] 기술수준 정의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의 정의
100% 수준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
80~100%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준
60~80%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준
60% 미만	국내시장에서도 범용적인 기술수준

[그림 2-19] 주력기술 수준

(단위: %)



## 특성별 분석

- 주력기술이 세계 최고 대비 80~100%라고 응답한 비율은 제조업 45.3%, 비제조업 30.2%로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이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 B2B기업의 1.5%가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응답하여 B2C기업(0.9%), B2G기업(0.0%)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인 B2G기업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 기업의 서비스를 높게 책정하지 못함

[표 2-26] 주력기술 수준

(단위 : %)

구분		사례 수	세계 최고수준	국내에서 독보적, 세계시장 경쟁력 있음	국내시장 경쟁력 있음	국내시장에서 범용적
전체		(2,979)	1.3	35.6	56.0	7.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7	36.1	55.4	6.8
	관계기업	(600)	0.0	33.5	58.7	7.8
업종	제조업	(1,331)	1.3	44.0	50.4	4.4
	비제조업	(1,648)	1.4	28.8	60.6	9.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0.5	21.2	61.4	16.9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1.3	33.1	59.4	6.2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0.7	35.1	56.7	7.5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1.5	39.9	53.9	4.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2.8	46.4	43.8	7.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1.8	34.5	61.8	1.9
	5천억원~1조원미만	(151)	1.5	47.0	48.1	3.5
	1조원이상	(57)	0.0	44.4	51.9	3.7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1.9	48.7	46.0	3.4
	수출없음	(1,808)	1.0	27.1	62.6	9.4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1.5	24.7	59.3	14.5
	50~100명미만	(470)	1.5	32.8	58.1	7.6
	100~200명미만	(543)	1.2	38.0	56.9	3.9
	200~300명미만	(317)	0.0	39.8	56.7	3.5
	300~500명미만	(322)	1.4	44.2	53.0	1.4
	500~1,000명미만	(305)	2.2	51.1	45.1	1.5
	1,000명이상	(160)	1.4	39.0	55.0	4.6
업력	0~7년미만	(364)	3.6	29.2	59.8	7.4
	7~20년미만	(1229)	1.0	36.6	53.9	8.4
	20~30년미만	(576)	1.5	36.3	55.9	6.2
	30~40년미만	(351)	1.1	39.0	52.9	7.0
	40~50년미만	(270)	1.2	31.5	62.1	5.2
	50년이상	(189)	1.1	33.9	61.0	4.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0.6	37.1	52.6	9.8
	진입4~5년차	(1042)	1.5	37.2	53.0	8.4
	진입6~9년차	(656)	2.1	30.9	63.0	4.0
	진입10년차이상	(391)	1.0	36.5	58.4	4.1
매출유형	B2B	(2,373)	1.5	37.4	54.3	6.8
	B2C	(490)	0.9	30.8	59.8	8.6
	B2G	(116)	0.0	19.3	75.2	5.5
상장	상장	(644)	1.5	43.2	52.2	3.1
	비상장	(2,335)	1.3	33.1	57.3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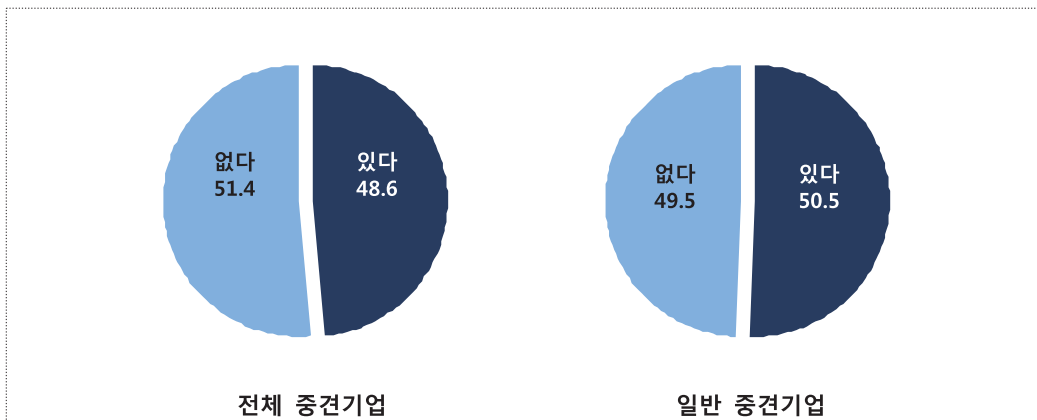
## 4. 지식재산권

### □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율은 48.6%이며, 일반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율은 50.5%로 나타남

[그림 2-20]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일반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등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5%이며, 관계기업은 41.1%로 일반 중견기업이 관계기업보다 지식재산권 보유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71.2%, 비제조업의 30.4%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편차가 큼
- 업력이 0~7년 미만의 신생기업의 경우 31.8%만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으며, 업력이 50년 이상된 기업은 69.1%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어 업력이 길어질수록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40~50년 미만 제외)
- 상장기업의 81.9%, 비상장기업의 37.9%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음
  -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타 기업보다 지식재산권의 보유 비율이 높음

[표 2-27]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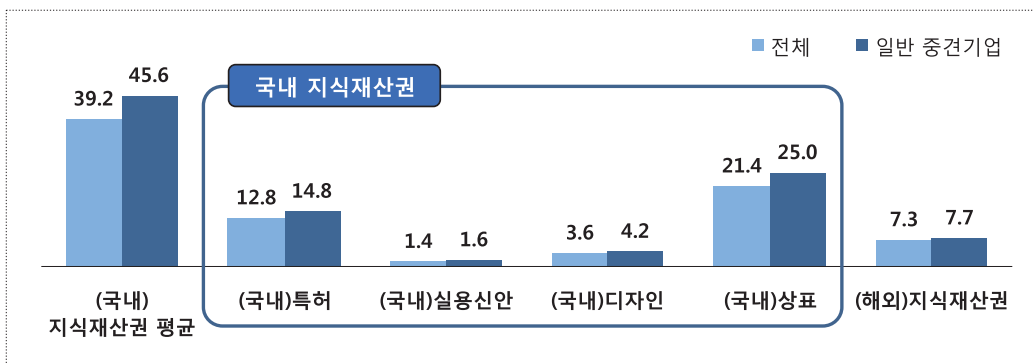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지식재산권 보유	지식재산권 미보유
전체		(2,979)	48.6	51.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50.5	49.5
	관계기업	(600)	41.1	58.9
업종	제조업	(1,331)	71.2	28.8
	비제조업	(1,648)	30.4	69.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26.5	73.5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29.0	71.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52.9	47.1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65.5	34.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62.0	38.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71.5	28.5
	5천억원~1조원미만	(151)	67.4	32.6
	1조원이상	(57)	82.2	17.8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78.6	21.4
	수출없음	(1,808)	29.2	70.8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20.3	79.7
	50~100명미만	(470)	33.3	66.7
	100~200명미만	(543)	55.3	44.7
	200~300명미만	(317)	73.3	26.7
	300~500명미만	(322)	70.3	29.7
	500~1,000명미만	(305)	82.8	17.2
	1,000명이상	(160)	65.1	34.9
업력	0~7년미만	(364)	31.8	68.2
	7~20년미만	(1,229)	38.9	61.1
	20~30년미만	(576)	50.4	49.6
	30~40년미만	(351)	62.1	37.9
	40~50년미만	(270)	61.2	38.8
	50년이상	(189)	69.1	30.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34.5	65.5
	진입4~5년차	(1,042)	49.2	50.8
	진입6~9년차	(656)	47.9	52.1
	진입10년차이상	(391)	70.2	29.8
매출유형	B2B	(2,373)	49.6	50.4
	B2C	(490)	41.8	58.2
	B2G	(116)	55.6	44.4
상장	상장	(644)	81.9	18.1
	비상장	(2,335)	37.9	62.1

##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중견기업은 평균 39.2건(합계:169,681건)의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21.4건, 특허 12.8건, 디자인권 3.6건, 실용신안권 1.4건 순임. 해외 지식재산권은 7.3건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권 4.9건, 특허권 1.9건, 디자인권 0.4건, 실용신안권 0.1건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평균 45.6건(합계:157,792건)의 국내 지식재산권(상표 25.0건, 특허 14.8건, 디자인권 4.2건, 실용신안권 1.6건), 7.7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함

[그림 2-21]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단위: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평균 78.9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평균 20.3건을 보유하여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수가 약 4배 가까이 많음
- 대체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이 평균 147.9건을 보유한 반면, 매출액이 1백억원 미만인 기업은 10.7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편차가 큼
  -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전담 조직 및 인력의 보유 비중이 높고,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수가 매출액이 작은 기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임

[표 2-28]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447개사)

구분		국내					해외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39.2	12.8	1.4	3.6	21.4	7.3	1.9	0.1	0.4	4.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5.6	14.8	1.6	4.2	25.0	7.7	2.1	0.1	0.5	5.0
	관계기업	13.6	4.6	0.6	1.1	7.4	5.5	0.9	0.0	0.1	4.5
업종	제조업	66.1	24.7	2.7	6.1	32.6	12.7	3.8	0.1	0.9	7.9
	비제조업	17.5	3.1	0.4	1.6	12.4	2.9	0.3	0.0	0.0	2.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6	2.0	0.4	0.4	6.8	1.1	0.8	0.1	0.0	0.2
	1백억원~5백억원미만	4.8	1.4	0.1	0.2	3.1	2.7	0.2	0.0	0.0	2.5
	5백억원~1천억원미만	22.3	7.9	1.0	2.5	11.0	1.1	0.4	0.0	0.0	0.6
	1천억원~2천억원미만	70.9	17.0	2.1	5.7	46.2	11.8	2.7	0.3	1.4	7.3
	2천억원~3천억원미만	43.4	20.5	1.4	3.1	18.4	7.9	2.9	0.0	0.6	4.4
	3천억원~5천억원미만	69.1	32.0	2.1	5.9	29.0	10.8	3.1	0.1	0.4	7.2
	5천억원~1조원미만	143.8	35.6	5.8	17.5	84.8	37.0	8.0	0.0	0.5	28.4
	1조원이상	133.0	66.8	12.3	19.7	34.2	14.9	7.7	0.0	0.9	6.2
수출여부	수출있음	80.4	29.0	3.2	6.9	41.2	15.1	4.4	0.2	1.1	9.4
	수출없음	12.5	2.3	0.3	1.4	8.6	2.2	0.2	0.0	0.0	2.0
종사자수	50명미만	5.1	1.1	0.1	0.2	3.7	0.6	0.4	0.0	0.0	0.2
	50~100명미만	4.4	1.8	0.3	0.1	2.2	0.7	0.4	0.0	0.0	0.3
	100~200명미만	16.7	6.9	0.6	1.7	7.4	1.9	1.1	0.1	0.0	0.7
	200~300명미만	60.6	15.1	1.5	6.2	37.7	12.7	0.9	0.0	0.1	11.7
	300~500명미만	74.8	23.1	1.4	7.4	42.9	13.6	2.2	0.1	2.7	8.6
	500~1,000명미만	99.9	41.6	5.8	7.3	45.1	18.0	6.6	0.4	0.9	10.1
	1,000명이상	171.5	47.4	6.3	18.2	99.5	36.9	9.4	0.0	0.3	27.2
업력	0~7년미만	23.8	11.9	2.8	4.0	5.1	3.1	0.9	0.0	0.2	2.0
	7~20년미만	25.0	7.2	0.5	1.6	15.7	6.3	1.2	0.0	0.6	4.4
	20~30년미만	36.4	16.3	0.9	2.7	16.5	10.0	2.1	0.0	0.1	7.8
	30~40년미만	65.0	14.2	4.5	7.9	38.4	7.5	1.5	0.3	0.5	5.2
	40~50년미만	46.0	21.2	1.3	5.0	18.5	9.8	5.5	0.0	0.3	4.0
	50년이상	83.9	19.5	1.5	6.3	56.6	4.8	0.7	0.1	0.3	3.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7.7	7.3	1.0	1.6	7.7	1.9	0.6	0.0	0.2	1.1
	진입4~5년차	25.9	8.0	1.2	2.6	14.1	3.5	1.0	0.0	0.1	2.3
	진입6~9년차	38.1	14.0	0.8	3.3	19.9	13.9	2.1	0.1	1.1	10.6
	진입10년차이상	106.3	30.9	3.5	9.3	62.6	14.8	5.6	0.2	0.5	8.5
매출유형	B2B	33.8	13.8	1.6	3.4	14.9	6.7	2.2	0.1	0.2	4.2
	B2C	69.8	8.4	0.7	4.6	56.1	11.9	0.5	0.0	1.6	9.7
	B2G	20.8	9.1	1.7	2.0	7.9	0.1	0.1	0.0	0.0	0.0
상장	상장	108.8	37.9	4.1	9.2	57.5	21.6	6.5	0.3	1.3	13.6
	비상장	16.9	4.7	0.6	1.8	9.8	2.7	0.4	0.0	0.1	2.1

[표 2-29]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계속)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447개사)

구분		합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46.4	14.6	1.5	4.0	26.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3.4	17.0	1.7	4.7	30.0
	관계기업	19.2	5.5	0.6	1.2	11.9
업종	제조업	78.9	28.5	2.9	7.0	40.5
	비제조업	20.3	3.4	0.4	1.6	14.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6	2.8	0.4	0.4	7.0
	1백억원~5백억원미만	7.5	1.6	0.1	0.2	5.6
	5백억원~1천억원미만	23.4	8.3	1.0	2.5	11.6
	1천억원~2천억원미만	82.7	19.7	2.4	7.1	53.5
	2천억원~3천억원미만	51.3	23.4	1.4	3.7	22.8
	3천억원~5천억원미만	79.8	35.1	2.2	6.3	36.2
	5천억원~1조원미만	180.8	43.7	5.9	18.0	113.2
	1조원이상	148.0	74.6	12.3	20.7	40.4
수출여부	수출있음	95.5	33.4	3.4	8.0	50.7
	수출없음	14.8	2.5	0.3	1.4	10.6
종사자수	50명미만	5.7	1.4	0.1	0.2	4.0
	50~100명미만	5.1	2.2	0.3	0.1	2.5
	100~200명미만	18.7	8.0	0.7	1.8	8.2
	200~300명미만	73.3	16.0	1.5	6.3	49.5
	300~500명미만	88.5	25.3	1.6	10.1	51.5
	500~1,000명미만	117.8	48.2	6.2	8.2	55.2
	1,000명이상	208.3	56.8	6.3	18.5	126.7
업력	0~7년미만	26.7	12.7	2.8	4.1	7.1
	7~20년미만	31.1	8.4	0.5	2.2	20.0
	20~30년미만	46.3	18.3	0.9	2.8	24.3
	30~40년미만	72.5	15.7	4.8	8.4	43.6
	40~50년미만	55.9	26.7	1.3	5.4	22.5
	50년이상	88.7	20.2	1.6	6.6	60.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9.6	7.9	1.0	1.8	8.9
	진입4~5년차	29.4	9.0	1.3	2.7	16.4
	진입6~9년차	52.0	16.1	0.9	4.4	30.6
	진입10년차이상	121.1	36.5	3.7	9.8	71.1
매출유형	B2B	40.5	16.1	1.7	3.6	19.1
	B2C	81.7	9.0	0.7	6.2	65.8
	B2G	20.8	9.2	1.7	2.0	7.9
상장	상장	130.4	44.4	4.4	10.5	71.1
	비상장	19.6	5.1	0.6	1.9	12.0

[표 2-30]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447개사)

구분		국내					해외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116,744	38,036	4,286	10,615	63,807	21,699	5,584	230	1,268	14,61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08,594	35,306	3,923	9,969	59,396	18,371	5,031	204	1,220	11,917
	관계기업	8,151	2,730	364	646	4,411	3,327	553	26	48	2,700
업종	제조업	87,953	32,919	3,619	8,056	43,359	16,955	5,035	188	1,222	10,510
	비제조업	28,791	5,117	667	2,559	20,448	4,743	549	42	46	4,10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766	792	141	151	2,681	436	322	26	0	88
	1백억원~5백억원미만	4,230	1,233	94	166	2,736	2,394	179	0	0	2,215
	5백억원~1천억원미만	7,741	2,724	340	866	3,811	376	156	0	12	208
	1천억원~2천억원미만	40,910	9,796	1,211	3,268	26,636	6,800	1,585	169	811	4,234
	2천억원~3천억원미만	14,324	6,757	456	1,028	6,083	2,621	957	14	208	1,443
	3천억원~5천억원미만	16,989	7,872	524	1,450	7,143	2,649	765	16	108	1,760
	5천억원~1조원미만	21,999	5,453	895	2,679	12,973	5,662	1,226	4	81	4,351
	1조원이상	6,785	3,409	626	1,007	1,743	760	395	0	48	318
수출여부	수출있음	94,084	33,925	3,769	8,126	48,265	17,663	5,170	188	1,246	11,059
	수출없음	22,660	4,111	517	2,489	15,542	4,035	414	42	22	3,558
종사자수	50명미만	4,417	930	91	168	3,226	531	318	26	0	186
	50~100명미만	2,046	835	133	25	1,053	314	180	0	0	134
	100~200명미만	9,046	3,761	321	933	4,031	1,051	585	41	24	401
	200~300명미만	19,235	4,804	480	1,967	11,984	4,044	280	0	41	3,723
	300~500명미만	24,099	7,441	462	2,376	13,820	4,374	703	41	874	2,756
	500~1,000명미만	30,460	12,678	1,783	2,232	13,766	5,478	2,012	122	277	3,067
	1,000명이상	27,442	7,586	1,016	2,913	15,926	5,907	1,506	0	52	4,349
업력	0~7년미만	4,881	2,433	584	813	1,051	629	180	0	36	413
	7~20년미만	30,287	8,714	607	1,942	19,025	7,644	1,506	58	774	5,307
	20~30년미만	21,815	9,753	536	1,606	9,919	5,967	1,231	18	61	4,658
	30~40년미만	26,363	5,754	1,810	3,202	15,597	3,059	602	138	221	2,097
	40~50년미만	15,914	7,323	435	1,736	6,421	3,408	1,919	2	117	1,369
	50년이상	17,484	4,059	315	1,317	11,794	992	146	14	58	77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2,777	5,265	721	1,190	5,600	1,409	458	11	127	813
	진입4~5년차	28,524	8,807	1,374	2,845	15,498	3,812	1,092	54	157	2,508
	진입6~9년차	26,360	9,682	585	2,291	13,801	9,633	1,462	49	758	7,364
	진입10년차이상	49,084	14,282	1,606	4,289	28,907	6,845	2,571	115	226	3,933
매출유형	B2B	80,114	32,842	3,767	8,141	35,364	15,871	5,312	223	482	9,854
	B2C	34,218	4,138	319	2,239	27,522	5,815	260	6	785	4,764
	B2G	2,412	1,056	201	235	921	13	13	0	0	0
상장	상장	78,738	27,438	3,003	6,642	41,655	15,667	4,699	182	964	9,821
	비상장	38,007	10,598	1,283	3,973	22,152	6,032	885	48	303	4,796



[표 2-31]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계속)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447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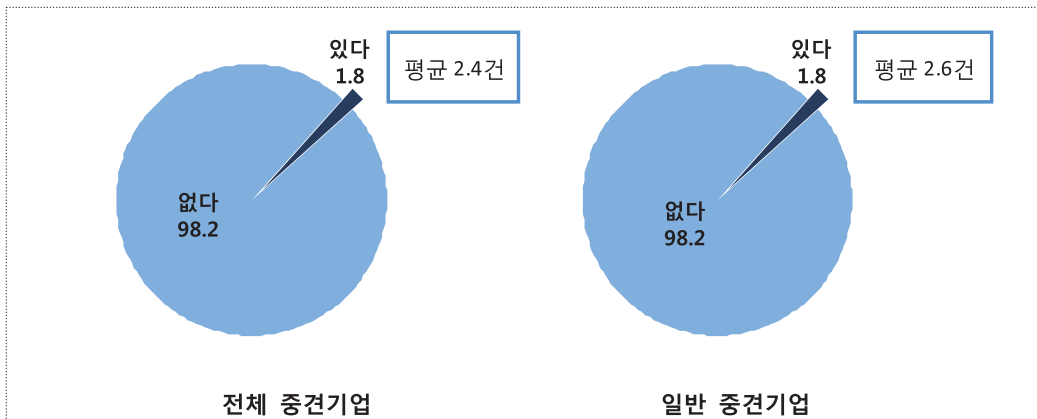
구분		합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138,443	43,620	4,516	11,883	78,42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26,965	40,337	4,126	11,188	71,313
	관계기업	11,478	3,283	390	694	7,111
업종	제조업	104,909	37,955	3,808	9,277	53,869
	비제조업	33,534	5,665	709	2,605	24,55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02	1,114	167	151	2,769
	1백억원~5백억원미만	6,624	1,412	94	166	4,952
	5백억원~1천억원미만	8,116	2,880	340	878	4,019
	1천억원~2천억원미만	47,710	11,381	1,380	4,080	30,870
	2천억원~3천억원미만	16,945	7,714	470	1,236	7,526
	3천억원~5천억원미만	19,638	8,636	541	1,558	8,903
	5천억원~1조원미만	27,662	6,679	899	2,760	17,324
	1조원이상	7,545	3,804	626	1,054	2,061
수출여부	수출있음	111,748	39,095	3,957	9,372	59,324
	수출없음	26,695	4,525	559	2,511	19,100
종사자수	50명미만	4,947	1,249	118	168	3,413
	50~100명미만	2,360	1,015	133	25	1,187
	100~200명미만	10,097	4,346	362	957	4,432
	200~300명미만	23,280	5,084	480	2,008	15,707
	300~500명미만	28,472	8,143	503	3,250	16,576
	500~1,000명미만	35,937	14,690	1,905	2,509	16,834
	1,000명이상	33,349	9,092	1,016	2,965	20,275
업력	0~7년미만	5,510	2,613	584	849	1,464
	7~20년미만	37,931	10,220	665	2,716	24,331
	20~30년미만	27,782	10,984	553	1,668	14,577
	30~40년미만	29,421	6,356	1,948	3,423	17,694
	40~50년미만	19,322	9,242	437	1,853	7,790
	50년이상	18,476	4,205	329	1,375	12,56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4,186	5,723	733	1,316	6,413
	진입4~5년차	32,336	9,899	1,428	3,003	18,006
	진입6~9년차	35,992	11,145	634	3,048	21,165
	진입10년차이상	55,929	16,853	1,721	4,515	32,840
매출유형	B2B	95,985	38,154	3,990	8,624	45,217
	B2C	40,033	4,398	326	3,024	32,286
	B2G	2,425	1,068	201	235	921
상장	상장	94,405	32,137	3,186	7,606	51,476
	비상장	44,038	11,483	1,331	4,276	26,948

## □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중견기업 1.8%, 일반 중견기업 또한 1.8%가 2015년에 침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침해건수는 중견기업 2.4건, 일반 중견기업 2.6건으로 나타남

[그림 2-22]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단위: %)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의 1.8%, 관계기업의 1.7%가 2015년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음
  - 일반 중견기업이 2015년에 경험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평균 2.6회, 관계기업은 1.6회로 일반 중견기업이 관계기업보다 침해당한 경험도 많으며 횟수도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 제조업의 2.2%, 비제조업의 1.5%가 2015년에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음
- 수출기업은 3.1%(2.8건), 비수출기업은 0.9%(1.5건)가 2015년에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및 수출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유건수가 많기 때문에 침해당한 경험과 횟수도 많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매출유형별로는 B2C기업의 3.6%가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이 있으며 침해건수 또한 4.1건으로 다른 기업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2] 지식재산권 침해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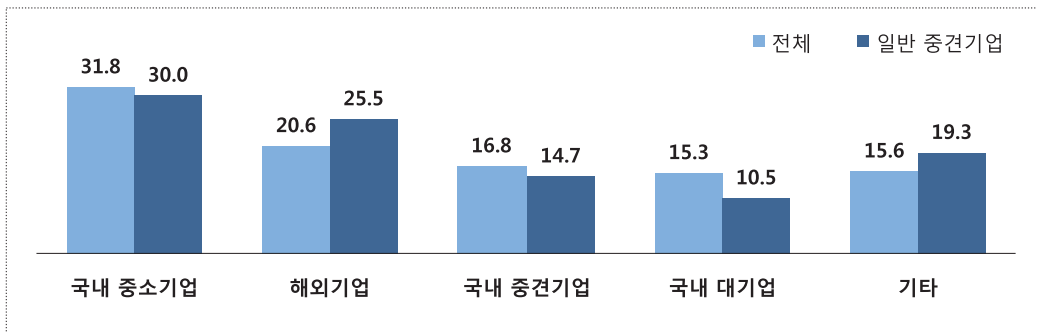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침해경험 있음		침해경험 없음
				평균 침해 건수	
전 체		(2,979)	1.8	2.4	98.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8	2.6	98.2
	관계기업	(600)	1.7	1.6	98.3
업종	제 조업	(1,331)	2.2	3.1	97.8
	비제조업	(1,648)	1.5	1.4	98.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7	1.0	98.3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0.4	2.0	99.6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1.3	1.5	98.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3.6	3.5	96.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1.4	1.5	98.6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2.7	3.0	97.3
	5천억원~1조원미만	(151)	2.9	1.5	97.1
	1조원이상	(57)	3.7	1.0	96.3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3.1	2.8	96.9
	수출없음	(1,808)	0.9	1.5	99.1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0.6	1.0	99.4
	50~100명미만	(470)	0.5	1.0	99.5
	100~200명미만	(543)	1.6	1.5	98.4
	200~300명미만	(317)	1.4	1.0	98.6
	300~500명미만	(322)	3.2	2.7	96.8
	500~1,000명미만	(305)	4.7	3.7	95.3
	1,000명이상	(160)	5.3	2.0	94.7
업력	0~7년미만	(364)	1.9	1.0	98.1
	7~20년미만	(1229)	1.9	2.1	98.1
	20~30년미만	(576)	1.1	5.9	98.9
	30~40년미만	(351)	2.1	1.0	97.9
	40~50년미만	(270)	2.5	2.5	97.5
	50년이상	(189)	1.1	2.0	98.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0.9	1.0	99.1
	진입4~5년차	(1042)	2.3	3.0	97.7
	진입6~9년차	(656)	1.0	1.3	99.0
	진입10년차이상	(391)	3.3	2.1	96.7
매출유형	B2B	(2,373)	1.4	1.4	98.6
	B2C	(490)	3.6	4.1	96.4
	B2G	(116)	3.1	2.0	96.9
상장	상장	(644)	2.4	3.3	97.6
	비상장	(2,335)	1.6	2.0	98.4

## □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주체에 대해,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31.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기업(20.6%), 국내 중견기업(16.8%), 국내 대기업(15.3%)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30.0%), 해외기업(25.5%), 기타(19.3%), 국내 중견기업(14.7%), 국내 대기업(10.5%) 순임

[그림 2-23]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단위: %, 지재권 침해경험 기업)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30.0%), 해외기업(25.5%) 순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주체를 응답한 반면, 관계기업은 국내 중소기업(39.1%), 국내 대기업(35.1%)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기업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46.6%)의 침해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비제조업은 국내 대기업(33.1%)의 침해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은 국내 중소기업(39.0%)을 침해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기업은 해외기업(37.3%),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기업은 국내 대기업(100.0%)이 침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주 거래처별로 침해주체 대상이 다를 수 있음

[표 2-33]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단위 : %, 지적권 침해경험 기업 5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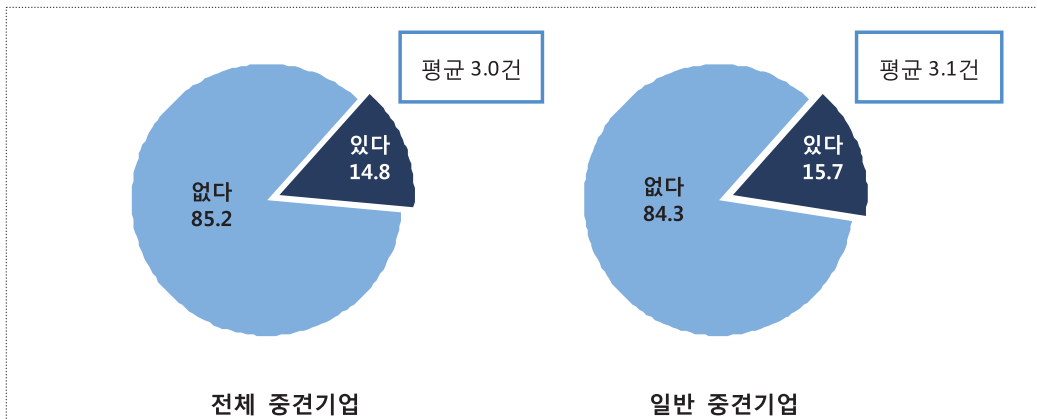
구분		국내중소기업	해외기업	국내중견기업	국내대기업	기타
전체		31.8	20.6	16.8	15.3	15.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0.0	25.5	14.7	10.5	19.3
	관계기업	39.1	0.0	25.8	35.1	0.0
업종	제조업	46.6	30.6	15.4	0.0	7.4
	비제조업	14.4	8.9	18.4	33.1	25.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39.6	0.0	60.4
	1백억원~5백억원미만	0.0	0.0	0.0	10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100.0	0.0	0.0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27.6	30.9	10.2	10.5	20.7
	2천억원~3천억원미만	49.0	0.0	0.0	51.0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30.7	34.6	34.6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50.0	50.0	0.0	0.0	0.0
	1조원이상	0.0	0.0	10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34.5	30.0	17.3	12.4	5.8
	수출없음	25.7	0.0	15.8	21.5	37.1
종사자수	50명미만	0.0	0.0	54.7	0.0	45.3
	50~100명미만	0.0	0.0	0.0	100.0	0.0
	100~200명미만	28.1	0.0	0.0	26.6	45.3
	200~300명미만	49.2	50.8	0.0	0.0	0.0
	300~500명미만	35.8	43.5	20.8	0.0	0.0
	500~1,000명미만	30.3	30.2	0.0	24.9	14.6
	1,000명이상	50.5	0.0	49.5	0.0	0.0
업력	0~7년미만	0.0	0.0	0.0	0.0	100.0
	7~20년미만	26.5	28.7	19.7	25.1	0.0
	20~30년미만	31.4	32.4	0.0	36.1	0.0
	30~40년미만	50.6	0.0	24.3	0.0	25.1
	40~50년미만	49.6	0.0	26.3	0.0	24.1
	50년이상	0.0	100.0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0.0	35.3	0.0	0.0	64.7
	진입4~5년차	32.9	26.1	8.4	23.8	8.7
	진입6~9년차	30.5	0.0	38.0	31.5	0.0
	진입10년차이상	43.4	14.8	27.8	0.0	14.0
매출유형	B2B	39.0	13.8	20.7	14.1	12.5
	B2C	25.0	37.3	13.2	0.0	24.5
	B2G	0.0	0.0	0.0	100.0	0.0
상장	상장	49.7	38.0	12.3	0.0	0.0
	비상장	23.2	12.3	18.9	22.6	23.0

## □ 산학협력 활동 경험

- 중견기업의 14.8%는 2015년에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활동한 기업들의 평균 건수는 3.0건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15.7%가 산학협력 활동을 하였으며, 평균 3.1건으로 나타남

[그림 2-24] 산학협력 활동 경험

(단위: %)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의 15.7%, 관계기업의 11.3%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일반 중견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건수는 평균 3.1건, 관계기업은 평균 2.0건으로 일반 중견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건수가 더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6.4%, 비제조업의 5.5%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음
- 수출기업은 30.2%, 비수출기업은 4.9%가 2015년에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함
  - 제조기업, 수출기업의 경우 비제조업, 비수출기업보다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을 많이 실시하였으며, 그 건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종사자수별로는 50명 미만(3.4%), 50~100명 미만(7.8%), 100~200명 미만(16.3%), 200~300명 미만(17.6%), 300~500명 미만(26.8%), 500~1,000명 미만(34.7%)으로 종사자수가 클수록 산학협력 실시비율도 높음

[표 2-34] 산학협력 활동 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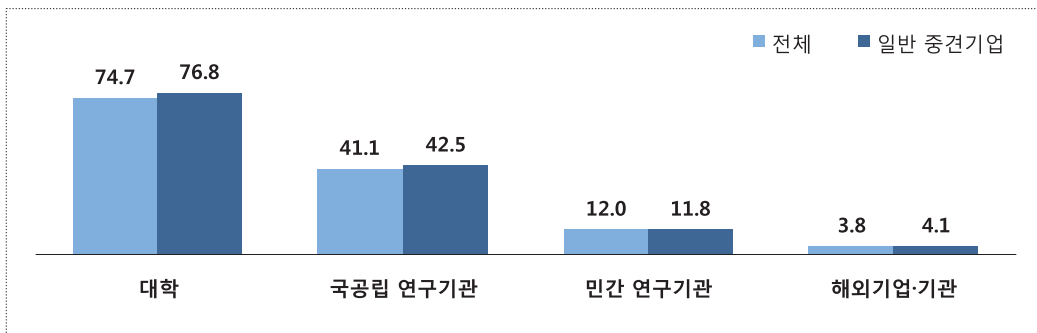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활동 경험 있음		활동 경험 없음
			평균 건수		
전 체		(2,979)	14.8	3.0	85.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5.7	3.1	84.3
	관계기업	(600)	11.3	2.0	88.7
업종	제 조업	(1,331)	26.4	3.1	73.6
	비제 조업	(1,648)	5.5	2.3	94.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3.5	1.7	96.5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7.5	1.6	92.5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12.9	2.8	87.1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20.6	3.4	79.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19.2	2.9	80.8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26.0	3.1	74.0
	5천억원~1조원미만	(151)	28.4	2.9	71.6
	1조원이상	(57)	54.1	5.2	45.9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30.2	3.2	69.8
	수출없음	(1,808)	4.9	2.0	95.1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3.4	1.1	96.6
	50~100명미만	(470)	7.8	1.9	92.2
	100~200명미만	(543)	16.3	2.8	83.7
	200~300명미만	(317)	17.6	2.0	82.4
	300~500명미만	(322)	26.8	3.2	73.2
	500~1,000명미만	(305)	34.7	3.8	65.3
	1,000명이상	(160)	24.8	4.2	75.2
업력	0~7년미만	(364)	15.2	2.6	84.8
	7~20년미만	(1229)	9.3	2.6	90.7
	20~30년미만	(576)	13.7	2.1	86.3
	30~40년미만	(351)	20.8	2.3	79.2
	40~50년미만	(270)	24.3	3.1	75.7
	50년이상	(189)	22.9	6.7	77.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12.6	2.5	87.4
	진입4~5년차	(1042)	13.4	2.2	86.6
	진입6~9년차	(656)	12.5	3.2	87.5
	진입10년차이상	(391)	25.3	4.1	74.7
매출유형	B2B	(2,373)	16.8	2.9	83.2
	B2C	(490)	4.5	4.2	95.5
	B2G	(116)	18.0	3.0	82.0
상장	상장	(644)	32.2	3.7	67.8
	비상장	(2,335)	9.3	2.2	90.7

## □ 산학협력기관

- 중견기업의 산학협력기관으로는 대학(74.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공립 연구기관(41.1%), 민간 연구기관(12.0%), 해외기업·기관(3.8%)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76.8%), 국공립 연구기관(42.5%), 민간 연구기관(11.8%), 해외 기업·기관(4.1%) 순임

[그림 2-25] 산학협력기관

(단위: %, 산학협력 경험 기업)



## 특성별 분석

-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이 협력기관인 기업은 제조업 74.1%, 비제조업 77.2%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대학과의 적극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 종사자규모별로는 50명 미만의 기업은 다른 기업군보다 민간연구기관(35.9%)과 많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300~500명 미만의 기업은 다른 기업군보다 국공립 연구기관(60.7%)과 많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음
- B2B기업의 74.0%가 대학과 협력하였으며, 이어서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 투자기관포함, 40.9%), 민간연구기관(11.3%), 해외기업/기관(3.6%)순으로 지난 1년간 산학협력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35] 협력기관

(단위 : %, 산학협력 경험 기업 442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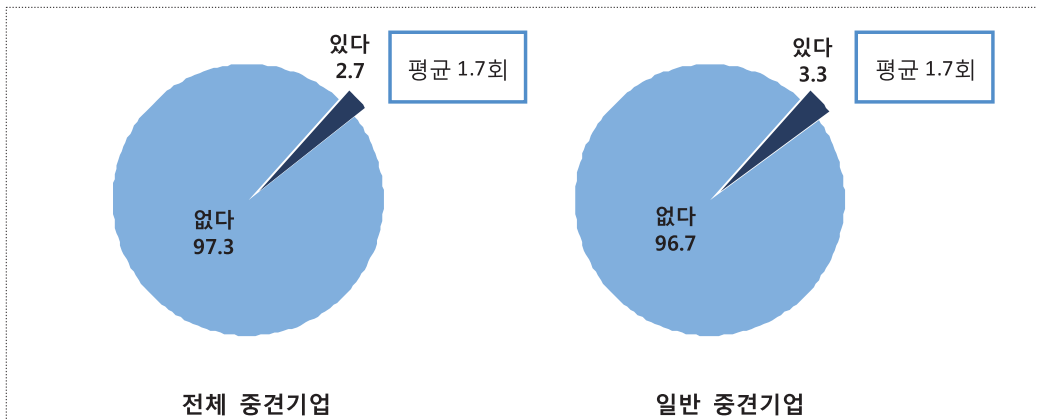
구분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해외기업·기관
전체		74.7	41.1	12.0	3.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6.8	42.5	11.8	4.1
	관계기업	63.4	33.8	12.9	2.2
업종	제조업	74.1	46.1	9.5	4.2
	비제조업	77.2	22.0	21.8	2.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1.2	41.8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70.8	20.5	25.5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68.2	35.7	10.7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68.9	44.7	10.8	3.0
	2천억원~3천억원미만	85.8	39.1	10.7	7.1
	3천억원~5천억원미만	71.6	53.6	6.8	0.0
	5천억원~1조원미만	84.5	43.3	5.2	15.5
	1조원이상	87.7	56.2	19.2	6.8
수출여부	수출있음	79.7	42.6	7.8	4.1
	수출없음	54.5	35.5	28.8	2.5
종사자수	50명미만	60.4	29.1	35.9	0.0
	50~100명미만	81.1	32.0	5.8	0.0
	100~200명미만	78.1	30.4	13.5	4.1
	200~300명미만	72.7	35.6	4.0	0.0
	300~500명미만	59.7	60.7	7.5	0.0
	500~1,000명미만	83.8	42.3	11.6	8.5
	1,000명이상	83.1	44.6	18.8	10.4
업력	0~7년미만	84.3	46.4	18.1	0.0
	7~20년미만	62.5	44.9	17.4	6.9
	20~30년미만	71.7	40.7	5.4	5.5
	30~40년미만	78.5	33.9	5.7	0.0
	40~50년미만	77.2	40.3	13.1	5.3
	50년이상	91.3	43.9	15.8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0.4	33.1	11.0	4.9
	진입4~5년차	73.8	38.3	8.6	2.4
	진입6~9년차	62.4	50.2	18.9	5.2
	진입10년차이상	80.5	44.4	12.0	3.5
매출유형	B2B	74.0	40.9	11.3	3.6
	B2C	89.6	55.0	10.2	10.2
	B2G	73.0	31.1	27.0	0.0
상장	상장	80.8	45.5	11.8	6.4
	비상장	67.9	36.3	12.2	0.9

## □ 기술이전 받은 경험

- 중견기업의 2.7%는 2015년에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균 횟수는 1.7회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3.3%가 기술이전을 받았으며, 평균 1.7건으로 나타남

[그림 2-26] 기술이전 받은 경험

(단위: %)



### 특성별 분석

-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일반 중견기업의 3.3%가 1.7건, 관계기업의 0.4%가 1.0건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5.0%, 비제조업의 0.8%가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전 활동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출기업의 기술이전 경험 비중은 5.7%로 내수기업에 비해 약 6배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이전 건수는 수출기업 평균 1.8건으로 내수기업(1.0건)보다 약 1.8배 높음
  -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일수록 산학협력 비율이 높으며, 기술이전 비율도 높아 대학, 연구소와 적극적인 협력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B2B기업은 기술이전 경험 기업이 3.4%, 기술이전 건수는 1.7건으로 나타난 반면, B2C기업과 B2G기업은 기술이전 경험 기업이 0%로 주 거래처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임

[표 2-36] 기술이전 받은 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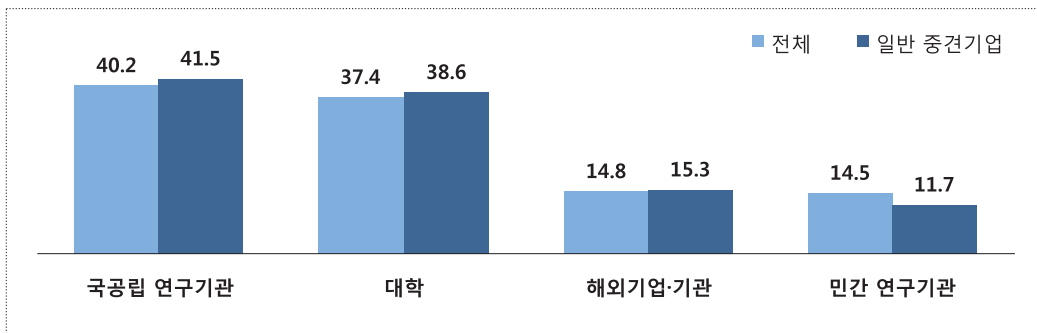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기술이전 경험 있음		기술이전 경험 없음
				평균 건수	
전체		(2,979)	2.7	1.7	97.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3	1.7	96.7
	관계기업	(600)	0.4	1.0	99.6
업종	제조업	(1,331)	5.0	1.8	95.0
	비제조업	(1,648)	0.8	1.4	99.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0	1.0	99.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1.7	1.4	98.3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2.6	4.2	97.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2.9	1.1	97.1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0.0	-	10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7.4	1.9	92.6
	5천억원~1조원미만	(151)	4.4	1.7	95.6
	1조원이상	(57)	20.0	1.7	8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5.7	1.8	94.3
	수출없음	(1,808)	0.7	1.0	99.3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1.0	1.0	99.0
	50~100명미만	(470)	1.0	1.0	99.0
	100~200명미만	(543)	3.0	1.5	97.0
	200~300명미만	(317)	4.2	2.4	95.8
	300~500명미만	(322)	3.7	1.5	96.3
	500~1,000명미만	(305)	5.1	2.3	94.9
	1,000명이상	(160)	5.6	1.4	94.4
업력	0~7년미만	(364)	1.7	2.0	98.3
	7~20년미만	(1229)	2.7	1.7	97.3
	20~30년미만	(576)	2.2	1.0	97.8
	30~40년미만	(351)	1.1	1.0	98.9
	40~50년미만	(270)	3.6	1.5	96.4
	50년이상	(189)	6.8	3.0	93.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3.6	2.1	96.4
	진입4~5년차	(1042)	1.2	1.2	98.8
	진입6~9년차	(656)	2.3	2.0	97.7
	진입10년차이상	(391)	5.3	1.4	94.7
매출유형	B2B	(2,373)	3.4	1.7	96.6
	B2C	(490)	0.0	-	100.0
	B2G	(116)	0.0	-	100.0
상장	상장	(644)	6.4	1.5	93.6
	비상장	(2,335)	1.5	2.1	98.5

## □ 기술이전처

-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처로는 국공립 연구기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학(37.4%), 해외기업·기관(14.8%), 민간 연구기관(14.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국공립 연구기관(41.5%), 대학(38.6%), 해외기업·기관(15.3%), 민간 연구기관(11.7%) 순임

[그림 2-27] 기술이전처

(단위: %, 기술이전 경험 기업)



## 특성별 분석

- 관계기업의 기술이전처는 모두 민간연구기관(100.0%)으로 나타남
- 수출여부별로 살펴보면, 수출기업은 대학(44.8%), 국공립 연구기관(38.7%), 해외 기업·기관(17.8%), 민간연구기관(6.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수기업은 민간연구기관(52.6%), 국공립 연구기관(47.4%) 순으로 나타나 수출여부별로 기술이전처에 대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장기업의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50.9%)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44.4%), 해외기업·기관(16.7%)순인 반면, 비상장기업의 경우 민간연구기관(34.4%)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과 상장기업은 기술이전 경험의 비중이 높으며,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많이 받는 반면, 내수기관과 비상장기업은 기술이전 경험의 비중이 낮으며, 민간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37] 기술이전처

(단위 : %, 기술이전 경험 기업 77개사, 중복응답)

구분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해외기업·기관	민간연구기관
전체		40.2	37.4	14.8	14.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1.5	38.6	15.3	11.7
	관계기업	0.0	0.0	0.0	100.0
업종	제조업	30.8	45.2	14.8	17.5
	비제조업	85.3	0.0	14.7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0.0	0.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36.6	31.7	0.0	31.7
	5백억원~1천억원미만	24.0	24.0	0.0	76.0
	1천억원~2천억원미만	12.9	62.2	24.9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	-	-	-
	3천억원~5천억원미만	63.4	25.4	11.2	0.0
	5천억원~1조원미만	0.0	66.7	33.3	0.0
	1조원이상	66.7	33.3	33.3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38.7	44.8	17.8	6.9
	수출없음	47.4	0.0	0.0	52.6
종사자수	50명미만	45.1	0.0	0.0	54.9
	50~100명미만	0.0	100.0	0.0	0.0
	100~200명미만	61.6	25.9	12.5	13.0
	200~300명미만	17.1	32.8	15.7	34.4
	300~500명미만	47.4	52.6	0.0	0.0
	500~1,000명미만	43.3	29.0	27.7	0.0
	1,000명이상	37.6	62.4	37.6	0.0
업력	0~7년미만	100.0	100.0	0.0	0.0
	7~20년미만	50.6	28.2	12.8	15.0
	20~30년미만	33.4	66.6	0.0	0.0
	30~40년미만	0.0	45.9	0.0	54.1
	40~50년미만	64.8	35.2	0.0	0.0
	50년이상	0.0	14.9	54.9	30.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49.6	39.5	15.8	8.1
	진입4~5년차	33.4	66.6	0.0	16.1
	진입6~9년차	41.7	13.0	0.0	45.3
	진입10년차이상	32.7	35.6	31.7	0.0
매출유형	B2B	40.2	37.4	14.8	14.5
	B2C	-	-	-	-
	B2G	-	-	-	-
상장	상장	50.9	44.4	16.7	0.0
	비상장	25.5	27.8	12.3	34.4

## 4절 인재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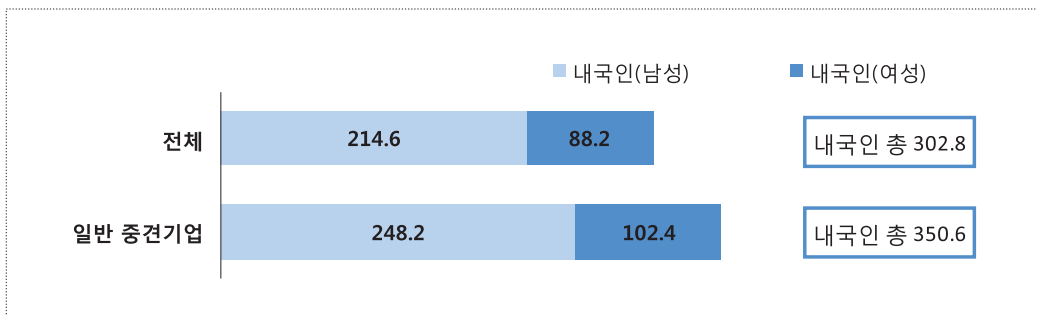
### 1. 인력현황

#### □ 전체 인력 현황

-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302.8명(남성 214.6명, 여성 88.2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5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350.6명(남성 248.2명, 여성 102.4명)

[그림 2-28] 중견기업 인력 현황 : 평균

(단위: 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은 평균 327.3명, 비제조업은 평균 283.1명이 종사함
- 제조업 종사자 평균 327.3명 중 남성이 259.4명, 여성이 67.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 종사자 283.1명 중 남성이 178.5명, 여성이 104.6명인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남녀 성비 차이가 비제조업에 비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업력별로는 0~7년미만(152.6명), 7~20년미만(230.1명), 20~30년미만(288.6명), 30~40년미만(350.2명), 40~50년미만(453.5명), 50년이상(572.7명) 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업력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높을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성장단계가 높을수록 종사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38] 중견기업 인력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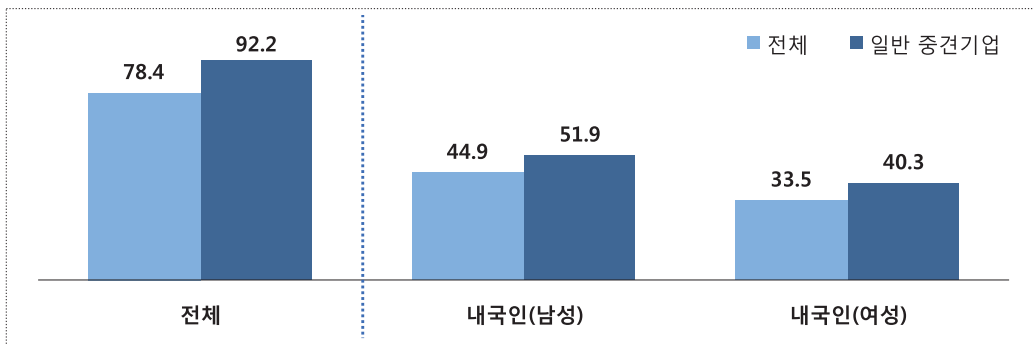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2,979)	639,333	262,735	902,068	214.6	88.2	302.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590,433	243,664	834,097	248.2	102.4	350.6
	관계기업	(600)	48,900	19,071	67,971	81.5	31.8	113.3
업종	제조업	(1,331)	345,233	90,415	435,648	259.4	67.9	327.3
	비제조업	(1,648)	294,100	172,320	466,420	178.5	104.6	283.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6,578	4,078	10,656	16.7	10.4	27.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63,528	32,520	96,048	72.0	36.9	108.9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66,732	23,784	90,516	192.3	68.5	260.8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133,343	68,949	202,292	231.1	119.5	350.6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104,853	50,631	155,484	317.7	153.4	471.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108,999	24,877	133,876	443.1	101.1	544.2
	5천억원~1조원미만	(151)	87,050	28,400	115,450	569.0	185.6	754.6
수출여부	1조원이상	(57)	68,249	29,497	97,746	1,338.2	578.4	1,916.6
	수출있음	(1,171)	363,561	123,192	486,753	310.6	105.2	415.8
종사자수	수출없음	(1,808)	275,772	139,543	415,315	152.5	77.2	229.7
	50명미만	(862)	13,016	4,202	17,218	15.1	4.9	20.0
	50~100명미만	(470)	25,100	7,347	32,447	53.4	15.6	69.0
	100~200명미만	(543)	62,834	17,108	79,942	115.8	31.5	147.3
	200~300명미만	(317)	62,727	14,585	77,312	197.5	45.9	243.4
	300~500명미만	(322)	92,199	30,098	122,297	286.2	93.4	379.6
	500~1,000명미만	(305)	157,210	45,147	202,357	515.4	148.0	663.4
업력	1,000명이상	(160)	226,246	144,248	370,494	1,414.0	901.5	2,315.5
	0~7년미만	(364)	20,110	11,215	31,325	98.0	54.6	152.6
	7~20년미만	(1229)	174,734	104,488	279,222	144.0	86.1	230.1
	20~30년미만	(576)	122,137	50,837	172,974	203.8	84.8	288.6
	30~40년미만	(351)	109,277	32,879	142,156	269.2	81.0	350.2
성장단계	40~50년미만	(270)	118,496	38,484	156,980	342.3	111.2	453.5
	50년이상	(189)	94,579	24,832	119,411	453.6	119.1	572.7
	진입1~3년차	(890)	74,268	28,950	103,218	102.6	40.0	142.6
	진입4~5년차	(1042)	139,880	44,802	184,682	127.0	40.7	167.7
매출유형	진입6~9년차	(656)	144,224	56,627	200,851	208.2	81.8	290.0
	진입10년차이상	(391)	280,962	132,357	413,319	608.5	286.7	895.2
	B2B	(2,373)	491,391	201,691	693,082	207.1	85.0	292.1
상장	B2C	(490)	106,842	55,687	162,529	217.9	113.6	331.5
	B2G	(116)	41,100	5,356	46,456	354.1	46.1	400.2
상장	상장	(644)	302,090	94,905	396,995	417.2	131.1	548.3
	비상장	(2,335)	337,243	167,831	505,074	149.6	74.4	224.0

## □ 2015년 채용실적

- 중견기업은 2015년 총 231,838명을 채용하였으며, 평균 78.4명(남성 44.9명, 여성 33.5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총 217,799명을 채용하였으며, 평균 92.2명(남성 51.9명, 여성 40.3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9] 2015년 채용실적 : 평균

(단위: 명)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내국인 평균 92.2명을 채용한 반면, 관계기업은 23.6명을 채용하여 일반 중견기업의 채용실적이 월등히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5명(남성 34.6명, 여성 14.9명)을 채용한 반면, 비제조업이 101.9명(남성 53.3명, 여성 48.6명)을 채용하여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 채용이 약 2배 높은 반면, 비제조업은 여성과 남성의 채용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어 제조업이 남성에게 더 많은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음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1~3년차(29.8명), 진입 4~5년차(39.4명), 진입 6~9년차(78.8명), 진입 10년차이상(248.6명)으로 성장단계가 높을수록 채용인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9] 2015년 채용실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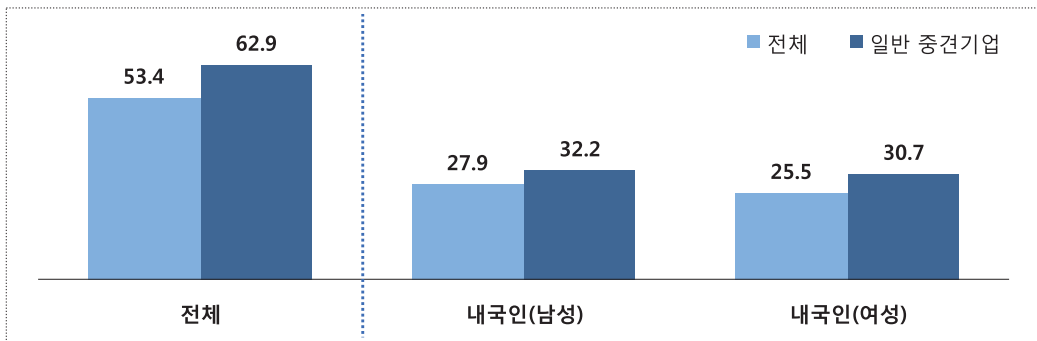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2,979)	132,858	98,980	231,838	44.9	33.5	78.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22,667	95,132	217,799	51.9	40.3	92.2
	관계기업	(600)	10,191	3,847	14,038	17.1	6.5	23.6
업종	제조업	(1,331)	45,843	19,700	65,543	34.6	14.9	49.5
	비제조업	(1,648)	87,016	79,279	166,295	53.3	48.6	101.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375	844	2,219	3.5	2.1	5.6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14,281	7,840	22,121	16.4	9.0	25.4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17,547	9,228	26,775	50.9	26.8	77.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25,336	34,313	59,649	44.4	60.1	104.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22,260	22,954	45,214	67.9	70.1	138.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29,559	7,017	36,576	120.2	28.5	148.7
	5천억원~1조원미만	(151)	12,699	6,848	19,547	84.2	45.4	129.6
	1조원이상	(57)	9,801	9,936	19,737	192.2	194.8	387.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54,467	43,590	98,057	46.8	37.4	84.2
	수출없음	(1,808)	78,391	55,390	133,781	43.7	30.9	74.6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1,875	798	2,673	2.2	0.9	3.1
	50~100명미만	(470)	3,031	1,079	4,110	6.5	2.3	8.8
	100~200명미만	(543)	9,855	3,396	13,251	18.4	6.4	24.8
	200~300명미만	(317)	9,018	2,468	11,486	28.9	7.9	36.8
	300~500명미만	(322)	14,194	7,096	21,290	44.6	22.3	66.9
	500~1,000명미만	(305)	22,198	12,147	34,345	72.8	39.8	112.6
	1,000명이상	(160)	72,687	71,996	144,683	467.7	463.2	930.9
업력	0~7년미만	(364)	4,599	3,089	7,688	22.4	15.0	37.4
	7~20년미만	(1,229)	59,727	62,688	122,415	49.4	51.8	101.2
	20~30년미만	(576)	23,915	12,439	36,354	41.0	21.3	62.3
	30~40년미만	(351)	17,550	6,789	24,339	43.4	16.8	60.2
	40~50년미만	(270)	16,920	9,853	26,773	48.9	28.5	77.4
	50년이상	(189)	10,148	4,121	14,269	48.7	19.8	68.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12,604	8,836	21,440	17.5	12.3	29.8
	진입4~5년차	(1,042)	28,148	15,201	43,349	25.6	13.8	39.4
	진입6~9년차	(656)	29,860	23,824	53,684	43.8	35.0	78.8
	진입10년차이상	(391)	62,247	51,119	113,366	136.5	112.1	248.6
매출유형	B2B	(2,373)	100,052	82,969	183,021	42.5	35.3	77.8
	B2C	(490)	26,241	14,861	41,102	53.8	30.4	84.2
	B2G	(116)	6,565	1,150	7,715	56.6	9.9	66.5
상장	상장	(644)	41,058	22,124	63,182	57.2	30.8	88.0
	비상장	(2,335)	91,800	76,856	168,656	41.0	34.3	75.3

## □ 2016년 채용계획

- 중견기업은 2016년 총 155,633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평균 53.4명(남성 27.9명, 여성 25.5명)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총 146,163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평균 62.9명(남성 32.2명, 여성 30.7명)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업(총 9,469명, 평균 16.1명)보다 많이 채용할 예정임

[그림 2-30] 2016년 채용계획 : 평균

(단위: 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은 2016년 총 36,526명, 평균 28.0명(남성 19.6명, 여성 8.4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비제조업은 총 119,106명, 평균 74.0명(남성 34.7명, 여성 39.3명)을 채용할 예정임
  -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채용할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여성채용보다 남성 채용계획이 약 2배 높은 반면, 비제조업은 남성 채용보다 여성채용이 더 높아 업종에 따라 남/여 채용비율이 확연히 다를 수 있음
- 종사자수별로는 50명 미만(1.8명), 50~100명미만(5.3명), 100~200명미만(13.7명), 200~300명 미만(25.3명), 300~500명 미만(37.6명), 500~1,000명 미만(69.0명), 1,000명 이상(698.0명)으로 나타나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2016년 신규 채용 인원이 많을 것으로 나타남

[표 2-40] 2016년 채용계획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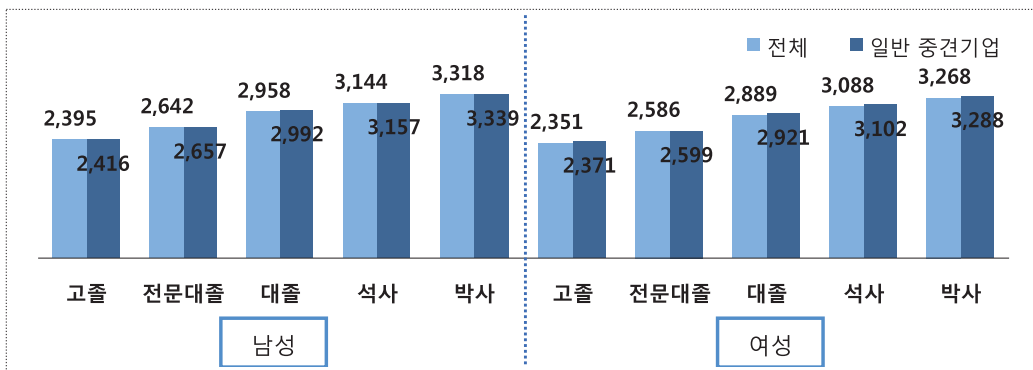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2,979)	81,386	74,247	155,633	27.9	25.5	53.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4,841	71,322	146,163	32.2	30.7	62.9
	관계기업	(600)	6,545	2,924	9,469	11.1	5.0	16.1
업종	제조업	(1,331)	25,575	10,951	36,526	19.6	8.4	28.0
	비제조업	(1,648)	55,810	63,296	119,106	34.7	39.3	74.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833	713	1,546	2.1	1.8	3.9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10,988	6,922	17,910	12.8	8.0	20.8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11,510	7,347	18,857	33.8	21.6	55.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17,696	29,308	47,004	31.3	51.9	83.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13,714	13,019	26,733	41.9	39.7	81.6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12,054	4,773	16,827	50.9	20.2	71.1
	5천억원~1조원미만	(151)	9,146	5,260	14,406	62.5	36.0	98.5
	1조원이상	(57)	5,444	6,906	12,350	124.2	157.6	281.8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31,727	25,753	57,480	27.6	22.4	50.0
	수출없음	(1,808)	49,659	48,494	98,153	28.2	27.5	55.7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1,063	471	1,534	1.2	0.6	1.8
	50~100명미만	(470)	1,749	749	2,498	3.7	1.6	5.3
	100~200명미만	(543)	5,195	2,083	7,278	9.8	3.9	13.7
	200~300명미만	(317)	5,892	1,681	7,573	19.7	5.6	25.3
	300~500명미만	(322)	7,444	4,361	11,805	23.7	13.9	37.6
	500~1,000명미만	(305)	13,213	7,237	20,450	44.6	24.4	69.0
	1,000명이상	(160)	46,830	57,664	104,494	312.8	385.2	698.0
업력	0~7년미만	(364)	3,542	3,187	6,729	17.7	16.0	33.7
	7~20년미만	(1,229)	37,456	49,485	86,941	31.3	41.4	72.7
	20~30년미만	(576)	14,666	9,568	24,234	25.4	16.6	42.0
	30~40년미만	(351)	10,570	4,722	15,292	26.6	11.9	38.5
	40~50년미만	(270)	7,970	4,091	12,061	23.6	12.1	35.7
	50년이상	(189)	7,181	3,195	10,376	35.2	15.7	50.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7,905	5,588	13,493	11.0	7.8	18.8
	진입4~5년차	(1,042)	18,916	12,195	31,111	17.5	11.3	28.8
	진입6~9년차	(656)	21,272	20,694	41,966	31.9	31.0	62.9
	진입10년차이상	(391)	33,293	35,770	69,063	75.3	81.0	156.3
매출유형	B2B	(2,373)	56,684	62,451	119,135	24.4	26.9	51.3
	B2C	(490)	19,078	10,730	29,808	39.9	22.5	62.4
	B2G	(116)	5,623	1,066	6,689	48.4	9.2	57.6
상장	상장	(644)	25,008	13,884	38,892	35.6	19.7	55.3
	비상장	(2,335)	56,378	60,363	116,741	25.5	27.3	52.8

## □ 신입사원 초임

- 중견기업의 신입사원 초임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 남성 : 박사 3,318만원, 석사 3,144만원, 대졸 2,958만원, 전문대졸 2,642만원, 고졸 2,395만원
  - 여성 : 박사 3,268만원, 석사 3,088만원, 대졸 2,889만원, 전문대졸 2,586만원, 고졸 2,351만원

[그림 2-31]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만원)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비제조업(대졸신입 남성: 2,865만원, 여성: 2,805만원)에 비해 제조업(대졸신입 남성: 3,071만원, 여성: 2,992만원)의 초임이 더 높음
- 매출액 규모가 크고 성장단계가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신입사원의 초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신입사원 초임이 높은 편
- 상장여부에 따라 학력별 초임 격차 양상에서 차이를 보임
  - 상장기업의 고졸 여성 초임은 2,440만원, 박사 여성 초임은 3,559만원으로 1,119만원 차이가 나는 반면, 비상장기업의 고졸 여성 초임은 2,320만원, 박사 여성 초임은 3,156만원으로 836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 상장기업의 학력별 초임 격차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41] 남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2,979)	2,395	2,642	2,958	3,144	3,31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2,416	2,657	2,992	3,157	3,339
	관계기업	(600)	2,310	2,584	2,824	3,089	3,217
업종	제조업	(1,331)	2,473	2,718	3,071	3,301	3,552
	비제조업	(1,648)	2,324	2,580	2,865	3,006	3,10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2,201	2,469	2,706	2,914	3,03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2,327	2,555	2,843	2,995	3,118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2,387	2,627	2,901	3,076	3,24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2,435	2,695	2,994	3,194	3,396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2,385	2,676	3,039	3,197	3,395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2,581	2,832	3,246	3,442	3,701
	5천억원~1조원미만	(151)	2,730	2,946	3,389	3,577	3,774
	1조원이상	(57)	2,639	2,917	3,617	3,802	3,966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2,464	2,732	3,123	3,365	3,621
	수출없음	(1,808)	2,346	2,583	2,850	2,985	3,096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2,271	2,542	2,808	2,963	3,083
	50~100명미만	(470)	2,323	2,547	2,825	3,001	3,112
	100~200명미만	(543)	2,402	2,640	2,935	3,166	3,363
	200~300명미만	(317)	2,475	2,733	3,089	3,278	3,527
	300~500명미만	(322)	2,471	2,745	3,118	3,253	3,409
	500~1,000명미만	(305)	2,580	2,792	3,214	3,441	3,737
	1,000명이상	(160)	2,514	2,782	3,170	3,359	3,557
업력	0~7년미만	(364)	2,374	2,576	2,842	3,089	3,274
	7~20년미만	(1,229)	2,312	2,546	2,844	3,025	3,186
	20~30년미만	(576)	2,364	2,652	2,941	3,106	3,285
	30~40년미만	(351)	2,464	2,734	3,065	3,265	3,420
	40~50년미만	(270)	2,587	2,817	3,195	3,394	3,595
	50년이상	(189)	2,535	2,777	3,190	3,342	3,56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2,331	2,534	2,797	2,978	3,128
	진입4~5년차	(1,042)	2,334	2,591	2,905	3,113	3,281
	진입6~9년차	(656)	2,426	2,708	3,003	3,166	3,339
	진입10년차이상	(391)	2,591	2,839	3,273	3,448	3,673
매출유형	B2B	(2,373)	2,405	2,659	2,995	3,193	3,391
	B2C	(490)	2,345	2,543	2,771	2,900	2,972
	B2G	(116)	2,397	2,718	3,010	3,170	3,378
상장	상장	(644)	2,499	2,780	3,196	3,395	3,625
	비상장	(2,335)	2,359	2,598	2,881	3,054	3,201

[표 2-42] 여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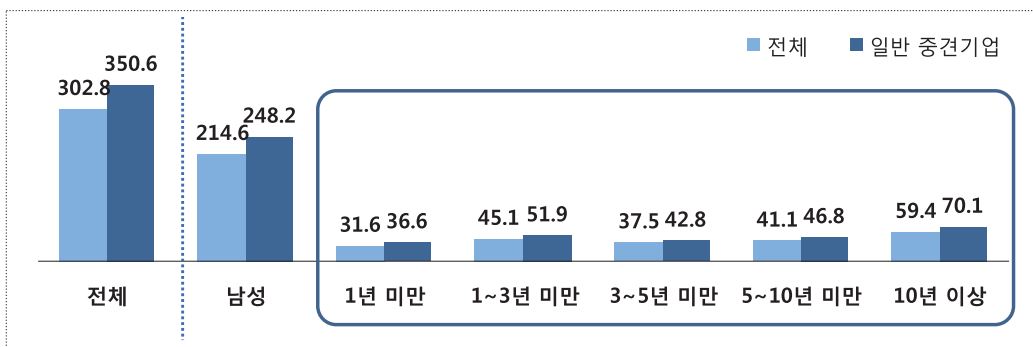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2,979)	2,351	2,586	2,889	3,088	3,26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2,371	2,599	2,921	3,102	3,288
	관계기업	(600)	2,266	2,533	2,759	3,026	3,167
업종	제조업	(1,331)	2,417	2,653	2,992	3,227	3,483
	비제조업	(1,648)	2,291	2,531	2,805	2,965	3,07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2,174	2,423	2,660	2,892	3,004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2,310	2,527	2,801	2,945	3,092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2,319	2,558	2,825	3,012	3,188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2,368	2,617	2,895	3,121	3,32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2,341	2,612	2,965	3,140	3,33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2,511	2,735	3,111	3,346	3,587
	5천억원~1조원미만	(151)	2,678	2,889	3,342	3,540	3,761
	1조원이상	(57)	2,572	2,850	3,583	3,735	3,859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2,415	2,673	3,044	3,296	3,556
	수출없음	(1,808)	2,305	2,528	2,787	2,937	3,054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2,246	2,494	2,746	2,921	3,056
	50~100명미만	(470)	2,270	2,487	2,766	2,935	3,055
	100~200명미만	(543)	2,351	2,587	2,867	3,106	3,316
	200~300명미만	(317)	2,438	2,670	3,005	3,200	3,462
	300~500명미만	(322)	2,416	2,684	3,037	3,197	3,325
	500~1,000명미만	(305)	2,528	2,727	3,134	3,387	3,686
	1,000명이상	(160)	2,452	2,720	3,096	3,279	3,462
업력	0~7년미만	(364)	2,299	2,487	2,759	3,018	3,186
	7~20년미만	(1,229)	2,278	2,509	2,794	2,967	3,144
	20~30년미만	(576)	2,332	2,587	2,861	3,067	3,248
	30~40년미만	(351)	2,410	2,657	2,986	3,216	3,373
	40~50년미만	(270)	2,528	2,759	3,091	3,308	3,511
	50년이상	(189)	2,474	2,704	3,130	3,288	3,49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2,287	2,492	2,745	2,933	3,075
	진입4~5년차	(1,042)	2,301	2,525	2,829	3,047	3,231
	진입6~9년차	(656)	2,387	2,652	2,930	3,099	3,287
	진입10년차이상	(391)	2,518	2,782	3,196	3,407	3,621
매출유형	B2B	(2,373)	2,358	2,599	2,919	3,134	3,336
	B2C	(490)	2,319	2,502	2,721	2,854	2,930
	B2G	(116)	2,347	2,681	2,981	3,144	3,378
상장	상장	(644)	2,440	2,713	3,116	3,335	3,559
	비상장	(2,335)	2,320	2,545	2,816	2,998	3,156

## □ 재직연수별 현황

-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59.4명, 1~3년 미만 45.1명, 5~10년 미만 41.1명, 3~5년 미만 37.5명, 1년 미만 31.6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70.1명, 1~3년 미만 51.9명, 5~10년 미만 46.8명, 3~5년 미만 42.8명, 1년 미만 36.6명 순임

[그림 2-32]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명)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 총 248.2명 중 10년 이상 근속 인원이 70.1명(2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관계기업 남성직원 총 81.5명 중 10년 이상 근속 인원은 17.1명(21.0%)으로 관계기업보다 일반 중견기업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근속연수 10년 이상이 91.5명, 5~10년 미만 53.4명, 1~3년 미만 45.0명, 3~5년 미만 43.7명, 1년 미만 25.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1~3년 미만이 45.1명, 1년 미만 36.2명, 10년 이상 33.5명, 3~5년 미만 32.5명, 5~10년 미만 31.1명 순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의 근속연수가 더 긴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 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길수록, 중견기업에 진입한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남성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대체로 긴 것으로 나타남

[표 2-43]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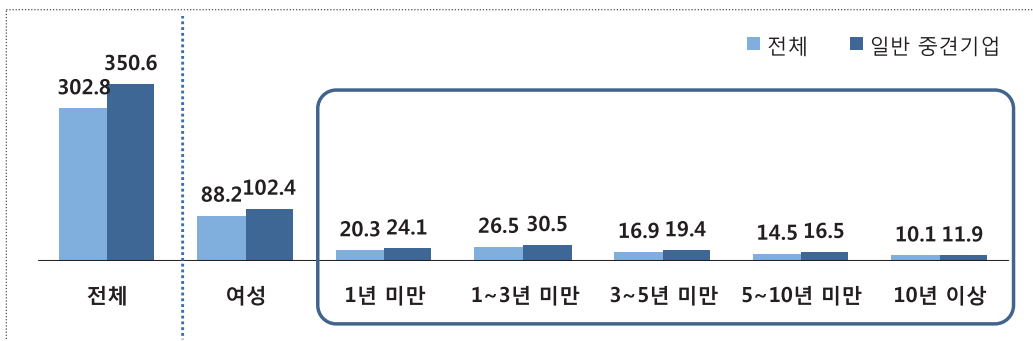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남성					
					1년미만	1년~ 3년미만	3년~ 5년미만	5년~ 1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2,979)	302.8	214.6	31.6	45.1	37.5	41.1	59.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50.6	248.2	36.6	51.9	42.8	46.8	70.1
	관계기업	(600)	113.3	81.5	11.7	17.8	16.7	18.3	17.1
업종	제조업	(1,331)	327.3	259.4	25.8	45.0	43.7	53.4	91.5
	비제조업	(1,648)	283.0	178.5	36.2	45.1	32.5	31.1	33.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27.1	16.7	2.7	4.4	3.7	3.2	2.7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108.9	72.0	10.5	16.8	15.0	15.3	14.5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260.9	192.3	35.5	53.3	33.8	34.4	35.3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350.6	231.1	30.1	51.0	38.7	48.0	63.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471.2	317.7	44.3	68.2	68.3	62.6	74.2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544.2	443.1	89.9	88.0	62.3	70.7	132.1
	5천억원~1조원미만	(151)	754.6	569.0	67.1	96.8	100.2	110.8	194.1
	1조원이상	(57)	1,916.6	1,338.2	137.3	211.4	192.6	253.9	543.1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415.8	310.6	32.2	57.0	53.0	64.3	104.0
	수출없음	(1,808)	229.7	152.5	31.1	37.3	27.5	26.0	30.5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20.0	15.1	1.6	3.5	3.3	3.7	3.0
	50~100명미만	(470)	69.1	53.4	5.1	9.9	10.7	12.2	15.6
	100~200명미만	(543)	147.3	115.8	13.9	22.9	22.6	24.9	31.5
	200~300명미만	(317)	243.5	197.5	21.1	41.1	34.2	43.3	57.9
	300~500명미만	(322)	379.6	286.2	35.4	57.2	47.2	64.7	81.7
	500~1,000명미만	(305)	663.4	515.4	53.6	91.1	85.7	105.5	179.5
	1,000명이상	(160)	2,315.6	1,414.0	301.9	342.8	246.5	206.9	315.9
업력	0~7년미만	(364)	152.6	98.0	12.9	28.2	20.3	14.1	22.4
	7~20년미만	(1,229)	230.0	144.0	31.8	32.0	23.7	24.9	31.6
	20~30년미만	(576)	288.6	203.8	29.0	53.2	40.1	40.1	41.4
	30~40년미만	(351)	350.3	269.2	32.9	53.1	55.3	55.5	72.4
	40~50년미만	(270)	453.5	342.3	39.3	62.1	50.3	68.7	121.9
	50년이상	(189)	572.7	453.6	40.3	70.6	71.6	90.6	180.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142.7	102.6	11.4	23.3	23.5	22.0	22.4
	진입4~5년차	(1,042)	167.7	127.0	16.8	28.2	23.2	28.2	30.6
	진입6~9년차	(656)	290.0	208.2	29.7	47.1	32.8	40.6	58.0
	진입10년차이상	(391)	895.2	608.5	101.2	116.4	100.6	102.1	188.2
매출유형	B2B	(2,373)	292.1	207.1	30.8	42.1	36.0	40.1	58.2
	B2C	(490)	331.5	217.9	33.7	49.4	38.0	39.1	57.7
	B2G	(116)	400.2	354.1	38.9	86.9	66.9	69.7	91.7
상장	상장	(644)	548.3	417.2	43.2	79.2	73.6	83.3	137.9
	비상장	(2,335)	224.0	149.6	27.8	34.1	25.9	27.5	34.2



-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26.5명, 1년 미만 20.3명, 3~5년 미만 16.9명, 5~10년 미만 14.5명, 10년 이상 10.1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30.5명, 1년 미만 24.1명, 3~5년 미만 19.4명, 5~10년 미만 16.5명, 10년 이상 11.9명 순임

[그림 2-33]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 여성직원의 근속연수는 1~3년 미만이 17.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년 미만이 14.7명, 5~10년 미만이 14.1명, 10년 이상이 11.6명, 1년 미만 9.8명의 순으로 나타남. 비제조업 여성직원의 근속연수는 1~3년 미만이 33.6명, 1년 미만 28.7명, 3~5년 미만 18.6명, 5~10년 미만 14.8명, 10년 이상 8.8명의 순으로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의 평균 근속연수가 긴 것으로 나타남
- 남성직원과 같이 매출 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길수록, 중견기업에 진입한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여성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대체로 긴 것으로 나타남
- 상장기업의 여성직원 근속연수는 구간별로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띄고 있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평균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여성직원의 근속연수가 남성직원의 근속연수보다 낮게 조사됨
  - 이는 여성의 임신 및 육아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2-44]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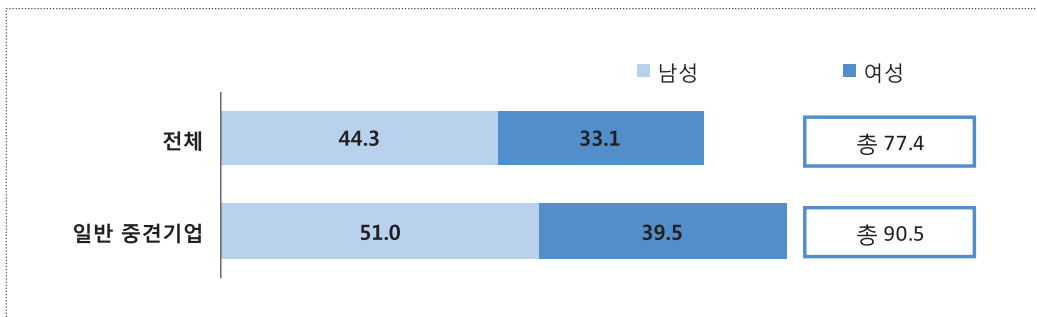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여성					
					1년미만	1년~ 3년미만	3년~ 5년미만	5년~ 1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2,979)	302.8	88.2	20.3	26.5	16.9	14.5	10.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50.6	102.4	24.1	30.5	19.4	16.5	11.9
	관계기업	(600)	113.3	31.8	5.3	10.3	7.1	6.5	2.7
업종	제조업	(1,331)	327.3	67.9	9.8	17.7	14.7	14.1	11.6
	비제조업	(1,648)	283.0	104.6	28.7	33.6	18.6	14.8	8.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27.1	10.4	1.7	3.8	1.9	2.0	0.9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108.9	36.9	5.9	12.8	8.5	6.6	3.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260.9	68.5	14.7	22.4	12.4	12.0	7.1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350.6	119.5	40.3	35.1	19.1	14.6	10.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471.2	153.4	33.7	47.9	33.0	22.3	16.6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544.2	101.1	16.4	31.6	20.3	18.0	14.9
	5천억원~1조원미만	(151)	754.6	185.6	31.9	50.8	41.7	30.5	30.7
	1조원이상	(57)	1,916.6	578.4	118.8	130.8	88.3	148.1	92.3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415.8	105.2	19.3	28.6	21.2	20.4	15.7
	수출없음	(1,808)	229.7	77.2	20.9	25.1	14.1	10.7	6.4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20.0	4.9	0.7	1.7	1.1	0.8	0.5
	50~100명미만	(470)	69.1	15.6	1.8	4.5	3.6	3.2	2.6
	100~200명미만	(543)	147.3	31.5	5.0	8.6	7.6	6.3	4.1
	200~300명미만	(317)	243.5	45.9	6.1	13.8	10.4	8.8	6.8
	300~500명미만	(322)	379.6	93.4	18.0	25.6	18.1	19.0	12.8
	500~1,000명미만	(305)	663.4	148.0	23.8	41.6	33.7	27.8	21.3
	1,000명이상	(160)	2,315.6	901.5	257.6	283.1	150.9	126.4	83.6
업력	0~7년미만	(364)	152.6	54.6	7.8	22.0	12.5	6.4	5.9
	7~20년미만	(1,229)	230.0	86.1	28.0	25.8	14.3	12.1	6.0
	20~30년미만	(576)	288.6	84.8	14.9	27.8	20.3	14.1	7.8
	30~40년미만	(351)	350.3	81.0	12.6	20.6	18.5	15.4	14.0
	40~50년미만	(270)	453.5	111.2	22.0	32.2	18.9	18.5	19.6
	50년이상	(189)	572.7	119.1	15.2	32.9	20.2	29.6	21.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142.7	40.0	6.8	12.7	10.0	6.7	3.9
	진입4~5년차	(1,042)	167.7	40.7	7.9	11.2	8.9	8.0	4.7
	진입6~9년차	(656)	290.0	81.8	25.7	24.1	12.3	11.5	8.2
	진입10년차이상	(391)	895.2	286.7	62.8	88.0	53.7	46.9	35.4
매출유형	B2B	(2,373)	292.1	85.0	20.7	26.1	16.2	13.2	8.8
	B2C	(490)	331.5	113.6	21.2	30.4	21.7	22.9	17.3
	B2G	(116)	400.2	46.1	7.2	16.4	10.6	6.0	5.8
상장	상장	(644)	548.3	131.1	20.8	36.3	27.2	25.4	21.3
	비상장	(2,335)	224.0	74.4	20.1	23.3	13.6	11.0	6.5

## □ 이직자 현황

-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77.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44.3명, 여성 33.1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5.3%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90.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51.0명, 여성 39.5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5.6%로 나타남

[그림 2-34] 이직자 현황 : 평균

(단위: 명)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은 평균 90.5명, 관계기업은 평균 25.6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이직자 수가 관계기업에 비해 약 3.5배 많으나 이직률은 유사하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 평균 이직률 14.6%(남성 12.8%, 여성 21.5%), 비제조업 평균 이직률 35.3%(남성 29.4%, 여성 45.4%)로 비제조업의 이직률이 제조업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조사됨
- 수출기업의 평균 이직률 20.2%(남성 15.1%, 여성 35.4%)은 내수기업의 평균 이직률 31.4%(남성 27.6%, 여성 38.8%)보다 낮아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의 이직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내수기업, 비제조업, 비상장기업이 수출기업, 제조업,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2-45] 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이직률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2,979)	130,912	97,713	228,625	44.3	33.1	77.4	20.5	37.2	25.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20,197	93,163	213,360	51.0	39.5	90.5	20.4	38.2	25.6
	관계기업	(600)	10,716	4,550	15,266	18.0	7.6	25.6	21.9	23.9	22.5
업종	제조업	(1,331)	44,350	19,418	63,768	33.5	14.7	48.2	12.8	21.5	14.6
	비제조업	(1,648)	86,563	78,295	164,858	53.0	48.0	101.0	29.4	45.4	35.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352	1,035	2,387	3.4	2.6	6.0	20.6	25.4	22.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34)	16,683	8,612	25,295	19.1	9.9	29.0	26.3	26.5	26.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84)	17,783	9,111	26,894	51.6	26.4	78.0	26.6	38.3	29.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60)	24,563	32,596	57,159	43.0	57.1	100.1	18.4	47.3	28.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33)	22,306	23,061	45,367	68.6	70.9	139.5	21.3	45.5	29.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35)	30,022	7,941	37,963	122.0	32.3	154.3	27.5	31.9	28.4
	5천억원 ~ 1조원미만	(151)	11,590	5,681	17,271	76.9	37.7	114.6	13.3	20.0	15.0
	1조원이상	(57)	6,614	9,676	16,290	129.7	189.7	319.4	9.7	32.8	16.7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54,755	43,624	98,379	47.1	37.5	84.6	15.1	35.4	20.2
	수출없음	(1,808)	76,157	54,089	130,246	42.5	30.2	72.7	27.6	38.8	31.4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2,294	715	3,009	2.7	0.8	3.5	17.6	17.0	17.5
	50 ~ 100명미만	(470)	3,305	1,341	4,646	7.0	2.9	9.9	13.2	18.3	14.3
	100 ~ 200명미만	(543)	10,569	3,336	13,905	19.8	6.3	26.1	16.8	19.5	17.4
	200 ~ 300명미만	(317)	8,770	2,975	11,745	28.1	9.5	37.6	14.0	20.4	15.2
	300 ~ 500명미만	(322)	14,212	8,061	22,273	44.7	25.4	70.1	15.4	26.8	18.2
	500 ~ 1,000명미만	(305)	22,869	11,277	34,146	75.0	37.0	112.0	14.5	25.0	16.9
	1,000명이상	(160)	68,893	70,009	138,902	443.2	450.4	893.6	30.5	48.5	37.5
업력	0 ~ 7년미만	(364)	4,706	2,617	7,323	22.9	12.7	35.6	23.4	23.3	23.4
	7 ~ 20년미만	(1229)	60,632	63,255	123,887	50.2	52.4	102.6	34.7	60.5	44.4
	20 ~ 30년미만	(576)	23,013	12,057	35,070	39.5	20.7	60.2	18.8	23.7	20.3
	30 ~ 40년미만	(351)	18,855	7,069	25,924	46.7	17.5	64.2	17.3	21.5	18.2
	40 ~ 50년미만	(270)	12,760	8,149	20,909	36.9	23.5	60.4	10.8	21.2	13.3
	50년이상	(189)	10,947	4,566	15,513	52.5	21.9	74.4	11.6	18.4	13.0
성장단계	진입1 ~ 3년차	(890)	12,418	7,727	20,145	17.2	10.7	27.9	16.7	26.7	19.5
	진입4 ~ 5년차	(1042)	31,237	17,086	48,323	28.4	15.5	43.9	22.3	38.1	26.2
	진입6 ~ 9년차	(656)	28,438	23,477	51,915	41.9	34.6	76.5	19.7	41.5	25.8
	진입10년차이상	(391)	58,819	49,423	108,242	129.0	108.4	237.4	20.9	37.3	26.2
매출유형	B2B	(2,373)	100,645	81,969	182,614	42.8	34.9	77.7	20.5	40.6	26.3
	B2C	(490)	22,436	13,848	36,284	46.2	28.5	74.7	21.0	24.9	22.3
	B2G	(116)	7,831	1,896	9,727	67.5	16.3	83.8	19.1	35.4	20.9
상장	상장	(644)	37,092	21,308	58,400	51.9	29.8	81.7	12.3	22.5	14.7
	비상장	(2,335)	93,820	76,405	170,225	41.9	34.1	76.0	27.8	45.5	33.7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업종은 인력순환이 많음

※ 해당 기업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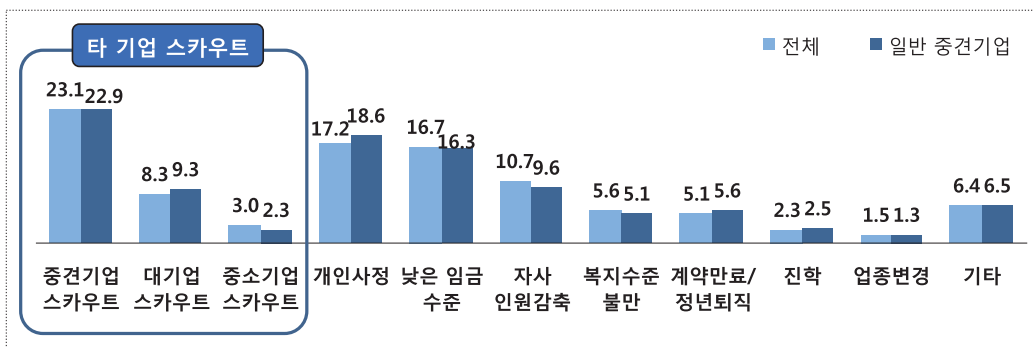
※ 이직률 = 이직자수 / 총인력

## □ 주요 이직원인

- 중견기업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타 기업 스카우트 34.4%(중견기업 스카우트 23.1%), 대기업 스카우트(8.3%), 중소기업 스카우트(3.0%)), 개인사정(17.2%), 낮은 임금수준(16.7%), 자사 인원감축(10.7%)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타 기업 스카우트 34.5%(중견기업 스카우트 22.9%), 대기업 스카우트(9.3%), 중소기업 스카우트(2.3%)), 개인사정(18.6%), 낮은 임금수준(16.3%), 자사 인원감축(9.6%) 순임

[그림 2-35]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단위: %, 이직자가 있는 기업)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중견기업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낮을수록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규모가 높을수록 계약만료/정년퇴직, 진학 등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유형별로는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과,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기업은 중견기업으로부터의 스카우트가 많은 반면,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기업은 자사 인원감축이 23.8%로 가장 높아 정부/공공기관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B2G기업 또한 인원감축이 이루어져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예상됨

[표 2-46]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2,600개사)

구분		타 기업 스카우트				개인사정	낮은 임금 수준
		계	중견기업 스카우트	대기업 스카우트	중소기업 스카우트		
전체		34.4	23.1	8.3	3.0	17.2	16.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4.5	22.9	9.3	2.3	18.6	16.3
	관계기업	34.3	23.8	4.4	6.1	11.6	18.4
업종	제조업	34.7	21.9	9.3	3.5	18.0	16.0
	비제조업	34.3	24.2	7.5	2.6	16.5	17.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0.0	19.9	3.9	6.2	19.5	17.6
	1백억원~5백억원미만	28.8	22.5	3.6	2.7	17.7	19.3
	5백억원~1천억원미만	40.4	25.5	7.8	7.1	13.5	18.2
	1천억원~2천억원미만	37.2	24.3	10.6	2.3	18.5	16.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9.0	27.7	10.6	0.7	18.4	12.8
	3천억원~5천억원미만	35.2	22.1	12.1	1.0	18.6	13.9
	5천억원~1조원미만	36.0	15.1	18.8	2.1	11.4	16.3
	1조원이상	29.8	14.9	14.9	0.0	11.6	8.3
수출여부	수출있음	37.2	23.9	10.5	2.8	16.9	13.8
	수출없음	32.4	22.5	6.7	3.2	17.5	18.8
종사자수	50명미만	28.0	20.0	1.9	6.1	21.3	14.4
	50~100명미만	31.0	22.4	5.8	2.8	18.4	23.8
	100~200명미만	34.0	23.0	7.9	3.1	18.3	16.3
	200~300명미만	44.2	27.8	13.5	2.9	10.5	16.9
	300~500명미만	41.0	26.1	14.2	0.7	15.8	13.5
	500~1,000명미만	33.6	23.9	8.9	0.8	17.5	12.9
	1,000명이상	38.3	19.7	16.7	1.9	11.6	20.1
업력	0~7년미만	39.6	27.8	8.5	3.3	6.3	19.6
	7~20년미만	32.7	22.9	5.7	4.1	17.2	17.7
	20~30년미만	33.0	25.0	5.9	2.1	21.0	18.8
	30~40년미만	36.5	22.7	11.9	1.9	16.3	16.6
	40~50년미만	35.8	18.3	15.2	2.3	16.4	10.8
	50년이상	37.3	23.3	10.6	3.4	19.7	13.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38.8	27.8	5.8	5.2	12.4	16.1
	진입4~5년차	34.6	23.5	7.8	3.3	18.2	17.4
	진입6~9년차	28.1	20.2	6.5	1.4	22.7	16.7
	진입10년차이상	37.0	19.9	15.4	1.7	14.0	15.9
매출유형	B2B	32.8	21.8	7.7	3.3	18.0	17.1
	B2C	42.1	29.7	10.3	2.1	14.1	17.3
	B2G	35.7	20.9	12.5	2.3	14.6	6.5
상장	상장	40.3	24.8	13.9	1.6	17.4	13.3
	비상장	32.3	22.5	6.3	3.5	17.2	18.0

[표 2-47] 주요 이직원인 : 1순위(계속)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2,600개사)

구분		자사 인원감축	복지수준 불만	계약만료/ 정년퇴직	진학	업종변경	기타
전체		10.7	5.6	5.1	2.3	1.5	6.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9.6	5.1	5.6	2.5	1.3	6.5
	관계기업	15.5	7.7	2.7	1.5	2.6	5.5
업종	제조업	9.4	6.9	2.9	2.5	2.3	7.3
	비제조업	11.9	4.4	7.0	2.2	0.9	5.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9	6.0	3.7	3.2	2.3	7.8
	1백억원~5백억원미만	14.8	4.2	5.8	2.6	1.4	5.3
	5백억원~1천억원미만	8.1	6.6	4.7	3.5	0.0	5.0
	1천억원~2천억원미만	8.9	4.5	5.9	1.1	1.4	6.2
	2천억원~3천억원미만	10.0	7.7	2.1	1.4	1.4	7.1
	3천억원~5천억원미만	11.1	7.7	4.4	1.9	0.0	7.2
	5천억원~1조원미만	4.6	7.7	4.3	2.1	6.8	10.5
	1조원이상	15.7	0.0	19.0	7.4	4.1	4.1
수출여부	수출있음	11.5	6.4	3.0	1.8	2.6	6.9
	수출없음	10.1	5.0	6.6	2.8	0.8	6.0
종사자수	50명미만	13.2	5.6	5.8	3.3	1.0	7.3
	50~100명미만	11.0	5.7	4.2	1.1	1.5	3.5
	100~200명미만	8.5	6.0	4.3	3.8	2.6	6.1
	200~300명미만	10.5	4.1	3.6	2.2	0.9	7.2
	300~500명미만	12.3	4.9	4.2	1.3	0.0	7.1
	500~1,000명미만	9.6	8.7	6.6	0.0	3.3	7.8
	1,000명이상	7.8	2.8	8.8	4.1	1.2	5.4
업력	0~7년미만	10.9	8.6	5.2	3.3	0.9	5.6
	7~20년미만	13.0	4.7	4.0	2.6	1.8	6.3
	20~30년미만	9.7	4.8	4.0	1.8	1.4	5.6
	30~40년미만	9.6	3.6	6.7	1.8	1.1	7.9
	40~50년미만	8.2	10.6	8.7	1.5	2.1	5.9
	50년이상	8.2	5.8	4.0	3.7	1.1	7.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2.4	6.9	3.3	3.5	1.5	5.1
	진입4~5년차	9.6	6.1	5.5	1.4	1.5	5.6
	진입6~9년차	12.2	3.8	4.5	1.8	1.7	8.5
	진입10년차이상	8.9	5.1	7.0	3.7	1.5	6.8
매출유형	B2B	10.7	5.6	5.0	2.8	1.7	6.2
	B2C	7.6	5.7	4.7	0.5	0.6	7.4
	B2G	23.8	4.5	8.1	0.0	1.9	5.1
상장	상장	8.7	5.8	4.1	1.8	2.9	5.8
	비상장	11.5	5.6	5.4	2.5	1.1	6.6

[표 2-48]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2,600개사)

구분		계	타 기업 스카우트			낮은 임금 수준	개인사정
			중견기업 스카우트	대기업 스카우트	중소기업 스카우트		
전체		54.3	34.6	12.3	7.4	27.2	23.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5.1	34.5	13.6	7.0	26.0	25.2
	관계기업	51.2	34.9	6.8	9.5	32.5	15.2
업종	제조업	57.3	35.6	13.8	7.9	25.6	25.3
	비제조업	51.6	33.6	11.0	7.0	28.7	21.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4.5	26.8	7.6	10.1	26.8	23.4
	1백억원~5백억원미만	42.5	29.7	5.1	7.7	31.3	25.2
	5백억원~1천억원미만	59.7	34.9	12.1	12.7	29.0	17.7
	1천억원~2천억원미만	61.2	38.7	15.5	7.0	26.7	24.6
	2천억원~3천억원미만	65.2	43.3	16.2	5.7	23.4	27.6
	3천억원~5천억원미만	55.5	35.2	18.5	1.8	23.8	22.5
	5천억원~1조원미만	61.7	32.4	22.5	6.8	22.2	15.1
	1조원이상	64.4	42.1	22.3	0.0	19.8	15.7
수출여부	수출있음	62.1	38.8	16.3	7.0	22.7	23.0
	수출없음	48.5	31.4	9.3	7.8	30.6	23.5
종사자수	50명미만	36.9	24.6	2.8	9.5	23.0	25.6
	50~100명미만	48.0	29.1	8.6	10.3	32.8	24.3
	100~200명미만	56.6	36.4	10.9	9.3	30.6	24.3
	200~300명미만	70.4	44.3	21.7	4.4	27.0	18.8
	300~500명미만	68.0	46.0	18.6	3.4	24.9	23.5
	500~1,000명미만	54.4	34.5	15.5	4.4	22.7	24.3
	1,000명이상	66.4	36.7	23.6	6.1	29.9	15.1
업력	0~7년미만	58.8	36.8	10.1	11.9	29.4	9.2
	7~20년미만	49.2	32.8	8.2	8.2	29.9	22.0
	20~30년미만	55.0	40.2	7.9	6.9	26.6	27.6
	30~40년미만	58.7	31.3	20.4	7.0	26.9	24.2
	40~50년미만	57.4	30.7	20.2	6.5	20.8	24.1
	50년이상	60.3	37.9	19.0	3.4	24.7	26.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7.0	37.5	7.8	11.7	24.7	16.3
	진입4~5년차	53.2	35.3	11.0	6.9	29.6	25.0
	진입6~9년차	47.5	30.7	11.3	5.5	28.5	30.3
	진입10년차이상	62.7	34.3	22.8	5.6	23.3	18.9
매출유형	B2B	52.3	32.9	11.7	7.7	26.6	25.2
	B2C	66.3	44.1	14.8	7.4	30.7	15.6
	B2G	44.4	27.5	14.6	2.3	25.2	16.7
상장	상장	68.2	42.6	19.9	5.7	22.6	22.4
	비상장	49.2	31.6	9.5	8.1	28.9	23.6



[표 2-49]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계속)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2,60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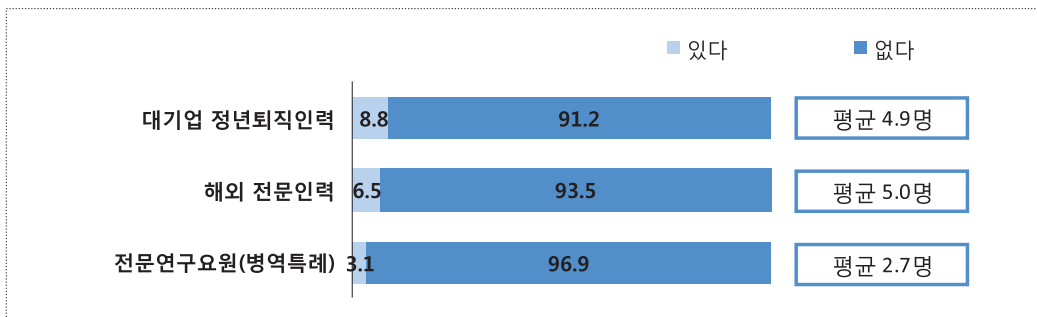
구분		복지수준 불만	자사 인원감축	계약만료/ 정년퇴직	진 학	업종변경	기 타
전 체		16.9	14.5	6.3	6.2	2.3	8.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6.0	13.6	7.1	7.0	1.9	8.6
	관계기업	20.9	18.5	2.7	2.9	3.6	10.0
업 종	제 조업	19.0	13.3	4.0	7.2	3.2	10.3
	비제조업	15.0	15.7	8.4	5.4	1.4	7.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4.2	16.6	3.7	4.9	3.3	13.1
	1백억원~5백억원미만	15.7	16.8	8.2	3.8	1.8	6.7
	5백억원~1천억원미만	16.7	13.0	5.4	4.9	0.7	10.1
	1천억원~2천억원미만	19.4	13.1	6.2	6.4	1.8	7.6
	2천억원~3천억원미만	19.8	14.2	2.8	4.9	2.1	9.3
	3천억원~5천억원미만	15.0	14.9	8.2	9.0	1.8	8.2
	5천억원~1조원미만	18.2	8.3	4.3	21.0	8.3	13.6
	1조원이상	7.4	15.7	19.0	7.4	4.1	11.6
수출여부	수출있음	18.0	15.9	4.2	6.7	3.6	9.3
	수출없음	16.1	13.5	7.9	5.9	1.3	8.5
종사자수	50명미만	17.1	17.8	7.2	4.1	1.9	8.8
	50~100명미만	18.6	14.6	5.5	4.4	1.5	8.8
	100~200명미만	19.2	12.2	4.3	6.7	3.5	9.1
	200~300명미만	17.0	13.4	4.3	4.4	2.4	9.3
	300~500명미만	13.2	16.4	5.6	4.1	0.0	8.5
	500~1,000명미만	16.8	12.9	8.1	11.7	4.8	9.3
	1,000명이상	11.9	12.0	13.7	14.8	1.2	7.5
업 력	0~7년미만	25.1	13.8	8.5	7.1	0.9	5.6
	7~20년미만	14.7	17.6	5.5	4.7	2.1	9.2
	20~30년미만	14.8	13.1	5.4	7.0	3.1	8.6
	30~40년미만	18.6	13.3	7.3	3.2	2.2	11.0
	40~50년미만	20.3	10.2	9.4	10.2	2.8	7.0
	50년이상	18.5	12.7	4.0	10.4	1.1	9.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8.4	16.9	4.3	7.0	2.4	9.5
	진입4~5년차	19.5	12.1	6.1	4.0	2.4	7.7
	진입6~9년차	12.9	15.1	7.2	5.4	2.1	11.2
	진입10년차이상	14.3	16.2	8.1	11.6	2.0	7.6
매출유형	B2B	17.9	13.6	6.4	6.9	2.5	8.8
	B2C	12.6	13.8	5.2	4.1	1.2	9.8
	B2G	15.3	36.4	8.1	2.0	1.9	5.1
상 장	상 장	15.3	11.6	4.7	8.2	4.1	9.2
	비상 장	17.5	15.6	6.9	5.5	1.6	8.7

## □ 유형별 보유인력

- 중견기업의 8.8%는 대기업 정년퇴직인력을, 6.5%는 해외 전문인력을, 3.1%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년퇴직인력 평균 4.9명, 해외 전문인력 평균 5.0명,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평균 2.7명을 보유함

[그림 2-36] 유형별 보유인력

(단위: %, 명)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9.5%는 대기업 정년퇴직인력을, 7.5%는 해외 전문인력을, 3.6%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기업의 5.9%는 대기업 정년 퇴직인력, 2.5%는 해외 전문인력, 1.3%는 전문연구요원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10.4%, 비제조업의 3.3%가 해외 전문인력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평균 4.7명, 5.9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경우 비제조업보다 해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이 많지만 그 숫자는 비제조업보다 적음을 알 수 있음
- 대체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단계가 높을수록 대기업 정년퇴직인력, 해외 전문인력, 전문연구요원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0] 유형별 보유인력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대기업 정년퇴직인력			해외 전문인력			전문연구요원		
			보유	평균	미보유	보유	평균	미보유	보유	평균	미보유
전체		(2,979)	8.8	4.9	91.2	6.5	5.0	93.5	3.1	2.7	96.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9.5	4.9	90.5	7.5	5.3	92.5	3.6	2.8	96.4
	관계기업	(600)	5.9	4.5	94.1	2.5	2.6	97.5	1.3	2.0	98.7
업종	제조업	(1,331)	11.1	4.4	88.9	10.4	4.7	89.6	5.3	3.0	94.7
	비제조업	(1,648)	7.0	5.5	93.0	3.3	5.9	96.7	1.4	2.1	98.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4.7	3.8	95.3	2.1	2.2	97.9	1.0	3.0	99.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5.8	2.6	94.2	1.7	2.3	98.3	0.9	1.7	99.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3.4	12.8	96.6	3.3	5.1	96.7	3.5	1.8	96.5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12.5	3.0	87.5	13.0	5.3	87.0	5.2	3.7	94.8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13.1	5.4	86.9	10.3	6.8	89.7	5.5	2.3	94.5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17.0	5.7	83.0	9.3	2.6	90.7	1.9	1.0	98.1
	5천억원~1조원미만	(151)	11.4	11.9	88.6	10.8	5.6	89.2	8.8	3.5	91.2
수출여부	1조원이상	(57)	11.1	5.0	88.9	17.0	8.7	83.0	6.7	2.0	93.3
	수출있음	(1,171)	11.8	5.6	88.2	14.3	5.2	85.7	7.1	2.8	92.9
수출없음	수출없음	(1,808)	6.9	4.0	93.1	1.4	3.7	98.6	0.6	2.2	99.4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4.3	1.7	95.7	1.4	2.0	98.6	0.5	3.0	99.5
	50~100명미만	(470)	8.0	3.5	92.0	2.1	1.4	97.9	0.0	-	100.0
	100~200명미만	(543)	9.8	3.6	90.2	6.5	5.1	93.5	3.2	1.9	96.8
	200~300명미만	(317)	14.6	2.4	85.4	9.6	6.3	90.4	2.1	1.3	97.9
	300~500명미만	(322)	9.4	6.1	90.6	10.1	2.7	89.9	6.9	2.6	93.1
	500~1,000명미만	(305)	13.7	5.8	86.3	17.3	6.2	82.7	10.2	3.2	89.8
	1,000명이상	(160)	10.0	22.0	90.0	12.3	7.3	87.7	7.7	3.8	92.3
업력	0~7년미만	(364)	5.2	5.7	94.8	5.1	1.8	94.9	3.2	3.6	96.8
	7~20년미만	(1229)	8.9	3.2	91.1	3.9	2.0	96.1	2.6	2.5	97.4
	20~30년미만	(576)	8.2	3.9	91.8	5.8	6.3	94.2	3.7	3.2	96.3
	30~40년미만	(351)	12.1	6.0	87.9	6.1	8.7	93.9	2.3	1.9	97.7
	40~50년미만	(270)	7.8	7.4	92.2	11.2	7.1	88.8	3.2	3.6	96.8
	50년이상	(189)	8.9	9.9	91.1	17.0	4.1	83.0	5.8	1.8	94.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7.4	4.3	92.6	3.6	2.1	96.4	2.6	3.2	97.4
	진입4~5년차	(1042)	9.4	3.0	90.6	7.7	3.9	92.3	2.0	3.7	98.0
	진입6~9년차	(656)	8.9	2.7	91.1	4.5	3.4	95.5	2.6	1.4	97.4
	진입10년차이상	(391)	9.5	13.0	90.5	11.0	9.4	89.0	7.4	2.6	92.6
매출유형	B2B	(2,373)	8.4	4.8	91.6	6.8	4.7	93.2	3.5	2.4	96.5
	B2C	(490)	6.5	4.6	93.5	3.3	2.0	96.7	0.9	8.8	99.1
	B2G	(116)	26.1	5.7	73.9	13.0	11.6	87.0	5.7	3.6	94.3
상장	상장	(644)	10.2	7.2	89.8	11.8	4.5	88.2	8.4	2.8	91.6
	비상장	(2,335)	8.4	3.9	91.6	4.7	5.5	95.3	1.5	2.6	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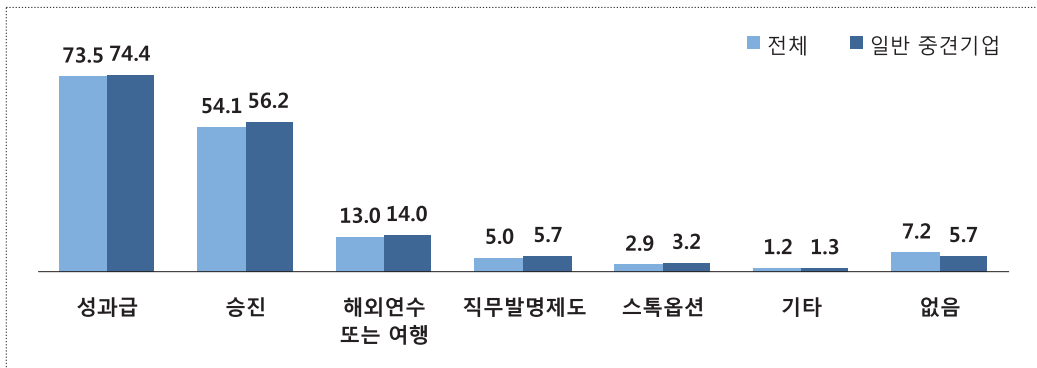
## 2. 직원 복지

### □ 성과보상 제도

- 중견기업의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7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승진(54.1%), 해외연수 또는 여행(13.0%), 직무 발명제도(5.0%)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성과급(74.4%), 승진(56.2%), 해외연수 또는 여행(14.0%), 직무 발명제도(5.7%) 순임

[그림 2-37] 성과보상 제도

(단위: %, 중복응답)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경우 성과보상제도가 없는 기업이 2.7%인 반면, 비제조업은 6.3%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성과보상제도가 없는 비율이 높게 조사됨
- 매출규모별로는 매출규모가 클수록 인력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과 승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성과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반면, 비제조업, 내수기업, 비상장기업은 성과보상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조사됨

[표 2-51] 성과보상 제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 수	성과급	승진	해외연수 /여행	직무발명 제도	스톡옵션	기타	없음
전체		(2,979)	73.5	54.1	13.0	5.0	2.9	1.2	7.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4.4	56.2	14.0	5.7	3.2	1.3	5.7
	관계기업	(600)	69.9	45.7	9.0	2.0	1.9	0.4	13.4
업종	제조업	(1,331)	78.3	54.8	14.8	8.9	4.2	1.3	4.5
	비제조업	(1,648)	69.6	53.5	11.6	1.8	2.0	1.0	9.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64.4	41.2	4.0	4.6	2.1	1.1	17.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71.3	49.8	8.9	0.3	1.5	1.2	10.4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75.6	54.3	13.5	2.6	0.0	0.7	4.8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76.0	58.6	15.1	7.0	4.3	0.7	4.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77.1	60.4	16.6	11.0	4.1	0.0	0.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76.2	61.2	16.9	8.3	6.4	1.9	2.7
	5천억원~1조원미만	(151)	80.5	65.6	27.1	7.3	4.4	5.5	1.5
수출여부	1조원이상	(57)	82.2	65.2	41.5	20.0	10.4	0.0	7.4
	수출있음	(1,171)	79.2	58.8	17.0	10.7	5.1	1.2	3.0
종사자수	수출없음	(1,808)	69.8	51.1	10.4	1.3	1.6	1.2	10.0
	50명미만	(862)	63.8	42.6	5.4	2.0	1.4	1.7	17.0
	50~100명미만	(470)	76.7	56.0	14.0	0.0	0.9	0.5	1.2
	100~200명미만	(543)	73.4	60.8	12.4	4.1	3.4	0.0	3.9
	200~300명미만	(317)	81.9	56.7	15.4	9.0	5.3	0.7	2.9
	300~500명미만	(322)	82.2	56.0	17.3	7.3	5.4	2.3	2.5
	500~1,000명미만	(305)	80.2	59.1	18.6	14.2	4.8	1.5	4.5
업력	1,000명이상	(160)	69.4	69.0	29.1	8.5	2.8	1.9	6.9
	0~7년미만	(364)	77.7	50.8	10.9	6.4	0.9	1.3	9.3
	7~20년미만	(1229)	72.6	51.8	10.0	2.3	3.3	1.5	9.5
	20~30년미만	(576)	76.0	55.4	14.8	7.1	4.6	1.0	4.9
	30~40년미만	(351)	71.7	56.9	10.4	5.5	1.4	1.3	3.5
	40~50년미만	(270)	73.0	57.7	23.2	6.4	1.3	0.6	7.6
성장단계	50년이상	(189)	71.5	55.2	15.7	9.7	3.8	0.0	4.9
	진입1~3년차	(890)	70.5	52.5	9.0	3.8	2.4	1.8	11.2
	진입4~5년차	(1042)	73.8	54.4	12.7	4.8	3.1	0.9	6.2
	진입6~9년차	(656)	76.0	51.4	12.6	4.2	4.2	0.6	7.6
매출유형	진입10년차이상	(391)	73.8	60.0	20.5	8.6	1.5	1.5	2.8
	B2B	(2,373)	75.5	52.8	12.2	5.7	3.2	1.4	6.4
	B2C	(490)	66.5	56.6	17.7	1.3	2.3	0.4	11.8
상장	B2G	(116)	62.6	71.1	9.4	5.7	0.0	0.0	4.1
	상장	(644)	83.9	62.6	21.1	11.6	8.7	1.1	1.9
	비상장	(2,335)	70.1	51.4	10.4	2.9	1.1	1.2	8.9

## 5절 국제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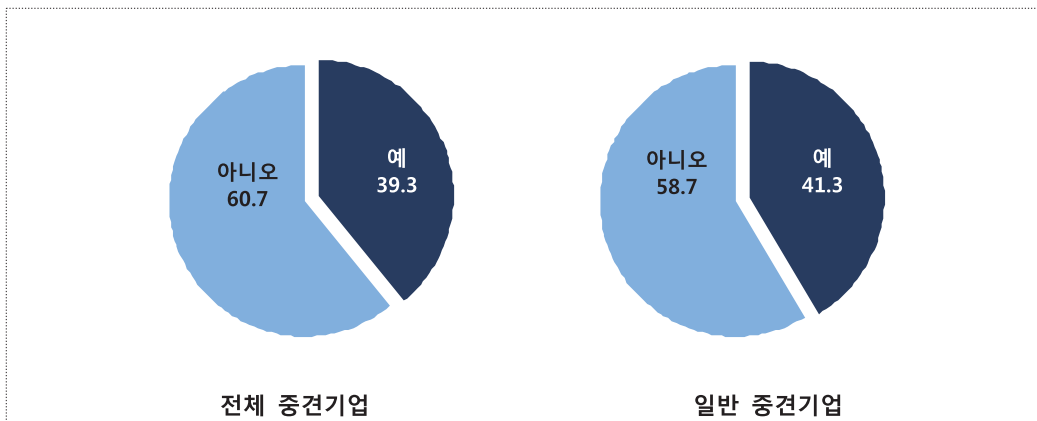
### 1. 수출

#### □ 해외수출

- 중견기업 전체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9.3%이며, 일반 중견기업은 41.3%가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8] 해외 수출

(단위: %)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68.2%, 비제조업의 16.0%가 수출실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제조업의 수출 실적이 월등히 높음
- 매출유형별로는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이 44.4%로 수출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B2G기업이 25.3%, B2C기업이 17.9%로 거래처 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장기업의 74.2%가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장기업은 28.1%가 2015년에 수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수출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52] 해외 수출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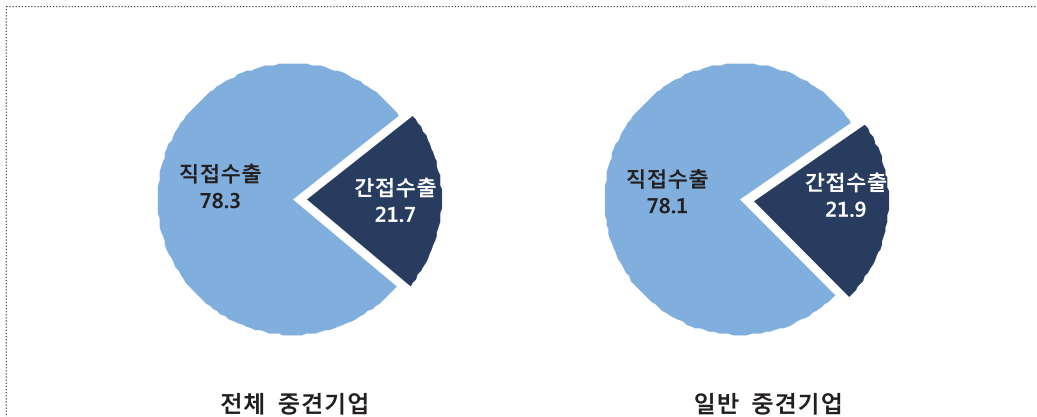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전체		(2,979)	39.3	60.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1.3	58.7
	관계기업	(600)	31.4	68.6
업종	제조업	(1,331)	68.2	31.8
	비제조업	(1,648)	16.0	84.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0.0	9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16.7	83.3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43.4	56.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59.0	41.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65.5	34.5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59.0	41.0
	5천억원~1조원미만	(151)	57.9	42.1
	1조원이상	(57)	85.2	14.8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100.0	0.0
	수출없음	(1,808)	0.0	100.0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12.9	87.1
	50~100명미만	(470)	27.8	72.2
	100~200명미만	(543)	46.1	53.9
	200~300명미만	(317)	56.4	43.6
	300~500명미만	(322)	60.0	40.0
	500~1,000명미만	(305)	76.5	23.5
	1,000명이상	(160)	45.4	54.6
업력	0~7년미만	(364)	23.0	77.0
	7~20년미만	(1,229)	28.6	71.4
	20~30년미만	(576)	43.1	56.9
	30~40년미만	(351)	47.7	52.3
	40~50년미만	(270)	54.2	45.8
	50년이상	(189)	65.6	34.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24.8	75.2
	진입4~5년차	(1,042)	45.5	54.5
	진입6~9년차	(656)	35.7	64.3
	진입10년차이상	(391)	52.6	47.4
매출유형	B2B	(2,373)	44.4	55.6
	B2C	(490)	17.9	82.1
	B2G	(116)	25.3	74.7
상장	상장	(644)	74.2	25.8
	비상장	(2,335)	28.1	71.9

## □ 직/간접수출 비중

- 전체 수출 중견기업 중 직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78.3%,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21.7%로 직접수출 비중이 간접수출 비중의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9] 직/간접수출 비중

(단위: %, 수출기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 수출기업은 77.1%가 직접수출을 하고 22.9%가 간접수출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 수출기업은 86.1%가 직접수출을 하고 13.9%가 간접수출을 한다고 응답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백억원~1천억원 미만 기업의 직접수출이 90.6%로 타 매출 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1백억원미만 기업의 직접수출은 59.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 거래처별로는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기업의 99.5%가 직접수출을 하여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B2C기업은 간접수출이 30.7%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53] 직/간접수출 비중

(단위 : %, 수출기업 1,17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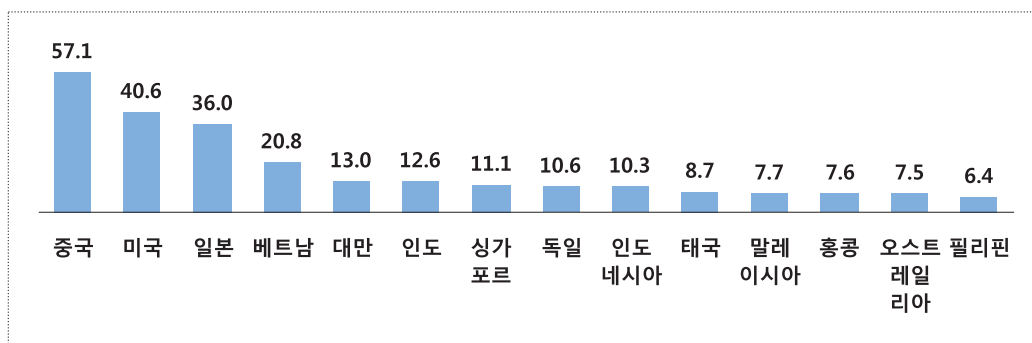
구분		직접수출	간접수출
전체		78.3	21.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8.1	21.9
	관계기업	83.4	16.6
업종	제조업	77.1	22.9
	비제조업	86.1	13.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9.9	40.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6.0	14.0
	5백억원~1천억원미만	90.6	9.4
	1천억원~2천억원미만	76.0	24.0
	2천억원~3천억원미만	82.1	17.9
	3천억원~5천억원미만	80.5	19.5
	5천억원~1조원미만	81.0	19.0
	1조원이상	70.5	29.5
수출여부	수출있음	78.3	21.7
	수출없음	-	-
종사자수	50명미만	87.4	12.6
	50~100명미만	69.0	31.0
	100~200명미만	79.0	21.0
	200~300명미만	71.5	28.5
	300~500명미만	85.0	15.0
	500~1,000명미만	76.7	23.3
	1,000명이상	79.2	20.8
업력	0~7년미만	94.3	5.7
	7~20년미만	78.8	21.2
	20~30년미만	79.4	20.6
	30~40년미만	75.5	24.5
	40~50년미만	72.3	27.7
	50년이상	82.6	17.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8.0	12.0
	진입4~5년차	80.5	19.5
	진입6~9년차	72.3	27.7
	진입10년차이상	77.2	22.8
매출유형	B2B	78.4	21.6
	B2C	69.3	30.7
	B2G	99.5	0.5
상장	상장	79.7	20.3
	비상장	75.0	25.0

## □ 주요 수출지역 및 금액

- 중견기업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수출 지역으로는 중국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40.6%), 일본(36.0%), 베트남(20.8%), 대만(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0]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단위: %, 수출기업, 중복응답)



## 특성별 분석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억원 이상 기업은 중국 수출이 많았으며, 5천억원 미만 기업은 일본,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력이 짧을수록 중국 수출이 많으며, 50년이상 업력 기업은 상대적으로 베트남 수출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4]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단위 : %, 수출기업 1,171개사, 중복응답)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	싱가포르
전체		57.1	40.6	36.0	20.8	13.0	12.6	11.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7.9	40.5	35.3	21.7	14.1	12.9	11.4
	관계기업	53.1	41.2	39.9	16.0	7.4	10.8	9.9
업종	제조업	60.2	45.2	38.0	20.2	13.4	11.6	11.8
	비제조업	46.4	24.7	29.2	22.9	11.9	15.8	9.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0.8	12.6	27.3	11.2	0.0	9.1	19.2
	1백억원~5백억원미만	53.6	33.4	33.9	14.6	9.6	13.8	13.8
	5백억원~1천억원미만	57.6	33.5	40.5	19.9	12.4	12.6	13.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4.6	35.4	43.6	22.3	14.6	12.3	11.5
	2천억원~3천억원미만	62.0	47.2	33.6	29.6	13.6	10.5	10.5
	3천억원~5천억원미만	56.6	44.1	30.0	23.6	18.7	15.9	4.6
	5천억원~1조원미만	66.7	75.3	22.8	11.1	7.6	12.6	7.6
	1조원이상	67.8	40.0	35.7	8.7	15.7	12.2	15.7
수출여부	수출있음	57.1	40.6	36.0	20.8	13.0	12.6	11.1
	수출없음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56.9	15.2	18.6	24.5	9.3	21.4	12.2
	50~100명미만	53.6	30.4	25.1	17.9	9.1	10.5	7.0
	100~200명미만	57.5	31.4	42.3	22.2	7.9	10.7	12.2
	200~300명미만	53.8	43.4	45.4	20.6	19.2	13.6	17.4
	300~500명미만	62.0	43.6	45.5	21.8	19.7	12.7	10.6
	500~1,000명미만	55.3	57.7	32.4	20.3	14.0	11.1	10.0
	1,000명이상	63.1	59.4	24.0	14.9	7.8	10.9	3.1
업력	0~7년미만	40.5	42.9	22.2	18.9	14.1	15.6	9.6
	7~20년미만	62.5	34.4	36.1	23.4	15.0	11.8	8.4
	20~30년미만	64.0	37.8	32.4	18.0	11.8	13.9	12.8
	30~40년미만	60.5	51.0	39.3	20.5	9.6	21.9	10.6
	40~50년미만	51.9	40.8	41.5	15.3	13.3	6.2	14.1
	50년이상	38.2	45.8	35.6	28.2	14.6	6.4	12.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3.6	36.2	33.2	20.3	7.5	13.8	9.2
	진입4~5년차	56.7	35.4	36.8	24.4	13.3	13.3	13.5
	진입6~9년차	60.4	45.2	39.5	17.5	16.3	11.6	12.1
	진입10년차이상	57.1	49.8	33.1	17.2	13.2	11.1	6.8
매출유형	B2B	58.4	41.4	36.7	20.8	12.8	13.1	11.6
	B2C	58.4	39.4	35.6	19.0	17.2	5.0	9.9
	B2G	7.2	14.6	14.6	25.9	7.2	15.4	0.0
상장	상장	59.8	48.0	39.6	22.4	16.3	12.5	10.9
	비상장	54.8	34.4	33.0	19.4	10.3	12.6	11.4

[표 2-55]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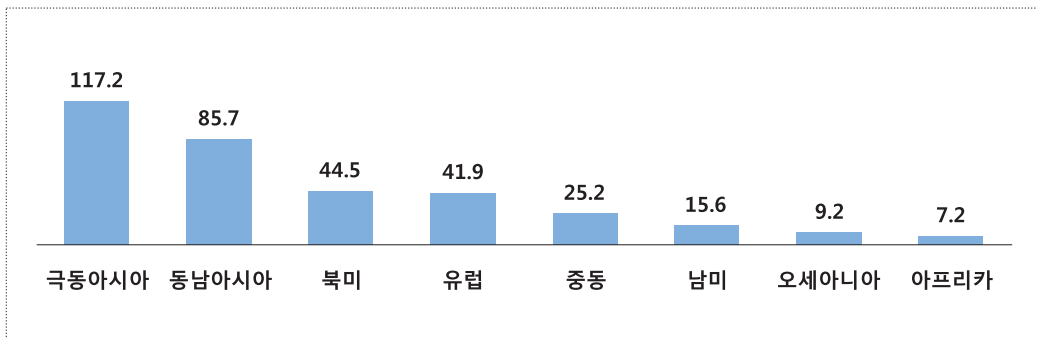
(단위 : %, 수출기업 1,171개사, 중복응답)

구분		독일	인도 네시아	태국	말레 이시아	홍콩	오스트 레일리아	필리핀
전체		10.6	10.3	8.7	7.7	7.6	7.5	6.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0.4	10.8	9.8	8.1	8.4	7.7	7.1
	관계기업	11.8	7.2	3.3	5.5	3.4	6.6	2.8
업종	제조업	12.2	8.9	8.3	8.3	7.4	7.9	6.5
	비제조업	5.2	14.9	10.3	5.7	8.4	6.2	6.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6	0.0	4.6	4.6	0.0	8.0	11.2
	1백억원~5백억원미만	7.4	16.0	8.1	3.3	13.8	10.8	5.2
	5백억원~1천억원미만	11.3	6.2	4.7	4.9	4.8	4.6	1.4
	1천억원~2천억원미만	9.8	12.1	8.7	9.0	7.9	6.1	6.2
	2천억원~3천억원미만	14.6	9.6	13.6	6.3	10.5	4.2	8.4
	3천억원~5천억원미만	7.9	10.9	7.8	7.8	3.0	4.8	6.2
	5천억원~1조원미만	12.6	8.6	12.6	19.7	8.6	22.8	8.6
	1조원이상	15.7	4.3	0.0	7.8	0.0	12.2	12.2
수출여부	수출있음	10.6	10.3	8.7	7.7	7.6	7.5	6.4
	수출없음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6.2	6.0	5.6	3.8	13.6	4.8	5.8
	50~100명미만	11.7	13.1	8.2	3.6	7.3	11.8	3.7
	100~200명미만	4.6	12.5	12.4	8.4	5.3	6.4	5.5
	200~300명미만	8.1	10.9	10.5	7.4	7.6	0.0	2.5
	300~500명미만	18.9	7.1	6.9	7.9	8.6	9.9	4.5
	500~1,000명미만	12.6	9.6	7.6	9.8	6.7	12.0	12.7
	1,000명이상	13.9	13.0	6.2	12.0	7.4	5.7	10.4
업력	0~7년미만	9.1	4.5	4.8	4.7	0.0	4.7	19.0
	7~20년미만	11.7	9.5	9.7	6.3	5.3	7.0	3.8
	20~30년미만	8.0	10.9	5.1	9.9	7.4	6.0	4.2
	30~40년미만	11.5	7.5	13.7	9.5	7.9	3.7	6.0
	40~50년미만	9.0	9.4	6.0	4.8	13.4	8.2	7.3
	50년이상	14.1	17.9	11.3	9.5	8.1	17.1	12.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1.6	10.7	8.6	6.2	3.6	7.9	10.8
	진입4~5년차	9.4	8.9	10.4	6.0	9.3	6.0	4.4
	진입6~9년차	9.9	10.2	9.6	13.4	3.7	6.5	7.1
	진입10년차이상	13.0	12.7	4.5	6.6	10.9	11.5	6.8
매출유형	B2B	11.6	9.7	9.3	7.7	7.5	7.5	6.0
	B2C	2.4	13.5	5.0	10.8	10.8	10.0	13.5
	B2G	0.0	21.6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11.3	10.9	9.0	10.7	7.8	8.8	9.0
	비상장	10.0	9.7	8.5	5.1	7.4	6.4	4.2

- 중견기업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수출 대륙으로는 극동아시아가 11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85.7%), 북미(44.5%), 유럽(41.9%), 중동(2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1]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단위: %, 수출기업, 중복응답)



#### 특성별 분석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억원 이상 기업은 상대적으로 오세아니아 수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극동아시아가 가장 많으며, 비제조업은 동남아시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6]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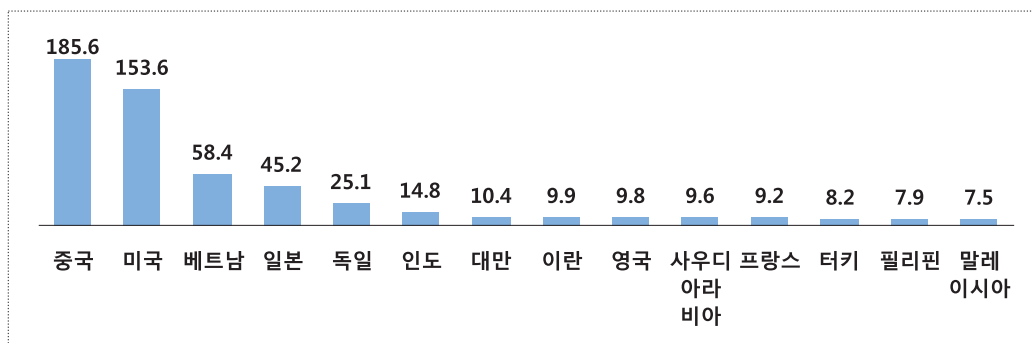
(단위 : %, 수출기업 1,171개사, 중복응답)

구분		극동 아시아	동남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남미	오세 아니아	아프리카
전체		117.2	85.7	44.5	41.9	25.2	15.6	9.2	7.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19.3	89.9	44.1	43.0	26.1	16.1	9.7	7.1
	관계기업	106.5	63.9	46.9	36.4	20.4	13.2	6.6	8.0
업종	제조업	122.3	79.8	49.5	48.1	26.1	16.4	9.3	6.4
	비제조업	99.6	106.0	27.6	20.5	22.1	13.1	9.1	1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8.1	81.3	20.5	23.8	8.0	0.0	8.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114.2	78.0	36.7	32.1	26.2	12.5	10.8	8.5
	5백억원~1천억원미만	123.2	82.1	38.5	23.7	30.4	9.7	4.6	11.3
	1천억원~2천억원미만	123.2	89.8	39.2	38.0	25.4	13.6	7.4	10.1
	2천억원~3천억원미만	119.6	90.5	50.4	51.2	16.8	17.9	6.3	3.1
	3천억원~5천억원미만	114.5	85.9	47.3	61.7	30.7	20.6	7.9	6.0
	5천억원~1조원미만	109.1	89.3	78.8	46.5	17.7	33.8	26.3	2.5
	1조원이상	127.0	65.2	47.8	63.5	55.7	12.2	20.0	7.8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2	85.7	44.5	41.9	25.2	15.6	9.2	7.2
	수출없음	-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98.4	93.2	15.2	21.3	12.2	9.1	4.8	3.9
	50~100명미만	98.9	71.4	34.5	42.5	27.8	13.0	11.8	7.3
	100~200명미만	116.5	89.5	36.1	36.9	20.3	7.1	7.3	7.8
	200~300명미만	128.5	91.5	46.0	37.6	28.4	18.5	3.8	8.6
	300~500명미만	139.7	73.7	52.2	49.9	30.3	23.0	12.7	3.2
	500~1,000명미만	113.1	94.7	59.6	48.2	28.6	18.2	13.0	7.6
	1,000명이상	106.9	76.0	64.1	58.5	24.4	24.7	10.4	16.7
업력	0~7년미만	76.8	88.3	53.0	32.4	21.6	4.6	4.7	0.0
	7~20년미만	122.2	79.2	36.9	41.9	19.1	8.7	8.3	4.0
	20~30년미만	117.2	81.8	39.7	30.9	30.5	21.8	6.0	4.4
	30~40년미만	120.8	96.6	51.0	54.6	18.6	20.7	3.7	7.1
	40~50년미만	126.6	72.3	53.8	36.7	31.3	19.2	11.0	10.8
	50년이상	100.7	112.0	48.3	55.2	32.6	13.5	24.5	18.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04.1	87.7	40.0	32.0	26.6	19.4	7.9	2.5
	진입4~5년차	117.9	86.0	37.9	41.1	24.9	13.2	7.4	5.9
	진입6~9년차	122.0	88.9	51.5	34.2	24.6	11.2	6.5	13.0
	진입10년차이상	120.7	80.5	54.4	58.8	25.2	22.5	16.9	7.8
매출유형	B2B	118.8	84.4	45.3	44.8	26.2	15.8	8.9	6.3
	B2C	128.3	88.5	45.9	16.3	8.9	13.3	13.9	6.5
	B2G	29.0	127.0	14.6	13.9	37.6	15.4	7.4	45.1
상장	상장	128.1	92.6	52.9	50.2	23.2	18.7	11.7	8.2
	비상장	108.0	79.9	37.5	34.9	26.8	13.1	7.1	6.4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전체 수출금액은 686.5억불이며, 수출한 국가는 중국(185.6억불), 미국(153.6억불), 베트남(58.4억불), 일본(45.2억불)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중국 16,296천불, 미국 13,489천불, 베트남 5,124천불, 일본 3,969천불, 독일 2,202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2] 주요수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단위: 억불, 수출기업)



[표 2-57] 주요수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단위 : 천불, %, 수출기업 1,17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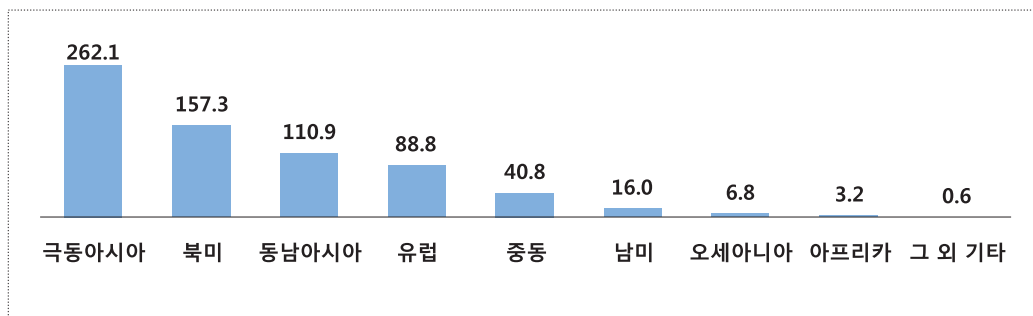
구 분	지역별 수출금액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68,648,621	100.0	58,623.9
중국	18,558,870	27.0	16,295.9
미국	15,362,124	22.4	13,488.9
베트남	5,835,291	8.5	5,123.8
일본	4,520,336	6.6	3,969.1
독일	2,508,089	3.7	2,202.3
인도	1,482,192	2.2	1,301.5
대만	1,039,352	1.5	912.6
이란	990,178	1.4	869.4
영국	976,730	1.4	857.6
사우디아라비아	957,546	1.4	840.8
프랑스	924,134	1.3	811.4
터키	816,963	1.2	717.3
필리핀	789,665	1.2	693.4
말레이시아	752,746	1.1	661.0
그 외 국가	13,134,405	19.1	123.1

※ 그 외 국가 : 88개 국가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전체 수출금액은 686.5억불이며, 수출 대륙은 극동아시아(262.1억불), 북미(157.3억불), 동남아시아(110.9억불), 유럽(88.8억불)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극동아시아 23,013천불, 북미 13,811천불, 동남아시아 9,736천불, 유럽 7,799천불, 중동 3,580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3] 주요수출 대륙별 수출금액

(단위: 억불, 수출기업)



[표 2-58] 주요수출 대륙별 수출금액

(단위 : 천불, %, 수출기업 1,171개사)

구 분	지역별 수출금액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68,648,621	100.0	58,623.9
극동아시아	26,208,950	38.2	23,013.2
북미	15,729,363	22.9	13,811.4
동남아시아	11,088,293	16.2	9,736.2
유럽	8,881,875	12.9	7,798.9
중동	4,077,155	5.9	3,580.0
남미	1,601,695	2.3	1,406.4
오세아니아	676,067	1.0	593.6
아프리카	320,700	0.5	281.6
그 외 기타	64,522	0.1	56.7

※ 그 외 기타 : 응답자가 기타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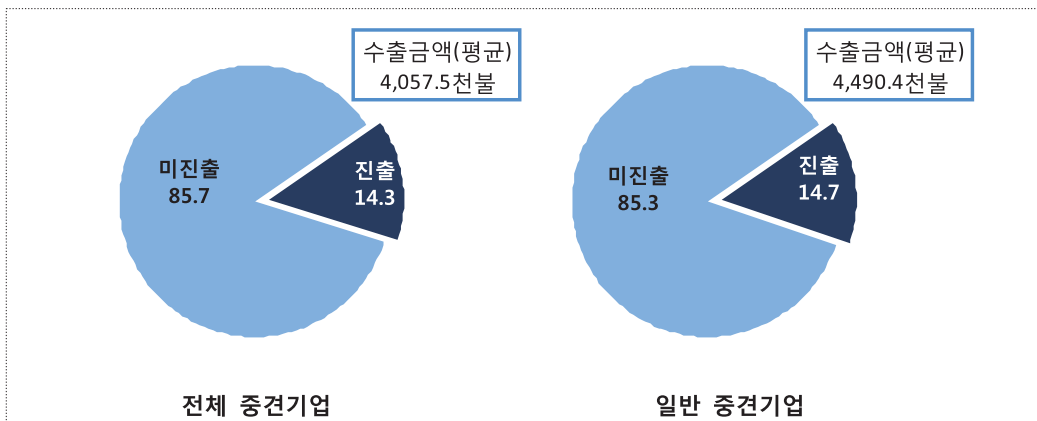


## □ 해외 신규 진출

- 수출 중견기업 중 2015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14.3%이며, 이들의 평균 수출금액은 4,057.5천불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2015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14.7%이며, 이들의 평균 수출 금액은 4,490.4천불로 나타남

[그림 2-44] 신규 진출 여부

(단위: %, 수출기업)



## 특성별 분석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1~3년차의 20.7%가 새로운 국가에 신규진출 하였으며, 진입 4~5년차는 14.0%, 6~9년차는 13.4%, 진입 10년차 이상은 11.3%가 신규진출 한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의 진입연차가 높을수록 신규국가 진출이 적으며, 중견기업 진입연차가 낮을수록 신규 진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주 거래처별로는 신규진출 비율은 비슷한 반면, B2G기업의 신규 진출 평균 수출금액이 32,039.8천불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B2C기업은 573.9천불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월등히 낮음

[표 2-59] 신규 진출 여부

(단위: %, 천불, 개, 수출기업 1,17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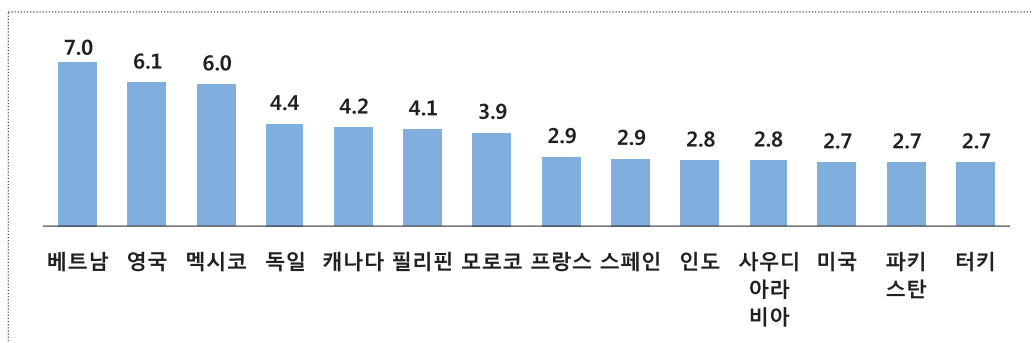
구분		미진출	진출	평균 수출금액
전체		85.7	14.3	4,057.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5.3	14.7	4,490.4
	관계기업	87.4	12.6	1,433.2
업종	제조업	86.6	13.4	4,131.1
	비제조업	82.5	17.5	3,863.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9.5	20.5	38.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1.2	18.8	1,042.7
	5백억원~1천억원미만	90.8	9.2	2,873.9
	1천억원~2천억원미만	86.1	13.9	5,070.5
	2천억원~3천억원미만	85.3	14.7	6,073.8
	3천억원~5천억원미만	86.2	13.8	3,106.5
	5천억원~1조원미만	86.4	13.6	4,343.2
	1조원이상	83.5	16.5	9,013.8
수출여부	수출있음	85.7	14.3	4,057.5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86.6	13.4	835.8
	50~100명미만	81.4	18.6	457.8
	100~200명미만	89.2	10.8	2,060.4
	200~300명미만	83.0	17.0	3,331.7
	300~500명미만	87.2	12.8	8,365.0
	500~1,000명미만	87.6	12.4	969.2
	1,000명이상	76.2	23.8	15,317.8
업력	0~7년미만	79.6	20.4	6,280.9
	7~20년미만	84.7	15.3	5,498.5
	20~30년미만	88.0	12.0	1,820.0
	30~40년미만	85.4	14.6	5,002.1
	40~50년미만	80.3	19.7	2,583.3
	50년이상	93.6	6.4	3,948.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79.3	20.7	6,683.9
	진입4~5년차	86.0	14.0	2,078.4
	진입6~9년차	86.6	13.4	6,037.4
	진입10년차이상	88.7	11.3	3,153.8
매출유형	B2B	85.6	14.4	3,489.2
	B2C	86.9	13.1	573.9
	B2G	84.6	15.4	32,039.8
상장	상장	85.4	14.6	6,873.3
	비상장	85.9	14.1	1,572.4

## □ 신규 진출 지역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지역으로는 베트남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국(6.1%), 멕시코(6.0%), 독일(4.4%), 캐나다(4.2%), 필리핀(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독일 571천불, 베트남 485천불, 멕시코 478천불, 이라크 345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5] 신규 진출 국가(상위 14개)

(단위: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표 2-60] 신규 진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단위 : 천불,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16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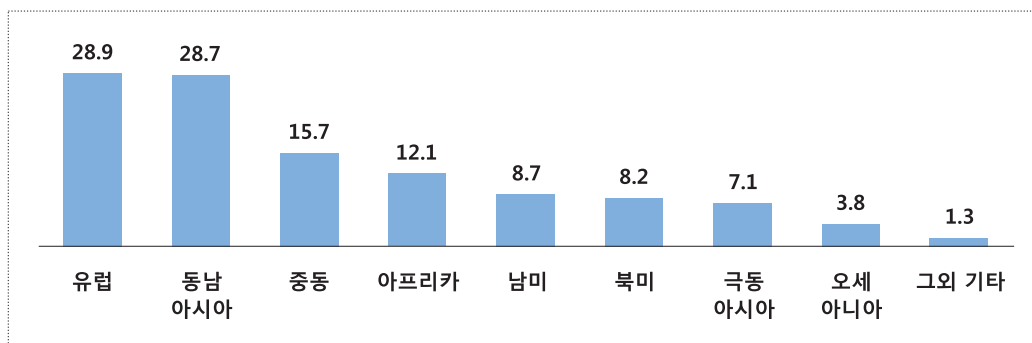
구 분	신규 진출 국가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680,856	100.0	4,052.7
독일	95,776	14.1	570.8
베트남	81,320	11.9	484.6
멕시코	80,143	11.8	477.6
이라크	57,805	8.5	344.5
태국	57,057	8.4	340.0
모로코	40,828	6.0	243.3
베네수엘라	36,610	5.4	218.2
대만	28,332	4.2	168.8
남아프리카공화국	27,636	4.1	164.7
러시아	21,655	3.2	129.1
터키	19,321	2.8	115.1
이집트	17,474	2.6	104.1
영국	16,847	2.5	100.4
캐나다	14,666	2.2	87.4
그 외 국가	85,386	12.3	14.1

※ 그 외 국가 : 36개 국가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 대륙으로는 유럽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28.7%), 중동(15.7%), 아프리카(12.1%), 남미(8.7%), 북미(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동남아시아 996천불, 유럽 905천불, 남미 779천불, 중동 528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6] 신규 진출 대륙

(단위: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표 2-61] 신규 진출 대륙별 수출금액

(단위 : 천불,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168개사)

구 분	신규 진출 국가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680,856.4	100.0	4,052.7
동남아시아	167,186.9	24.6	996.3
유럽	151,798.6	22.3	904.6
남미	130,786.3	19.2	779.4
중동	90,964.2	13.4	542.1
아프리카	88,595.8	13.0	528.0
극동아시아	29,021.3	4.3	172.9
오세아니아	1,025.8	0.2	6.1
그 외 기타	6,654	1.0	39.7

※ 그 외 기타 : 응답자가 기타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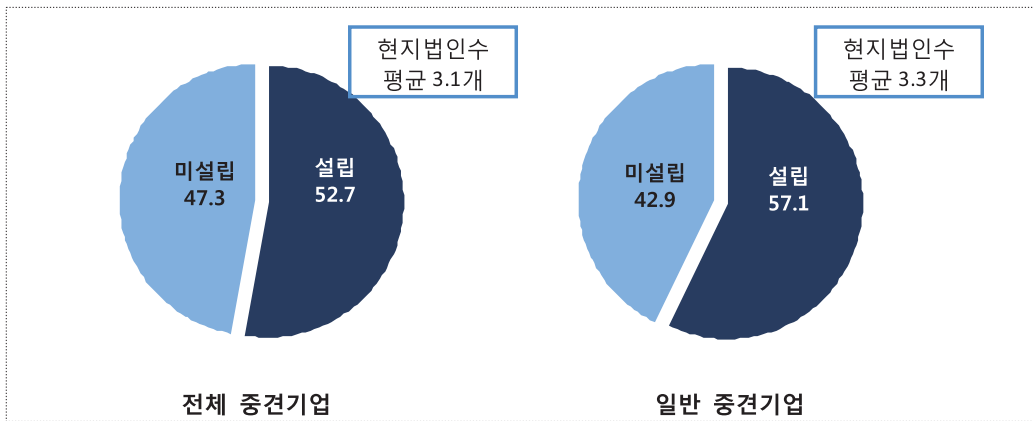
## 2. 현지법인

### □ 현지법인 설립

- 수출기업 중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52.7%이며, 기업당 평균 3.1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57.1%이며, 기업당 평균 3.3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7] 현지법인 설립

(단위: %, 수출기업)



### 특성별 분석

- 수출기업 중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보유비율은 57.1%로 관계기업 29.7%에 비해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해외 현지법인 수는 3.3개이며, 관계기업은 1.4개임
- 상장기업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 비율이 67.7%(평균 현지법인 수 3.5개)이며, 비상장기업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 비율 39.9%(평균 현지법인수 2.6개)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해외 현지법인 설립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평균 현지법인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2-62] 현지법인 설립

(단위: %, 천불, 개, 수출기업 1.171개사)

구분		미설립	설립	평균 법인수
전체		47.3	52.7	3.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2.9	57.1	3.3
	관계기업	70.3	29.7	1.4
업종	제조업	45.8	54.2	3.1
	비제조업	52.8	47.2	3.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84.2	15.8	2.4
	1백억원~5백억원미만	73.7	26.3	1.2
	5백억원~1천억원미만	61.5	38.5	2.1
	1천억원~2천억원미만	43.9	56.1	2.8
	2천억원~3천억원미만	43.3	56.7	3.6
	3천억원~5천억원미만	31.0	69.0	3.3
	5천억원~1조원미만	32.3	67.7	4.1
	1조원이상	7.8	92.2	5.0
수출여부	수출있음	47.3	52.7	3.1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79.5	20.5	2.0
	50~100명미만	66.0	34.0	2.4
	100~200명미만	61.4	38.6	2.2
	200~300명미만	36.4	63.6	2.4
	300~500명미만	37.9	62.1	3.4
	500~1,000명미만	29.2	70.8	3.2
	1,000명이상	26.4	73.6	6.6
업력	0~7년미만	59.0	41.0	3.5
	7~20년미만	49.5	50.5	2.3
	20~30년미만	52.2	47.8	2.9
	30~40년미만	46.8	53.2	4.3
	40~50년미만	41.7	58.3	3.2
	50년이상	37.1	62.9	3.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49.7	50.3	2.9
	진입4~5년차	52.0	48.0	2.7
	진입6~9년차	52.7	47.3	2.5
	진입10년차이상	30.6	69.4	4.2
매출유형	B2B	48.1	51.9	3.0
	B2C	40.4	59.6	4.1
	B2G	40.6	59.4	2.8
상장	상장	32.3	67.7	3.5
	비상장	60.1	39.9	2.6

## □ 현지법인 설립 국가

- 국내 수출 중견기업의 현지법인은 총 1,921개이며, 기업당 평균 3.11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685개(평균1.11개), 미국 249개(0.40개), 베트남 188개(0.30개) 순으로 나타남
  - 대륙별로 살펴보면, 극동아시아 829개(1.34개), 동남아시아 500개(0.81개), 북미 263개(0.43개) 순으로 나타남

[표 2-63] 진출 국가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상위 14개)

(단위 : 개사, %, 현지법인 설립기업 617개사, 중복응답)

구 분	전체		평균 현지법인 수
	현지법인 수	비중	
전체	1,921	100.0	3.11
중국	685	35.7	1.11
미국	249	12.9	0.40
베트남	188	9.8	0.30
인도	72	3.7	0.12
인도네시아	67	3.5	0.11
일본	61	3.2	0.10
홍콩	58	3.0	0.09
러시아	43	2.2	0.07
태국	34	1.8	0.06
독일	34	1.7	0.05
필리핀	32	1.7	0.05
싱가포르	32	1.7	0.05
멕시코	30	1.6	0.05
말레이시아	27	1.4	0.04
그 외 국가	309	16.1	0.01

※ 그 외 국가 : 48개 국가

[표 2-64] 진출 대륙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단위 : 개사, %, 현지법인 설립기업 617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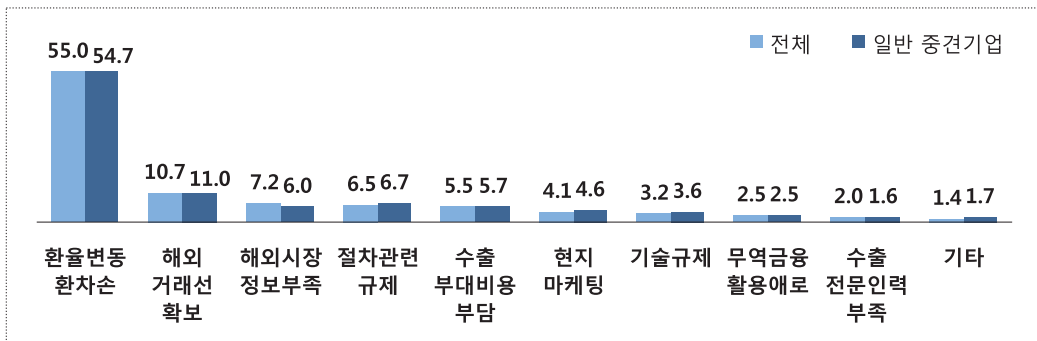
구 분	전체		평균 현지법인 수
	현지법인 수	비중	
전체	1,921	100.0	3.11
극동아시아	829	43	1.34
동남아시아	500	26	0.81
북미	263	14	0.43
유럽	195	10	0.32
남미	72	4	0.12
중동	39	2	0.06
아프리카	17	1	0.03
오세아니아	6	0	0.01

## □ 수출시 애로사항

- 수출 중견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으로는 환율변동 환차손(5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 거래선 확보(10.7%), 해외시장 정보부족(7.2%), 절차관련 규제(6.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환율변동 환차손(54.7%), 해외 거래선 확보(11.0%), 절차관련 규제(6.7%), 해외시장 정보부족(6.0%) 순임

[그림 2-48] 수출시 애로사항

(단위: %, 수출기업)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과 관계기업 모두 환율변동 환차손을 가장 큰 수출 애로요인이라고 응답함
  - 두 번째 수출 애로사항으로는 일반 중견기업은 해외 거래선 확보(11.0%), 관계기업은 해외시장 정보부족(13.6%)으로 응답하여 다소 다르게 나타남
-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의 20.0%는 절차관련 규제를 선택하여 다른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과 소비자인 B2C기업은 환율변동 환차손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인 B2G기업은 해외시장 정보부족(22.8%)를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함
  - B2G기업은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이기에 주로 국내에 국한되어있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5]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수출기업 1,171개사)

구분		환율변동 환차손	해외 거래선 확보	해외시장 정보부족	절차관련 규제	수출 부담비용 부담
전체		55.0	10.7	7.2	6.5	5.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4.7	11.0	6.0	6.7	5.7
	관계기업	56.9	9.4	13.6	5.7	4.1
업종	제조업	57.9	11.0	5.2	6.3	5.4
	비제조업	45.3	10.0	14.2	7.0	5.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6.1	21.3	4.6	8.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53.3	10.8	11.3	2.4	9.0
	5백억원~1천억원미만	62.5	3.0	11.2	4.5	7.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3	7.3	4.3	9.2	6.2
	2천억원~3천억원미만	55.8	14.6	8.6	6.3	3.1
	3천억원~5천억원미만	47.1	14.3	6.4	6.2	1.4
	5천억원~1조원미만	48.0	14.6	6.0	0.0	10.1
	1조원이상	52.2	15.7	4.3	2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55.0	10.7	7.2	6.5	5.5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64.8	11.1	2.2	8.0	1.8
	50~100명미만	57.0	6.3	12.9	3.3	9.5
	100~200명미만	58.5	8.3	6.6	7.1	7.6
	200~300명미만	53.3	7.6	9.7	4.9	8.3
	300~500명미만	59.1	11.1	6.1	7.5	2.2
	500~1,000명미만	45.1	16.4	6.8	6.5	4.7
	1,000명이상	49.9	15.1	5.6	9.4	0.0
업력	0~7년미만	42.3	15.0	9.5	12.0	0.0
	7~20년미만	56.4	10.4	7.5	7.6	6.8
	20~30년미만	66.2	6.6	5.4	7.2	3.6
	30~40년미만	53.8	9.3	9.8	5.6	1.1
	40~50년미만	57.9	15.1	3.0	2.3	8.4
	50년이상	32.6	14.0	11.6	7.3	9.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7.3	11.8	7.5	8.2	2.4
	진입4~5년차	58.2	8.3	8.4	7.1	4.2
	진입6~9년차	50.8	13.0	5.2	6.8	9.4
	진입10년차이상	51.3	12.8	6.7	3.8	6.3
매출유형	B2B	57.3	10.9	6.9	6.3	5.8
	B2C	39.0	12.6	5.7	8.9	0.0
	B2G	21.8	0.0	22.8	7.4	7.4
상장	상장	51.4	16.1	6.0	6.8	5.3
	비상장	58.1	6.2	8.3	6.3	5.6

[표 2-66]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수출기업 1,171개사)

구분		현지마케팅	기술규제	무역금융 활용애로	수출 전문인력 부족	기타	없음
전체		4.1	3.2	2.5	2.0	1.4	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6	3.6	2.5	1.6	1.7	2.0
	관계기업	1.3	1.3	2.2	4.2	0.0	1.3
업종	제조업	4.3	3.9	1.9	1.8	1.2	1.0
	비제조업	3.5	0.8	4.6	2.5	2.0	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0.0	0.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0.0	0.0	5.7	3.7	0.0	3.8
	5백억원~1천억원미만	3.2	1.7	0.0	3.2	0.0	3.1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	3.1	4.2	1.9	1.2	0.6
	2천억원~3천억원미만	5.3	3.1	1.0	0.0	0.0	2.2
	3천억원~5천억원미만	6.4	6.2	3.0	3.0	4.6	1.6
	5천억원~1조원미만	0.0	10.1	0.0	2.5	6.0	2.5
	1조원이상	7.8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1	3.2	2.5	2.0	1.4	1.9
	수출없음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0.0	0.0	7.0	0.0	0.0	5.1
	50~100명미만	5.5	0.0	1.8	2.1	0.0	1.7
	100~200명미만	1.8	1.8	2.0	1.9	1.7	2.7
	200~300명미만	1.3	8.6	3.5	1.4	1.3	0.0
	300~500명미만	7.8	0.0	2.9	1.1	1.2	1.2
	500~1,000명미만	4.8	6.6	0.0	3.8	3.2	2.0
	1,000명이상	11.0	3.1	3.0	3.0	0.0	0.0
업력	0~7년미만	4.5	4.7	11.9	0.0	0.0	0.0
	7~20년미만	2.7	1.3	1.9	1.5	1.3	2.6
	20~30년미만	2.5	3.3	2.7	1.6	0.0	0.8
	30~40년미만	2.4	6.8	2.2	2.6	1.1	5.3
	40~50년미만	6.6	2.4	1.9	0.0	2.4	0.0
	50년이상	9.5	3.3	1.6	6.5	3.9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2.6	1.2	2.7	2.7	1.1	2.5
	진입4~5년차	2.2	3.9	4.0	0.0	1.3	2.5
	진입6~9년차	5.3	1.9	0.9	3.0	1.8	1.9
	진입10년차이상	7.8	4.6	0.9	4.5	1.3	0.0
매출유형	B2B	2.8	3.2	2.6	1.6	1.0	1.6
	B2C	19.0	4.8	0.0	2.3	2.6	5.1
	B2G	7.2	0.0	7.4	15.4	10.6	0.0
상장	상장	5.5	3.7	1.5	1.6	1.3	0.9
	비상장	2.9	2.8	3.4	2.3	1.5	2.7

[표 2-67]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수출기업 1,171개사)

구분		환율변동 환차손	해외 거래선 확보	해외시장 정보부족	절차관련 규제	수출 부담비용 부담
전체		62.6	23.7	21.2	17.8	16.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2.3	24.0	20.3	19.3	16.4
	관계기업	64.4	21.9	25.7	10.0	16.7
업종	제조업	65.6	24.0	19.4	19.7	17.2
	비제조업	52.3	22.7	27.3	11.1	13.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2.8	29.3	12.6	29.7	18.1
	1백억원~5백억원미만	63.2	20.2	29.2	9.1	17.5
	5백억원~1천억원미만	65.6	18.9	22.0	13.5	20.7
	1천억원~2천억원미만	62.0	20.4	21.4	18.6	19.0
	2천억원~3천억원미만	66.2	30.3	13.8	20.9	13.6
	3천억원~5천억원미만	59.8	23.8	24.9	18.5	7.8
	5천억원~1조원미만	55.6	33.3	22.2	17.7	22.8
	1조원이상	52.2	20.0	20.9	27.8	7.8
수출여부	수출있음	62.6	23.7	21.2	17.8	16.5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72.4	29.2	13.0	15.7	16.8
	50~100명미만	62.9	12.2	31.2	16.2	14.9
	100~200명미만	65.2	18.5	19.6	16.0	25.8
	200~300명미만	65.8	23.7	20.6	16.9	15.3
	300~500명미만	62.5	27.6	21.2	22.3	13.8
	500~1,000명미만	54.8	30.7	22.1	16.9	13.0
	1,000명이상	56.1	20.8	19.9	23.3	7.7
업력	0~7년미만	42.3	42.5	14.2	24.4	13.9
	7~20년미만	66.9	21.0	23.2	15.6	16.9
	20~30년미만	73.4	17.9	12.3	24.3	15.7
	30~40년미만	59.5	21.1	25.1	14.6	11.6
	40~50년미만	65.2	28.6	19.3	13.7	21.5
	50년이상	39.3	32.0	32.4	18.6	17.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3.6	20.8	20.7	22.8	15.1
	진입4~5년차	66.1	23.0	17.7	18.6	15.2
	진입6~9년차	61.5	23.9	24.8	12.4	20.0
	진입10년차이상	56.0	27.0	25.1	17.9	16.5
매출유형	B2B	65.0	24.5	20.0	17.9	16.8
	B2C	48.3	17.4	27.9	17.9	13.0
	B2G	21.8	15.1	44.6	14.8	14.8
상장	상장	60.1	29.9	20.9	20.2	15.7
	비상장	64.8	18.4	21.5	15.7	17.1

[표 2-68]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중복응답, 수출기업 1,171개사)

구분		현지마케팅	기술규제	수출 전문인력 부족	무역금융 활용애로	기타	없음
전체		13.2	8.0	7.1	6.9	2.4	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3.9	8.6	5.4	7.3	2.3	2.0
	관계기업	9.6	4.7	16.1	5.0	2.7	1.3
업종	제조업	12.5	9.3	6.6	6.1	1.8	1.0
	비제조업	15.5	3.2	9.0	9.8	4.5	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1.2	0.0	0.0	0.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9.4	6.6	12.9	7.5	1.8	3.8
	5백억원~1천억원미만	9.2	9.3	12.6	1.7	1.6	3.1
	1천억원~2천억원미만	12.3	7.9	6.1	9.8	1.9	0.6
	2천억원~3천억원미만	15.9	8.3	4.2	8.5	0.0	2.2
	3천억원~5천억원미만	18.7	9.3	7.8	6.2	6.0	1.6
	5천억원~1조원미만	6.0	10.1	2.5	7.6	8.6	2.5
	1조원이상	31.3	4.3	4.3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	8.0	7.1	6.9	2.4	1.9
	수출없음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11.2	0.0	4.6	11.0	0.0	5.1
	50~100명미만	14.7	5.1	7.4	3.8	3.9	1.7
	100~200명미만	9.0	8.4	9.7	6.4	1.7	2.7
	200~300명미만	8.2	15.7	6.3	16.1	2.4	0.0
	300~500명미만	19.9	2.3	6.6	4.1	1.2	1.2
	500~1,000명미만	14.0	13.2	6.8	2.9	3.2	2.0
	1,000명이상	19.9	3.1	6.0	6.2	6.1	0.0
업력	0~7년미만	13.9	14.4	0.0	16.6	0.0	0.0
	7~20년미만	13.1	3.6	7.2	5.3	1.3	2.6
	20~30년미만	11.1	9.6	7.0	8.6	1.0	0.8
	30~40년미만	10.8	14.9	11.3	6.9	2.2	5.3
	40~50년미만	14.6	7.3	2.7	8.0	3.4	0.0
	50년이상	18.7	5.0	9.7	3.1	7.3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3.2	6.2	2.7	5.3	2.5	2.5
	진입4~5년차	11.6	9.2	5.9	10.7	1.3	2.5
	진입6~9년차	15.3	8.2	12.7	2.6	2.9	1.9
	진입10년차이상	14.2	6.4	7.2	4.6	3.9	0.0
매출유형	B2B	12.2	8.2	6.6	7.3	1.9	1.6
	B2C	27.5	7.2	5.4	0.0	2.6	5.1
	B2G	7.2	0.0	30.7	14.8	18.0	0.0
상장	상장	17.2	6.5	5.8	5.7	2.9	0.9
	비상장	9.8	9.2	8.2	8.0	1.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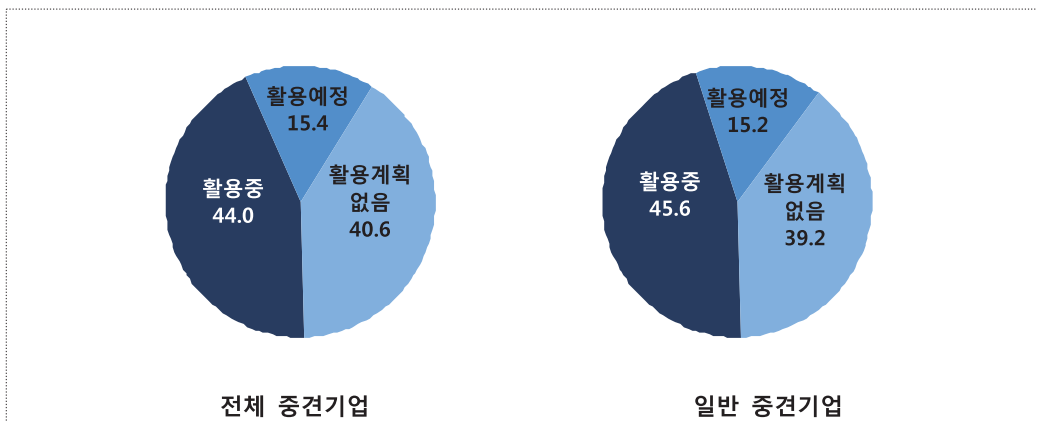
### 3. FTA 활용

#### □ FTA 활용 여부

- 수출 중견기업 중 FTA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4.0%, 활용예정 기업은 15.4%, 활용예정인 없는 기업은 40.6%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활용 중(45.6%), 활용예정(15.2%), 활용계획 없음(39.2%)임

[그림 2-49] FTA 활용 여부

(단위: %, 수출기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은 49.1%가 이미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26.1%만이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비제조업의 62.4%는 FTA 활용계획이 없어 제조업에 비해 활용계획 없는 비율 또한 높아 추후 업종에 따라 FTA 활용비율의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B2B기업의 경우 45.9%가 이미 FTA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B2G기업은 14.6%만이 활용하고 있어 약 3배가량 차이남
  -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인 B2G기업은 현재 FTA 활용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추후 활용계획 없음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남

[표 2-69] FTA 활용 여부

(단위 : %, 수출기업 1,17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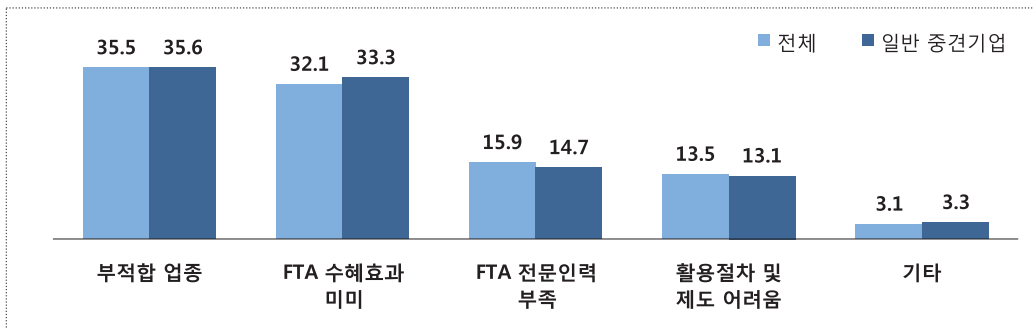
구분		활용중	활용예정	활용계획없음
전체		44.0	15.4	40.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5.6	15.2	39.2
	관계기업	35.1	16.5	48.3
업종	제조업	49.1	16.5	34.3
	비제조업	26.1	11.5	62.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4.4	16.0	39.6
	1백억원~5백억원미만	52.2	8.8	38.9
	5백억원~1천억원미만	33.2	11.0	55.8
	1천억원~2천억원미만	41.7	12.5	45.8
	2천억원~3천억원미만	50.2	12.7	37.1
	3천억원~5천억원미만	39.3	32.8	27.9
	5천억원~1조원미만	51.5	20.2	28.2
	1조원이상	39.1	20.9	4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4.0	15.4	40.6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39.8	13.5	46.8
	50~100명미만	37.8	15.8	46.4
	100~200명미만	38.9	14.2	46.9
	200~300명미만	43.5	12.2	44.4
	300~500명미만	47.7	13.7	38.6
	500~1,000명미만	52.2	19.3	28.5
	1,000명이상	43.3	22.0	34.6
업력	0~7년미만	48.0	6.7	45.4
	7~20년미만	44.5	14.1	41.4
	20~30년미만	40.4	16.4	43.2
	30~40년미만	47.8	10.1	42.1
	40~50년미만	47.2	20.9	31.9
	50년이상	38.0	19.9	42.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45.0	12.1	42.9
	진입4~5년차	39.4	15.0	45.5
	진입6~9년차	51.0	15.6	33.4
	진입10년차이상	45.3	18.4	36.3
매출유형	B2B	45.9	15.0	39.2
	B2C	31.0	25.8	43.2
	B2G	14.6	0.0	85.4
상장	상장	44.4	17.8	37.8
	비상장	43.6	13.4	43.1

## □ FTA 미활용 사유

- 수출 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사유는 부적합 업종(35.5%)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FTA 수혜효과 미미(32.1%), FTA 전문인력 부족(15.9%)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부적합 업종(35.6%), FTA 수혜효과 미미(33.3%), FTA 전문인력 부족(14.7%) 순임

[그림 2-50] FTA 미활용 사유

(단위: %, FTA 미활용기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은 FTA 수혜효과 미미(32.9%), 비제조업은 부적합 업종(47.4%)이 가장 큰 FTA 미활용사유로 조사되어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남
  - 이는 비제조업이 부적합 업종으로 인해서 FTA를 활용하지 않으며, 계획 또한 없는 근거가 됨
- 매출유형별로는 B2B기업과 B2G기업은 부적합 업종으로 인해 FTA를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거래처가 소비자인 B2C기업은 FTA 수혜효과 미미(4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70] FTA 미활용 사유

(단위 : %, FTA 미활용기업 656개사)

구분		부적합 업종	FTA 수혜 효과 미미	FTA 전문인력 부족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	기타
전체		35.5	32.1	15.9	13.5	3.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5.6	33.3	14.7	13.1	3.3
	관계기업	34.8	26.9	21.0	15.2	2.2
업종	제조업	30.4	32.9	17.4	14.9	4.4
	비제조업	47.4	30.3	12.3	10.1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0.2	34.6	22.6	22.6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33.7	23.4	26.2	12.8	3.9
	5백억원~1천억원미만	40.0	32.5	14.0	11.4	2.1
	1천억원~2천억원미만	42.1	26.4	10.5	17.9	3.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6.2	38.3	12.8	8.6	4.2
	3천억원~5천억원미만	18.0	36.0	32.8	10.5	2.6
	5천억원~1조원미만	19.7	54.2	0.0	20.9	5.2
	1조원이상	67.1	20.0	12.9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35.5	32.1	15.9	13.5	3.1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34.6	28.8	17.3	19.3	0.0
	50~100명미만	30.5	31.7	27.8	10.0	0.0
	100~200명미만	40.9	27.2	13.4	12.5	6.0
	200~300명미만	32.2	29.3	10.8	23.5	4.2
	300~500명미만	32.1	37.6	17.1	10.9	2.3
	500~1,000명미만	36.1	37.6	12.3	9.9	4.0
	1,000명이상	41.0	35.0	18.5	5.4	0.0
업력	0~7년미만	26.6	44.1	7.3	21.9	0.0
	7~20년미만	36.4	31.3	12.3	15.4	4.6
	20~30년미만	36.2	28.3	22.2	11.9	1.4
	30~40년미만	39.1	33.9	7.3	15.0	4.8
	40~50년미만	23.3	46.2	21.8	8.7	0.0
	50년이상	44.4	18.8	18.3	13.2	5.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37.2	20.7	16.3	21.5	4.3
	진입4~5년차	32.6	35.6	15.0	14.6	2.1
	진입6~9년차	38.9	28.0	17.6	7.6	7.8
	진입10년차이상	37.5	36.5	15.9	10.1	0.0
매출유형	B2B	34.6	31.0	16.5	14.7	3.2
	B2C	31.7	48.4	12.9	3.5	3.5
	B2G	64.6	18.0	8.7	8.7	0.0
상장	상장	35.4	30.1	17.7	12.2	4.6
	비상장	35.5	33.8	14.4	14.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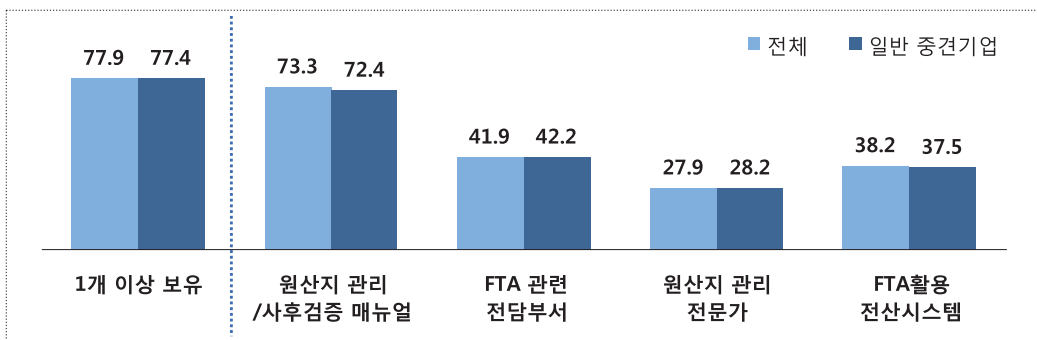


## □ FTA 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 FTA를 활용하는 중견기업의 77.9%는 1개 이상의 FTA 관련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메뉴얼(73.3%), FTA관련 전산부서(41.9%)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 FTA를 활용하는 일반 중견기업의 77.4%가 1개 이상의 FTA 내부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메뉴얼(72.4%), FTA관련 전담부서(42.2%)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2-51]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단위: %, FTA 활용기업)



## 특성별 분석

- FTA를 활용하는 관계기업의 81.0%가 FTA 활용을 위해 1개 이상의 내부시스템을 구축함
  - 가장 많이 구축한 시스템은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 메뉴얼로 관계기업의 78.8%가 해당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FTA 활용 전산시스템(43.0%), FTA 관련 전담부서(39.6%), 원산지관리 전문가(26.1%)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0.1%가 FTA 활용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1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반면 비제조업은 63.3%만이 관련 시스템을 보유한 것을 알 수 있음
- 종사자수별로는 50명 미만의 기업은 54.8%가 FTA 활용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1,000명 이상의 기업의 구축율은 92.9%임
  - 대체적으로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매출액이 높을수록, 중견기업 진입연차가 오래될수록 시스템 구축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71]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단위 : %, FTA 활용기업 51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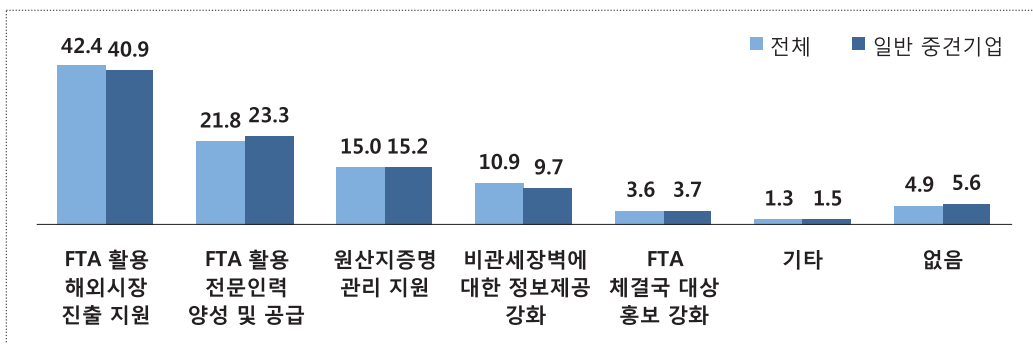
구분		1개 이상 시스템 구축	FTA활용 내부시스템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매뉴얼	FTA관련 전담부서	원산지관리 전문가	FTA활용 전산시스템
전체		77.9	73.3	41.9	27.9	38.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7.4	72.4	42.2	28.2	37.5
	관계기업	81.0	78.8	39.6	26.1	43.0
업종	제조업	80.1	74.8	44.2	27.7	40.9
	비제조업	63.3	63.3	27.3	29.4	21.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1.7	71.7	10.3	22.9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66.6	60.2	20.5	7.1	10.6
	5백억원~1천억원미만	77.2	77.2	38.1	14.9	43.8
	1천억원~2천억원미만	73.5	65.0	40.9	24.1	28.9
	2천억원~3천억원미만	83.2	83.2	50.0	37.5	54.2
	3천억원~5천억원미만	83.9	79.8	60.1	43.9	52.5
	5천억원~1조원미만	85.3	75.5	41.1	36.2	51.0
	1조원이상	100.0	100.0	80.0	60.0	80.0
수출여부	수출있음	77.9	73.3	41.9	27.9	38.2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54.8	54.8	4.1	14.0	0.0
	50~100명미만	79.9	79.9	28.7	14.6	14.2
	100~200명미만	67.8	63.4	27.1	14.9	32.2
	200~300명미만	68.8	52.3	35.9	20.5	29.9
	300~500명미만	83.9	81.6	62.3	43.1	55.8
	500~1,000명미만	90.8	89.1	53.4	37.2	48.2
	1,000명이상	92.9	85.8	71.7	46.5	78.9
업력	0~7년미만	60.7	60.7	42.8	25.2	15.0
	7~20년미만	79.3	72.8	32.8	27.3	30.2
	20~30년미만	74.6	72.6	43.5	28.4	43.4
	30~40년미만	81.9	77.2	51.1	31.4	51.0
	40~50년미만	78.9	73.4	39.7	20.2	39.8
	50년이상	78.8	74.3	52.8	37.0	36.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73.2	73.2	48.9	29.5	35.2
	진입4~5년차	72.8	66.4	29.1	23.5	23.9
	진입6~9년차	78.2	73.0	43.1	36.0	53.0
	진입10년차이상	89.9	85.9	58.4	25.5	49.2
매출유형	B2B	77.8	73.3	41.4	26.7	37.9
	B2C	91.8	84.0	57.7	53.6	49.9
	B2G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81.5	77.8	50.1	33.8	43.8
	비상장	74.7	69.3	34.8	22.9	33.5

##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42.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21.8%),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5.0%),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0.9%)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지원 (40.9%),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23.3%),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5.2%) 순으로 응답함

[그림 2-52]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단위: %, 수출기업)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44.1%, 비제조업의 36.6%가 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비제조업은 특성상 FTA 활용이 어려운 업종이 많아 정부지원 필요없음(14.7%)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주 거래처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과 비슷한 양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72]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단위 : %, 수출기업 1,171개사)

구분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
전체		42.4	21.8	15.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0.9	23.3	15.2
	관계기업	50.3	14.3	13.9
업종	제조업	44.1	22.5	16.2
	비제조업	36.6	19.6	10.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7.7	9.1	17.1
	1백억원~5백억원미만	23.8	30.0	10.7
	5백억원~1천억원미만	56.6	15.2	11.1
	1천억원~2천억원미만	46.2	24.0	13.7
	2천억원~3천억원미만	43.2	20.9	16.8
	3천억원~5천억원미만	34.6	24.5	22.0
	5천억원~1조원미만	35.4	25.3	22.2
	1조원이상	67.8	0.0	4.3
수출여부	수출있음	42.4	21.8	15.0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32.4	34.4	10.2
	50~100명미만	38.5	18.2	13.4
	100~200명미만	45.4	18.6	10.1
	200~300명미만	42.9	20.6	16.0
	300~500명미만	45.3	25.7	15.9
	500~1,000명미만	40.3	22.0	21.4
	1,000명이상	52.7	12.0	16.6
업력	0~7년미만	35.5	15.8	25.3
	7~20년미만	40.6	19.0	12.9
	20~30년미만	38.3	22.8	17.0
	30~40년미만	35.0	32.9	18.6
	40~50년미만	56.2	17.7	9.9
	50년이상	48.9	19.3	14.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43.6	18.6	16.6
	진입4~5년차	40.4	22.8	14.2
	진입6~9년차	35.6	26.7	14.5
	진입10년차이상	52.8	17.1	16.0
매출유형	B2B	42.4	22.4	15.5
	B2C	44.8	17.0	13.8
	B2G	36.4	14.8	0.0
상장	상장	42.9	24.0	17.2
	비상장	42.1	20.0	13.2

[표 2-73]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계속)

(단위 : %, 수출기업 1,171개사)

구분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FTA 체결국 대상 홍보 강화	기타	없음
전체		10.9	3.6	1.3	4.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9.7	3.7	1.5	5.6
	관계기업	17.1	3.1	0.0	1.3
업종	제조업	9.9	3.8	1.4	2.1
	비제조업	14.2	3.2	0.8	14.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3.3	22.7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23.2	5.2	3.3	3.8
	5백억원~1천억원미만	7.9	1.4	0.0	7.7
	1천억원~2천억원미만	6.7	4.4	0.0	5.1
	2천억원~3천억원미만	9.5	3.2	1.0	5.3
	3천억원~5천억원미만	14.3	1.6	3.0	0.0
	5천억원~1조원미만	10.1	0.0	0.0	7.0
	1조원이상	7.8	0.0	7.8	12.2
수출여부	수출있음	10.9	3.6	1.3	4.9
	수출없음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7.9	8.0	0.0	7.0
	50~100명미만	14.0	7.4	0.0	8.4
	100~200명미만	17.9	3.5	0.8	3.7
	200~300명미만	10.5	3.6	2.7	3.7
	300~500명미만	6.9	2.3	0.0	3.8
	500~1,000명미만	9.1	1.9	2.0	3.3
	1,000명이상	3.1	0.0	4.7	10.9
업력	0~7년미만	16.3	0.0	7.2	0.0
	7~20년미만	13.1	7.2	1.3	5.9
	20~30년미만	13.4	5.1	0.0	3.4
	30~40년미만	5.9	1.2	0.0	6.4
	40~50년미만	7.4	1.2	3.8	3.9
	50년이상	10.6	0.0	0.0	6.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1.9	3.9	3.0	2.4
	진입4~5년차	12.5	5.8	1.0	3.3
	진입6~9년차	14.1	1.8	1.8	5.5
	진입10년차이상	3.6	0.9	0.0	9.6
매출유형	B2B	11.4	3.0	1.2	4.1
	B2C	6.5	10.6	2.6	4.8
	B2G	7.4	7.4	0.0	33.9
상장	상장	8.9	2.4	1.1	3.6
	비상장	12.6	4.7	1.5	6.1

[표 2-74]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

(단위 : %, 수출기업 1,171개사, 중복응답)

구분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
전체		53.2	42.8	31.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2.2	42.7	32.6
	관계기업	58.0	43.4	26.7
업종	제조업	55.3	43.8	35.1
	비제조업	45.8	39.5	19.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5.6	42.2	23.8
	1백억원~5백억원미만	33.2	45.0	40.7
	5백억원~1천억원미만	62.5	37.6	17.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4	43.8	26.8
	2천억원~3천억원미만	56.8	45.3	33.5
	3천억원~5천억원미만	45.3	49.6	37.7
	5천억원~1조원미만	54.1	40.5	47.5
	1조원이상	67.8	16.5	35.7
수출여부	수출있음	53.2	42.8	31.7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5.5	45.6	23.4
	50~100명미만	44.4	40.3	31.4
	100~200명미만	54.9	41.7	20.4
	200~300명미만	55.7	42.2	32.5
	300~500명미만	54.5	49.3	36.3
	500~1,000명미만	55.8	45.1	39.5
	1,000명이상	57.0	23.8	44.6
업력	0~7년미만	40.2	46.5	42.7
	7~20년미만	50.6	35.9	32.7
	20~30년미만	50.8	43.0	27.5
	30~40년미만	50.3	54.3	31.9
	40~50년미만	67.0	44.1	32.4
	50년이상	53.8	40.8	31.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2.7	39.4	32.2
	진입4~5년차	51.2	45.0	28.8
	진입6~9년차	50.3	44.0	37.3
	진입10년차이상	60.6	39.7	31.6
매출유형	B2B	53.0	43.4	32.4
	B2C	58.2	38.2	33.9
	B2G	43.8	37.4	0.0
상장	상장	53.7	41.7	36.8
	비상장	52.7	43.8	27.4

[표 2-75]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계속)

(단위 : %, 수출기업 1,171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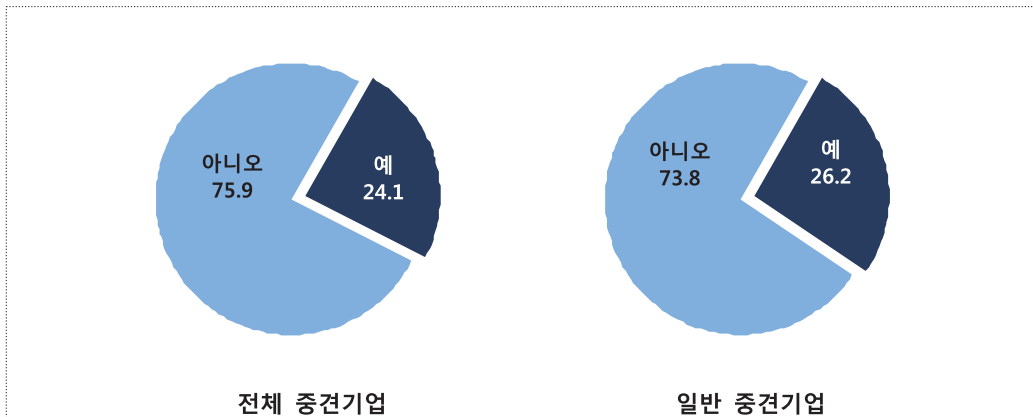
구분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FTA 체결국 대상 홍보 강화	기타	없음
전체		30.4	11.5	1.7	4.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0.6	10.8	2.0	5.6
	관계기업	29.0	15.1	0.0	1.3
업종	제조업	31.2	10.9	1.9	2.1
	비제조업	27.6	13.7	0.8	14.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7.9	34.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38.7	7.0	3.3	3.8
	5백억원~1천억원미만	26.2	16.0	0.0	7.7
	1천억원~2천억원미만	29.8	13.1	0.0	5.1
	2천억원~3천억원미만	28.3	8.4	2.1	5.3
	3천억원~5천억원미만	40.6	4.8	4.6	0.0
	5천억원~1조원미만	22.8	11.1	0.0	7.0
	1조원이상	23.5	16.5	7.8	12.2
수출여부	수출있음	30.4	11.5	1.7	4.9
	수출없음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21.4	20.4	0.0	7.0
	50~100명미만	35.9	10.9	0.0	8.4
	100~200명미만	37.8	13.8	0.8	3.7
	200~300명미만	30.0	14.8	2.7	3.7
	300~500명미만	25.6	9.0	0.0	3.8
	500~1,000명미만	29.1	5.1	2.9	3.3
	1,000명이상	26.0	9.9	7.8	10.9
업력	0~7년미만	29.7	4.6	7.2	0.0
	7~20년미만	33.7	13.9	1.3	5.9
	20~30년미만	30.5	17.5	0.9	3.4
	30~40년미만	28.5	5.6	1.2	6.4
	40~50년미만	25.9	7.3	3.8	3.9
	50년이상	30.4	10.5	0.0	6.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36.1	6.7	3.0	2.4
	진입4~5년차	30.2	15.3	1.4	3.3
	진입6~9년차	28.8	11.3	1.8	5.5
	진입10년차이상	27.9	7.4	0.9	9.6
매출유형	B2B	31.0	11.1	1.6	4.1
	B2C	25.4	15.2	2.6	4.8
	B2G	22.3	13.9	0.0	33.9
상장	상장	32.6	11.8	1.9	3.6
	비상장	28.5	11.2	1.5	6.1

## □ 해외진출 고려 여부

- 중견기업의 24.1%는 향후 신규 해외 진출 및 추가 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반 중견기업은 26.2%가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3] 해외진출 고려 여부

(단위: %)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35.0%, 비제조업의 15.2%가 신규 해외진출 및 추가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 수출기업의 경우, 46.9%가 추가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내수기업은 9.2%만이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종사자수 별로는 종사자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고,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음 (40~50년 미만 제외)
  - 이는 중견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내수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후 해외시장에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 해외로의 신규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표 2-76] 해외진출 고려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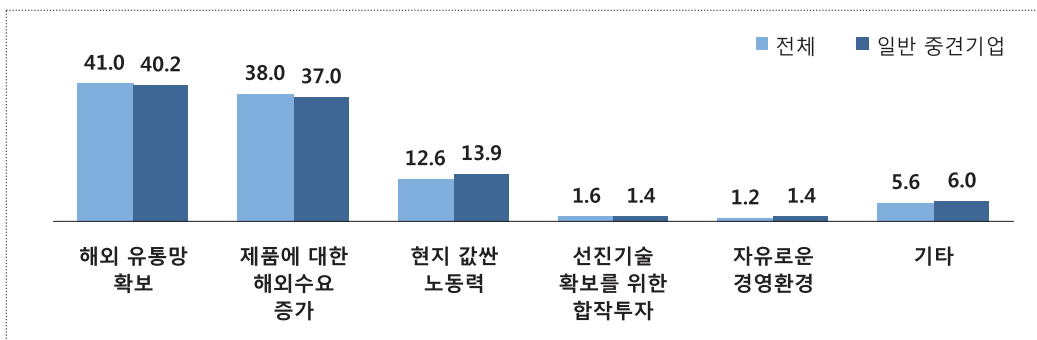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해외진출 고려	해외진출 미고려
전체		(2,979)	24.1	75.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26.2	73.8
	관계기업	(600)	15.7	84.3
업종	제조업	(1,331)	35.0	65.0
	비제조업	(1,648)	15.2	8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1.0	89.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9.1	90.9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23.8	76.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33.9	66.1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39.4	60.6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33.0	67.0
	5천억원~1조원미만	(151)	47.3	52.7
	1조원이상	(57)	62.2	37.8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46.9	53.1
	수출없음	(1,808)	9.2	90.8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10.8	89.2
	50~100명미만	(470)	13.3	86.7
	100~200명미만	(543)	21.5	78.5
	200~300명미만	(317)	35.0	65.0
	300~500명미만	(322)	38.7	61.3
	500~1,000명미만	(305)	44.6	55.4
	1,000명이상	(160)	45.7	54.3
업력	0~7년미만	(364)	16.1	83.9
	7~20년미만	(1,229)	16.4	83.6
	20~30년미만	(576)	23.6	76.4
	30~40년미만	(351)	35.0	65.0
	40~50년미만	(270)	30.3	69.7
	50년이상	(189)	46.4	53.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19.8	80.2
	진입4~5년차	(1,042)	23.3	76.7
	진입6~9년차	(656)	20.0	80.0
	진입10년차이상	(391)	38.8	61.2
매출유형	B2B	(2,373)	25.1	74.9
	B2C	(490)	17.8	82.2
	B2G	(116)	29.2	70.8
상장	상장	(644)	46.0	54.0
	비상장	(2,335)	17.0	83.0

## □ 해외진출 고려 이유

-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유통망 확보(41.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8.0%), 현지 값싼 노동력(12.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26.2%가 향후 해외진출 고려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고려 기업의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유통망 확보(40.2%),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7.0%), 현지 값싼 노동력(13.9%) 순임

[그림 2-54] 해외진출 고려 이유

(단위: %, 해외진출 고려 기업)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신규 해외 진출 및 추가진출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해외 유통망 확보를 응답함
- 매출규모 5백만원~3천억원 미만의 구간 및 종사자 수 50~200명 미만의 구간에서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응답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중견기업들 중 매출액이 낮고,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군이 제품의 해외수요증가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임
- B2B기업과 B2C기업은 신규 해외 진출 고려 이유로 해외 유통망 확보로 들은 반면, B2G기업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45.3%)의 비율이 높아 주 거래처별로 차이가 나타남

[표 2-77]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순위

(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717개사)

구분		해외 유통망 확보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현지 값싼 노동력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자유로운 경영환경	기타
전체		41.0	38.0	12.6	1.6	1.2	5.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0.2	37.0	13.9	1.4	1.4	6.0
	관계기업	45.7	44.5	4.2	2.6	0.0	2.9
업종	제조업	40.8	37.2	16.3	1.5	0.9	3.4
	비제조업	41.2	39.5	5.9	1.9	1.7	9.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6.2	37.2	12.5	0.0	0.0	4.2
	1백억원~5백억원미만	45.2	44.4	0.0	0.0	0.0	10.4
	5백억원~1천억원미만	32.0	53.7	5.6	8.7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39.9	33.2	18.1	1.1	4.4	3.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8.5	42.2	17.6	0.0	0.0	1.7
	3천억원~5천억원미만	42.3	35.6	11.4	0.0	0.0	10.7
	5천억원~1조원미만	38.3	28.3	15.5	3.1	0.0	14.8
	1조원이상	65.5	22.6	6.0	0.0	0.0	6.0
수출여부	수출있음	39.8	38.7	15.0	1.2	1.2	4.2
	수출없음	44.9	35.6	4.9	2.9	1.3	10.4
종사자수	50명미만	51.4	31.8	5.8	0.0	0.0	10.9
	50~100명미만	25.4	60.2	3.4	4.0	0.0	7.0
	100~200명미만	37.8	44.6	15.6	2.0	0.0	0.0
	200~300명미만	41.0	34.1	19.0	0.0	3.9	2.0
	300~500명미만	34.5	37.4	19.5	0.0	1.7	6.9
	500~1,000명미만	46.2	39.3	8.1	3.3	1.6	1.7
	1,000명이상	47.4	20.7	11.7	3.1	0.0	17.1
업력	0~7년미만	68.3	20.0	5.5	0.0	0.0	6.2
	7~20년미만	36.7	46.9	10.6	1.3	1.1	3.4
	20~30년미만	41.3	35.3	14.0	1.6	1.5	6.3
	30~40년미만	43.8	33.1	11.8	0.0	0.0	11.3
	40~50년미만	35.6	39.4	18.8	0.0	4.2	2.1
	50년이상	41.4	35.4	11.8	7.0	0.0	4.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45.3	39.9	8.7	1.7	2.9	1.4
	진입4~5년차	41.3	37.5	17.7	0.0	0.0	3.5
	진입6~9년차	39.6	38.3	11.0	1.7	0.0	9.3
	진입10년차이상	38.1	36.9	9.8	3.7	2.4	9.1
매출유형	B2B	40.2	39.1	14.1	1.5	1.1	3.9
	B2C	52.8	27.4	7.2	0.0	2.5	10.0
	B2G	23.4	45.3	0.0	6.9	0.0	24.4
상장	상장	40.8	34.7	15.8	1.3	1.3	6.0
	비상장	41.1	40.8	9.9	1.8	1.1	5.3

[표 2-78]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2순위

(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717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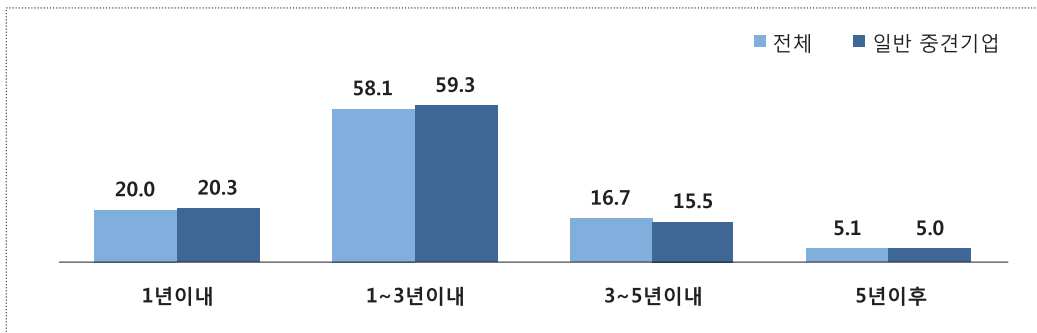
구분		해외 유통망 확보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현지 값싼 노동력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자유로운 경영환경	현지 연구인력 채용	기타
전체		69.9	59.9	19.5	5.9	5.7	0.6	7.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8.8	57.9	21.3	6.4	5.6	0.7	8.4
	관계기업	76.7	72.7	7.0	2.6	6.2	0.0	2.9
업종	제조업	71.4	62.5	23.0	6.6	5.2	0.5	5.8
	비제조업	67.0	55.0	12.9	4.5	6.5	0.9	11.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4.5	72.2	27.8	4.2	7.3	0.0	4.2
	1백억원~5백억원미만	69.7	64.3	0.0	0.0	10.4	0.0	10.4
	5백억원~1천억원미만	63.6	74.1	5.6	8.7	2.6	0.0	2.6
	1천억원~2천억원미만	73.8	56.5	24.7	6.5	8.8	2.2	4.4
	2천억원~3천억원미만	73.6	64.9	22.8	7.0	1.7	0.0	3.5
	3천억원~5천억원미만	64.7	55.5	30.9	2.8	0.0	0.0	16.1
	5천억원~1조원미만	66.7	50.0	24.7	12.4	3.1	0.0	17.9
	1조원이상	88.1	28.6	6.0	0.0	16.7	0.0	11.9
수출여부	수출있음	71.9	60.2	21.5	5.3	5.2	0.8	6.1
	수출없음	63.0	58.7	12.8	7.9	7.2	0.0	13.1
종사자수	50명미만	75.0	57.7	12.9	1.9	6.1	2.3	10.9
	50~100명미만	50.8	72.7	3.4	4.0	12.8	0.0	10.4
	100~200명미만	75.7	71.9	17.5	5.7	1.8	0.0	0.0
	200~300명미만	72.5	62.3	39.1	3.9	3.9	1.9	4.0
	300~500명미만	64.0	56.2	23.1	5.3	6.9	0.0	12.1
	500~1,000명미만	72.1	61.0	16.2	9.9	4.8	0.0	1.7
	1,000명이상	72.2	32.8	14.7	9.3	7.2	0.0	22.8
업력	0~7년미만	88.4	45.1	13.4	0.0	17.1	0.0	6.2
	7~20년미만	72.8	64.5	16.2	5.8	4.2	1.1	4.6
	20~30년미만	74.2	54.6	23.1	5.9	1.5	0.0	10.9
	30~40년미만	68.4	60.4	18.3	3.2	3.4	0.0	11.3
	40~50년미만	58.6	65.4	27.0	10.5	16.6	0.0	6.1
	50년이상	65.3	56.3	16.5	7.0	2.3	2.2	6.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73.6	59.8	13.7	6.3	8.4	0.0	1.4
	진입4~5년차	69.4	61.8	27.1	1.7	4.0	0.9	6.0
	진입6~9년차	71.5	64.1	14.2	5.0	4.8	1.5	9.3
	진입10년차이상	66.2	53.9	17.2	12.2	6.6	0.0	13.9
매출유형	B2B	71.2	61.5	19.8	6.7	5.5	0.7	5.3
	B2C	69.4	49.0	20.1	0.0	6.4	0.0	17.4
	B2G	48.1	58.6	12.4	6.9	6.4	0.0	24.4
상장	상장	73.1	58.1	23.9	7.9	3.0	0.0	7.9
	비상장	67.1	61.4	15.6	4.1	8.0	1.1	7.5

## □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신규 해외 진출 계획 시점은 1~3년 이내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 이내(20.0%), 3~5년 이내(16.7%), 5년 이후(5.1%)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1~3년 이내(59.3%), 1년 이내(20.3%), 3~5년 이내(15.5%), 5년 이후(5.0%)의 순임

[그림 2-55]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단위: %, 해외진출 고려 기업)



### 특성별 분석

- 관계기업이 계획하는 신규 해외진출 시점은 1~3년 이내(50.1%), 3~5년 이내(25.3%), 1년 이내(18.6%), 5년 이후(6.0%)의 순임
  - 일반 중견기업은 해외진출 시점이 1년 이내 및 1~3년 이내의 비율이 높은 반면, 관계기업은 3~5년 이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 중견기업에 비해 해외진출에 대해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 매출유형별로 살펴보면,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은 1~3년 이내가 60.4%로 가장 높으며, B2C기업도 동일하게 1~3년 이내가 51.5%로 가장 높은 반면, B2G기업은 1년 이내가 3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9]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717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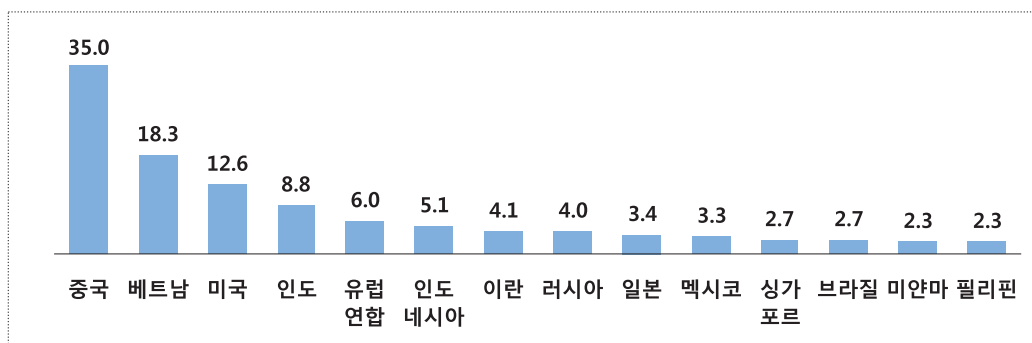
구분		1년 이내	1~3년 이내	3~5년 이내	5년 이후
전체		20.0	58.1	16.7	5.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0.3	59.3	15.5	5.0
	관계기업	18.6	50.1	25.3	6.0
업종	제조업	15.5	62.2	16.4	5.9
	비제조업	28.4	50.6	17.5	3.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8.2	32.9	21.7	7.3
	1백억원~5백억원미만	18.5	51.4	3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20.2	59.7	17.1	3.0
	1천억원~2천억원미만	20.8	54.7	19.0	5.4
	2천억원~3천억원미만	22.8	54.4	14.0	8.8
	3천억원~5천억원미만	19.6	72.2	2.8	5.4
	5천억원~1조원미만	12.9	70.5	10.5	6.2
	1조원이상	0.0	77.4	22.6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8.7	59.9	15.0	6.3
	수출없음	24.3	52.1	22.4	1.2
종사자수	50명미만	29.2	41.2	26.2	3.4
	50~100명미만	35.1	51.3	13.6	0.0
	100~200명미만	17.6	61.8	18.5	2.1
	200~300명미만	17.9	54.7	19.4	8.0
	300~500명미만	9.5	73.3	10.2	7.0
	500~1,000명미만	16.8	57.9	18.8	6.5
	1,000명이상	26.6	59.4	7.9	6.1
업력	0~7년미만	14.8	55.1	30.1	0.0
	7~20년미만	16.8	60.2	15.9	7.1
	20~30년미만	23.4	55.3	15.0	6.3
	30~40년미만	23.7	53.9	20.8	1.6
	40~50년미만	12.4	61.7	17.2	8.8
	50년이상	26.4	61.3	10.3	2.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7.0	60.1	19.2	3.7
	진입4~5년차	20.5	59.2	13.1	7.1
	진입6~9년차	16.4	59.4	22.8	1.5
	진입10년차이상	24.6	54.1	15.3	6.1
매출유형	B2B	17.2	60.4	17.3	5.1
	B2C	31.3	51.5	12.1	5.1
	B2G	39.9	35.0	19.1	6.0
상장	상장	18.7	62.2	13.2	5.9
	비상장	21.2	54.6	19.8	4.4

## □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 향후 신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18.3%), 미국(12.6%), 인도(8.8%), 유럽연합(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6]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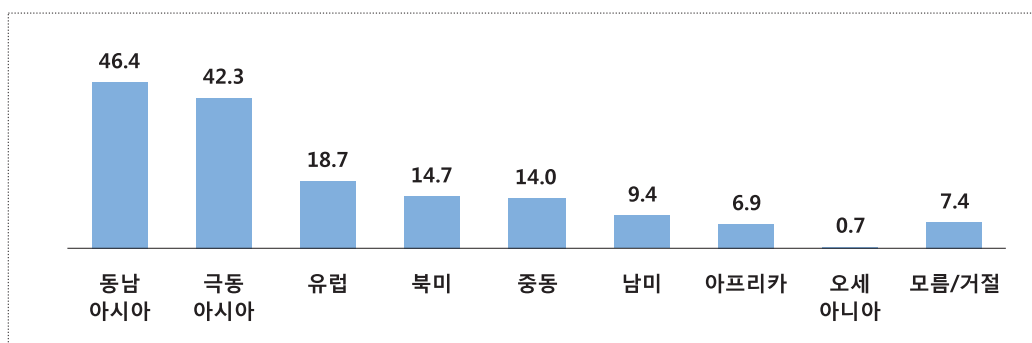
(단위: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 향후 신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대륙으로는 동남아시아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극동아시아(42.3%), 유럽(18.7%), 북미(14.78%), 중동(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7]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단위: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표 2-80]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717개사)

구분		중국	베트남	미국	인도	유럽연합	인도 네시아	이란
전체		35.0	18.3	12.6	8.8	6.0	5.1	4.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3.5	19.7	13.7	9.7	6.7	5.2	4.5
	관계기업	44.6	8.6	5.4	2.9	1.6	4.2	1.6
업종	제조업	29.1	18.1	13.5	11.3	7.9	6.5	4.1
	비제조업	45.8	18.6	11.1	4.2	2.5	2.6	4.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2.3	34.1	6.1	0.0	0.0	4.2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69.8	0.0	13.1	3.4	0.0	0.0	13.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7.2	17.1	3.0	2.8	0.0	3.0	5.4
	1천억원~2천억원미만	27.0	21.8	14.2	8.7	7.3	6.2	6.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0.0	22.9	8.8	13.9	6.9	5.3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9	11.4	22.4	8.5	10.7	11.4	2.8
	5천억원~1조원미만	33.3	13.6	21.7	12.4	6.2	3.1	0.0
	1조원이상	16.7	33.3	6.0	22.6	21.4	6.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29.7	17.6	11.7	11.1	7.9	5.5	4.3
	수출없음	52.5	20.5	15.6	1.3	0.0	3.7	3.4
종사자수	50명미만	49.6	21.2	13.3	4.9	2.2	0.0	8.4
	50~100명미만	47.4	2.9	3.4	0.0	0.0	0.0	3.4
	100~200명미만	46.7	23.2	9.9	9.9	1.8	7.6	0.0
	200~300명미만	18.3	20.3	13.9	7.9	7.2	5.9	4.4
	300~500명미만	26.4	22.9	12.4	10.7	8.9	8.2	6.3
	500~1,000명미만	34.8	12.8	18.1	9.5	12.3	8.0	5.0
	1,000명이상	27.5	19.1	12.5	16.4	4.6	0.0	0.0
업력	0~7년미만	61.0	0.0	23.5	0.0	0.0	0.0	17.1
	7~20년미만	44.9	18.5	15.7	5.3	5.1	5.3	1.1
	20~30년미만	33.1	19.4	4.7	7.9	6.1	1.5	8.7
	30~40년미만	35.9	18.1	12.4	17.4	4.8	9.1	0.0
	40~50년미만	15.9	21.2	15.6	8.4	9.5	2.2	4.6
	50년이상	27.7	19.3	11.4	8.1	7.9	9.1	4.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5.2	13.1	14.6	4.7	3.8	1.3	3.9
	진입4~5년차	25.9	23.7	11.5	12.2	4.3	7.5	6.1
	진입6~9년차	35.1	17.7	12.5	6.2	9.1	4.8	0.0
	진입10년차이상	31.7	15.1	12.8	9.2	8.0	4.9	4.6
매출유형	B2B	33.3	18.7	11.9	9.0	6.7	5.0	4.2
	B2C	50.8	17.6	20.5	6.3	3.9	7.7	2.4
	B2G	23.9	12.8	6.2	12.0	0.0	0.0	6.9
상장	상장	24.6	19.1	12.7	14.4	8.6	6.6	3.7
	비상장	44.0	17.6	12.6	4.0	3.8	3.8	4.5



[표 2-81]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계속)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717개사)

구분		러시아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브라질	미얀마	필리핀
전체		4.0	3.4	3.3	2.7	2.7	2.3	2.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1	3.1	3.4	1.7	2.6	2.5	2.4
	관계기업	3.3	5.4	2.6	9.2	2.9	1.6	1.6
업종	제조업	3.5	3.2	4.0	2.1	2.9	2.0	3.0
	비제조업	4.9	3.9	1.9	3.7	2.1	3.0	0.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3	23.6	4.2	4.2	0.0	0.0	4.2
	1백억원~5백억원미만	7.0	0.0	0.0	9.0	3.4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2.6	5.6	5.8	2.6	0.0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4.4	0.0	1.1	2.9	3.3	1.9	6.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5	1.7	5.3	0.0	1.7	1.7	1.8
	3천억원~5천억원미만	5.7	0.0	2.8	0.0	2.8	11.0	0.0
	5천억원~1조원미만	0.0	10.5	3.1	3.1	7.4	0.0	0.0
	1조원이상	0.0	0.0	10.7	0.0	0.0	6.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3.4	2.1	3.9	1.8	3.5	2.0	2.6
	수출없음	6.0	8.0	1.4	5.6	0.0	3.5	1.1
종사자수	50명미만	3.4	11.0	7.0	3.9	0.0	0.0	2.5
	50~100명미만	9.0	0.0	0.0	12.0	4.3	0.0	0.0
	100~200명미만	3.7	6.6	2.1	0.0	0.0	2.0	1.5
	200~300명미만	0.0	2.0	8.0	0.0	2.1	5.2	7.6
	300~500명미만	8.9	0.0	0.0	2.9	3.6	1.8	2.9
	500~1,000명미만	0.0	1.7	0.0	1.6	3.1	3.4	0.0
	1,000명이상	6.2	3.1	7.7	3.1	7.3	2.6	0.0
업력	0~7년미만	0.0	5.5	0.0	6.6	0.0	0.0	0.0
	7~20년미만	7.2	4.5	2.4	2.0	1.1	0.8	0.9
	20~30년미만	3.0	5.0	6.1	5.1	1.5	0.0	1.7
	30~40년미만	5.6	3.3	3.2	2.5	4.1	1.3	5.5
	40~50년미만	2.2	2.1	2.2	2.1	4.1	8.4	2.0
	50년이상	0.0	0.0	3.5	0.0	4.6	4.8	2.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3.7	7.1	3.3	4.3	0.0	0.0	1.3
	진입4~5년차	4.3	2.0	4.2	1.4	3.7	1.5	4.8
	진입6~9년차	1.6	0.0	1.7	4.1	1.5	1.5	1.5
	진입10년차이상	5.7	5.3	3.2	2.1	4.2	6.1	0.0
매출유형	B2B	3.1	4.1	4.0	1.6	2.0	1.4	2.4
	B2C	11.6	0.0	0.0	6.7	8.5	5.1	2.4
	B2G	0.0	0.0	0.0	10.6	0.0	11.6	0.0
상장	상장	4.0	2.5	2.9	1.7	4.2	1.9	2.5
	비상장	4.0	4.2	3.6	3.5	1.3	2.7	2.0

[표 2-82]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717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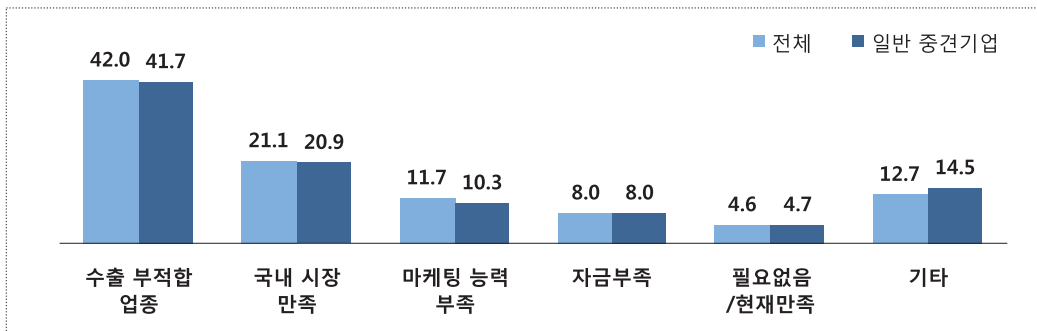
구분		동남 아시아	극동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남미	아프 리카	오세 아니아	모름 /거절
전체		46.4	42.3	18.7	14.7	14.0	9.4	6.9	0.7	7.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9.2	39.6	18.6	15.6	14.1	9.6	7.5	0.8	7.1
	관계기업	28.1	60.6	19.1	8.1	13.8	8.2	2.6	0.0	9.3
업종	제조업	49.1	36.4	22.4	16.1	13.7	10.3	3.9	0.0	5.9
	비제조업	41.6	53.4	11.8	11.9	14.7	7.6	12.4	2.1	10.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6.5	76.0	14.5	6.1	14.5	4.2	0.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12.3	75.9	10.4	13.1	16.5	3.4	6.1	0.0	7.9
	5백억원~1천억원미만	30.9	54.7	17.3	6.0	21.8	14.5	14.3	0.0	5.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6	31.4	20.4	16.4	18.3	9.8	14.4	0.0	4.5
	2천억원~3천억원미만	50.8	33.6	22.6	10.6	8.8	10.5	0.0	0.0	12.3
	3천억원~5천억원미만	53.3	24.9	19.2	24.9	11.0	8.5	5.7	2.5	5.4
	5천억원~1조원미만	41.4	46.9	18.6	21.7	0.0	10.5	0.0	4.3	17.9
	1조원이상	79.8	16.7	21.4	16.7	21.4	10.7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8.1	36.8	22.2	14.4	14.0	11.8	9.0	0.6	6.2
	수출없음	40.9	60.5	7.3	15.6	14.2	1.4	0.0	1.2	11.3
종사자수	50명미만	37.1	63.2	11.5	13.3	16.2	9.5	0.0	0.0	2.3
	50~100명미만	28.9	51.2	12.4	7.4	30.7	8.3	0.0	0.0	4.3
	100~200명미만	46.2	57.6	15.7	11.9	13.5	6.0	4.0	0.0	1.8
	200~300명미만	54.7	26.9	19.1	13.9	6.3	17.8	18.1	0.0	11.8
	300~500명미만	49.4	29.9	25.0	17.4	15.1	5.4	5.2	1.6	7.7
	500~1,000명미만	45.4	39.6	22.3	18.1	12.5	6.4	8.6	0.0	13.1
	1,000명이상	58.0	33.6	20.1	17.1	10.8	15.0	8.9	4.2	7.2
업력	0~7년미만	6.6	73.1	0.0	23.5	23.3	0.0	13.2	6.2	14.3
	7~20년미만	43.6	51.9	26.2	19.2	4.6	10.3	3.5	0.0	6.3
	20~30년미만	38.7	41.5	18.5	6.2	21.2	7.6	6.4	0.0	1.5
	30~40년미만	60.1	39.3	15.6	12.4	9.5	7.3	3.1	2.2	8.8
	40~50년미만	50.4	24.8	22.7	18.8	21.1	14.9	12.9	0.0	13.7
	50년이상	52.8	36.8	10.2	13.6	18.7	10.3	11.5	0.0	6.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33.6	67.3	17.4	16.4	17.2	6.5	1.7	1.4	4.8
	진입4~5년차	55.5	30.8	18.4	13.2	15.3	11.4	5.3	0.0	6.4
	진입6~9년차	42.3	40.2	19.0	14.1	10.0	4.9	4.7	0.0	7.5
	진입10년차이상	47.0	40.6	19.9	15.8	12.8	12.3	15.0	1.7	10.8
매출유형	B2B	44.8	41.8	19.5	13.4	14.3	10.0	3.8	0.3	7.8
	B2C	50.4	50.8	20.7	26.8	7.5	8.5	10.2	3.6	2.5
	B2G	65.4	30.3	0.0	6.2	26.6	0.0	53.2	0.0	12.4
상장	상장	54.1	29.9	22.1	14.4	11.7	11.8	7.9	0.9	8.3
	비상장	39.8	53.1	15.8	14.9	16.1	7.3	6.0	0.5	6.6

## □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중견기업은 주요 사유로 수출 부적합 업종(42.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 시장 만족(21.1%), 마케팅 능력 부족(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수출 부적합 업종(41.7%)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시장 만족(20.9%), 마케팅 능력 부족(10.3%) 등의 순임

[그림 2-58]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단위: %, 해외진출 미고려 기업)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국내 시장 만족(22.1%)을 가장 큰 신규 진출 미고려 사유로 응답하였으며, 비제조업의 경우는 수출 부적합 업종(57.9%)을 가장 큰 사유로 응답함
  - 제조업은 비제조업에 비해 마케팅 능력 부족(20.0%), 자금부족(13.8%) 등 다른 요인들을 택한 비중도 높게 나타남
- 수출기업은 마케팅 능력부족(27.5%)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내수기업은 수출 부적합 업종(56.5%)을 가장 높게 응답함
  - 내수기업은 향후에도 수출 부적합 업종으로 인해 해외진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체적으로 비제조업, 내수기업, B2G 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군에 비해 수출 부적합 업종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83]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단위 : %, 해외진출 미고려 기업 2,26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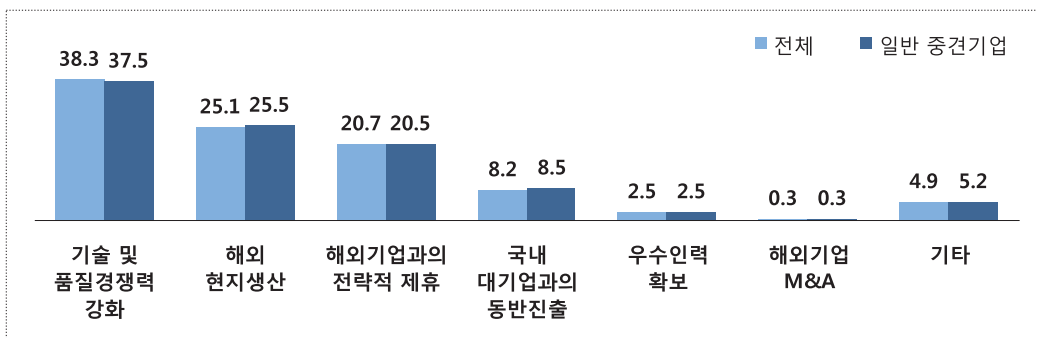
구분		수출 부적합 업종	국내 시장 만족	마케팅 능력부족	자금부족	필요없음 /현재만족	기타
전체		42.0	21.1	11.7	8.0	4.6	12.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1.7	20.9	10.3	8.0	4.7	14.5
	관계기업	43.1	21.9	16.5	7.9	4.2	6.5
업종	제조업	16.3	22.1	20.0	13.8	9.0	18.9
	비제조업	57.9	20.5	6.6	4.3	1.8	8.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2.0	24.3	10.7	3.2	0.5	9.4
	1백억원~5백억원미만	52.2	20.6	8.7	6.7	3.0	8.8
	5백억원~1천억원미만	41.8	16.7	19.4	4.5	7.9	9.6
	1천억원~2천억원미만	29.6	22.0	12.3	11.5	6.9	17.7
	2천억원~3천억원미만	28.1	18.2	13.7	16.0	10.3	13.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9.4	24.8	12.4	9.1	4.2	20.0
	5천억원~1조원미만	24.8	18.2	5.5	14.9	2.8	33.7
	1조원이상	9.8	37.3	35.3	0.0	0.0	17.6
수출여부	수출있음	3.6	11.9	27.5	15.7	14.5	26.8
	수출없음	56.5	24.6	5.7	5.0	0.8	7.4
종사자수	50명미만	54.1	21.3	10.3	4.4	1.6	8.3
	50~100명미만	46.4	23.6	12.4	3.8	6.1	7.6
	100~200명미만	28.0	23.8	13.9	11.4	7.4	15.6
	200~300명미만	34.5	21.4	8.7	14.5	4.9	16.0
	300~500명미만	32.0	18.4	8.6	15.3	5.5	20.3
	500~1,000명미만	25.2	12.5	20.4	11.2	6.6	24.0
	1,000명이상	57.2	16.2	6.4	3.6	2.6	14.0
업력	0~7년미만	37.5	25.5	20.1	2.9	2.3	11.7
	7~20년미만	49.8	20.6	7.9	7.8	3.8	10.1
	20~30년미만	36.3	24.6	13.3	5.4	7.6	12.8
	30~40년미만	34.4	18.0	13.0	11.3	6.3	17.0
	40~50년미만	35.3	19.6	18.7	9.5	1.0	15.9
	50년이상	34.3	14.9	8.3	16.1	5.9	20.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0.2	23.3	10.4	6.7	2.2	7.1
	진입4~5년차	34.4	22.3	11.7	7.9	7.2	16.5
	진입6~9년차	48.8	15.4	14.4	7.1	4.1	10.3
	진입10년차이상	34.7	24.3	9.0	12.3	2.3	17.4
매출유형	B2B	37.7	20.9	13.3	8.3	5.7	14.2
	B2C	59.1	21.4	6.4	6.5	0.5	6.0
	B2G	51.8	24.5	2.9	8.0	0.0	12.8
상장	상장	25.6	15.8	19.1	11.2	6.8	21.5
	비상장	45.5	22.2	10.1	7.3	4.1	10.8

## □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은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으로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8.3%)를 가장 우선하며, 그 다음으로는 해외 현지생산(25.1%),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0.7%)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은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7.5%), 해외 현지생산(25.5%),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0.5%),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8.5%) 순임

[그림 2-59]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단위: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41.1%), 해외 현지생산(31.6%), 등을 우선전략으로 고려하는 반면, 비제조업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33.2%),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3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는 모든 기업군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가 높지만 중견기업 진입연차가 오래될수록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고려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39.0%), 해외 현지생산(27.2%)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B2C기업과 B2G기업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순으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

[표 2-84]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717개사)

구분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해외 현지생산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전체		38.3	25.1	20.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7.5	25.5	20.5
	관계기업	44.0	22.2	21.8
업종	제조업	41.1	31.6	15.6
	비제조업	33.2	12.9	30.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0.3	19.5	10.2
	1백억원~5백억원미만	40.9	12.9	38.4
	5백억원~1천억원미만	42.9	17.1	22.6
	1천억원~2천억원미만	41.9	23.2	19.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6.9	34.9	14.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8.4	28.1	11.0
	5천억원~1조원미만	24.7	36.4	21.0
	1조원이상	16.7	21.4	44.0
수출여부	수출있음	36.1	29.0	19.3
	수출없음	45.6	12.2	25.2
종사자수	50명미만	40.3	14.0	31.4
	50~100명미만	36.6	22.7	24.0
	100~200명미만	59.2	26.4	10.6
	200~300명미만	37.2	25.3	15.5
	300~500명미만	30.1	34.9	14.9
	500~1,000명미만	37.4	24.4	19.9
	1,000명이상	21.5	22.9	39.8
업력	0~7년미만	58.5	8.0	33.5
	7~20년미만	41.8	22.1	19.8
	20~30년미만	25.7	36.9	16.0
	30~40년미만	37.7	22.4	23.3
	40~50년미만	40.0	25.2	19.1
	50년이상	42.0	23.4	23.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48.6	17.4	16.6
	진입4~5년차	33.0	34.4	16.6
	진입6~9년차	44.4	21.4	24.9
	진입10년차이상	33.0	20.7	26.8
매출유형	B2B	39.0	27.2	18.7
	B2C	38.4	17.9	32.8
	B2G	25.7	6.0	25.1
상장	상장	32.8	27.5	22.6
	비상장	43.1	22.9	19.1

[표 2-85]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계속)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717개사)

구분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우수인력 확보	해외기업 M&A	기타
전체		8.2	2.5	0.3	4.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5	2.5	0.3	5.2
	관계기업	6.5	2.6	0.0	2.9
업종	제조업	8.2	1.0	0.5	2.0
	비제조업	8.2	5.3	0.0	10.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4.5	0.0	0.0	3.4
	5백억원~1천억원미만	5.8	8.7	0.0	2.8
	1천억원~2천억원미만	6.6	4.4	1.1	3.3
	2천억원~3천억원미만	8.7	0.0	0.0	5.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2.4	2.5	0.0	7.6
	5천억원~1조원미만	6.2	0.0	0.0	11.7
	1조원이상	11.9	0.0	0.0	6.0
수출여부	수출있음	8.4	2.4	0.4	4.4
	수출없음	7.7	2.7	0.0	6.6
종사자수	50명미만	0.0	4.5	0.0	9.8
	50~100명미만	13.2	0.0	0.0	3.5
	100~200명미만	0.0	2.1	0.0	1.8
	200~300명미만	16.0	2.0	0.0	4.0
	300~500명미만	10.8	3.4	1.7	4.1
	500~1,000명미만	11.5	3.4	0.0	3.4
	1,000명이상	5.6	0.0	0.0	10.1
업력	0~7년미만	0.0	0.0	0.0	0.0
	7~20년미만	6.5	3.3	0.0	6.5
	20~30년미만	18.3	3.1	0.0	0.0
	30~40년미만	6.3	1.6	0.0	8.7
	40~50년미만	4.3	4.4	2.0	5.0
	50년이상	7.1	0.0	0.0	4.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7.9	3.0	0.0	6.6
	진입4~5년차	10.8	2.6	0.0	2.6
	진입6~9년차	1.7	1.7	0.0	5.9
	진입10년차이상	9.9	2.5	1.2	5.9
매출유형	B2B	8.2	2.2	0.4	4.3
	B2C	2.5	2.5	0.0	5.9
	B2G	23.9	6.9	0.0	12.4
상장	상장	10.0	0.6	0.6	5.9
	비상장	6.7	4.1	0.0	4.0

[표 2-86]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717개사, 중복응답)

구분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해외 현지생산
전체		56.9	43.0	35.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3.1	43.6	35.9
	관계기업	82.1	38.8	31.8
업종	제조업	60.0	40.7	45.2
	비제조업	51.2	47.2	17.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1.7	30.9	23.6
	1백억원~5백억원미만	66.0	58.3	17.3
	5백억원~1천억원미만	66.1	45.6	25.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5	43.4	29.1
	2천억원~3천억원미만	56.1	37.0	48.8
	3천억원~5천억원미만	39.8	36.0	45.1
	5천억원~1조원미만	45.7	42.6	51.9
	1조원이상	38.1	56.0	42.9
수출여부	수출있음	55.4	44.7	38.9
	수출없음	62.0	37.6	23.7
종사자수	50명미만	58.7	52.3	21.4
	50~100명미만	61.9	41.8	30.1
	100~200명미만	69.1	45.9	28.2
	200~300명미만	62.4	37.7	34.7
	300~500명미만	48.5	32.3	47.6
	500~1,000명미만	53.1	45.9	42.7
	1,000명이상	44.3	48.6	35.3
업력	0~7년미만	80.4	57.4	20.0
	7~20년미만	61.0	42.0	30.5
	20~30년미만	47.7	39.6	44.8
	30~40년미만	46.0	41.4	37.7
	40~50년미만	64.8	49.0	39.1
	50년이상	61.8	41.0	29.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3.6	40.9	28.0
	진입4~5년차	52.7	42.0	40.2
	진입6~9년차	62.6	42.6	31.6
	진입10년차이상	53.3	46.5	37.1
매출유형	B2B	56.3	43.3	36.3
	B2C	58.9	43.1	40.1
	B2G	62.7	38.4	6.0
상장	상장	52.6	45.9	41.5
	비상장	60.7	40.5	30.0



[표 2-87]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717개사, 중복응답)

구분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우수인력 확보	해외기업 M&A	기타
전체		16.2	14.7	1.5	6.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3	13.9	1.7	6.6
	관계기업	9.0	19.6	0.0	2.9
업종	제조업	14.7	13.3	2.3	2.5
	비제조업	18.9	17.2	0.0	12.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	16.5	4.2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4.5	13.8	0.0	3.4
	5백억원~1천억원미만	11.4	20.2	0.0	5.7
	1천억원~2천억원미만	18.6	20.8	2.2	4.4
	2천억원~3천억원미만	15.8	12.3	1.7	7.1
	3천억원~5천억원미만	35.6	13.9	2.8	7.6
	5천억원~1조원미만	13.6	3.1	0.0	11.7
	1조원이상	17.9	0.0	0.0	11.9
수출여부	수출있음	16.7	14.9	1.6	5.9
	수출없음	14.7	13.8	1.1	6.6
종사자수	50명미만	4.5	9.4	1.9	9.8
	50~100명미만	20.1	20.5	3.4	7.0
	100~200명미만	5.6	18.7	0.0	3.7
	200~300명미만	27.6	13.9	0.0	4.0
	300~500명미만	19.5	12.1	5.4	4.1
	500~1,000명미만	16.4	18.1	0.0	5.1
	1,000명이상	21.4	9.0	0.0	12.7
업력	0~7년미만	12.8	0.0	0.0	0.0
	7~20년미만	10.8	16.7	1.1	7.7
	20~30년미만	28.9	16.0	4.5	1.5
	30~40년미만	15.5	20.0	0.0	8.7
	40~50년미만	8.3	9.5	2.0	9.1
	50년이상	19.4	11.4	0.0	4.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2.3	10.8	0.0	6.6
	진입4~5년차	20.1	15.2	1.7	5.3
	진입6~9년차	12.6	18.0	1.7	5.9
	진입10년차이상	16.5	14.3	2.2	6.9
매출유형	B2B	16.0	13.1	1.8	5.4
	B2C	2.5	26.1	0.0	8.1
	B2G	54.7	13.3	0.0	12.4
상장	상장	16.7	12.6	2.5	7.1
	비상장	15.7	16.5	0.6	5.2

## 6절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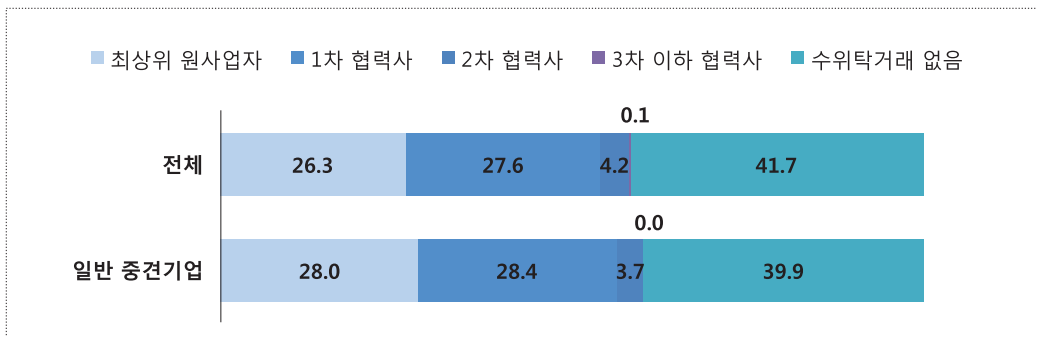
### 1. 수·위탁 거래 현황

#### □ 수·위탁 거래 단계

- 중견기업의 58.3%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반 중견기업 역시 60.1%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계별로는 1차 협력사인 경우가 27.6%로 가장 많았고 최상위 원사업자인 경우가 26.3%, 2차 협력사인 경우가 4.2%, 3차 이하 협력사인 경우가 0.1%순임

[그림 2-60] 수·위탁거래 단계

(단위: %)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일반 중견기업이 60.1%, 관계기업이 50.8%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28.4%가 1차 협력사, 28.0%가 최상위 원사업자, 3.7%가 2차 협력사이며 관계기업은 일반 중견기업에 비해 2차 협력사 비중은 높고 1차 협력사, 최상위 원사업자 비중은 낮음
- 수출기업의 71.0%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수기업은 50.0%만이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수·위탁거래 단계를 보면, 매출액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최상위 원사업자의 비중이 높음

[표 2-88] 수·위탁거래 단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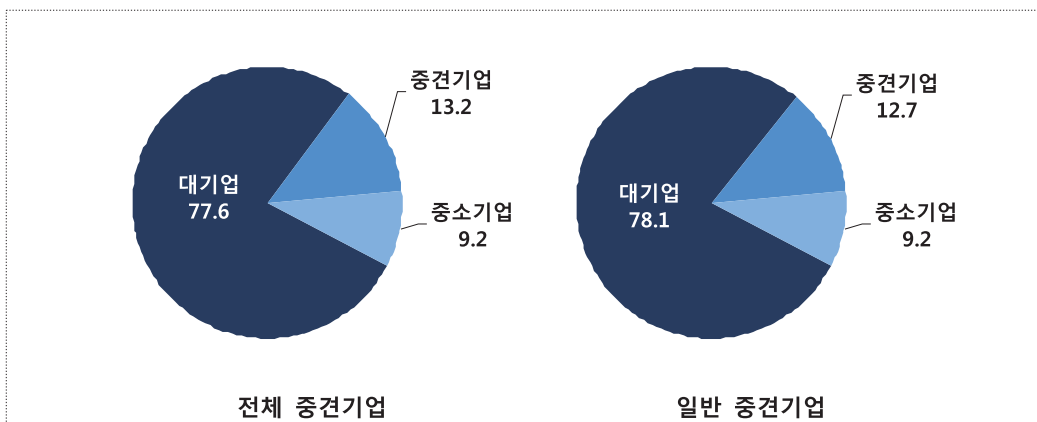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하도급 관계없음	최상위 원사업자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이하 협력사
전체		(2,979)	41.7	26.3	27.6	4.2	0.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9.9	28.0	28.4	3.7	0.0
	관계기업	(600)	49.2	19.2	24.5	6.4	0.7
업종	제조업	(1,331)	29.3	27.0	36.4	7.1	0.2
	비제조업	(1,648)	51.8	25.6	20.5	2.0	0.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56.4	17.4	22.0	4.2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51.2	20.1	24.8	3.9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38.7	28.9	25.0	6.7	0.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35.2	30.7	27.9	5.9	0.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30.1	25.0	42.9	2.1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28.6	33.8	33.9	3.7	0.0
	5천억원~1조원미만	(151)	28.5	44.0	26.0	1.5	0.0
	1조원이상	(57)	37.8	51.9	10.4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29.0	29.4	35.8	5.5	0.2
	수출없음	(1,808)	50.0	24.2	22.3	3.4	0.1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58.9	20.2	18.3	2.3	0.3
	50~100명미만	(470)	54.5	19.7	21.8	3.9	0.0
	100~200명미만	(543)	30.3	25.9	35.2	8.3	0.3
	200~300명미만	(317)	36.5	29.7	29.7	4.1	0.0
	300~500명미만	(322)	28.3	35.2	34.5	2.0	0.0
	500~1,000명미만	(305)	23.8	35.1	34.7	6.3	0.0
	1,000명이상	(160)	22.1	37.5	37.6	2.9	0.0
업력	0~7년미만	(364)	40.2	31.3	28.5	0.0	0.0
	7~20년미만	(1,229)	47.1	20.3	28.3	4.1	0.2
	20~30년미만	(576)	39.2	24.7	29.4	6.5	0.3
	30~40년미만	(351)	35.4	27.5	34.5	2.7	0.0
	40~50년미만	(270)	38.2	38.6	17.4	5.7	0.0
	50년이상	(189)	37.5	37.7	21.3	3.4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49.3	20.5	27.6	2.6	0.0
	진입4~5년차	(1,042)	44.2	21.1	29.1	5.3	0.2
	진입6~9년차	(656)	38.7	27.6	28.0	5.5	0.2
	진입10년차이상	(391)	28.7	45.6	23.4	2.4	0.0
매출유형	B2B	(2,373)	39.8	22.3	32.4	5.3	0.2
	B2C	(490)	54.6	39.5	5.9	0.0	0.0
	B2G	(116)	26.0	51.4	22.6	0.0	0.0
상장	상장	(644)	29.9	33.0	32.3	4.6	0.2
	비상장	(2,335)	45.5	24.1	26.1	4.1	0.1

## □ 위탁거래 현황

- 위탁거래가 있는 중견기업의 거래대상별 매출 비중을 보면 77.6%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3.2%은 중견기업, 9.2%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전체 1,467억 43백만원 중 78.1%(평균:1,146억 43백만원)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2.7%(평균: 186억 56백만원)는 중견기업, 9.2%(평균: 134억 43백만원)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1] 위탁거래기업과의 거래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경우는 전체 위탁기업과의 매출액이 1,619억 57백만원으로 그 중 대기업이 79.6%(평균:1,288억 78백만원), 중견기업이 11.8%(평균:190억 98백만원), 중소기업이 8.6%(평균:139억 79백만원)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 대기업(평균:471억 4백만원) 70.2%, 중견기업(평균:122억 59백만원) 18.3%, 중소기업(평균:77억 40백만원) 11.5%임
- 대체적으로 매출액이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2015년 전체 위탁기업과의 매출액이 큰 것으로 조사됨

[표 2-89] 위탁거래 현황

(단위 : %, 백만원, 하도급 관계 기업 95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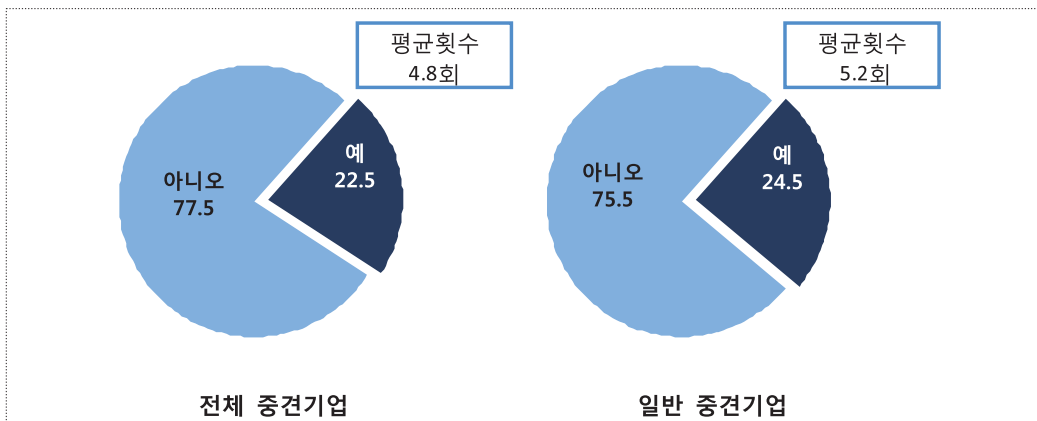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전체		124,639.3	100	96,706.3	77.6	16,408.0	13.2	11,525.0	9.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46,743.4	100	114,643.4	78.1	18,656.5	12.7	13,443.5	9.2
	관계기업	34,683.5	100	23,708.7	68.4	7,257.5	20.9	3,717.3	10.7
업종	제조업	161,957.0	100	128,878.7	79.6	19,098.8	11.8	13,979.5	8.6
	비제조업	67,104.9	100	47,104.6	70.2	12,259.5	18.3	7,740.8	11.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69.1	100	2,725.9	63.9	968.2	22.7	575.0	13.5
	1백억원~5백억원미만	18,654.2	100	12,343.7	66.2	3,612.7	19.4	2,697.8	14.5
	5백억원~1천억원미만	65,947.7	100	48,774.2	74.0	14,907.0	22.6	2,266.5	3.4
	1천억원~2천억원미만	110,002.1	100	84,461.4	76.8	13,334.1	12.1	12,206.6	11.1
	2천억원~3천억원미만	173,663.9	100	131,979.0	76.0	21,571.4	12.4	20,113.5	11.6
	3천억원~5천억원미만	318,327.1	100	266,533.3	83.7	27,697.3	8.7	24,096.5	7.6
	5천억원~1조원미만	589,070.9	100	483,624.7	82.1	88,927.1	15.1	16,519.1	2.8
	1조원이상	1,104,217.4	100	596,797.5	54.0	186,137.5	16.9	321,282.4	29.1
수출여부	수출있음	176,372.0	100	138,976.3	78.8	23,321.2	13.2	14,074.5	8.0
	수출없음	70,937.6	100	52,827.4	74.5	9,231.8	13.0	8,878.4	12.5
종사자수	50명미만	25,370.1	100	21,051.6	83.0	2,869.0	11.3	1,449.5	5.7
	50~100명미만	62,029.8	100	39,734.9	64.1	12,408.9	20.0	9,886.0	15.9
	100~200명미만	85,846.5	100	61,081.3	71.2	14,801.0	17.2	9,964.2	11.6
	200~300명미만	147,484.9	100	127,621.9	86.5	14,714.3	10.0	5,148.7	3.5
	300~500명미만	145,356.0	100	122,670.7	84.4	11,005.4	7.6	11,679.9	8.0
	500~1,000명미만	283,586.6	100	223,745.6	78.9	35,929.7	12.7	23,911.3	8.4
	1,000명이상	278,913.2	100	202,080.3	72.5	42,176.8	15.1	34,656.1	12.4
업력	0~7년미만	110,560.7	100	66,372.5	60.0	18,408.1	16.6	25,780.1	23.3
	7~20년미만	84,300.4	100	69,417.9	82.3	8,574.7	10.2	6,307.8	7.5
	20~30년미만	135,351.7	100	106,477.2	78.7	18,438.0	13.6	10,436.5	7.7
	30~40년미만	158,391.5	100	126,814.8	80.1	16,565.8	10.5	15,010.9	9.5
	40~50년미만	201,721.3	100	146,537.2	72.6	38,975.5	19.3	16,208.6	8.0
	50년이상	187,439.5	100	133,378.2	71.2	30,889.0	16.5	23,172.3	12.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5,400.7	100	66,804.9	78.2	11,339.8	13.3	7,256.0	8.5
	진입4~5년차	114,207.0	100	87,708.7	76.8	11,364.9	10.0	15,133.4	13.3
	진입6~9년차	102,968.9	100	80,733.4	78.4	14,451.3	14.0	7,784.2	7.6
	진입10년차이상	271,333.9	100	210,789.8	77.7	45,528.6	16.8	15,015.5	5.5
매출유형	B2B	128,460.4	100	99,474.7	77.4	16,829.6	13.1	12,156.1	9.5
	B2C	53,276.1	100	49,910.4	93.7	1,262.2	2.4	2,103.5	3.9
	B2G	73,282.2	100	54,090.1	73.8	18,755.0	25.6	437.1	0.6
상장	상장	221,381.1	100	175,058.7	79.1	28,150.3	12.7	18,172.1	8.2
	비상장	86,724.8	100	65,998.8	76.1	11,806.1	13.6	8,919.9	10.3

## □ 납품단가 인하

- 수탁 중견기업의 22.5%는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횟수는 평균 4.8회, 평균 단가인하율은 3~5%미만(41.0%)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수탁거래를 하는 일반 중견기업의 24.5%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횟수는 평균 5.2회로 나타남

[그림 2-62]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5.3%가 평균 4.0회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18.1%가 6.7회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험율은 제조업이 더 높으나 경험횟수는 비제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평균 단가인하율은 3~5%미만(4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미만(31.0%), 5~10%(15.2%), 10~20%미만(4.4%)의 순인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는 평균 인하율이 각각의 구간에서 비율이 비슷하여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의 평균 단가인하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업은 단가인하 경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남
- B2B기업의 경우 23.8%가 단가인하 경험이 있는 반면, B2C기업과 B2G기업의 경우는 단가인하 경험이 없어 주 거래처별로도 상이한 차이가 있음

[표 2-90]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및 평균단가인하율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95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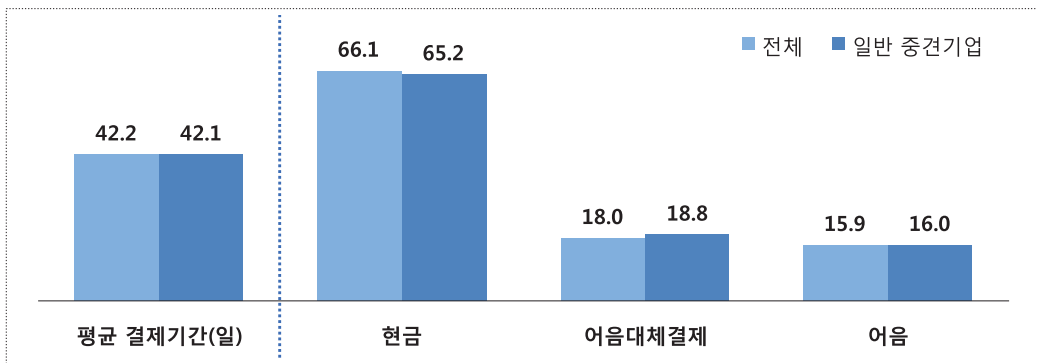
구분		경험 있음	횟수	경험 없음	평균 단가인하율			
					3% 미만	3~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전체		22.5	4.8	77.5	30.4	41.0	19.0	9.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4.5	5.2	75.5	32.0	39.0	18.1	11.0
	관계기업	14.2	2.7	85.8	19.4	54.9	25.7	0.0
업종	제조업	25.3	4.0	74.7	31.0	49.3	15.2	4.4
	비제조업	18.1	6.7	81.9	29.1	22.7	27.3	20.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8.1	5.5	81.9	42.9	14.1	21.5	21.5
	1백억원~5백억원미만	17.3	6.4	82.7	17.4	31.5	38.2	12.9
	5백억원~1천억원미만	12.4	3.6	87.6	34.7	50.0	0.0	15.3
	1천억원~2천억원미만	17.6	5.6	82.4	36.7	34.7	22.5	6.1
	2천억원~3천억원미만	41.5	3.4	58.5	40.8	48.0	7.3	3.8
	3천억원~5천억원미만	29.6	4.7	70.4	16.8	58.9	16.8	7.5
	5천억원~1조원미만	34.0	4.0	66.0	15.7	47.0	21.7	15.7
	1조원이상	0.0	-	100.0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26.7	4.1	73.3	30.8	51.9	12.4	4.9
	수출없음	18.0	5.9	82.0	29.7	24.2	29.3	16.8
종사자수	50명미만	24.8	6.3	75.2	35.0	24.6	27.7	12.7
	50~100명미만	5.9	4.2	94.1	32.3	29.6	38.0	0.0
	100~200명미만	23.2	4.7	76.8	25.0	45.6	14.1	15.4
	200~300명미만	23.9	4.7	76.1	42.5	35.4	14.0	8.2
	300~500명미만	36.1	3.6	63.9	26.1	58.3	10.8	4.8
	500~1,000명미만	21.5	5.1	78.5	16.7	58.5	24.8	0.0
	1,000명이상	19.0	3.0	81.0	56.5	0.0	25.3	18.2
업력	0~7년미만	29.6	4.7	70.4	13.0	15.7	48.2	23.1
	7~20년미만	16.2	4.5	83.8	44.9	29.9	13.1	12.1
	20~30년미만	25.3	7.1	74.7	25.2	47.7	15.2	11.9
	30~40년미만	25.7	3.0	74.3	41.1	43.4	15.5	0.0
	40~50년미만	24.8	3.8	75.2	10.6	56.8	21.3	11.3
	50년이상	37.4	4.5	62.6	11.7	60.3	28.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20.4	8.0	79.6	23.7	23.5	26.4	26.4
	진입4~5년차	24.6	3.6	75.4	31.5	50.2	11.3	6.9
	진입6~9년차	20.4	4.1	79.6	28.3	53.8	17.9	0.0
	진입10년차이상	23.5	4.5	76.5	41.0	16.0	35.0	8.0
매출유형	B2B	23.8	4.8	76.2	30.4	41.0	19.0	9.6
	B2C	0.0	-	100.0	-	-	-	-
	B2G	0.0	-	100.0	-	-	-	-
상장	상장	33.2	4.3	66.8	27.7	49.6	20.1	2.5
	비상장	18.2	5.3	81.8	32.3	34.8	18.3	14.6

## □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기간은 평균 42.2일이며, 결제 수단비중은 현금(66.1%), 어음대체결제(18.0%), 어음(15.9%)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기간은 평균 42.1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5.2%), 어음대체결제(18.8%), 어음(16.0%)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3] 위탁결제 수단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경우 대금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3.6일, 결제수단은 현금(55.1%), 어음대체결제(23.9%), 어음(21.0%)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대금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0.0일, 결제수단은 현금(83.4%), 어음대체결제(8.6%), 어음(7.9%) 순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현금 결제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억원~1조원 미만에서는 어음이 34.9%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높으며, 1조원 이상의 기업에서는 어음대체결제가 52.1%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표 2-91] 위탁거래 기업과의 결제기간/수단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95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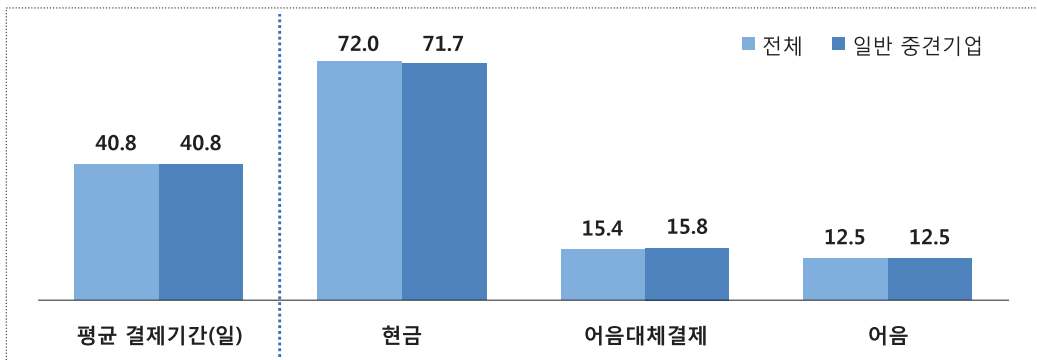
구분		평균 결제기간	결제수단별 비중		
			현금	어음대체결제	어음
전체		42.2	66.1	18.0	15.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2.1	65.2	18.8	16.0
	관계기업	42.8	70.0	14.7	15.3
업종	제조업	43.6	55.1	23.9	21.0
	비제조업	40.0	83.4	8.6	7.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0.8	85.9	0.7	13.4
	1백억원~5백억원미만	38.7	77.2	9.3	13.5
	5백억원~1천억원미만	45.7	62.4	21.4	16.1
	1천억원~2천억원미만	43.2	56.6	24.4	19.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9.4	64.2	22.5	13.4
	3천억원~5천억원미만	45.5	55.6	30.0	14.4
	5천억원~1조원미만	55.6	36.9	28.1	34.9
	1조원이상	50.7	47.9	52.1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5.0	56.8	22.5	20.7
	수출없음	39.3	75.9	13.2	10.9
종사자수	50명미만	40.8	82.7	5.2	12.1
	50~100명미만	42.6	68.6	19.2	12.2
	100~200명미만	42.1	56.2	22.4	21.4
	200~300명미만	43.8	61.5	19.9	18.6
	300~500명미만	40.3	68.3	23.1	8.6
	500~1,000명미만	48.9	54.2	25.0	20.8
	1,000명이상	33.8	79.2	8.8	12.1
업력	0~7년미만	42.0	86.1	11.2	2.8
	7~20년미만	38.9	74.5	16.0	9.6
	20~30년미만	43.4	63.4	19.9	16.6
	30~40년미만	45.3	54.6	22.0	23.3
	40~50년미만	44.3	49.4	22.7	27.8
	50년이상	51.5	50.4	13.2	36.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41.7	75.1	12.2	12.6
	진입4~5년차	42.2	67.6	18.4	14.0
	진입6~9년차	45.0	62.6	20.4	17.0
	진입10년차이상	37.9	51.4	22.5	26.1
매출유형	B2B	42.6	64.7	18.7	16.6
	B2C	39.2	88.1	5.3	6.6
	B2G	32.9	92.4	7.3	0.2
상장	상장	43.0	56.8	23.0	20.2
	비상장	41.9	69.8	16.0	14.2

## □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이 수탁기업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은 평균 40.8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위탁기업 결제와 동일하게 현금(72.0%)이 가장 높고, 이어서 어음대체결제(15.4%), 어음(12.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이 수탁기업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은 평균 40.8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71.7%), 어음대체결제(15.8%), 어음(1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4] 수탁거래 결제수단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경우 수탁기업과 대금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3.6일, 결제수단은 현금(60.5%), 어음대체결제(23.0%), 어음(16.6%)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대금결제 기간이 평균 37.3일, 결제수단은 현금(86.6%), 어음(7.5%), 어음대체결제(5.9%) 순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은 위탁거래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비해 현금 결제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3천억원~5천억원 미만에서는 어음대체결제가 34.9%로 다른 기업에 비해 어음대체결제의 비율이 높으며, 5천억원~1조원 미만에서는 어음이 22.2%로 다른 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표 2-92] 수탁거래 기업과의 결제기간/수단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1,610개사)

구분		평균 결제기간	결제수단별 비중		
			현금	어음대체결제	어음
전체		40.8	72.0	15.4	12.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0.8	71.7	15.8	12.5
	관계기업	40.9	73.9	13.3	12.8
업종	제조업	43.6	60.5	23.0	16.6
	비제조업	37.3	86.6	5.9	7.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8.0	91.1	0.0	8.9
	1백억원~5백억원미만	37.4	85.8	7.0	7.2
	5백억원~1천억원미만	41.8	69.3	19.5	11.2
	1천억원~2천억원미만	42.2	67.9	17.3	14.8
	2천억원~3천억원미만	39.2	69.0	18.2	12.8
	3천억원~5천억원미만	49.6	49.2	34.9	15.9
	5천억원~1조원미만	40.8	66.5	11.3	22.2
	1조원이상	35.6	48.3	29.8	21.9
수출여부	수출있음	44.6	61.1	22.8	16.2
	수출없음	37.1	82.8	8.2	9.0
종사자수	50명미만	36.4	89.7	1.6	8.7
	50~100명미만	37.4	75.8	14.9	9.3
	100~200명미만	42.8	71.6	17.2	11.2
	200~300명미만	43.2	66.1	14.6	19.3
	300~500명미만	41.7	64.4	25.7	10.0
	500~1,000명미만	45.4	60.4	22.8	16.8
	1,000명이상	37.0	64.7	17.4	17.9
업력	0~7년미만	34.9	86.6	9.4	4.0
	7~20년미만	38.1	80.5	9.5	9.9
	20~30년미만	44.2	70.1	18.7	11.2
	30~40년미만	42.5	66.4	17.3	16.4
	40~50년미만	40.8	58.4	24.9	16.7
	50년이상	45.6	58.7	19.5	21.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41.3	82.2	8.8	9.0
	진입4~5년차	39.8	73.2	15.4	11.4
	진입6~9년차	42.0	69.1	17.7	13.2
	진입10년차이상	40.6	62.5	20.0	17.5
매출유형	B2B	41.9	70.4	16.7	12.9
	B2C	37.1	74.7	11.0	14.2
	B2G	33.6	91.1	6.3	2.6
상장	상장	43.7	58.9	24.4	16.8
	비상장	39.6	77.8	11.5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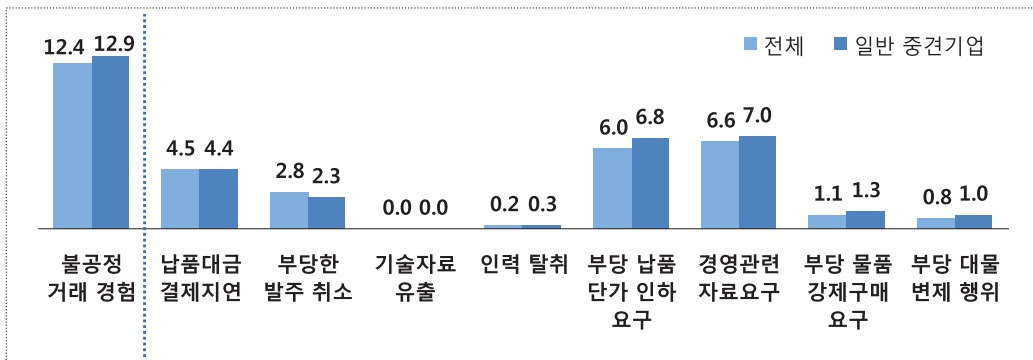
## 2.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 불공정 거래

- 수탁 중견기업 중 12.4%는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경영관련 자료요구(6.6%),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6.0%), 납품대금 결제지연(4.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12.9%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경영관련 자료요구(7.0%), 부당 납품단가 인하 요구(6.8%), 납품대금 결제지연(4.4%)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5] 불공정거래 경험율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9.7%가 2015년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16.6%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여 이는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약 1.5배 정도 불공정 거래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50명 미만의 기업에서 경영관련 자료요구가 11.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이 0~7년인 기업에서도 경영관련 자료요구가 15.0%로 높게 나타남
  - 업력이 낮을수록,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경영관련 자료를 요구받는 중견기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93] 불공정거래 경험율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953개사)

구분		불공정거래 경험율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율			
			납품대금 결제 지연	부당한 발주 취소	기술 자료 유출	인력 탈취
전체		12.4	4.5	2.8	0.0	0.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2.9	4.4	2.3	0.0	0.3
	관계기업	10.4	5.0	4.7	0.0	0.0
업종	제조업	9.7	3.4	2.8	0.0	0.4
	비제조업	16.6	6.1	2.9	0.0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9.8	9.0	2.6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12.5	3.0	2.5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4.0	0.0	0.0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9.4	5.1	2.2	0.0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21.6	9.4	9.2	0.0	1.5
	3천억원~5천억원미만	9.7	2.2	0.0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5.3	0.0	0.0	0.0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9	3.7	3.2	0.0	0.5
	수출없음	12.9	5.3	2.4	0.0	0.0
종사자수	50명미만	16.9	4.4	3.0	0.0	0.0
	50~100명미만	0.0	0.0	0.0	0.0	0.0
	100~200명미만	12.5	4.6	1.9	0.0	0.0
	200~300명미만	15.4	10.1	2.0	0.0	0.0
	300~500명미만	17.0	7.5	5.7	0.0	0.0
	500~1,000명미만	12.6	3.5	3.6	0.0	1.8
	1,000명이상	9.0	0.0	5.5	0.0	0.0
업력	0~7년미만	21.8	6.8	0.0	0.0	0.0
	7~20년미만	11.5	3.4	2.6	0.0	0.0
	20~30년미만	11.1	4.4	2.3	0.0	0.0
	30~40년미만	7.0	2.4	0.0	0.0	0.0
	40~50년미만	19.9	6.1	8.3	0.0	2.8
	50년이상	18.5	14.0	9.5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3.4	1.8	0.0	0.0	0.0
	진입4~5년차	13.5	5.4	3.5	0.0	0.0
	진입6~9년차	11.2	6.8	4.8	0.0	0.0
	진입10년차이상	9.4	1.8	1.9	0.0	1.9
매출유형	B2B	12.5	4.5	3.0	0.0	0.3
	B2C	0.0	0.0	0.0	0.0	0.0
	B2G	22.0	8.3	0.0	0.0	0.0
상장	상장	12.1	3.0	4.1	0.0	0.8
	비상장	12.5	5.1	2.3	0.0	0.0

[표 2-94] 불공정거래 경험율(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95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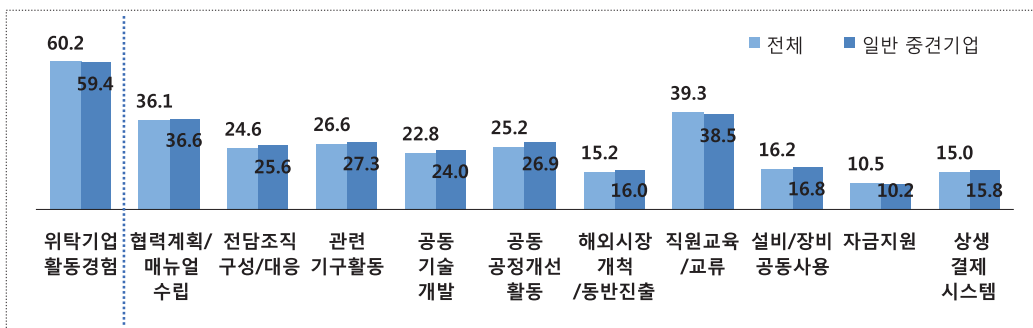
구분		불공정거래 경험율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영관련 자료요구	부당 물품 강제구매 요구	부당대물 변제행위
전체		12.4	6.0	6.6	1.1	0.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2.9	6.8	7.0	1.3	1.0
	관계기업	10.4	2.8	4.9	0.0	0.0
업종	제조업	9.7	4.3	6.7	0.8	0.4
	비제조업	16.6	8.7	6.4	1.5	1.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9.8	6.4	9.5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12.5	7.7	5.9	2.2	2.2
	5백억원~1천억원미만	4.0	4.0	0.0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9.4	4.3	3.2	0.0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21.6	9.2	15.3	1.5	1.5
	3천억원~5천억원미만	9.7	4.7	7.5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5.3	0.0	5.3	5.3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9	5.5	8.2	0.9	0.5
	수출없음	12.9	6.5	4.9	1.2	1.2
종사자수	50명미만	16.9	11.5	11.7	3.1	3.1
	50~100명미만	0.0	0.0	0.0	0.0	0.0
	100~200명미만	12.5	6.1	3.8	0.0	0.0
	200~300명미만	15.4	2.0	3.3	0.0	0.0
	300~500명미만	17.0	11.3	11.3	0.0	0.0
	500~1,000명미만	12.6	5.4	10.9	1.8	1.8
	1,000명이상	9.0	0.0	3.5	3.5	0.0
업력	0~7년미만	21.8	9.6	15.0	0.0	0.0
	7~20년미만	11.5	4.6	7.8	1.4	1.4
	20~30년미만	11.1	8.9	2.1	0.0	0.0
	30~40년미만	7.0	3.0	3.0	1.5	0.0
	40~50년미만	19.9	5.4	8.4	2.8	2.8
	50년이상	18.5	9.5	13.9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3.4	9.0	7.8	2.6	2.6
	진입4~5년차	13.5	5.6	6.6	0.0	0.0
	진입6~9년차	11.2	6.1	5.0	0.0	0.0
	진입10년차이상	9.4	1.9	7.6	3.8	1.9
매출유형	B2B	12.5	6.4	6.6	1.1	0.9
	B2C	0.0	0.0	0.0	0.0	0.0
	B2G	22.0	0.0	13.7	0.0	0.0
상장	상장	12.1	4.9	9.1	1.7	0.8
	비상장	12.5	6.4	5.6	0.8	0.8

## □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수탁 중견기업의 60.2%는 위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9.3%),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6.1%), 관련 기구활동(26.6%)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59.4%는 위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교육/교류(38.5%),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36.6%), 관련기구활동(27.3%)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2-66]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67.4%, 비제조업의 49.0%가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을 진행 중으로 제조업의 활동이 높게 나타남
  - 제조업은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 활동(43.5%)을 가장 많이 시행하였으며, 비제조업은 직원 교육/교류(33.5%)를 가장 많이 시행함
- 매출액 1조원 이상의 기업은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 활동, 관련 기구활동, 공동기술개발, 공동 공정개선 활동, 해외시장 개척/동반진출, 직원교육/교류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반면, 전담조직 구성/대응, 자금지원, 상생 결제 시스템의 활동은 전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B2B기업과 B2G기업이 지난 1년동안 위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반면, B2C기업은 15.9%만이 상생협력활동을 추진하여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95]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953개사)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	전담조직 구성/대응	관련 기구활동	공동 기술 개발	공동 공정개선 활동
전체		60.2	36.1	24.6	26.6	22.8	25.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9.4	36.6	25.6	27.3	24.0	26.9
	관계기업	63.5	33.7	20.8	24.1	18.1	18.4
업종	제조업	67.4	43.5	31.5	38.4	32.3	34.8
	비제조업	49.0	24.4	14.0	8.3	8.1	10.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6.1	22.1	12.0	6.9	12.5	10.8
	1백억원~5백억원미만	55.6	32.7	9.0	14.6	17.5	12.8
	5백억원~1천억원미만	52.4	25.2	18.9	21.0	12.3	21.1
	1천억원~2천억원미만	58.6	35.1	26.4	27.8	23.8	30.5
	2천억원~3천억원미만	66.1	42.9	36.8	33.7	27.5	32.1
	3천억원~5천억원미만	81.2	52.2	47.0	51.9	37.3	39.8
	5천억원~1조원미만	84.0	60.7	68.0	71.3	50.0	60.7
	1조원이상	64.3	64.3	0.0	64.3	64.3	64.3
수출여부	수출있음	66.0	44.1	33.7	39.2	31.8	37.3
	수출없음	54.2	27.6	15.2	13.6	13.4	12.7
종사자수	50명미만	59.9	36.9	10.6	14.5	10.7	22.5
	50~100명미만	47.2	24.1	17.5	10.2	22.5	10.1
	100~200명미만	51.3	27.9	17.4	22.6	18.8	16.8
	200~300명미만	65.0	39.5	31.3	31.7	30.8	25.8
	300~500명미만	59.8	37.2	30.2	26.4	31.7	41.4
	500~1,000명미만	80.6	53.8	50.1	61.7	38.6	43.5
	1,000명이상	71.5	43.9	33.1	29.8	12.2	26.5
업력	0~7년미만	55.0	29.6	12.3	14.5	20.1	14.0
	7~20년미만	56.2	32.3	20.9	22.2	19.8	21.5
	20~30년미만	57.8	36.1	27.7	25.6	22.1	24.5
	30~40년미만	68.6	42.3	28.5	34.5	27.2	36.9
	40~50년미만	66.7	44.4	31.6	40.0	31.5	31.6
	50년이상	73.0	40.9	32.3	35.0	26.0	25.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7.1	29.6	12.8	19.4	15.7	22.4
	진입4~5년차	57.2	35.6	26.8	24.4	25.1	24.6
	진입6~9년차	59.0	39.9	25.2	30.4	22.8	23.5
	진입10년차이상	78.2	41.9	38.6	39.8	28.8	36.0
매출유형	B2B	61.2	37.1	25.0	28.0	23.6	26.3
	B2C	15.9	15.9	15.9	7.8	0.0	8.1
	B2G	76.9	22.0	22.0	0.0	21.5	8.1
상장	상장	68.6	42.7	39.4	41.6	28.5	36.1
	비상장	57.0	33.4	18.9	20.7	20.6	21.0



[표 2-96]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95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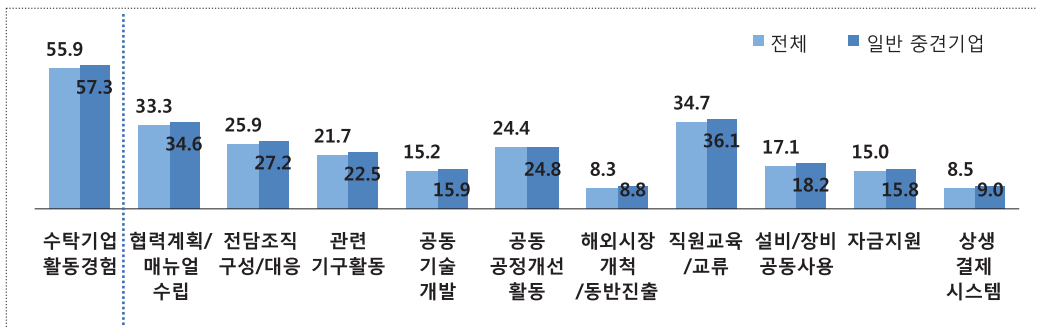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해외시장 개척 /동반진출	직원교육 /교류	설비/장비 공동사용	자금지원	상생 결제 시스템
전체		60.2	15.2	39.3	16.2	10.5	15.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9.4	16.0	38.5	16.8	10.2	15.8
	관계기업	63.5	12.1	42.5	13.4	12.1	11.4
업종	제조업	67.4	21.4	43.0	21.4	13.6	20.8
	비제조업	49.0	5.6	33.5	8.0	5.8	5.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6.1	3.1	39.7	13.4	13.9	3.9
	1백억원~5백억원미만	55.6	4.3	35.2	11.5	6.9	4.6
	5백억원~1천억원미만	52.4	8.5	29.0	14.7	8.2	10.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8.6	18.1	35.8	14.7	12.9	23.7
	2천억원~3천억원미만	66.1	26.1	38.4	18.3	10.7	25.9
	3천억원~5천억원미만	81.2	32.0	56.6	22.4	17.4	16.8
	5천억원~1조원미만	84.0	34.0	68.0	34.0	5.3	34.0
	1조원이상	64.3	64.3	64.3	64.3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66.0	26.6	42.7	21.2	12.5	22.2
	수출없음	54.2	3.4	35.7	10.9	8.5	7.4
종사자수	50명미만	59.9	1.3	41.7	13.5	11.9	5.0
	50~100명미만	47.2	8.7	28.5	11.3	8.2	6.5
	100~200명미만	51.3	12.1	32.1	15.5	7.2	13.9
	200~300명미만	65.0	25.9	34.8	15.3	17.4	24.1
	300~500명미만	59.8	23.1	37.7	22.9	13.3	20.4
	500~1,000명미만	80.6	32.7	53.6	22.3	14.2	27.4
	1,000명이상	71.5	12.1	61.3	12.3	0.0	13.4
업력	0~7년미만	55.0	17.4	34.5	10.4	14.3	7.3
	7~20년미만	56.2	10.4	38.0	19.5	10.6	10.7
	20~30년미만	57.8	20.1	35.4	13.0	11.1	21.9
	30~40년미만	68.6	19.5	43.7	16.3	8.8	22.0
	40~50년미만	66.7	12.4	46.5	14.1	6.8	13.6
	50년이상	73.0	21.3	46.7	12.5	14.6	8.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7.1	15.3	41.0	20.8	16.7	9.6
	진입4~5년차	57.2	13.0	32.0	9.9	8.0	17.4
	진입6~9년차	59.0	14.0	41.4	17.9	10.6	14.2
	진입10년차이상	78.2	24.4	55.4	24.2	7.2	18.4
매출유형	B2B	61.2	15.9	40.7	16.9	10.8	14.9
	B2C	15.9	0.0	8.1	8.1	0.0	0.0
	B2G	76.9	8.3	24.7	0.0	13.7	33.4
상장	상장	68.6	23.2	40.3	19.1	6.6	23.9
	비상장	57.0	12.1	38.9	15.0	12.1	11.4

## □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위탁 중견기업의 55.9%는 수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4.7%),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3.3%), 전담조직 구성/대응(25.9%)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57.3%는 수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교육/교류(36.1%),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34.6%), 전담조직 구성/대응(27.2%)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2-67]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 특성별 분석

- 수출기업의 63.8%, 내수기업의 48.1%가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을 진행 중으로 수출기업의 활동이 높게 나타남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직원 교육/교류를 각각 39.0%, 30.5%로 가장 많이 시행함
-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위탁기업과 동일하게 중견기업 진입연차가 높은 기업은 수탁기업과의 상생협력활동을 추진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5년 1년동안 B2C기업의 위탁기업과의 활동이 15.9%인 반면, 수탁기업(협력사)와의 활동은 51.9%로 높게 나타남

[표 2-97]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1,610개사)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	전담조직 구성/대응	관련 기구활동	공동 기술 개발	공동 공정개선 활동
전체		55.9	33.3	25.9	21.7	15.2	24.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7.3	34.6	27.2	22.5	15.9	24.8
	관계기업	48.7	26.7	19.7	18.1	11.8	22.8
업종	제조업	62.3	38.6	30.5	27.9	21.5	32.9
	비제조업	47.8	26.6	20.2	14.0	7.4	13.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1	29.0	15.8	5.8	11.9	7.6
	1백억원~5백억원미만	48.9	23.9	13.3	11.3	11.5	14.4
	5백억원~1천억원미만	52.8	31.9	29.7	19.8	8.1	21.0
	1천억원~2천억원미만	51.8	29.0	25.5	20.2	17.0	23.5
	2천억원~3천억원미만	57.7	33.9	26.7	26.8	13.3	28.7
	3천억원~5천억원미만	76.9	50.4	41.5	38.4	20.1	41.0
	5천억원~1조원미만	75.1	56.4	48.2	39.2	25.3	48.6
	1조원이상	75.9	46.8	35.4	64.6	51.9	51.9
수출여부	수출있음	63.8	38.9	33.2	30.2	23.7	33.9
	수출없음	48.1	27.9	18.8	13.4	6.9	15.2
종사자수	50명미만	45.7	28.4	17.4	11.1	7.6	12.4
	50~100명미만	47.5	16.4	9.2	4.2	17.0	11.7
	100~200명미만	45.7	27.0	18.4	17.2	11.3	21.1
	200~300명미만	67.2	45.0	40.0	34.1	21.6	33.8
	300~500명미만	62.0	33.8	29.2	29.1	14.6	31.0
	500~1,000명미만	70.8	49.9	42.6	33.5	23.2	37.2
	1,000명이상	69.1	37.9	35.6	34.5	21.5	34.6
업력	0~7년미만	56.5	31.3	16.2	13.1	13.6	20.7
	7~20년미만	52.3	30.2	23.6	18.6	14.4	18.0
	20~30년미만	49.5	30.5	24.9	22.3	10.0	26.9
	30~40년미만	66.6	41.6	32.0	27.8	22.0	30.7
	40~50년미만	54.0	35.9	26.9	23.7	13.5	26.9
	50년이상	70.5	36.0	34.6	26.8	24.2	33.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1.9	29.3	19.5	19.5	14.4	20.0
	진입4~5년차	53.3	30.9	24.0	20.2	16.1	24.7
	진입6~9년차	55.7	34.5	26.3	20.4	10.0	22.5
	진입10년차이상	65.0	40.5	35.9	28.4	20.6	30.9
매출유형	B2B	56.8	33.7	25.9	21.8	15.9	24.9
	B2C	51.9	32.7	25.9	24.0	11.7	22.8
	B2G	51.7	29.3	26.8	15.2	14.2	21.6
상장	상장	62.1	40.2	34.4	29.9	21.5	32.6
	비상장	30.3	30.3	22.2	18.2	12.5	20.9

[표 2-98]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1,610개사)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해외시장 개척 /동반진출	직원교육 /교류	설비/장비 공동사용	자금지원	상생 결제 시스템
전체		55.9	8.3	34.7	17.1	15.0	8.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7.3	8.8	36.1	18.2	15.8	9.0
	관계기업	48.7	5.9	28.0	11.8	11.0	6.1
업종	제조업	62.3	9.4	39.3	24.5	19.0	12.1
	비제조업	47.8	7.0	29.0	7.8	10.1	3.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1	2.2	24.1	8.5	5.5	2.7
	1백억원~5백억원미만	48.9	4.6	26.9	8.4	8.7	2.4
	5백억원~1천억원미만	52.8	2.4	28.8	13.6	11.5	4.8
	1천억원~2천억원미만	51.8	12.8	34.1	16.3	13.5	11.7
	2천억원~3천억원미만	57.7	11.4	35.0	20.5	15.5	14.3
	3천억원~5천억원미만	76.9	11.8	50.2	32.1	29.2	13.0
	5천억원~1조원미만	75.1	13.1	55.9	27.4	29.4	13.1
	1조원이상	75.9	11.4	64.6	51.9	45.6	11.4
수출여부	수출있음	63.8	13.1	39.0	26.3	19.7	13.2
	수출없음	48.1	3.7	30.5	8.1	10.4	3.8
종사자수	50명미만	45.7	1.8	23.4	7.3	7.8	2.7
	50~100명미만	47.5	8.7	29.5	12.7	4.2	3.3
	100~200명미만	45.7	3.9	25.9	12.9	10.4	5.9
	200~300명미만	67.2	16.2	45.2	20.6	20.4	12.1
	300~500명미만	62.0	10.9	39.9	22.6	15.7	14.6
	500~1,000명미만	70.8	13.8	45.4	28.7	30.6	14.8
	1,000명이상	69.1	11.0	55.0	25.9	25.2	9.9
업력	0~7년미만	56.5	11.0	43.7	9.5	26.2	2.2
	7~20년미만	52.3	6.0	32.8	14.5	10.4	5.7
	20~30년미만	49.5	8.9	27.8	13.8	14.0	11.1
	30~40년미만	66.6	11.0	37.0	24.0	16.4	13.4
	40~50년미만	54.0	10.5	35.1	20.3	17.7	9.0
	50년이상	70.5	5.5	50.1	25.9	21.3	8.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1.9	7.7	30.8	16.5	14.0	7.7
	진입4~5년차	53.3	9.8	27.6	12.2	12.7	9.2
	진입6~9년차	55.7	4.6	38.8	16.5	14.9	6.2
	진입10년차이상	65.0	10.7	47.1	27.3	20.4	10.7
매출유형	B2B	56.8	8.7	34.8	18.8	15.7	9.3
	B2C	51.9	6.3	33.4	7.4	11.4	4.6
	B2G	51.7	8.0	38.1	15.0	14.2	5.3
상장	상장	62.1	11.8	37.7	27.1	22.2	13.8
	비상장	30.3	6.8	33.5	12.7	11.9	6.2

## 7절 금융 및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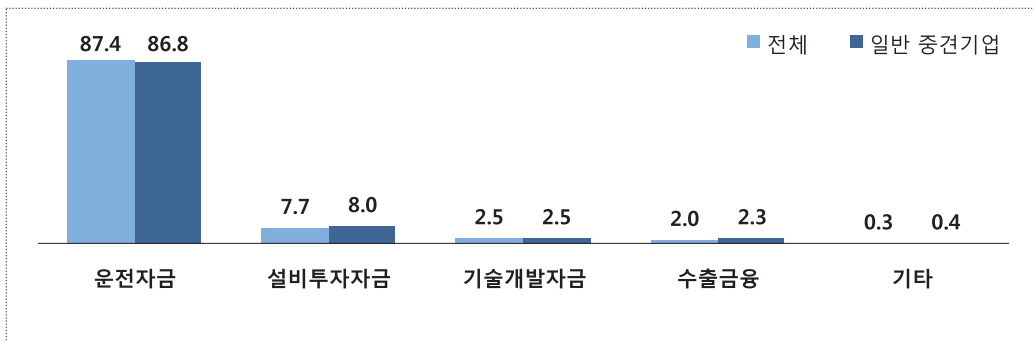
### 1. 자금조달

#### □ 자금조달 용도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7.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설비투자자금(7.7%), 기술개발자금(2.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6.8%), 설비투자자금(8.0%), 기술개발자금(2.5%) 순임

[그림 2-68] 주요 자금조달 용도

(단위: %)



#### 특성별 분석

- 운전자금 용도 자금 비중이 제조업 82.2%, 비제조업 91.7%로 양쪽 모두 가장 높았으나, 제조업은 설비투자자금(9.6%), 기술개발자금(4.1%), 수출금융(3.9%) 등의 비중이 비제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적으로 운전자금 용도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설비투자 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 비중이 높음
-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운전자금의 비중이 낮은 반면, 설비투자·기술개발·수출금융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비중이 크게 높았음

[표 2-99] 주요 자금조달 용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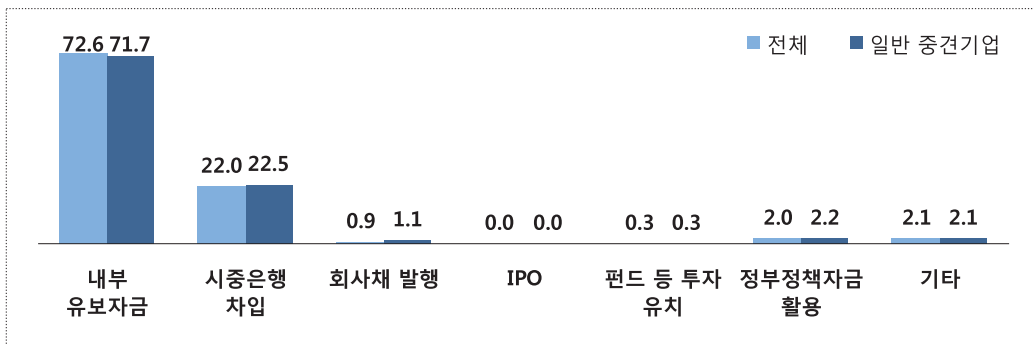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운전자금	설비투자 자금	기술개발 자금	수출금융	기타
전체		(2,979)	87.4	7.7	2.5	2.0	0.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86.8	8.0	2.5	2.3	0.4
	관계기업	(600)	90.0	6.8	2.4	0.8	0.0
업종	제조업	(1,331)	82.2	9.6	4.1	3.9	0.3
	비제조업	(1,648)	91.7	6.2	1.3	0.4	0.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91.9	5.0	2.0	0.1	1.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92.1	6.0	1.5	0.5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87.7	8.2	2.4	1.4	0.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84.6	8.1	3.5	3.4	0.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82.3	9.5	3.3	4.8	0.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83.2	9.5	3.5	3.4	0.4
	5천억원~1조원미만	(151)	79.4	14.3	3.0	3.1	0.2
	1조원이상	(57)	81.1	13.0	4.0	1.9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81.2	9.0	4.6	5.1	0.2
	수출없음	(1,808)	91.5	7.0	1.2	0.0	0.4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92.9	4.9	1.2	0.4	0.5
	50~100명미만	(470)	90.3	7.0	1.3	1.1	0.3
	100~200명미만	(543)	85.5	8.9	2.5	3.0	0.1
	200~300명미만	(317)	81.8	10.9	3.5	3.7	0.1
	300~500명미만	(322)	83.7	9.5	4.1	2.7	0.1
	500~1,000명미만	(305)	80.9	9.3	5.6	3.8	0.4
	1,000명이상	(160)	87.5	8.1	2.3	1.4	0.8
업력	0~7년미만	(364)	90.9	5.4	3.0	0.6	0.2
	7~20년미만	(1,229)	89.5	6.7	2.2	1.3	0.4
	20~30년미만	(576)	88.5	6.4	2.5	2.5	0.1
	30~40년미만	(351)	84.6	10.6	2.2	2.1	0.4
	40~50년미만	(270)	82.4	11.0	3.0	3.2	0.3
	50년이상	(189)	82.6	8.9	4.0	3.7	0.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91.2	5.7	2.2	0.9	0.0
	진입4~5년차	(1,042)	87.6	7.4	2.4	2.5	0.0
	진입6~9년차	(656)	86.8	8.7	2.1	2.0	0.3
	진입10년차이상	(391)	82.1	10.4	3.8	2.3	1.4
매출유형	B2B	(2,373)	86.8	7.9	2.6	2.4	0.2
	B2C	(490)	89.8	7.5	1.4	0.2	1.0
	B2G	(116)	89.9	4.9	5.0	0.2	0.0
상장	상장	(644)	79.9	10.6	5.0	4.1	0.4
	비상장	(2,335)	89.9	6.8	1.7	1.3	0.3

## □ 자금조달원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72.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시중은행 차입(22.0%), 정부정책자금 활용(2.0%)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71.7%), 시중은행 차입(22.5%), 정부정책자금 활용(2.2%) 순임

[그림 2-69]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단위: %)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의 71.7%, 관계기업의 76.4%가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시중은행 차입 및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업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음
- 매출유형별로 B2G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내부유보자금을 활용하는 반면, B2B 기업의 경우 71.9%만이 내부유보자금을 활용

[표 2-100]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단위 : %)

구분		사례 수	내부 유보자금	시중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	IPO	펀드 등 투자유치	정부정책 자금활용	기타
전체		(2,979)	72.6	22.0	0.9	0.0	0.3	2.0	2.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1.7	22.5	1.1	0.0	0.3	2.2	2.1
	관계기업	(600)	76.4	19.8	0.3	0.0	0.1	1.2	2.1
업종	제조업	(1,331)	67.3	26.0	1.5	0.1	0.1	3.4	1.8
	비제조업	(1,648)	76.9	18.8	0.5	0.0	0.5	0.9	2.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77.2	13.4	0.2	0.0	0.9	1.6	6.9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82.3	15.2	0.2	0.0	0.2	0.4	1.7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73.7	22.0	0.6	0.1	0.6	0.9	2.0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66.7	29.1	0.9	0.1	0.3	2.0	0.9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62.3	28.3	2.0	0.0	0.0	5.7	1.6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65.4	28.8	1.3	0.0	0.0	3.6	1.0
	5천억원~1조원미만	(151)	59.8	32.1	3.5	0.0	0.0	4.1	0.5
	1조원이상	(57)	68.7	21.5	6.5	0.0	0.0	3.3	0.1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67.4	25.5	1.6	0.1	0.2	3.6	1.6
	수출없음	(1,808)	76.0	19.7	0.5	0.0	0.4	1.0	2.4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76.8	17.1	0.3	0.0	0.5	0.9	4.4
	50~100명미만	(470)	74.8	22.6	0.7	0.0	0.0	0.6	1.3
	100~200명미만	(543)	69.5	26.1	0.7	0.1	0.4	1.7	1.5
	200~300명미만	(317)	67.1	25.9	1.2	0.1	0.6	4.4	0.7
	300~500명미만	(322)	70.1	23.9	1.0	0.0	0.3	3.4	1.3
	500~1,000명미만	(305)	69.0	24.4	1.9	0.0	0.0	3.7	1.0
	1,000명이상	(160)	77.1	16.9	3.1	0.0	0.0	2.2	0.7
업력	0~7년미만	(364)	77.7	19.1	0.2	0.0	0.0	1.1	1.9
	7~20년미만	(1,229)	72.7	20.5	1.2	0.0	0.6	1.5	3.5
	20~30년미만	(576)	73.5	23.7	0.4	0.0	0.0	1.7	0.8
	30~40년미만	(351)	71.2	22.7	0.7	0.1	0.4	2.9	1.9
	40~50년미만	(270)	71.4	24.7	1.2	0.0	0.0	2.4	0.4
	50년이상	(189)	69.4	22.9	2.0	0.0	0.0	4.3	1.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78.5	15.0	0.6	0.0	0.8	1.3	3.7
	진입4~5년차	(1,042)	69.8	25.2	0.7	0.1	0.1	2.1	1.9
	진입6~9년차	(656)	73.6	22.1	0.7	0.0	0.3	2.2	1.1
	진입10년차이상	(391)	68.7	25.0	2.3	0.0	0.0	2.6	1.5
매출유형	B2B	(2,373)	71.9	22.1	1.0	0.0	0.3	2.1	2.4
	B2C	(490)	73.7	22.6	0.8	0.0	0.2	1.6	1.1
	B2G	(116)	81.7	17.4	0.0	0.0	0.0	0.6	0.2
상장	상장	(644)	65.6	25.5	2.6	0.1	0.8	4.1	1.3
	비상장	(2,335)	74.9	20.9	0.4	0.0	0.1	1.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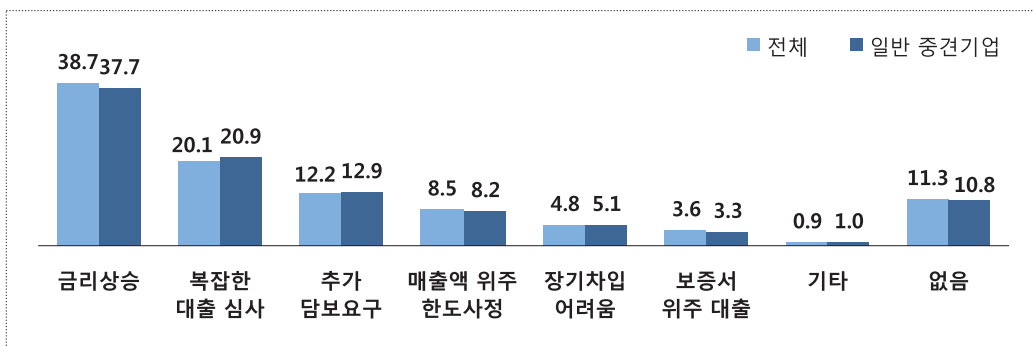


## □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으로는 금리상승(38.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복잡한 대출심사(20.1%), 추가 담보요구(12.2%)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은 금리상승(37.7%), 복잡한 대출심사(20.9%), 추가 담보요구(12.9%) 순임

[그림 2-70]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37.7%)과 관계기업(42.4%) 모두 금리상승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함
  - 일반 중견기업에 비해 관계기업은 매출액 위주 한도사정(9.4%)과 보증서 위주 대출(4.8%)를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수출여부에 상관없이 금리상승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견기업 진입연차가 짧을수록 복잡한 대출심사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진입 10년차 이상 중견기업은 타 기업군에 비해 금리상승(47.4%)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01]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 수	금리상승	복잡한 대출 심사	추가 담보요구	매출액 위주 한도사정
전체		(2,979)	38.7	20.1	12.2	8.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7.7	20.9	12.9	8.2
	관계기업	(600)	42.4	17.1	9.1	9.4
업종	제조업	(1,331)	44.1	18.7	11.4	7.2
	비제조업	(1,648)	34.2	21.3	12.8	9.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34.6	26.1	11.0	6.4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33.7	20.4	11.5	11.6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43.2	16.1	12.7	7.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42.3	20.4	12.2	7.8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40.2	20.9	17.4	7.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42.2	15.4	13.2	4.4
	5천억원~1조원미만	(151)	42.6	18.7	9.0	8.8
	1조원이상	(57)	44.4	17.0	0.0	7.4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40.7	17.9	12.8	9.1
	수출없음	(1,808)	37.3	21.6	11.8	8.0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30.7	24.4	11.3	10.3
	50~100명미만	(470)	40.8	23.5	11.8	8.4
	100~200명미만	(543)	40.1	17.0	14.6	8.0
	200~300명미만	(317)	46.5	18.0	11.6	9.4
	300~500명미만	(322)	43.4	13.7	15.1	6.7
	500~1,000명미만	(305)	42.3	18.4	10.5	5.0
	1,000명이상	(160)	38.2	18.3	8.1	8.5
업력	0~7년미만	(364)	28.1	25.9	21.0	7.9
	7~20년미만	(1,229)	34.0	21.9	11.4	10.4
	20~30년미만	(576)	38.8	22.0	14.0	8.9
	30~40년미만	(351)	44.8	17.5	8.6	6.3
	40~50년미만	(270)	51.4	10.0	12.0	6.4
	50년이상	(189)	42.6	20.7	10.0	4.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32.5	24.1	13.7	11.4
	진입4~5년차	(1,042)	39.2	21.7	11.9	7.2
	진입6~9년차	(656)	38.3	18.2	11.3	8.2
	진입10년차이상	(391)	47.4	13.2	11.8	7.2
매출유형	B2B	(2,373)	39.3	19.8	11.6	8.9
	B2C	(490)	38.4	20.6	12.9	6.6
	B2G	(116)	25.7	25.8	19.8	8.7
상장	상장	(644)	47.4	18.4	6.4	8.1
	비상장	(2,335)	35.8	20.7	14.0	8.6

[표 2-102]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 수	장기차입 어려움	보증서 위주 대출	기타	없음
전체		(2,979)	4.8	3.6	0.9	11.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5.1	3.3	1.0	10.8
	관계기업	(600)	3.4	4.8	0.4	13.3
업종	제조업	(1,331)	5.9	2.4	0.6	9.6
	비제조업	(1,648)	3.9	4.5	1.1	12.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5.2	3.6	1.7	11.5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2.0	5.5	0.6	14.7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4.8	3.4	0.7	11.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5.4	2.6	0.4	9.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5.5	0.7	0.0	7.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10.0	2.6	1.7	10.6
	5천억원~1조원미만	(151)	4.4	5.5	1.5	9.6
	1조원이상	(57)	14.1	0.0	6.7	10.4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7.1	2.8	1.0	8.6
	수출없음	(1,808)	3.3	4.1	0.8	13.1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3.7	6.6	0.6	12.3
	50~100명미만	(470)	2.8	0.6	2.1	10.1
	100~200명미만	(543)	4.2	3.4	0.8	12.0
	200~300명미만	(317)	4.8	2.0	0.0	7.7
	300~500명미만	(322)	5.3	2.3	0.7	12.8
	500~1,000명미만	(305)	10.7	1.5	0.7	10.9
	1,000명이상	(160)	6.5	6.1	2.1	12.1
업력	0~7년미만	(364)	3.9	5.6	1.0	6.6
	7~20년미만	(1,229)	4.6	4.2	0.7	12.9
	20~30년미만	(576)	2.5	4.3	0.9	8.6
	30~40년미만	(351)	7.1	3.6	1.8	10.3
	40~50년미만	(270)	5.3	1.2	0.0	13.6
	50년이상	(189)	8.0	0.0	1.6	13.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3.5	3.1	0.6	11.1
	진입4~5년차	(1,042)	4.8	3.7	0.4	11.0
	진입6~9년차	(656)	4.0	4.2	1.4	14.3
	진입10년차이상	(391)	7.8	3.1	1.6	7.9
매출유형	B2B	(2,373)	5.3	3.3	0.7	11.1
	B2C	(490)	2.1	5.3	1.5	12.6
	B2G	(116)	5.3	1.8	1.8	11.1
상장	상장	(644)	8.2	2.0	1.1	8.4
	비상장	(2,335)	3.7	4.1	0.8	12.2

[표 2-103]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구분		사례 수	금리상승	복잡한 대출 심사	추가 담보요구	장기차입 어려움
전체		(2,979)	47.3	35.1	29.2	15.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6.7	34.8	29.7	17.3
	관계기업	(600)	49.8	36.5	27.1	10.1
업종	제조업	(1,331)	53.4	34.5	29.1	18.4
	비제조업	(1,648)	42.4	35.6	29.2	13.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42.2	42.9	25.6	8.8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40.2	34.5	26.9	14.5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54.6	29.6	29.8	12.9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51.4	32.9	32.8	17.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49.9	39.6	36.9	22.8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49.4	27.8	35.2	20.8
	5천억원~1조원미만	(151)	60.1	44.4	19.5	12.8
	1조원이상	(57)	48.1	27.4	0.0	37.8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51.0	33.6	30.3	19.8
	수출없음	(1,808)	44.9	36.1	28.4	13.3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38.8	37.9	29.8	12.5
	50~100명미만	(470)	49.1	36.9	30.4	11.1
	100~200명미만	(543)	50.7	33.2	33.4	15.7
	200~300명미만	(317)	54.1	37.7	26.4	19.9
	300~500명미만	(322)	50.5	24.8	31.0	22.1
	500~1,000명미만	(305)	52.5	36.7	23.9	20.9
	1,000명이상	(160)	46.4	33.8	19.2	17.6
업력	0~7년미만	(364)	34.7	44.5	44.0	14.1
	7~20년미만	(1,229)	41.7	37.4	27.6	15.1
	20~30년미만	(576)	49.1	35.5	31.3	13.5
	30~40년미만	(351)	54.6	33.0	27.3	19.0
	40~50년미만	(270)	59.1	27.3	27.9	15.3
	50년이상	(189)	53.6	28.2	23.4	22.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39.5	42.4	25.8	12.9
	진입4~5년차	(1,042)	46.6	36.7	31.5	15.9
	진입6~9년차	(656)	50.9	31.3	29.7	14.2
	진입10년차이상	(391)	55.8	25.7	28.1	22.8
매출유형	B2B	(2,373)	47.9	34.9	28.8	17.1
	B2C	(490)	47.0	36.2	29.8	9.6
	B2G	(116)	37.7	35.2	33.0	15.6
상장	상장	(644)	57.2	31.5	25.4	21.0
	비상장	(2,335)	44.1	36.3	30.3	14.2

[표 2-104]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 수	매출액 위주 한도사정	보증서 위주 대출	기타	없음
전체		(2,979)	15.5	8.4	1.3	11.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5.1	8.2	1.4	10.8
	관계기업	(600)	17.4	9.4	0.9	13.3
업종	제조업	(1,331)	14.9	8.1	1.1	9.6
	비제조업	(1,648)	16.1	8.7	1.4	12.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15.0	7.2	1.7	11.5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18.5	10.6	0.6	14.7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15.7	6.9	1.4	11.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16.2	8.2	1.5	9.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9.8	6.2	0.0	7.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10.7	7.9	2.6	10.6
	5천억원~1조원미만	(151)	15.2	8.4	1.5	9.6
	1조원이상	(57)	20.7	7.4	6.7	10.4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15.9	9.5	1.6	8.6
	수출없음	(1,808)	15.3	7.7	1.0	13.1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17.4	11.3	0.6	12.3
	50~100명미만	(470)	19.4	7.1	2.1	10.1
	100~200명미만	(543)	13.9	6.5	1.2	12.0
	200~300명미만	(317)	15.9	7.1	2.1	7.7
	300~500명미만	(322)	12.0	9.2	1.4	12.8
	500~1,000명미만	(305)	11.7	4.4	0.7	10.9
	1,000명이상	(160)	13.5	11.5	2.1	12.1
업력	0~7년미만	(364)	11.9	10.7	1.0	6.6
	7~20년미만	(1,229)	17.9	9.2	1.2	12.9
	20~30년미만	(576)	15.7	9.1	1.7	8.6
	30~40년미만	(351)	12.6	7.5	1.8	10.3
	40~50년미만	(270)	13.2	6.6	0.0	13.6
	50년이상	(189)	14.3	4.1	1.6	13.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19.0	8.5	0.6	11.1
	진입4~5년차	(1,042)	15.6	8.9	1.0	11.0
	진입6~9년차	(656)	12.9	8.0	2.1	14.3
	진입10년차이상	(391)	14.0	7.7	1.6	7.9
매출유형	B2B	(2,373)	16.0	8.1	1.2	11.1
	B2C	(490)	13.5	10.2	1.5	12.6
	B2G	(116)	14.9	7.3	1.8	11.1
상장	상장	(644)	15.6	5.2	2.0	8.4
	비상장	(2,335)	15.5	9.4	1.0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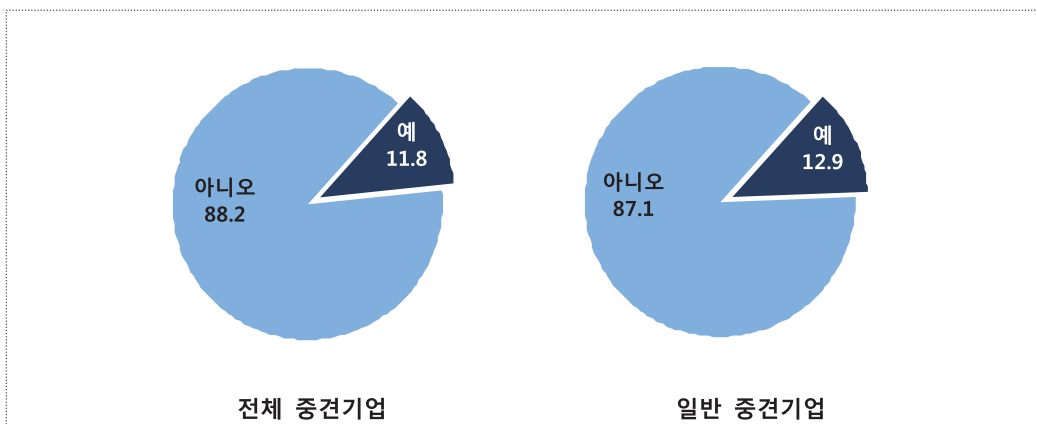
## 2. 정책자금의 활용

### □ 정책자금 활용 여부

- 중견기업의 11.8%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중견기업은 12.9%로 나타남

[그림 2-71] 정책자금 활용 여부

(단위: %)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18.7%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데 반해 비제조업은 6.3%만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비제조업의 활용 비중이 크게 낮음
-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갈수록 정책자금 활용률이 높음
- 수출기업의 21.8%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내수기업은 5.4%만이 정책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수별로는 500~1,000명 기업의 26.6%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임

[표 2-105] 정책자금 활용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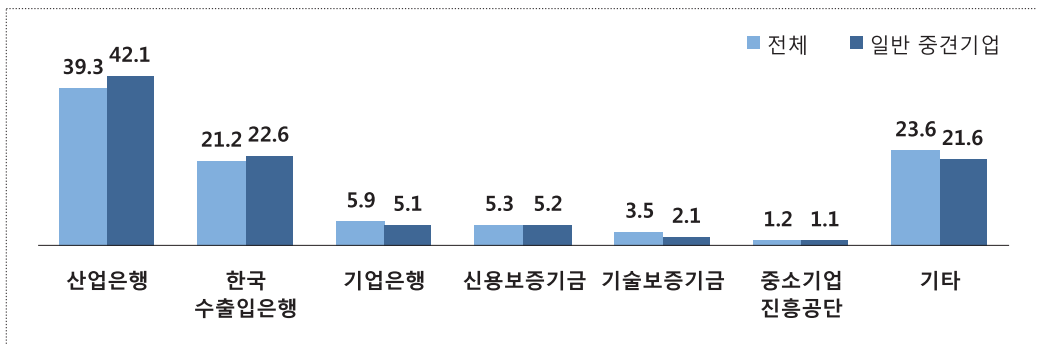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정책자금 활용	정책자금 미활용
전체		(2,979)	11.8	88.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2.9	87.1
	관계기업	(600)	7.6	92.4
업종	제조업	(1,331)	18.7	81.3
	비제조업	(1,648)	6.3	93.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5.9	94.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3.6	96.4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6.6	93.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15.8	84.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22.0	78.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23.7	76.3
	5천억원~1조원미만	(151)	24.2	75.8
	1조원이상	(57)	31.1	68.9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21.8	78.2
	수출없음	(1,808)	5.4	94.6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3.8	96.2
	50~100명미만	(470)	5.6	94.4
	100~200명미만	(543)	12.5	87.5
	200~300명미만	(317)	22.0	78.0
	300~500명미만	(322)	14.8	85.2
	500~1,000명미만	(305)	26.6	73.4
	1,000명이상	(160)	17.0	83.0
업력	0~7년미만	(364)	9.2	90.8
	7~20년미만	(1,229)	7.9	92.1
	20~30년미만	(576)	11.7	88.3
	30~40년미만	(351)	14.1	85.9
	40~50년미만	(270)	16.6	83.4
	50년이상	(189)	25.5	74.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8.3	91.7
	진입4~5년차	(1,042)	12.2	87.8
	진입6~9년차	(656)	10.2	89.8
	진입10년차이상	(391)	19.1	80.9
매출유형	B2B	(2,373)	12.7	87.3
	B2C	(490)	9.3	90.7
	B2G	(116)	5.3	94.7
상장	상장	(644)	24.5	75.5
	비상장	(2,335)	7.8	92.2

## □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 중견기업의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은 산업은행(3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한국수출입은행(21.2%), 기업은행(5.9%)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정책자금 기관별 출처는 산업은행(42.1%), 한국수출입은행(22.6%), 신용보증기금(5.2%) 순임

[그림 2-72]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단위: %, 정책자금 활용 기업)



### 특성별 분석

- 산업은행 활용비중은 일반 중견기업 42.1%, 관계기업 20.3%로 일반 중견기업이 관계기업에 비해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 1백억원 미만의 기업은 기술보증기금(33.3%), 1백억원~5백억원의 기업은 산업은행(57.6%), 1조원 이상의 기업은 신용보증기금(23.8%) 활용 비중이 다른 기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자금 활용 비중이 매출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모든 매출규모에서 산업은행 조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매출액 1백억원 미만 제외)
- 산업은행 활용 비중이 상장기업은 44.6%, 비상장기업은 34.0%로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산업은행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표 2-106]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단위 : %, 정책자금 활용 기업 353개사)

구분		산업은행	한국수출 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타
전체		39.3	21.2	5.9	5.3	3.5	1.2	23.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2.1	22.6	5.1	5.2	2.1	1.1	21.6
	관계기업	20.3	11.7	10.7	5.9	12.8	1.5	37.1
업종	제조업	39.2	25.5	6.8	2.8	2.3	1.7	21.8
	비제조업	39.7	11.0	3.6	11.4	6.4	0.0	28.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0.0	3.1	33.3	10.7	52.9
	1백억원~5백억원미만	57.6	8.5	15.3	8.5	1.7	0.0	8.5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1	17.6	0.0	1.4	10.9	0.0	36.0
	1천억원~2천억원미만	41.6	20.8	4.8	10.5	1.5	1.2	19.6
	2천억원~3천억원미만	40.6	24.9	10.0	2.0	0.1	0.7	21.6
	3천억원~5천억원미만	42.6	30.6	6.7	0.4	0.4	0.2	19.1
	5천억원~1조원미만	35.6	23.6	0.5	0.0	0.0	0.0	40.3
	1조원이상	44.6	28.2	0.0	23.8	0.0	0.0	3.4
수출여부	수출있음	39.3	28.0	6.0	4.6	0.9	1.6	19.5
	수출없음	39.3	3.4	5.5	7.1	10.5	0.0	34.3
종사자수	50명미만	5.8	0.3	4.6	26.7	24.9	7.5	30.2
	50~100명미만	21.1	19.0	10.4	1.2	9.5	0.0	38.7
	100~200명미만	35.1	31.4	7.7	7.3	1.1	0.0	17.5
	200~300명미만	45.9	24.8	1.3	1.2	0.9	0.0	25.8
	300~500명미만	37.6	28.2	6.1	0.0	0.2	1.1	26.9
	500~1,000명미만	49.6	16.3	9.1	0.1	0.3	1.4	23.1
	1,000명이상	63.4	16.4	0.2	13.9	0.0	0.0	6.1
업력	0~7년미만	13.8	26.8	1.9	0.0	0.0	9.5	48.0
	7~20년미만	25.8	23.3	7.0	10.3	9.1	0.8	23.6
	20~30년미만	55.0	20.2	3.4	6.3	0.0	0.0	15.2
	30~40년미만	28.3	17.0	18.4	4.4	2.1	1.8	28.1
	40~50년미만	49.3	21.3	1.2	3.5	0.0	0.0	24.7
	50년이상	53.3	21.2	0.0	0.0	4.7	1.0	19.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26.2	14.6	3.2	14.3	6.6	5.8	29.2
	진입4~5년차	29.0	25.8	9.9	4.1	4.1	0.0	27.0
	진입6~9년차	45.1	25.6	4.2	1.2	3.7	0.7	19.4
	진입10년차이상	59.2	15.2	2.8	4.4	0.3	0.1	17.9
매출유형	B2B	38.1	22.9	6.0	5.0	3.9	1.4	22.7
	B2C	47.8	8.7	5.5	4.1	1.2	0.0	32.7
	B2G	35.3	30.7	3.4	30.6	0.0	0.0	0.0
상장	상장	44.6	27.6	4.6	2.6	0.3	0.4	20.1
	비상장	34.0	14.8	7.2	8.1	6.8	2.0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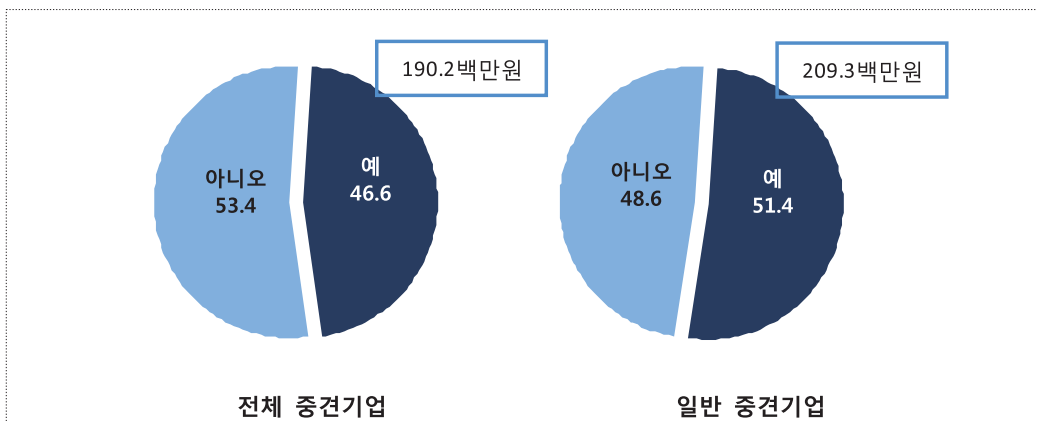
## 8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 □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 중견기업의 46.6%는 사회공헌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중견기업은 51.4%로 나타남

[그림 2-73]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51.4%, 관계기업의 27.6%가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여 일반 중견기업이 관계기업의 약 1.8배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매출액 1백억원 미만 기업은 20.2%만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조원 이상 기업은 93.3%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 매출규모와 사회공헌활동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유형으로는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은 45.6%,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는 53.0%,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는 39.5%로 응답하여 기업 유형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하는 비율이 다름

[표 2-107]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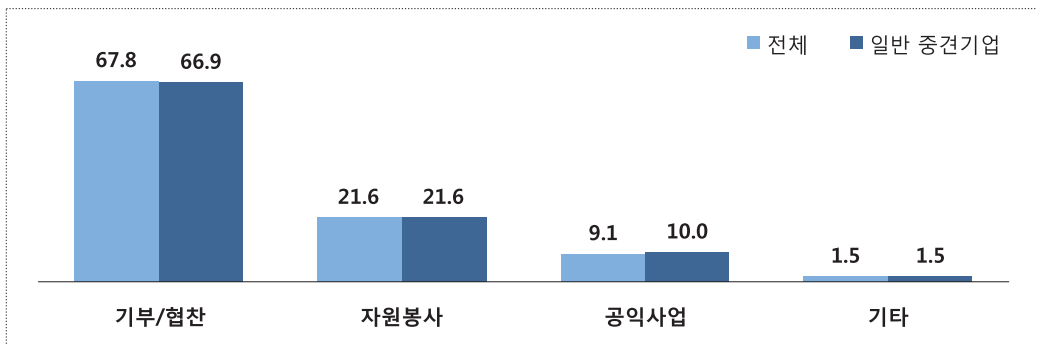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수행		미수행
				평균금액	
전체		(2,979)	46.6	190.2	53.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51.4	209.3	48.6
	관계기업	(600)	27.6	56.0	72.4
업종	제조업	(1,331)	53.9	208.6	46.1
	비제조업	(1,648)	40.7	170.3	59.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20.2	18.7	79.8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32.4	43.3	67.6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43.4	63.0	56.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57.3	173.7	42.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63.1	128.9	36.9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65.5	403.1	34.5
	5천억원~1조원미만	(151)	81.1	523.1	18.9
	1조원이상	(57)	93.3	685.6	6.7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57.3	227.7	42.7
	수출없음	(1,808)	39.7	155.8	60.3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22.6	119.3	77.4
	50~100명미만	(470)	39.2	47.1	60.8
	100~200명미만	(543)	48.3	75.4	51.7
	200~300명미만	(317)	56.1	169.1	43.9
	300~500명미만	(322)	66.1	211.0	33.9
	500~1,000명미만	(305)	75.5	316.5	24.5
	1,000명이상	(160)	78.6	547.6	21.4
업력	0~7년미만	(364)	36.9	150.3	63.1
	7~20년미만	(1229)	36.9	149.9	63.1
	20~30년미만	(576)	51.1	98.9	48.9
	30~40년미만	(351)	50.6	220.0	49.4
	40~50년미만	(270)	64.5	388.2	35.5
	50년이상	(189)	62.3	167.9	37.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34.2	83.7	65.8
	진입4~5년차	(1042)	42.5	162.9	57.5
	진입6~9년차	(656)	49.6	160.2	50.4
	진입10년차이상	(391)	71.1	345.0	28.9
매출유형	B2B	(2,373)	45.6	154.4	54.4
	B2C	(490)	53.0	361.3	47.0
	B2G	(116)	39.5	137.4	60.5
상장	상장	(644)	69.6	302.4	30.4
	비상장	(2,335)	39.2	127.7	60.8

## □ 사회공헌활동 유형

-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으로는 기부/협찬(67.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원봉사(21.6%), 공익사업(9.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은 기부/협찬(66.9%), 자원봉사(21.6%), 공익사업(10.0%) 순임

[그림 2-74]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단위 : %, 사회공헌활동기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 비제조업 상관없이 기부/협찬, 자원봉사활동, 공익사업 순으로 나타나 기부와 협찬 활동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공익사업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표 2-108]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단위 : %, 사회공헌활동기업 1,38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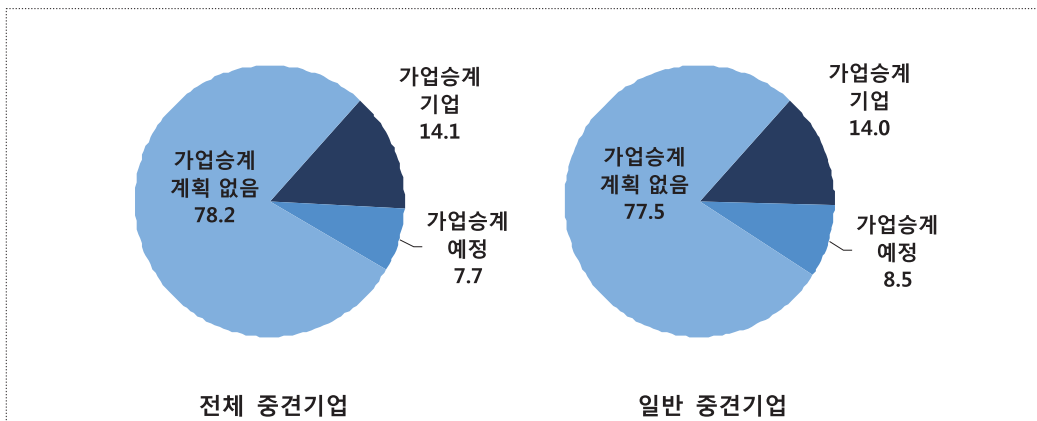
구분		기부/협찬	자원봉사	공익사업	기타
전체		67.8	21.6	9.1	1.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6.9	21.6	10.0	1.5
	관계기업	74.0	21.6	2.3	2.2
업종	제조업	68.0	21.6	8.6	1.8
	비제조업	67.5	21.6	9.6	1.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82.9	12.6	4.5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63.6	27.6	7.6	1.3
	5백억원~1천억원미만	75.2	16.6	7.4	0.8
	1천억원~2천억원미만	70.6	17.7	10.1	1.6
	2천억원~3천억원미만	71.9	23.3	4.3	0.6
	3천억원~5천억원미만	61.9	21.8	13.2	3.1
	5천억원~1조원미만	61.1	21.5	14.9	2.5
	1조원이상	43.0	36.1	16.5	4.4
수출여부	수출있음	69.3	19.6	9.5	1.6
	수출없음	66.3	23.5	8.7	1.5
종사자수	50명미만	74.0	16.0	7.2	2.9
	50~100명미만	77.1	14.8	8.0	0.0
	100~200명미만	67.7	26.1	5.5	0.7
	200~300명미만	64.8	21.6	13.1	0.5
	300~500명미만	65.9	23.8	8.3	1.9
	500~1,000명미만	64.0	22.7	10.9	2.4
	1,000명이상	58.9	25.2	13.2	2.8
업력	0~7년미만	76.1	18.4	3.4	2.1
	7~20년미만	62.6	27.7	7.3	2.3
	20~30년미만	72.7	19.5	7.3	0.5
	30~40년미만	71.2	16.5	12.0	0.2
	40~50년미만	63.8	21.1	13.8	1.3
	50년이상	70.2	16.2	10.0	3.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5.5	26.5	7.4	0.6
	진입4~5년차	71.3	18.6	9.3	0.7
	진입6~9년차	67.7	22.9	6.8	2.6
	진입10년차이상	64.4	20.8	12.4	2.3
매출유형	B2B	66.7	23.8	8.0	1.5
	B2C	70.1	14.0	13.9	1.9
	B2G	79.7	13.9	6.3	0.0
상장	상장	65.1	22.8	11.0	1.1
	비상장	69.3	20.9	8.0	1.8

## □ 가업승계

- 중견기업의 78.2%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1%는 가업승계 기업, 7.7%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77.5%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0%는 가업승계 기업, 8.5%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5] 가업승계 도입 여부

(단위: %)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19.2%는 이미 가업승계기업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10.1%만이 가업승계기업으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또한, 가업승계예정인 기업도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수출기업의 경우 가업승계기업 및 예정기업이 전체의 약 30%이며, 내수기업은 15%로 약 2배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생기업에서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가업승계기업이 많으며, 가업승계 예정 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력이 0~7년 미만인 기업은 가업승계기업이 3.5%인 반면, 50년 이상인 기업은 36.3%로 신생기업보다 약 10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의 영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업승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임

[표 2-109] 가업승계 도입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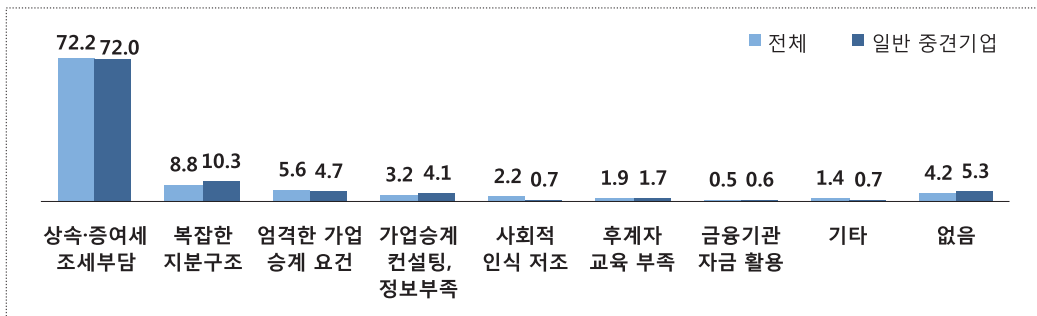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업승계기업	가업승계예정	가업승계계획없음
전체		(2,979)	14.1	7.7	78.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4.0	8.5	77.5
	관계기업	(600)	14.6	4.7	80.8
업종	제조업	(1,331)	19.2	9.9	70.9
	비제조업	(1,648)	10.1	5.9	84.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5)	6.3	0.7	93.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8.2	2.1	89.8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14.5	8.8	76.8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19.7	10.9	69.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3)	23.5	13.1	63.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35)	19.1	17.0	63.8
	5천억원~1조원미만	(151)	19.3	18.4	62.4
	1조원이상	(57)	13.3	3.7	83.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1)	17.6	11.7	70.6
	수출없음	(1,808)	11.9	5.1	83.0
종사자수	50명미만	(862)	9.1	2.9	87.9
	50~100명미만	(470)	7.6	7.8	84.5
	100~200명미만	(543)	15.9	7.1	77.0
	200~300명미만	(317)	17.9	11.7	70.4
	300~500명미만	(322)	19.8	9.9	70.3
	500~1,000명미만	(305)	25.9	14.3	59.9
	1,000명이상	(160)	13.2	10.0	76.8
업력	0~7년미만	(364)	3.5	2.2	94.3
	7~20년미만	(1,229)	5.7	5.7	88.7
	20~30년미만	(576)	12.2	5.5	82.3
	30~40년미만	(351)	25.3	12.6	62.1
	40~50년미만	(270)	27.1	11.4	61.5
	50년이상	(189)	36.3	15.6	48.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90)	7.5	5.9	86.6
	진입4~5년차	(1,042)	15.1	9.1	75.8
	진입6~9년차	(656)	13.3	5.6	81.1
	진입10년차이상	(391)	23.5	10.3	66.2
매출유형	B2B	(2,373)	14.8	7.5	77.7
	B2C	(490)	11.1	7.5	81.5
	B2G	(116)	14.5	12.8	72.7
상장	상장	(644)	24.8	14.1	61.1
	비상장	(2,335)	10.7	5.6	83.6

## □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2.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복잡한 지분구조(8.8%),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5.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2.0%), 복잡한 지분구조(10.3%), 엄격한 기업 승계 요건(4.7%)순임

[그림 2-76]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단위: %, 가업승계기업)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77.0%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64.8%만이 상속/증여세 조세부담을 응답하여 제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비제조업은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7.8%), 사회적 인식저조(5.6%), 후계자 교육부족(3.4%) 등 상대적으로 다른 요건들을 애로사항으로 선택한 비중이 높음
- 업력별로는 5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이 복잡한 지분구조(18.0%)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B2B기업과 B2C기업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이 각각 71.8%, 78.5%로 제일 높은 데 비해 B2G기업은 복잡한 지분구조(40.7%)에 대한 애로사항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높게 도출되어 매출유형과 주 거래처에 따라 다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됨



[표 2-110]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가업승계기업 421개사)

구분		상속·증여세 조세부담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
전체		72.2	8.8	5.6	3.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2.0	10.3	4.7	4.1
	관계기업	73.0	3.0	8.9	0.0
업종	제조업	77.0	9.0	4.2	3.6
	비제조업	64.8	8.5	7.8	2.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3.3	10.6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55.0	6.8	8.7	6.8
	5백억원~1천억원미만	81.1	9.3	4.6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77.9	3.8	5.0	5.7
	2천억원~3천억원미만	76.1	11.9	9.1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60.9	19.6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77.2	7.6	7.6	7.6
	1조원이상	10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81.7	7.7	2.9	2.1
	수출없음	63.1	9.9	8.2	4.3
종사자수	50명미만	62.1	6.3	5.9	9.0
	50~100명미만	70.3	6.3	23.4	0.0
	100~200명미만	74.4	5.6	5.3	0.0
	200~300명미만	73.6	16.1	0.0	0.0
	300~500명미만	87.1	3.6	6.0	3.3
	500~1,000명미만	60.1	17.3	2.7	5.6
	1,000명이상	100.0	0.0	0.0	0.0
업력	0~7년미만	100.0	0.0	0.0	0.0
	7~20년미만	69.7	3.3	5.2	10.3
	20~30년미만	61.5	13.0	11.6	0.0
	30~40년미만	78.6	6.7	9.2	0.0
	40~50년미만	76.9	5.2	2.2	0.0
	50년이상	67.4	18.0	0.0	8.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4.5	13.2	7.8	0.0
	진입4~5년차	74.9	5.5	7.2	1.3
	진입6~9년차	75.9	7.8	3.9	5.3
	진입10년차이상	68.5	12.5	3.5	6.0
매출유형	B2B	71.8	8.0	6.7	3.3
	B2C	78.5	4.2	0.0	4.0
	B2G	59.3	40.7	0.0	0.0
상장	상장	82.9	6.4	0.8	3.6
	비상장	64.2	10.6	9.2	2.9

[표 2-111]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가업승계기업 421개사)

구분		사회적 인식저조	후계자 교육부족	금융기관 자금활용	기타	없음
전체		2.2	1.9	0.5	1.4	4.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0.7	1.7	0.6	0.7	5.3
	관계기업	8.2	2.8	0.0	4.1	0.0
업종	제조업	0.0	1.0	0.8	0.0	4.5
	비제조업	5.6	3.4	0.0	3.5	3.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0.0	0.0	16.1
	1백억원~5백억원미만	10.0	7.8	0.0	5.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0.0	4.9	0.0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1.9	0.0	1.9	1.9	1.9
	2천억원~3천억원미만	0.0	0.0	0.0	0.0	2.9
	3천억원~5천억원미만	0.0	0.0	0.0	0.0	19.6
	5천억원~1조원미만	0.0	0.0	0.0	0.0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0.0	1.2	0.0	0.0	4.4
	수출없음	4.3	2.6	1.0	2.7	3.9
종사자수	50명미만	4.6	7.2	0.0	0.0	5.1
	50~100명미만	0.0	0.0	0.0	0.0	0.0
	100~200명미만	6.7	2.9	0.0	2.5	2.5
	200~300명미만	0.0	0.0	0.0	6.3	4.1
	300~500명미만	0.0	0.0	0.0	0.0	0.0
	500~1,000명미만	0.0	0.0	2.7	0.0	11.6
	1,000명이상	0.0	0.0	0.0	0.0	0.0
업력	0~7년미만	0.0	0.0	0.0	0.0	0.0
	7~20년미만	0.0	8.2	0.0	0.0	3.3
	20~30년미만	4.9	0.0	2.9	0.0	6.1
	30~40년미만	5.6	0.0	0.0	0.0	0.0
	40~50년미만	0.0	2.7	0.0	3.8	9.2
	50년이상	0.0	0.0	0.0	2.9	3.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0.6	0.0	3.9	0.0	0.0
	진입4~5년차	2.2	0.0	0.0	3.5	5.4
	진입6~9년차	0.0	2.7	0.0	0.0	4.3
	진입10년차이상	0.0	5.2	0.0	0.0	4.2
매출유형	B2B	1.6	2.3	0.6	0.6	5.0
	B2C	6.6	0.0	0.0	6.6	0.0
	B2G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0.0	0.0	0.0	1.2	5.1
	비상장	3.9	3.4	0.9	1.5	3.5

[표 2-112]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가업승계기업 421개사, 중복응답)

구분		상속·종여세 조세부담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
전체		81.2	30.4	25.6	16.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0.7	28.6	27.3	18.6
	관계기업	82.9	37.0	19.3	9.4
업종	제조업	82.7	32.9	23.3	16.7
	비제조업	78.8	26.5	29.2	16.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3.3	42.8	10.6	19.9
	1백억원~5백억원미만	64.9	26.8	23.3	26.2
	5백억원~1천억원미만	90.4	43.2	23.8	9.4
	1천억원~2천억원미만	86.7	23.3	34.6	11.4
	2천억원~3천억원미만	85.2	38.3	38.5	14.5
	3천억원~5천억원미만	70.6	33.7	0.0	19.0
	5천억원~1조원미만	92.4	15.2	25.7	18.1
	1조원이상	100.0	0.0	0.0	50.0
수출여부	수출있음	87.9	33.7	28.5	12.3
	수출없음	74.8	27.2	22.9	20.9
종사자수	50명미만	69.6	22.6	28.3	22.4
	50~100명미만	76.2	30.4	42.1	25.3
	100~200명미만	86.4	40.7	23.7	8.0
	200~300명미만	85.5	30.0	19.4	14.0
	300~500명미만	96.7	34.6	32.5	13.9
	500~1,000명미만	68.7	25.9	20.7	17.1
	1,000명이상	100.0	22.0	10.3	30.7
업력	0~7년미만	100.0	0.0	0.0	63.4
	7~20년미만	69.7	30.4	29.5	22.4
	20~30년미만	81.2	34.6	30.3	5.7
	30~40년미만	88.6	26.8	26.3	10.8
	40~50년미만	81.6	29.2	26.9	19.7
	50년이상	79.3	35.5	17.7	21.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3.3	42.8	20.9	4.2
	진입4~5년차	84.0	33.0	25.7	12.0
	진입6~9년차	78.5	27.4	27.0	16.1
	진입10년차이상	78.1	22.7	26.7	30.7
매출유형	B2B	81.0	29.8	26.9	15.2
	B2C	85.1	24.6	13.2	31.7
	B2G	72.2	62.0	39.7	0.0
상장	상장	87.5	25.9	22.4	19.5
	비상장	76.5	33.7	28.0	14.6

[표 2-113]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가업승계기업 421개사, 중복응답)

구분		사회적 인식저조	후계자 교육부족	금융기관 자금활용	기타	없음
전체		6.0	3.8	2.7	1.4	4.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6	3.0	2.6	0.7	5.3
	관계기업	11.2	6.9	3.1	4.1	0.0
업종	제조업	5.1	2.7	4.4	0.0	4.5
	비제조업	7.2	5.6	0.0	3.5	3.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6	0.0	0.0	0.0	16.1
	1백억원~5백억원미만	10.0	12.8	3.8	5.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4.2	4.9	0.0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	1.9	5.6	1.9	1.9
	2천억원~3천억원미만	2.9	0.0	0.0	0.0	2.9
	3천억원~5천억원미만	4.9	4.9	4.9	0.0	19.6
	5천억원~1조원미만	7.6	0.0	0.0	0.0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3.2	3.3	2.0	0.0	4.4
	수출없음	8.6	4.3	3.3	2.7	3.9
종사자수	50명미만	10.6	11.7	2.9	0.0	5.1
	50~100명미만	0.0	0.0	0.0	0.0	0.0
	100~200명미만	9.2	2.9	5.6	2.5	2.5
	200~300명미만	3.7	3.7	0.0	6.3	4.1
	300~500명미만	7.2	0.0	0.0	0.0	0.0
	500~1,000명미만	2.8	2.9	5.4	0.0	11.6
	1,000명이상	0.0	0.0	0.0	0.0	0.0
업력	0~7년미만	36.6	0.0	0.0	0.0	0.0
	7~20년미만	0.0	16.5	3.3	0.0	3.3
	20~30년미만	4.9	0.0	2.9	0.0	6.1
	30~40년미만	14.1	0.0	4.7	0.0	0.0
	40~50년미만	0.0	2.7	0.0	3.8	9.2
	50년이상	5.8	3.0	2.8	2.9	3.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9.6	0.0	3.9	0.0	0.0
	진입4~5년차	6.1	1.3	2.7	3.5	5.4
	진입6~9년차	2.3	6.6	2.9	0.0	4.3
	진입10년차이상	2.1	7.3	1.9	0.0	4.2
매출유형	B2B	5.4	3.9	3.2	0.6	5.0
	B2C	11.5	4.2	0.0	6.6	0.0
	B2G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2.4	2.5	2.4	1.2	5.1
	비상장	8.6	4.8	2.9	1.5	3.5

---

## 부 록. 설 문 지

---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주최 : 중소기업청  
주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수행 : 한국기업데이터

##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영에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사의 응답내용이 중견기업 시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담당자 : 중견기업정책과 이영순 주무관)
- 수탁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담당자 : 백장미 주임)
- 조사업체 : 한국기업데이터
- 설문제출 : 한국기업데이터

작성자 성명		작성자 소속/부서		작성자 직위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자 이메일	

※ 모든 설문은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응답

### A. 기업 일반현황

#### A1. 응답기업 기본정보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기업명	주생산업*																
기업주소																	

\* 주생산업 : 매출액 비중을 가장 높게 차지하는 생산업

#### A2. 대표자 정보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성별	① 남 ② 여	대표이사 출생년도	19__ __ 년도
대표이사 경영유형	① 창업자 ③ 전문경영인	② 승계자 ④ 기타	대표이사 전공*	① 공학계열 ③ 상경계열	② 자연과학계열 ④ 인문사회계열 ⑤ 기타

\* 공학계열 : 공대  
상경계열 : 경영·경제 계열  
자연과학계열 : 공대를 제외한 순수과학 계열  
인문사회계열 : 경영·경제를 제외한 어문 및 사회계열

B2B 거래	( )%	B2C 거래	( )%	B2G 거래	( )%
--------	------	--------	------	--------	------

## B.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1순위  2순위

- 1순위  2순위

- 1순위  2순위

- ### C. 기술혁신



**C2. 귀사의 2015년도 기술개발 방식별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자체(단독) 개발	외부기관과 공동개발*	외부기관 위탁개발	국내 기술도입	해외 기술도입	기술개발 해당없음	합계
활용비율	%	%	%	%	%	%	100 %

\*외부기관 : 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C3. 귀사의 2015년 R&D관련 정부지원사업(자금지원, 인력, 기자재, 보증서 활용 등) 활용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지원 R&D 사업 활용 경험	① 있다( )건	② 없다
-------------------	----------	------

**C3-1. (문 C3에 '②' 응답한 경우), 정부지원 R&D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심사업의 부재    ② 지원요건 복잡    ③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    ④ 관련정보 부족  
 ⑤ 지원했으나 미선정    ⑥기타(구체적으로 : )

**C4. 귀사의 현재(2015년 12월 31일 기준) 연구개발 조직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기업부설연구소    ②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조직 없고, 인력만 있음    ④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없음

**C4-1. (문 C4에 '①,②,③' 응답한 경우), 현재 귀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몇 명입니까?(명)**

\* 연구개발인력 : 연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

**C5.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서비스)은 세계최고 기술(서비스) 대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기술개발,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종인 경우 동종분야에서 귀사의 산업 경쟁력 수준 평가 요망

세계최고 기술(서비스)대비 수준	%
·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 : 100% 수준 ·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준 : 80%~100% 미만 ·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준 : 60%~80% 미만 · 국내시장에서도 범용적인 기술수준 : 60% 미만	

**C6.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5. 12. 31 기준)**

구분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국내	( )건	( )건	( )건	( )건
해외	( )건	( )건	( )건	( )건
합계	( )건	( )건	( )건	( )건

**C6-1. 귀사는 2015년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건    ② 아니오

**C6-2. (문 C6-1에 '①' 응답한 경우), 귀사의 지재권을 침해한 주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해외기업    ② 국내 대기업    ③ 국내 중견기업    ④ 국내 중소기업    ⑤ 기타( )

C7. 귀사는 지난 1년동안(2015년 1월~12월)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까?

① 예( )건

② 아니오 (☞ C8로 이동)

C7-1. (문 C7에 '①' 응답한 경우), 협력기관은 어디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

②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 투자기관포함)

③ 민간연구기관

④ 해외기업·기관

C8. 귀사는 지난 1년동안(2015년 1월~12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건

② 아니오 (☞ D1으로 이동)

C8-1. (문 C8에 '①' 응답한 경우), 기술이전처는 어디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

②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 투자기관포함)

③ 민간연구기관

④ 해외기업·기관

## D. 인재확보 [내국인근로자 기준]

D1. 귀사의 인력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5. 12. 31 기준, 내국인근로자 기준)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 )명	( )명	( )명	( )명

\* 정규직 : 고용계약에 고용기간이 기재되지 않음 / 비정규직 : 고용계약에 고용기간이 기재되어 있음

\* 인력 현황은 국내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 생산공장 등 해외 사업장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D2. 귀사의 2015년 채용실적 및 채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포함)

2015 채용실적	남성	명
	여성	명
2016 채용계획	남성	명
	여성	명

D3. 귀사의 2015년 신입사원 평균 초임 수준(보너스, 성과금 등 지급되는 모든 비용 포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 2015년 신입사원 채용이 없더라도 귀사의 일반적인 신입사원 급여 기준에 준하여 모두 응답 요망

구분	신입사원				
	박 사	석 사	대 졸	전 문 대 졸	고 졸
남성					
여성					
① 1,500만원 미만                      ②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③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④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⑤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⑥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⑦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⑧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⑨ 5,000만원 이상					

**D4. 귀사 인력의 재직연수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5. 12. 31 기준, 내국인근로자기준 )**

※ 문D1과 남녀 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남성					
여성					

**D4-1. 귀사 인력의 2015년 이직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비자발적 퇴사 포함, 내국인근로자기준)**

남성	( )명	여성	( )명
----	------	----	------

**D4-2. (문 D4-1에 응답한 경우)귀사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무엇입니까?**

<b>1순위</b>		<b>2순위</b>	
------------	--	------------	--

- ① 대기업 스카우트      ② 중견기업 스카우트      ③ 중소기업 스카우트      ④ 진학  
 ⑤ 자사 인원감축 ⑥ 낮은 임금 수준 ⑦ 복지 수준 불만 ⑧ 기타( )

**D5. 2015년 귀사가 보유한 적이 있는 인력을 모두 체크해주시시오.**

<b>대기업 정년퇴직인력</b>	① 있다( )명 ② 없다	<b>해외 전문인력</b>	① 있다( )명 ② 없다	<b>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b>	① 있다( )명 ② 없다
-----------------------	------------------	--------------------	------------------	------------------------	------------------

※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과 별개로 석사학력 이상의 연구직 병역특례자 임

**D6. 귀사 인력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스톡옵션      ② 직무발명제도      ③ 성과급      ④ 해외연수 또는 여행      ⑤ 승진      ⑥ 기타( )

**E. 국제화 촉진**

**E1. 귀사는 2015년 해외수출(직접, 간접수출 모두 포함) 실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E7로 이동)

**E2. 귀사의 2015년 주요 수출국가 및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금액이 큰 국가순으로 5순위까지 응답)**

구분	수출국가	수출금액(직접+간접)
1 순위		( )천불
2 순위		( )천불
3 순위		( )천불
4 순위		( )천불
5 순위		( )천불
수출총액 (1,2,3순위 지역을 포함한 모든 수출지역으로의 수출금액 합계)		직접수출 : ( )천불 간접수출 : ( )천불

\* 직접수출 : 해외 고객에게 직접 수출 / 간접수출 : 상사 등 중개업체를 통한 수출

\* 2015년 평균 환율 : 1달러 = 1131.5원

**E2-1. 2015년에 신규 진출한 국가가 있습니까?**

- ① 예(국가명 : / 수출금액 : 천불)      ② 아니오







## G. 금융 및 자금조달

### G1. 귀사의 2015년 전체 자금의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구 분	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기술개발자금	수출금융	기타( )	합 계
비 중	%	%	%	%	%	100 %

### G2. 귀사의 2015년 전체 자금(조달)원은 무엇입니까?

구 분	내부 유보자금	시중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	IPO (주식공개상장)	펀드 등 투자유치	정부정책자금* 활용	기타	합 계
비 중	%	%	%	%	%	%	%	100 %

\*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 비상장 기업의 주식 매매를 통한 자금조달, 사채등은 기타에 해당

### G3. 귀사가 외부 자금 조달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2015년 외부자금 조달이 없었더라도 외부 자금 조달시 겪는 일반적인 애로사항 응답 요망

1순위

2순위

- ① 금리상승      ② 복잡한 대출 심사      ③ 매출액 위주의 한도사정      ④ 보증서 위주의 대출  
⑤ 추가 담보요구      ⑥ 장기차입의 어려움      ⑦ 기타(구체적으로 : )

### G4. (문 G2 정책자금 활용 기준), 귀사는 2015년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H1으로 이동)

#### G4-1. (문 G4에 '①'에 응답한 경우), 기관별 활용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타	합 계
비 중	%	%	%	%	%	%	%	100 %

## H. 기업사회적 책임 등

### H1. 귀사는 2015년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백만원)      ② 아니오 (☞ H2로 이동)

#### H1-1. (문 H1에 '①'에 응답한 경우), 귀사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구 분	공익사업활동	기부/협찬활동	자원봉사활동	기타	합 계
비 중	%	%	%	%	100 %

· 공익사업활동 : 문화예술지원, 체육진흥, 교육/학습지원, 지역홍보, 지역행사지원, 지역공공시설 건립, 환경보호 등  
· 기부협찬활동 : 기부금/성금,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불우이웃돕기, 재해구호, 난민구호 등  
· 자원봉사활동 :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의료활동, 의료/보건/재활서비스 제공 등

## H2. 귀사는 가업승계\* 도입 또는 가업승계 계획중에 있습니까?

\* 가업승계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경영권(소유권)과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업이 정신을 승계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

- ① 가업승계 완료 또는 진행 중                      ② 가업승계 예정                      ③ 가업승계 계획 없음

### H2-1. (문 H2에 '①'에 응답한 경우),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2순위

- ①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                      ② 복잡한 지분구조                      ③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④ 후계자 교육 부족                      ⑤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 부족                      ⑥ 사회적 인식 저조  
 ⑦ 금융기관 자금 활용                      ⑧ 기타( )

#### \* 가업승계 요건

- 사전요건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대표이사 재직기간(가업기간 중 50% 등), 최대주주 등 지분 50% (상장 30%) 이상 보유 (상속인) 18세 이상,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배우자 동일)
- 사후요건 : ①상속인 가업종사(대표이사) 유지 ②10년간 상속지분 100% 유지 ③10년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 ④정규직 근로자수 10년간 평균 120%(중견기업) 유지

문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이영순 주무관 042-481-6816,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백장미 주임 02-3275-2108

♠ 수고하셨습니다. 귀사의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2016년 중견기업실태조사

---

2017년 1월 인쇄  
2017년 1월 발행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 042-481-6816  
팩스 : 042-481-6829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획총괄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4(도원빌딩)  
전화 : 02-3275-2108  
팩스 : 02-3275-2980

인쇄 : 경성문화사

---

